

한영  
대역

# 수궁가

## 바디별전집3

박봉술 바디 · 박초월 바디

Bak Bong-sul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Song Sun-seop)

Bak Cho-weol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Choe Nan-su)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수궁가바디별전집 3

2010년 11월 25일 인쇄

2010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4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 - 04810

978-89-5925- - (전4권)



수궁가  
바디별전집3

##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수궁가〉 여덟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수궁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수궁가〉와 〈유성준 바디 박복남 창 수궁가〉, 2권은 〈정웅민 바디 정권진 창 수궁가〉와 〈강도근 바디 강도근 창 수궁가〉, 3권은 〈박봉술 바디 송순섭 창 수궁가〉와 〈박초월 바디 최난수 창 수궁가〉, 4권은 〈정광수 바디 정광수 창 수궁가〉와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수궁가〉이다. 이만하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수궁가〉 바디를 망라하고, 같은 바디인데도 창자에 따라 다른 것까지 포괄하여 자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12권의 책과 석 장의 CD를 내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분

에 넘치는 칭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동시에 받았다. 칭찬을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질책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이 작업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울 뿐이다.

판소리 사설의 번역 작업은 다른 번역 작업에 비해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각종 고사와 지명, 인명에다가 우리 민속, 그리고 한시들과 지극히 한국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번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는 명제에 수긍은 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였다. 번역자들의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번역은 ‘자막 제작’이라고 하는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자막은 공연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위해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판소리를 부르는 시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상관 없이 원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게 번역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데 대한 질책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판소리 사설의 영어 번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일을 벌였다는 점을 해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번역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이 번역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번역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 번역이 훗날의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작은 디딤돌 노릇이라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명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다시 가을이 깊다. 이 작업을 시작한 후 네 번째 맞는 가을이다.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우리의 삶도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0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 차 례

■ 책머리에 • 4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11

### ★ 박봉술 바디 수궁가(송순섭 창)

1. 용왕 득병 .....	14
2. 도사 문병 .....	16
3. 약성가 .....	16
4. 토끼 간 처방 .....	20
5. 어전 회의 .....	22
6. 거북 천거 .....	24
7. 메기 추천 .....	26
8. 방개 자원 .....	28
9. 별주부 상소 .....	28
10. 토끼 화상 .....	30
11. 별주부 모친 만류 .....	34
12. 별주부 부인과 작별 .....	34
13-A. 송순섭(고고천변) .....	38
13-B. 정순임(고고천변) .....	42
14. 길짐승 상좌 다툼 .....	46
15. 너구리, 노루, 멧돼지의 상좌 다툼 .....	48
16. 토끼 등장 .....	52

17. 호랑이 등장 .....	52
18. 별주부 호랑이를 부름 .....	56
19.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	58
20. 별주부 통곡 .....	64
21-A. 송순섭 (별주부 목 내력) .....	66
21-B. 박봉술 (별주부 호랑이 축송) .....	70
22. 별주부 산신제 .....	76
23. 별주부 토끼 상면 .....	78
24. 토끼 홍미 자랑 .....	80
25. 토끼의 팔난 .....	86
26. 수궁 홍미 .....	92
27. 여우 만류 .....	94
28. 별주부 토끼 유인 .....	100
29. 범피중류 .....	108
30. 토끼 잡아들임 .....	112
31. 토끼의 피 .....	120
32. 수궁 풍류 .....	132
33. 토끼 방정 .....	136
34. 별주부 애원 .....	138
35. 토끼 생환 .....	142
36. 토끼 별주부 조롱 .....	144
37. 토끼 엉터리 약 처방 .....	146
38. 토끼 그물에 걸림 .....	150
39. 초동목수 신세타령 .....	154
40. 토끼 살아남 .....	156



41.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	162
42. 후일담 .....	170

**★ 박초월 바다 수궁가(최난수 창)**

1. 용왕 득병 .....	230
2. 도사 문병 .....	230
3. 약성가 .....	232
4. 토끼 간 처방 .....	236
5. 어전 회의 .....	238
6. 거북 천거 .....	240
7. 조개, 물메기 천거 .....	242
8. 방계 자원 .....	244
9. 별주부 자원 .....	246
10. 토끼 화상 .....	248
11. 별주부 모친 만류 .....	250
12. 별주부 부인 작별 .....	252
13. 고고천변 .....	254
14. 봉황새 상좌 다툼 .....	260
15. 까마귀와 부엉이의 상좌 다툼 .....	260
16. 길짐승 상좌 다툼 .....	264
17. 노루, 너구리의 상좌 다툼 .....	264
18. 토끼 등장 .....	266
19. 멧돼지 등장 .....	268
20. 조통달 (호랑이 등장) .....	268

21. 호랑이 내려옴 .....	272
22.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	274
23. 별주부 목 내력 .....	280
24. 산신제 .....	284
25. 별주부 토끼 상면 .....	286
26. 녹수청산 .....	290
27. 토끼의 험난한 생활 .....	296
28. 수궁 홍미 .....	300
29. 여우 만류 .....	304
30. 토끼 별주부 강가 당도 .....	308
31. 범피증류 .....	310
32. 토끼 잡아들임 .....	318
33. 토끼의 피 .....	322
34. 수궁 풍류 .....	334
35. 토끼 방정 .....	336
36. 별주부 애원 .....	340
37. 토끼 생환 .....	342
38. 토끼 별주부 조롱 .....	346
39. 토끼 그물에 걸림 .....	346
40. 초동목수 신세타령 .....	352
41. 토끼 살아남 .....	354
42.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	356
43. 후일담 .....	362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박봉술 바디 수궁가(송순섭 창)

Bak Bong-sul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Song Sun-seop)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잔치 후에 병을 얻어 나을 가망이 없자, 홀로 탄식을 한다.

[아니리] 세재<sup>1)</sup> 지정<sup>2)</sup> 갑신년 중하월<sup>3)</sup>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sup>4)</sup> 새로 짓고,

복일<sup>5)</sup> 대연<sup>6)</sup>을 배설<sup>7)</sup>할 제,<sup>8)</sup> 삼해<sup>9)</sup> 용왕을 청하니  
군신빈객<sup>10)</sup>이 천승만기<sup>11)</sup>라.

개성연어구중<sup>12)</sup>하고 격금고이영가<sup>13)</sup>로다.

주육<sup>14)</sup>에 잠기어 수삼일<sup>15)</sup>을 즐기더니,

남해 용왕이 해내열풍<sup>16)</sup>을 복중<sup>17)</sup>에 과히<sup>18)</sup> 쪼어

줄연득병<sup>19)</sup>하여 단무회춘지도<sup>20)</sup>하고, 난득명의지수<sup>21)</sup>이라.

명의<sup>22)</sup> 얻을 길이 바이없어,<sup>23)</sup>

용왕이 영덕전 높은 집에 벗 없이 홀로 누워 탄식을 하느니,

[진양조] 탐상<sup>24)</sup>을 탕탕 뚜다리며,<sup>25)</sup>

“천무열풍<sup>26)</sup> 좋은 시절 해불양파<sup>27)</sup> 태평한데, 국태민안<sup>28)</sup> 허건만은,

용왕의 기구<sup>29)</sup>로되 괴이한 병을 얻어 남해궁에 가 누웠은들,

어느 누구가 날 살려줄거나?

의약만세<sup>30)</sup> 신농씨<sup>31)</sup>와 화타,<sup>32)</sup> 편작,<sup>33)</sup> 노월인,<sup>34)</sup> 그러한 수단을  
만났으면 나를 구원하련만은,

이제는 하릴없구나.”

용궁이 진동하게 울음을 운다.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ill after a party He is not likely to recover, so he despairs.

[Aniri] In summer of a certain year,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builds a new palace.

He throws a party on a lucky day, inviting dragon kings of three seas.

There are numerous kings and officials with their carriages and horses.

Songs and drums enrich the big party.

They enjoy meat and wine for a few days.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overexposed his belly to the hot wind of the sea.

He suddenly gets ill, and there is no chance he will get well. A noted doctor is not available.

The dragon king sighs heavily alone in a high building in the palace.

[Jinyangjo] The dragon king pounds on the table.

“The people enjoy peace and prosper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I have come down with a strange disease in the palace of the South Sea.

Is there anyone to save me?

Famous ancient doctors - Shen Nong Shi(神農氏), Hua Tuo(華陀) and Bian Que(扁鵲) - could have saved me.

But I have no choice now.”

The dragon king's cry shakes the dragon palace.

## 2. (도사 문병)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왕의 병세를 살 핀다.

[아니리] 이렇듯이 설리 올 제,

천지가 어찌 무심하리오?

[옛모리] 현운,<sup>35)</sup> 흑운<sup>36)</sup>이 궁전을 뒤덮고,

표풍세우<sup>37)</sup>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선의도사<sup>38)</sup>가 학창의<sup>39)</sup>를 떨쳐입고<sup>40)</sup>

궁전으로 내려와 재배이진왈,<sup>41)</sup>

“약수삼천리<sup>42)</sup> 해당화 구경과 백운 요지연<sup>43)</sup>의 천년벽도<sup>44)</sup>를 얻으  
려고 가옵다가,

과약풍편<sup>45)</sup>에 듣자오니, 대왕의 병세<sup>46)</sup>가 만만위중타기로<sup>47)</sup> 뵈옵고  
저<sup>48)</sup> 왔나이다.”

## 3. (약성가) 도사가 온갖 약과 침법을 다 써도 용왕의 병세 가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리] 용왕이 반기허사,<sup>49)</sup>

“도사 이리<sup>50)</sup> 오시기는 하늘의 도움이라.

원컨대 도사는 황황한<sup>51)</sup> 나의 병세를 자세히 짐작하여 특효지약<sup>52)</sup>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가 두 팔을 걷고 용왕의 몸을 두루두루 만지더니,

뒤로 물러나 앉으며 병집증<sup>53)</sup>을 허는디,

[중모리] “대왕님의 중한 형체 인생과는 다른지라.

양각<sup>54)</sup>이 쟁영<sup>55)</sup>허여 말소리 뿔로 듣고,

턱 밑에 비늘이 거슬러 붙었기로 분을 내면 일어나고,



## **2. (A God Visits) A god comes down from heaven and diagnoses the dragon king.**

[Aniri] The dragon king sighs as said above.

How can heaven ignore him?

[Eonmori] Black clouds cover the palace.

A whirlwind blows and a drizzle comes down everywhere.

A god wearing blue clothes shows up.

He comes down to the palace, bows twice to the king, and speaks.

“I was on the way to see wild roses and a long river and to pick divine peaches by a legendary pond.

I heard Your Majesty has a serious illness. I’m here to see you.”

## **3. (Medicine Song) The god tries all sorts of medicines and needles, but the dragon king does not get better.**

[Aniri] The dragon king is delighted.

“You came here. Heaven must be helping me.

I want you to check my serious illness in detail and give me an effective prescription.”

The god unfolds his sleeves and touches many parts of the dragon king’s body.

He steps backward and diagnoses the disease.

[Jungmori] “Your Majesty’s precious body is different from that of human beings.

Your two horns are so high that you hear sounds with them.

One scale under your chin stands up when you get angry.

입 속의 여의주<sup>56)</sup>는 조화<sup>57)</sup>를 부리기로,  
 조화를 부리자면 하늘에도 올라가고,  
 몸이 작아지자 하거드먼<sup>58)</sup> 못<sup>59)</sup> 속에도 잠겨 있고,  
 용맹을 부리자면 태산을 부수고, 대해<sup>60)</sup>를 뒤집으니,  
 이 형체, 이 정상<sup>61)</sup>에 병환이 나겠으니,  
 인간으로 말하자면,”  
**[자진모리]** “간맥<sup>62)</sup>이 경동<sup>63)</sup>하야 복중<sup>64)</sup>에서 난 병이요,  
 마음이 슬프고 어둡기는 간경음화<sup>65)</sup>로 난 병이니,  
 약으로 논지<sup>66)</sup>하면,  
 주사,<sup>67)</sup> 영사,<sup>68)</sup> 구사,  
 웅담,<sup>69)</sup> 창출,<sup>70)</sup> 백출,<sup>71)</sup>  
 소엽,<sup>72)</sup> 방풍,<sup>73)</sup> 육계,<sup>74)</sup>  
 단사<sup>75)</sup> 차전<sup>76)</sup> 연실<sup>77)</sup>,  
 시호,<sup>78)</sup> 전호,<sup>79)</sup> 목통,<sup>80)</sup> 인삼,  
 가미육군자탕,<sup>81)</sup> 청서육화탕,<sup>82)</sup> 이원익기탕,<sup>83)</sup>  
 오가탕,<sup>84)</sup> 사물탕,<sup>85)</sup>  
 신농씨<sup>86)</sup> 백초약<sup>87)</sup>을 갖가지로 다 써도 효험 보지를 못하리다.  
 침으로 논지하면,  
 소상,<sup>88)</sup> 어제,<sup>89)</sup>  
 태연,<sup>90)</sup> 경거,<sup>91)</sup> 내관,<sup>92)</sup>  
 간사,<sup>93)</sup> 공손,<sup>94)</sup> 견우,<sup>95)</sup>  
 단중,<sup>96)</sup> 구미,<sup>97)</sup> 중완<sup>98)</sup>이며,  
 삼리,<sup>99)</sup> 절골,<sup>100)</sup> 신정,<sup>101)</sup>  
 사혈,<sup>102)</sup> 각각 다 주어도 회춘<sup>103)</sup>하지를 못하리다.”

A special ball in your mouth works out a miracle.  
 You can miraculously fly to the sky.  
 You can make yourself small and be immersed in a pond.  
 You are brave enough to destroy a large mountain and turn a  
 wide sea upside down.  
 You got a bad disease in this condition.  
 Let me speak in human terms.”  
**[Jajinmori]** “Your liver was shocked, so your illness occurred in  
 the belly.  
 Sad and gloomy feelings caused a problem in your liver.  
 Let me talk about medicines:  
 natural mercury, boiled mercury,  
 a bear’s gall bladder, an untangled root, a tangled root,  
 leaves, a dried root, a thick bark,  
 natural mercury, a seed, a lotus fruit,  
 grass, a grass root, a dry stem, some ginseng,  
 soup for blood, soup for the heart, soup for intestines,  
 bark soup, and hematic soup.  
 All sorts of medicinal herbs of Shen Nong Shi(神農氏) are tried  
 in vain.  
 Let’s talk about acupuncture spots:  
 the end of a thumb, the middle of a thumb,  
 a spot in the wrist, the nine spots in our body, another spot  
 in the wrist,  
 a spot in the arm, a spot in the foot, a spot in the shoulder,  
 a middle of a chest, a rib, a place above the navel,  
 a spot in the elbow, a spot in the ankle bone, a spot in the  
 head,  
 Needles on all the right places do not work.”

#### 4. (토끼 간 처방) 도사가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 용왕은 토끼를 구하기 어렵다며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아니리] “진세산간<sup>104</sup>)의 천년퇴간<sup>105</sup>)이 아니면,  
염라대왕이 동성<sup>106</sup>) 삼촌이요, 강림사자<sup>107</sup>)가 외사촌<sup>108</sup>) 남매간이라  
도, 신사이원<sup>109</sup>) 누루 황, 새암 천, 돌아갈 귀하겠소.”<sup>110</sup>)  
“어찌하여 신농씨 백초약은 약이 아니 되고, 그 조그마한 토간이 약이  
된단 말이오?”

도사 가로되,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라.

묘을손은 음목이요,<sup>111</sup>)

간진술은 양토<sup>112</sup>)오니,

어찌 상극<sup>113</sup>)이 아니오며,

갑인진손대강수<sup>114</sup>)요,

진간사산원속목<sup>115</sup>)이라.

목극토<sup>116</sup>)허고

수생목하였으니,<sup>117</sup>)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탄식을 허는디,

[진양조] 왕왕<sup>118</sup>) “연하다.<sup>119</sup>) 수연이나,<sup>120</sup>)

창망한<sup>121</sup>) 진세간의<sup>122</sup>) 벽해<sup>123</sup>) 만경 밖에,<sup>124</sup>) 백운이 구만 리요,<sup>125</sup>)

여산 송백<sup>126</sup>) 울울창창<sup>127</sup>) 삼천고분<sup>128</sup>)이 황제 묘인데,

토끼라 히는 짐승은 해외<sup>129</sup>) 일월의<sup>130</sup>) 밝은 세상, 백운청산<sup>131</sup>) 무정

처를<sup>132</sup>) 시비 없이<sup>133</sup>) 다니는 짐승을

내가 어찌 구하더란 말이오?

죽기는 쉽사와도 토끼는 구하지 못하겠으니,

달리 약명<sup>134</sup>)을 일러 주고 가옵소서.”

4. (Prescription of a Hare's Liver) The god prescribes a hare's liver. The dragon king asks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saying it is hard to get a hare's liver.

[Aniri] "But for a thousand-year-old hare's liver in the human world,

you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relative, and even if the Grim Reaper is your brother or cousin."

"How come Shen Nong Shi's(神農氏) medicines don't work, but a hare's little liver does?"

The god responds, "You are a dragon, and he is a hare.

Wood has negative energy.

Earth has positive energy.

They are incompatible.

A dragon is Wood.

A hare is Earth.

Wood overcomes Earth.

Earth and Wood create life together.

How can Hare's liver not be a medicine?"

The dragon king, who has been listening to him, is persuaded.

[Jinyangjo] The king speaks, "That makes sense.

But the human world is out of this sea, and far from here.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get one?

It's easier to die than to acquire a hare.

Please prescribe a different medicine for me."

## 5. (어전 회의)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하니, 온갖 물고기 들이 들어온다.

[아니리] 도사 가로되,

“대왕의 성덕<sup>135)</sup>으로 어찌 충의지신<sup>136)</sup>이 없으리까?”

말을 마친 후 하직코<sup>137)</sup> 두어 걸음 나가더니 인홀불견<sup>138)</sup>이라.

용왕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헌 후,

수부조정<sup>139)</sup> 만조백관<sup>140)</sup>을 일시에 들라<sup>141)</sup> 영<sup>142)</sup>을 내려노니,

우리 세상 같고 보면 일품<sup>143)</sup> 재상님네들이 들어오실 터인디,

수국<sup>144)</sup>이 되어 물고기 등물이<sup>145)</sup> 각기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sup>146)</sup> 들  
어오는다,

이런 가관<sup>147)</sup>이 없겠다.

[자진모리] 승상<sup>148)</sup>은 거북,

승지<sup>149)</sup>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sup>150)</sup> 오징어,

한림<sup>151)</sup> 박대,<sup>152)</sup>

대사성<sup>153)</sup> 도루묵,<sup>154)</sup>

방첨사<sup>155)</sup> 조개,

해운공<sup>156)</sup> 방개,<sup>157)</sup>

병사<sup>158)</sup> 청어,

군수 해구,<sup>159)</sup>

현감 홍어,

조부장<sup>160)</sup> 조기,

비변랑 낭청<sup>161)</sup> 장대,<sup>162)</sup> 성대,<sup>163)</sup>

교리<sup>164)</sup> 수찬<sup>165)</sup> 낙지 고등어,

지평<sup>166)</sup> 장령<sup>167)</sup> 청달이<sup>168)</sup> 가오리,

## 5. (Royal Meeting)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nd his subjects come.

[Aniri] The god speaks.

“There is sure to be a loya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After finishing speaking, the god says goodbye, takes a few steps, and suddenly disappears.

The king bows to the sky numerous times.

He orders all of his officials to come to the palace for a meeting.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But this is a sea world, so fishes come in according to their government titles.

That is quite a show.

[Jajinmori] A turtle is a minister.

A snapper is an advisor to the king.

A croaker is a minister.

An octopus is a recorder of history.

A shark is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shellfish holds a military officer.

A diving beetle is a ship captain.

A herring is a general.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 skate is a provincial head.

A yellow corbina is a military officer.

A sea robin and a purple fish are secret agents.

A small octopus and a mackerel are publishing officers.

A blue ray and a ray are inspecting officials.

금부나줄,<sup>169)</sup> 좌우 순령수,<sup>170)</sup> 고래 준치 해구<sup>171)</sup> 모조리,<sup>172)</sup>  
 원참군<sup>173)</sup> 남생이,<sup>174)</sup>  
 별주부<sup>175)</sup> 자라,  
 모래모자,<sup>176)</sup> 갈치, 준치,  
 멸치, 삼치, 미끈<sup>177)</sup> 배암장어,  
 좌수<sup>178)</sup> 자가사리,<sup>179)</sup> 가재, 개구리까지  
 영을 듣고, 어전에 입시<sup>180)</sup>하야 대왕으께 절을 꾸벅꾸벅하니,

## 6. (거북 천거) 토끼 간을 구해 올 신하로 용왕이 몇몇 신하 를 추천하니, 정언 잉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용왕이 이만허고<sup>181)</sup> 보시더니,  
 “어, 내가 이런 때는 수궁 용왕이 아니라, 팔월 대목장날<sup>182)</sup> 생선  
 전<sup>183)</sup> 도물주<sup>184)</sup> 되었구나.  
 경내<sup>185)</sup> 중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sup>186)</sup>의 병을  
 고치리오?”  
 좌우 제신<sup>187)</sup>이 어두귀면지줄<sup>188)</sup>하야  
 면면상고<sup>189)</sup>에 묵묵부답<sup>190)</sup>이어늘,  
 [중모리] 왕이 푹푹<sup>191)</sup> 탄식하되,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sup>192)</sup> 개자추<sup>193)</sup>와  
 광초망신 기신<sup>194)</sup>이는 죽을 임금을 살렸건마는,  
 우리나라는 능신<sup>195)</sup>이 있건마는, 어느 누가 날 살리리오?  
 승상<sup>196)</sup> 거북이 어떠하뇨?”<sup>197)</sup>  
 정언<sup>198)</sup> 잉어가 여짜오되,



A whale, a herring, a seal, and a gray mullet are soldiers.  
A freshwater tortoise is a training officer.  
A terrapin is an official.  
A freshwater fish, a hairtail, a herring,  
an anchovy, a mackerel, a slippery eel,  
a catfish, a crawfish, and a frog  
come to the palace at the king's order and bow to the king.

**6. (Recommendation of Turtle.) A carp, a minister,  
objects to the dragon king's recommendations of  
several subjects to get a hare's liver.**

[Aniri] The dragon king has been sitting back and watching his subjects.

"It looks like I am not a dragon king but a head merchant of the fish market before a big holiday.

Who will go out to the land and bring a hare to cure my disease?"

Subjects on the left and right are surprised.

Officials are silent, looking at each other's face.

[Jungmori] The king heaves a sigh.

"There are loyal subjects in other countries.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I have some loyal officials, but who can save me?"

How about the turtle, the minister?"

The carp, a minister, says,

“승상 거북은 지략<sup>199</sup>)이 너롭삽고<sup>200</sup>  
 복판<sup>201</sup>)이 모두 다 대모인 고로,<sup>202</sup>  
 세상에를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어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sup>203</sup> 밀이개살짝,<sup>204</sup> 탕건<sup>205</sup> 묘또기<sup>206</sup>)며, 주일쌈지<sup>207</sup>) 끈  
 까지 대모가 아니면은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방침사<sup>208</sup>) 조개가 어떠하뇨?”  
 “방침사 조개는 철갑<sup>209</sup>)이 꾀끗<sup>210</sup>)  
 방신제도<sup>211</sup>)는 종사오나,  
 옛 글에 이르기를, 관방홀지세하고 좌수어인지공이라.<sup>212</sup>  
 홀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펄펄 펄펄 날아 들어,  
 홀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홀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아니허다  
 어부 손에 다 잡히어 속절없이<sup>213</sup>) 모두 다 죽을 터이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 7. (메기 추천) 메기를 추천하자, 정언 잉어가 안 되는 이유 를 말한다.

[아니레] “아서라. 그러면 못 쓰겠다.  
 수문장 미어기<sup>214</sup>)가 어떠하뇨?”  
 [자진모리] 정언이 여짜오되,  
 “미어기는 장수구대<sup>215</sup>)하야 호풍신<sup>216</sup>)하거니와,  
 아가리<sup>217</sup>)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룬 고로,<sup>218</sup>  
 청림벽계<sup>219</sup>) 산천수<sup>220</sup>) 요기감<sup>221</sup>)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허델<sup>222</sup>) 제,  
 사립<sup>223</sup>) 쓴 어웅<sup>224</sup>)들이 사풍세우불수귀라,<sup>225</sup>) 입감<sup>226</sup>) 꿔어서 물  
 에 풍,

“The turtle is smart and knowledgeable.  
But his shell is used by humans as an ornament.  
If he goes out, humans will catch him and cut off his shell.  
His shell will be widely used to make such things as knife  
ornaments, tools, skullcaps, tobacco pouches, and cords.  
So we can’t send him there.”  
“How about a shellfish?”  
“His body is covered with hard shell.  
The shell protects his body.  
But an ancient book says a shellfish once fought with a snipe.  
The snipe flew at the shell fish vigorously.  
The snipe and the shellfish bit each other and refused to release  
each other.  
They were caught by a fisherman and died helplessly.  
So we can’t send the shellfish there.”

**7. (Recommendation of a Catfish) A catfish is recommended.  
The carp explains why the catfish may not go there.**

[Aniri] “Oh boy. The shellfish is not an option.  
How about the gatekeeper, the catfish?”  
[Jajinmori] The carp speaks.  
“The catfish looks good with a big mouth and long whiskers.  
But his mouth is so big that he needs a lot of food.  
He will wander around in streams on mountain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with baits  
into water.

탐식<sup>227</sup>)으로 덜컥 삼켜 단불요대<sup>228</sup>)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sup>229</sup>) 복질,<sup>230</sup>) 설사, 복통, 배 아픈 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 8. (방개 자원) 방개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자원하자, 용왕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한참 이리 혈 제,  
뜻밖에 해운공<sup>231</sup>) 방개<sup>232</sup>)란 놈이 열 발을 짝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  
오며,  
공손히 여짜오되,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오.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 벽계<sup>233</sup>) 산천수<sup>234</sup>) 가만히 잠신하여<sup>235</sup>) 천봉만학<sup>236</sup>)을 바라봐,  
산중토<sup>237</sup>) 월중토<sup>238</sup>) 안면<sup>239</sup>)이 있사오니,  
소신<sup>240</sup>)의 엄지발<sup>241</sup>)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sup>242</sup>) 집어다  
가 대왕전<sup>243</sup>) 바치리다.”

## 9. (별주부 상소) 별주부가 들어와, 토끼 간을 구해오겠다고 는 상소를 올린다.

[아니리] “너도 그럼 신<sup>244</sup>)이란 말이냐?”  
“물고기는 다 마찬가지요.”  
“어라, 저놈 보기 싫다. 두 엄지발만 뚝 떼어 내쫓아라.”  
공론<sup>245</sup>)이 미결할 제,<sup>246</sup>)

[진양조] 영덕전<sup>247</sup>)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The gluttonous catfish will bite the hook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as a medicine for dysentery, stomachache,  
diarrhea, and belly trouble.  
So we can't send him there."

**8. (A Crab Volunteers) A crab volunteers to go out and  
get a hare. The dragon king explains why the crab  
may not go there.**

[Aniri] Meanwhile,  
A crab, a ship captain, steps forward slowly with his ten legs  
wide open.  
He speaks politely.  
[Jungjungmori] "The land is my hometown.  
Immers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I watched  
numerous mountain peaks and valleys.  
I am familiar with a hare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I will grab the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9. (Terrapin's Formal Letter) Terrapin comes and  
presents a formal letter stating that he will bring  
a hare's liver.**

[Aniri] "Are you a subject too?"  
"All fish are subjects of the dragon king."  
"I don't like him. Cut his fore claws off and drive him away."  
Reactions are diverse.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은목단죽<sup>248</sup>)이요, 장경오혜<sup>249</sup>)로구나.

홍배<sup>250</sup>) 등에다 방패<sup>251</sup>)를 지고 앙금앙금<sup>252</sup>) 기어 들어와,

국궁재배<sup>253</sup>)허며 상소<sup>254</sup>)를 올리거늘,

**10. (토끼 화상) 별주부가 토끼 얼굴을 모르니 토끼 화상을  
그려달라고 하자, 용왕이 화공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  
리게 한다.**

[아니리] 떼어 보니, 별주부 자라라.

“너의 충성은 기특코 고마우나,

네가 세상에를 나가면 인간의 진미<sup>255</sup>)가 되어 왕배탕<sup>256</sup>)으로 죽는다니,  
그 아니 원통하냐?”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은 수족<sup>257</sup>)이 넷이라, 강상에<sup>258</sup>) 둥둥 높이 떠 망보기를 잘 하와  
인간의 봉패<sup>259</sup>)는 없사오나,

해중지소생<sup>260</sup>)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sup>261</sup>)만 하나 그려 주시면,

꼭 잡아다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글랑<sup>262</sup>) 그리 하여라.”

일등 화공<sup>263</sup>)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리는디,

[중중모리] “화사자<sup>264</sup>)를 불러라.”

화공을 불러 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홍연<sup>265</sup>) 금수추파<sup>266</sup>) 거북 연적<sup>267</sup>) 오징어로 떡 갈아,

양두화필<sup>268</sup>)을 덩벽<sup>269</sup>) 풀어 단청 채색<sup>270</sup>)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  
리 그린다.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comes in slowly with a cloth on his hard shell.  
He bows twice to the king and gives a formal letter to him.

**10. (A Picture of a Hare) Terrapin asks for a picture  
of a hare, saying that he has not seen one before.  
The dragon king calls an artist and has him draw  
a picture of a hare.**

[Aniri] The letter says that he is Terrapin.  
“I appreciate your loyalty.  
But if you go out, you will become terrapin soup, a great  
delicacy for humans.  
Isn’t that sad?”  
Terrapin answers,  
“Having four limbs I am good at seeing things on the surface  
of a river.  
I will not fall into a human’s trap.  
Born in this sea world, I haven’t seen a hare before.  
Please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me!  
I will bring a hare to Your Majesty without fail.”  
“I grant your wish.”  
An artist is called in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Jungjungmori] “Bring an artist here.”  
An artist comes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on the ink of various colors and  
moves the brush around.

천하명산승지간의<sup>271)</sup> 경개<sup>272)</sup>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sup>273)</sup>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 지초<sup>274)</sup> 온갖 향초<sup>275)</sup> 꽃 따 먹던 입 그리고,  
 봉래<sup>276)</sup> 방장<sup>277)</sup> 운무<sup>278)</sup> 중의 내<sup>279)</sup> 잘 말던 코 그리고,  
 대한<sup>280)</sup> 엄동<sup>281)</sup> 설한풍<sup>282)</sup> 방풍<sup>283)</sup> 하던 털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sup>284)</sup> 펄펄 뛰던 발 그리고,  
 신농씨<sup>285)</sup> 상백초<sup>286)</sup> 이슬 털던 꼬리라.  
 두 귀는 종긋,<sup>287)</sup>  
 눈은 도리도리,<sup>288)</sup>  
 허리는 늘씬,<sup>289)</sup>  
 뽕대이<sup>290)</sup> 묘뚝,<sup>291)</sup>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데,<sup>292)</sup>  
 녹수청산<sup>293)</sup>의 예굽은<sup>294)</sup> 장송,<sup>295)</sup> 휘늘어진 양류<sup>296)</sup> 속,  
 들랑날랑<sup>297)</sup> 오락가락  
 엉거주춤 기는 토끼  
 산중토<sup>298)</sup> 얼푯<sup>299)</sup> 그러,  
 아미산월이 반륜되,<sup>300)</sup> 이에서<sup>301)</sup> 더할쏘냐?  
 “아나, 옳다,<sup>302)</sup>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He draws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es and flowers,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the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and the tail which was shaking off the dewdrops from herbal  
plants.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eyes are round.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and willow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Hare moves back and forth.  
He crawls hesitantly.  
A mountain hare is quickly drawn.  
Hare in the pictur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go out.”

**11. (별주부 모친 만류) 별주부가 용왕께 하직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모친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별주부 화상 받아 덜미<sup>303</sup>)에다 집어넣고,  
사은숙배<sup>304</sup>)하고, 어주<sup>305</sup>) 삼배<sup>306</sup>) 얻어먹고  
본댁<sup>307</sup>)으로 돌아올 제,  
이때에 주부 모친이 있는디,  
자라라도 수수천 년<sup>308</sup>)이 되어 삶아도 먹지 못할 암자라 한 마리가  
있든가 보더라.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울며불며 못 가게 만류를 허는디,  
[진양조]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고 하니,  
무엇하러 가라느냐?  
세상이라 하는 데는 한번 가면 못 오느니라.  
장탄식<sup>309</sup>) 병이 든들 뉘<sup>310</sup>) 알뜰히 구환<sup>311</sup>)을 하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연<sup>312</sup>)의 밥이 된들,  
뉘<sup>313</sup>) 손뼉을 두드리며, 후여 처<sup>314</sup>) 달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나?  
위방불입<sup>315</sup>)이니 가지를 마라.”

**12. (별주부 부인과 작별) 별주부가 화를 내는 부인에게 남 생이를 조심하라고 이른다.**

[아니리] 별주부 여짜오되,  
“나라<sup>316</sup>)에 환후<sup>317</sup>)가 계셔 약 구하러 가는 길이오니,

**11. (Terrapin's Mother Stops Terrapin.) Terrapin says  
goodbye to the dragon king and goes home. His  
mother cries, telling him not to go to the land.**

[Aniri] Terrapin takes the picture and puts it in the back of his neck.

Terrapin says good-bye to the king, taking three glasses of wine from him.

He goes back home.

His mother is at home.

She is a female terrapin thousands of years old, so she is not edible even if she is cooked.

She heard that Terrapin was going to the land.

She bursts into tears and tries to stop him from going there.

[Jinyangjo] "Hello, Terrapin. Hello, my son.

I've heard you are going to the land.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The land is a place of no return.

When I am sick, who will take care of me?

I might die and fall prey to crows and kites.

Who will clap his hands and shout to drive the birds away?

A dangerous foreign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12.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lling her to watch out for  
a tortoise.**

[Aniri] Terrapin responds,

"The king is ill, so I am leaving to get a medicine.

너무 심려치<sup>318)</sup> 마옵소서.”  
 별주부 모친이 이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래며,  
 “기특타, 내 아들이.  
 충성이 지극하면 죽는 법이 없느니라.  
 수로 육로 이만 리를 부디 무사히 잘 다녀오너라.”  
 배별<sup>319)</sup>하고 침실로 돌아오니,  
 그때에 주부 마누라가 있는디,  
 이놈이 어디로 장가를 들었는고 허니,  
 소상강<sup>320)</sup>으로 장가를 들었든가 보더라.  
 택호<sup>321)</sup>를 부르며 나오는다,  
 “아이고, 여보. 소상강나리.  
 세상에를 가신다니, 당상<sup>322)</sup>의 백발 모친 어찌 잊고 가라시오?”  
 “오냐, 네가 아이고지고 운다마는, 내가 너를 못 잊고 가는 일이 있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으오?”  
 “저 우리집 뒤 진털밭<sup>323)</sup> 남생이<sup>324)</sup>란 놈이 제 조<sup>325)</sup>에 덧불임 사  
 촌<sup>326)</sup>이라고,  
 생김생김이 꼭 나와 방사하니<sup>327)</sup> 생겨가지고,  
 나 없는 기색만 보면 불곰불곰<sup>328)</sup> 자주 다니는 게 암만해도 내 구  
 땅<sup>329)</sup>에 수상하단 말여.  
 혹시 어두컴컴할 때 그놈 오드래도 임자<sup>330)</sup>는 냄새를 맡아보소.  
 그놈 몸에서는 노랑내<sup>331)</sup>가 나고, 내 몸에서는 꼬순내<sup>332)</sup>가 나니,  
 글로<sup>333)</sup> 징험<sup>334)</sup>하야 부디 조심해 잘 자렷다.”<sup>335)</sup>  
 단단히 단속 후에, 수정문<sup>336)</sup> 밖 썩 나서서  
 세상 경개<sup>337)</sup>를 살피고 나오는다, 꼭 이렇게 나오든가 보더라.

Don't worry about me."

Terrapin's mother is surprised after hearing him.

"How praiseworthy you are, my son!

If you are extremely loyal to the king, you will not die.

Come back in one piece from the long journey in the sea."

After saying goodbye to her, he goes to his bedroom.

Terrapin's wife is in the bedroom.

Let me tell you about his wife's family.

His wife is from Xiaoxiang River(潇湘江).

She comes to him, calling his name associated with her family.

"Hello, Xiaoxiang(潇湘) master.

How can you go to the land, leaving your old mother behind?"

"You seem to feel sad, but there is one thing that concerns me."

"What concerns you?"

"A tortoise who lives on a field with long grass behind our house is my cousin.

To speak about this appearance, he resembles me.

I am suspicious of him because he gets in and out of my house secretly when he thinks I am not here.

In case he comes to you in darkness, please smell him.

His body gives off unpleasant smell, and mine pleasant one.

Identify the smell and have a good sleep."

After putting that point in his wife's mind, Terrapin goes out through the crystal gate.

On the way to the land, he sees the beautiful landscape as follows.

### 13-A. (송순섭)(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고고천변일륜홍<sup>338</sup> 부상<sup>339</sup>에 높이 떠,  
양곡<sup>340</sup>의 잣인<sup>341</sup> 안개 월봉으로<sup>342</sup> 돌고 돌아,  
예장촌<sup>343</sup> 개 짓고,  
회안봉<sup>344</sup> 구름이 떴구나.  
노화<sup>345</sup>는 다 눈 되고,<sup>346</sup>  
부평<sup>347</sup>은 물에 등실,  
어룡<sup>348</sup>은 잠들고,  
자고새<sup>349</sup> 펼 펼 날아  
동정여천의 파시추<sup>350</sup> 금수추파<sup>351</sup>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sup>352</sup>를 찍어 당겨, 뒷발로 창랑<sup>353</sup>을 탕탕.  
이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sup>354</sup> 등실 높이 떠 사면 바라보니,  
지광<sup>355</sup>은 칠백 리요,  
파광<sup>356</sup>은 천일색인디<sup>357</sup>  
천외무산십이봉<sup>358</sup>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 소상<sup>359</sup>은 일천 리 안하의<sup>360</sup> 경개라.  
오초는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여 일야에 등실 솟았다.<sup>361</sup>  
낙포<sup>362</sup>로 둥둥 가는 배,  
조각달 무관수의<sup>363</sup> 초 회왕<sup>364</sup>의 원혼이요,  
강안<sup>365</sup>에 굴농<sup>366</sup>허니 황금이 천편,<sup>367</sup>  
노화<sup>368</sup>는 풍기<sup>369</sup>로 백설<sup>370</sup>이 만점.<sup>371</sup>  
시상칠택의 영전오, 규월삼상은 성락초라.<sup>372</sup>

13—A. (Song Sun-seop)(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rise valley moves around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beautiful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Numerous tangerines on the bank are mature, looking like gold.  
Numerous reed flowers fall down in the wind like snow.  
At frosty night a shadow of wild goose in the seven ponds  
reaches Wu(吳) country, and at bright night a cry of it on the  
three lakes reaches Chu(楚) country.

북방 소식의 저 기러기는 천외고성의 만리변,<sup>373)</sup>  
 웅웅성<sup>374)</sup>을 섰돌아<sup>375)</sup> 대하<sup>376)</sup>를 다 버리고,  
 청림<sup>377)</sup> 벽계<sup>378)</sup> 산천수<sup>379)</sup> 모래 속에 가만히 었져<sup>380)</sup> 천봉만학<sup>381)</sup>  
 을 바라봐.  
 만경대<sup>382)</sup> 구름 속 학선<sup>383)</sup>이 울어 있고,  
 칠보산<sup>384)</sup> 비로봉<sup>385)</sup> 허공에 솟아,  
 계산과무울차야<sup>386)</sup> 산은 칭칭칭<sup>387)</sup> 높고,  
 경수무풍야자과<sup>388)</sup> 물은 풍풍풍<sup>389)</sup> 깊고,  
 만산<sup>390)</sup>은 우루루루루루루,<sup>391)</sup>  
 국화는 점점, 낙화<sup>392)</sup>는 동동,<sup>393)</sup>  
 장송은 낙락,<sup>394)</sup> 벽파<sup>395)</sup>는 뚝뚝,<sup>396)</sup>  
 다래몽동,<sup>397)</sup> 칩년출,<sup>398)</sup> 머루, 다래,  
 으름년출,<sup>399)</sup> 능수버들이, 벗남기,<sup>400)</sup>  
 오미자, 치자, 감자,<sup>401)</sup> 대추,  
 잣은 과목<sup>402)</sup>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sup>403)</sup> 칭칭 감졌다.  
 천 리 시내<sup>404)</sup>는 청산으로 들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꺾꺾,<sup>405)</sup>  
 열의 열두 골 물이 한 테로 합수져,<sup>406)</sup>  
 천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sup>407)</sup> 방울이 버름져,<sup>408)</sup>  
 건너 병풍석<sup>409)</sup>에다 마주 팡팡 마주 때려,  
 대해수중<sup>410)</sup>으로 내려가느라고, 버름<sup>411)</sup>이 북쩍,<sup>412)</sup>  
 울렁거려<sup>413)</sup> 뒤뚱, 워르르르르 꺾꺾 뒤뚱그러져,<sup>414)</sup> 산이 울렁거려  
 떠내려간다.  
 어기야, 어기야.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sup>415)</sup>



A wild goose brings a message from a lonely castle in the north frontier.

Terrapin turns around the sound of the wild goose and leaves the big river behind.

He hides himself in the sands of a blue stream in a forest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the sound of blue water waves,  
stumpy vines,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persimmon,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firmly and riotous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A long stream flows around green mountains.

Flowing water makes sound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Yo-heave-ho.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갈매기, 해오리,<sup>416)</sup> 너수,<sup>417)</sup>  
징경이,<sup>418)</sup> 아옥따옥, 소탕이<sup>419)</sup> 쑥국,  
경기<sup>420)</sup> 뚜루루, 호반새<sup>421)</sup> 수리루, 호연장대<sup>422)</sup> 날아든다.  
아주 펄펄 날아든다.

### 13-B. (정순임)(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보니, 세 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고고천변일륜홍<sup>423)</sup> 부상<sup>424)</sup>에 높이 떠,  
양곡<sup>425)</sup>의 잣은<sup>426)</sup> 안개 월봉으로<sup>427)</sup> 돌고돌아,  
어장춘<sup>428)</sup> 개 짓고,  
회안봉<sup>429)</sup> 구름이 떴구나.  
노화<sup>430)</sup>는 다 눈 되고,  
부평<sup>431)</sup>은 물에 등실,  
어룡<sup>432)</sup>은 잠자고,  
자교새<sup>433)</sup>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에파시추<sup>434)</sup> 금성추파<sup>435)</sup>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sup>436)</sup>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랑<sup>437)</sup>을 탕탕.  
요리 저리, 저리 요리,  
양금<sup>438)</sup> 등실 떠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sup>439)</sup>은 칠백리,  
파광<sup>440)</sup>은 천일색이라.<sup>441)</sup>  
천외무산십이봉<sup>442)</sup>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 소상<sup>443)</sup>은 일천 리 눈 앞의 경개라.<sup>444)</sup>  
오초는 어이하야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여 일야에 등실 떠,<sup>445)</sup>

Seagulls, white herons,  
ospreys, crested ibises, terrapindoves,  
kingfishers, and other birds fly in vigorously.  
They come enegetically.

### 13—B. (Jeong Sun-im)(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 valley moves around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he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beautiful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남훈전<sup>446)</sup> 달 밝은디 오현금<sup>447)</sup>도 끊어지고,  
 낙포<sup>448)</sup>로 등등 가는 저 배,  
 쪼각달 무관수의<sup>449)</sup> 초 회왕<sup>450)</sup>의 원혼<sup>451)</sup>이오.  
 모래 속에 가 잠신하야<sup>452)</sup> 천봉만학<sup>453)</sup>을 바라보니,  
 만경대<sup>454)</sup> 구름 속 학선<sup>455)</sup>이 울어 있고,  
 칠보산<sup>456)</sup> 비리봉<sup>457)</sup>은 허공에 솟아  
 계산과무울차아,<sup>458)</sup> 산은 칭칭칭<sup>459)</sup> 높고,  
 경수무풍야자과<sup>460)</sup> 물은 풍 풍 깊고,  
 만산<sup>461)</sup>은 우루루루루루루,<sup>462)</sup>  
 국화는 점점, 낙화<sup>463)</sup>는 동동,<sup>464)</sup>  
 장송<sup>465)</sup>은 낙락,<sup>466)</sup> 늘어진 잡목,  
 평피진<sup>467)</sup> 떡갈, 다래몽동,<sup>468)</sup>  
 칩년출,<sup>469)</sup> 머루, 다래,  
 으름년출,<sup>470)</sup> 능수버들, 뱃남기,<sup>471)</sup>  
 오미자, 치자, 감, 대추,  
 갯은<sup>472)</sup> 과목<sup>473)</sup>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sup>474)</sup> 칭칭 감졌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sup>475)</sup>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sup>476)</sup> 원앙새,  
 강상<sup>477)</sup>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sup>478)</sup>  
 소호천자 기관허던<sup>479)</sup> 만수문전의<sup>480)</sup> 봉황새,  
 양양창과점점동<sup>481)</sup> 사랑흠다<sup>482)</sup>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sup>483)</sup>  
 목포리, 해오리, 너수,<sup>484)</sup> 징경새,<sup>485)</sup> 아옥따옥<sup>486)</sup> 요리 저리 날아  
 들 제,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on the bright moon.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a wide oak trees, stumpy actinidia argutas,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persimmon,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firm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a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river,

crows and magpies which form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come from different places.

또 한 경개<sup>487)</sup>를 바라보니,  
 치어다보니 만학천봉이요,<sup>488)</sup>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땅.<sup>489)</sup>  
 에구부러진<sup>490)</sup> 늙은 장송<sup>491)</sup> 광풍<sup>492)</sup>을 못 이기어 우줄우줄<sup>493)</sup> 춤을  
 출 제,  
 시내 유수<sup>494)</sup>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루, 저 골 물이 쫘쫘,<sup>495)</sup>  
 열의 열두 골 물이 한테로<sup>496)</sup> 합수쳐,<sup>497)</sup>  
 천방자 지방자 월턱져 구부져,<sup>498)</sup> 방울이 버름져,<sup>499)</sup>  
 건너 평풍석<sup>500)</sup>에다 마주 팡팡 마주 때려,  
 대해수중<sup>501)</sup>으로 내려가느라고 버름<sup>502)</sup>이 북적,<sup>503)</sup>  
 울렁거려<sup>504)</sup> 뒤틀어, 우르르르르렁 쫘쫘 뒤둥그러져<sup>505)</sup> 산이 울렁거  
 러 떠나간다.  
 어디메로<sup>506)</sup> 가잔 말?<sup>507)</sup> 아마도 예로고나,<sup>508)</sup>  
 요런 경개가 또 있나?  
 아마도 예로구나,  
 요런 경개가 또 있나?

#### 14. (길짐승 상좌 다툼) 별주부가 한 편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한다.

[아니리] 그 때에 별주부는 해변가 당도하여  
 운층경<sup>509)</sup> 기어올라 사면 경개를 살펴보니,  
 그때 마침 산골짜기에 온갖 길짐승<sup>510)</sup>들이 모여드는디,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A stream turns around a green mountain.  
Flowing water mak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This is the scenery we have been looking for.  
What a spectacle this is!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this is!

**14. (Four-legged Animals Fight for the High Seat).**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that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Meanwhile, Terrapin arrives at the beach.  
He crawls up through clouds and looks around.  
Just then,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gathered together from  
different valleys.

이런 가관<sup>511</sup>)이 없겠다.

[중모리] 공부자<sup>512</sup>) 작춘추에<sup>513</sup>) 절필<sup>514</sup>)하던 기린이며,<sup>515</sup>)

삼군삼영<sup>516</sup>) 거동시에<sup>517</sup>) 천자 옥련<sup>518</sup>)의 코끼리,

옥경선관<sup>519</sup>) 승필<sup>520</sup>)하던 풍채 좋은 사자로구나.

서백<sup>521</sup>)의 위수<sup>522</sup>) 사냥 비웅비표<sup>523</sup>) 곰이라.

창해박랑사중 저격시황<sup>524</sup>) 저 다람이,<sup>525</sup>)

강수동류원야성<sup>526</sup>)에 슬피 우는 저 잔나비,<sup>527</sup>)

피 많은 여우,

날랜 토끼,

털 좋은 너구리,

산피,<sup>528</sup>) 돈피,<sup>529</sup>) 날담비,<sup>530</sup>) 길담비,<sup>531</sup>)

늑대, 오소리, 산돼지

등물<sup>532</sup>) 양금양금 내려오더니 상좌다툼<sup>533</sup>)을 하는구나.

## 15. (너구리, 노루, 멧돼지의 상좌 다툼) 너구리, 노루, 멧돼지가 상좌에 앉으려고 다툰다.

[아니리] “자, 우리가 연년이<sup>534</sup>) 한 때씩 이렇게 모아 노는 잔치에 상좌가 없어 문란하니,

금년부터는 연치<sup>535</sup>) 찾아서 상좌<sup>536</sup>)를 정하고 놀이 어떠하오?”

좌중<sup>537</sup>) 짐승들이 이구동성<sup>538</sup>)으로 그 말이 옳다고 하니,

“그럼 저기 달파총<sup>539</sup>)은 언제 났소?”

너구리가 좋아라고,



This is quite a show.

[Jungmori]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king came across a competent subject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A squirrel watched someone try to kill a king.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 fox is sly.

A hare is fast.

A raccoon has great fur.

A jumping marten with a good hide, a crawling marten with a good hide,

a wolf, a badger, a wild pig,

and so forth slowly gather together and compete for the high seat.

## 15. (A Roe Deer, a Raccoon, and a Wild Pig's Quarrel)

A roe deer, a raccoon, and a wild pig fight for the high seat.

[Aniri] "We have a party here every year, but we are in disorder because there is no boss.

From this year on, let's select our boss in accordance with seniority."

All the animals in the party agree with the proposal.

"Mr. Raccoon, when were you born?"

The raccoon is delighted.

**[중모리]** “기경상천<sup>540</sup>) 이태백이 날과 함께 동접<sup>541</sup>)하여 광산<sup>542</sup>) 십  
 년 글을 짓다가,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sup>543</sup>)으로 상천<sup>544</sup>)하고,  
 나는 미물<sup>545</sup>) 둔재라, 이리 미천허게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sup>546</sup>)이니  
 내가 상좌를 못하겠나?”  
**[아니리]** 노루란 놈이 나서드니,  
 “달과충은 내 자식 낫세<sup>547</sup>)만도 못하시오.”  
 “그럼 장도감은 언제 났소?”  
 노루가 좋아라고 새다리같은 뿔을 뒤로 발딱 제치고 나았더니,  
**[진양조]** “동작대<sup>548</sup>) 좋은 집에 좌편은 옥룡각<sup>549</sup>)이요, 우편은 금봉  
 루<sup>550</sup>)라.  
 이교녀<sup>551</sup>)에 뜻을 두고,  
 조자건<sup>552</sup>)이 글을 지어, 동작대 부운하던<sup>553</sup>)  
 조맹덕<sup>554</sup>)의 연갑<sup>555</sup>)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아니리]** 멧돌<sup>556</sup>)이 꺼시럭눈<sup>557</sup>)을 끄적끔적<sup>558</sup>)하고 나았더니,  
 “장도감은 내 손자 낫세만도 못하시오.”  
 “그럼 제중군<sup>559</sup>)은 언제 났소?”  
 멧돌이 좋아라고,  
**[중중모리]**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나는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sup>560</sup>)에 사신 갔다  
 주린 충절 십구년에 수발이 진백하여<sup>561</sup>)  
 고국산천 험한 길로 허유허유<sup>562</sup>) 돌아오던  
 소중량<sup>563</sup>)의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Jungmori] Li Bai(李白) wrote poems with me for ten years and  
flew up to heaven, riding a whale.

He was such a talented man that he ascended to the capital city  
of heaven.

Being an animal, I am dumb and humble here.

I am as old as the poet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niri] A roe deer steps forward.

"Mr. Raccoon you are younger than my child.

"Mr. Roe Deer, when were you born?"

Delighted, the roe deer sits down, leaning his slim antlers back.

[Jinyangjo] "A pavilion was built on the left and a tower on the  
right of a house.

Cao Cao(曹操) had two girls in his mind.

He told his son to write a poem about the pavilion.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niri] A wild pig steps forward, blinking his thorny eyes.

"Mr. Roe Deer, you are younger than my grandchild."

"Mr. Wild Pig, when were you born?"

The wild pig is pleased.

[Jungjungmori] "Folks, listen to this story about my age.

Su Zhong Lang(蘇中郎) of Han(漢) dynasty visited an enemy  
country as a diplomat.

His life was hard but he remained loyal to his country for 19  
years, and his hair became gray.

He made an arduous journey back to his country.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16. (토끼 등장) 토끼가 나서며 자신이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토끼란 놈이 깡깡 뛰어 나왔더니,  
“에라, 이놈들. 너희들 나이를 들어보니,  
모두 다 내 고손자<sup>564</sup> 낫세만도 못허구나.”  
“그럼 토선비는 언제 났소?”  
토끼란 놈이 좋아라고,  
[중중모리] “한 광무<sup>565</sup> 시절에 간의대부<sup>566</sup>를 마다하고,  
부운<sup>567</sup>으로 차일<sup>568</sup> 삼고, 청학으로 이웃 삼아,  
동강 칠리탄<sup>569</sup> 고기 낚기 힘써 하던  
엄자룻<sup>570</sup>의 시조하고<sup>571</sup> 날과 둘이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17. (호랑이 등장) 이 때 굶주린 호랑이가 등장하니, 여러 짐승들이 두려워 떨며 호랑이를 상좌로 모신다.**

[아니리] “그러면 퇴선비가 상좌에 앉으시오.”  
토끼를 상좌에 앉혀놓고,  
다담상<sup>572</sup>을 올렸것다.  
그때 마침 저 아래서 여러 날 굶은 범 한 마리가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한 마리 잡아 먹을꼬?’하고,  
눈에다 불을 별건히<sup>573</sup> 쓰고,<sup>574</sup>  
을썸을썸<sup>575</sup> 올라오다가  
마침 이 맛진통<sup>576</sup>을 만났구나.  
‘어흥 으르르르르’하고 달려드니,

**16. (A Hare Turns Up.) A hare shows up and explains  
why he deserves the high seat.**

[Aniri] A hare jumps up and sits down.

“You fools, I have been listening to your ages.

You are all younger than my grandchild’s grandchild.”

“Mr. Hare, when were you born?”

Hare is excited.

[Jungjungmori] “Yan Zi Ling(嚴子陵) declined the offer of a government position in ancient times.

He instead took clouds as a parasol and blue cranes as his neighbors.

He engrossed himself in fishing in a river.

The fishing man and I are of the same age.

Isn’t the high seat mine?”

**17. (A Tiger Comes Out.) When a hungry tiger shows  
up, the animals shudder and yield the high seat to  
him.**

[Aniri] “Mr. Hare, you can sit on the high seat.”

Hare sits on the high seat.

A meal table is offered to him.

Just then, a tiger who went hungry for days thinks, ‘Where can I eat an animal?’

His eyes are glaring.

He comes up, seen and unseen.

He comes across the delicious animals.

He roars as he runs at them.

좌중 짐승들이 깜짝 놀래,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렇게 오시오?”  
 “오냐. 너희들 잡아먹으러 왔다.  
 내가 시장해서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꼬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한 놈도 안 보이더니,  
 요것들이 모도 여기 모여 노니라고 한 놈도 안 보였구나.  
 현대 너희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노느냐?”  
 “예. 상좌 삼을려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야, 그 잔치 썩 잘 시작했구나.  
 그제 너희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내 잔치로구나.  
 그제 상좌는 어느 놈이 했는고?”  
 “예. 저기 토끼가 상좌를 했소.”  
 “어라,<sup>577)</sup> 이놈들.  
 차산중<sup>578)</sup> 어른은 내가 긴디,<sup>579)</sup>  
 너희들끼리 선생이니, 후생<sup>580)</sup>이니 해야,<sup>581)</sup> 이놈들?”  
 “그럼 장군님은 언제 났소?”  
 호랑이가 좋아라고,  
**[중모리]**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봐라.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라.  
 혼돈미분태극초<sup>582)</sup>에  
 가없이<sup>583)</sup> 너룬<sup>584)</sup> 하늘 한편 짝이 모자라서,  
 광석<sup>585)</sup> 다듬어 하늘을 때우던 여왜씨<sup>586)</sup> 연갑이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어흥 으르르르르.”  
 하고 달려드니, 좌중 짐승들이 깡깡 뛰면서,  
 “장군님, 상좌에 앉으시오.”

All the animals are petrified.  
 “General, where have you been?”  
 “You rat. I am here to eat you.  
 Because I was hungry, I wandered around to hunt down an  
 animal.  
 I looked hard around but couldn’t see an animal.  
 Nobody was seen because you were all here.  
 What on earth are you up to here?”  
 “We are selecting a boss in this party.”  
 “I am glad you started this party.  
 This party is not for you but for me.  
 Who took the high seat?”  
 “That hare took the high seat.”  
 “You villains.  
 In this mountain, I am the strongest.  
 How dare you set me aside and talk about who is older and  
 younger?”  
 “When were you born, general?”  
 The tiger is joyful.  
**[Jungmori]** “You fools. Listen to this story about my age.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 things were in chaos.  
 The sky was vast, but the half of it was destroyed.  
 I am as old as Nu Wa Shi(女媧氏) who fixed the sky with iron  
 ore.  
 Aren’t I the oldest?  
 Let me eat you.”  
 The tiger goes at the animals, who step back.  
 “General, the high seat is yours.”

18. (별주부 호랑이를 부름) 별주부가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이 발음을 잘못하여 호생원을 부르니, 호랑이가 듣고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리] 퇴끼가 깡창 뛰어 나왔더니,  
“장군님은 간밤에 까서,<sup>587)</sup> 부뚜막에 말려서 나왔드래도 상좌에 앉으  
시오.”  
호랑이가 상좌에 덜렁<sup>588)</sup> 올라앉더니,  
“이놈들, 딸씩딸씩<sup>589)</sup> 하지 마라.  
오늘 신수<sup>590)</sup> 불길한 놈, 한 놈 절판나리라.”<sup>591)</sup>  
그 중에 살찐 놈 네 놈이 있어 걱정을 하느니,  
“아이고, 이 급살맞을<sup>592)</sup> 놈의 잔치 마자마자 해도 꼭 시작허더니마는,  
우리 네 놈 총중<sup>593)</sup>에 한 놈은 저놈 아가리에 약가심<sup>594)</sup>으로 들어가  
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쩔꼬나?”  
한참 이리 걱정을 하고 있을 적에,  
그때 저 아래서 별주부가 이 구경을 하고 있다가,  
‘저렇게 짐승들이 많이 모여 노는 데는 응당 토끼가 끼었을 테니, 한  
번 불러볼 수밖에 없다’ 하고  
퇴끼를 부르느니,  
‘저기 저, 몸 얼썩덜썩,<sup>595)</sup> 꼬리 묘뚝하고, 입술이 빨간 게 토생원 아  
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만 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뺏뺏하야  
한 등<sup>596)</sup>을 턱 낮춰, 퇴 자가 호 자로 살짝 변했던가 보더라.  
“저기 저, 퇴 퇴, 호생원!” 하고 불러노니,  
호랑이가 그 산중에서 생원<sup>597)</sup> 말 듣기는 금시초문<sup>598)</sup>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18. (Terrapin Calls the Tiger.) Terrapin mistakenly calls the tiger instead of Hare.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Aniri] Hare steps forward fast.

“General, the high seat is yours even if you were born yesterday.”

The tiger sits on the high seat fast.

“You rats. Don’t move your body.

An unlucky one of you will die today.”

Four plump animals are worried about himself.

“I objected to this damn party, but they insisted on throwing it. A chubby one of us will go into that villain’s mouth to chase the bitter taste of the medicine.

What should we do?”

The chubby one worries about himself as I’ve already said.

Terrapin has been watching the animals.

“That many animals are having fun there. There must be a hare. I have no choice but to call him.”

He calls Hare.

He intended to say “Hi, there. You mottled one. You with short tail and red lips. Aren’t you Mr. Hare?”

His lower jaw is stiff because he pushed water with it to travel thousands of miles.

He slightly mispronounced hare’s name.

He says, “Hi, there. Mr. Tiger!”

This is the first time the tiger is addressed with such respect. Pleased, he comes down.

[엇모래]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sup>599</sup>) 깊은 골<sup>600</sup>)로 한 짐승 내려와.

누에머리<sup>601</sup>)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쑹덜쑹,

꼬리는 잔뜩 한 발<sup>602</sup>)이나 넘고,

전동<sup>603</sup>)같은 앞다리,

동개<sup>604</sup>)같은 뒷다리,

쇠낫<sup>605</sup>)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sup>606</sup>)를 엄동설한<sup>607</sup>) 백설겨  
으로<sup>608</sup>) 좌르르르 흘으며,

주홍 입 찹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

‘홍앵 홍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눕고,<sup>609</sup>) 땅이 툭 꺼지는 듯.

자라가 깜짝 놀래 혼불부신<sup>610</sup>)이 되어, 목을 움치고<sup>611</sup>) 가만히 엮졌  
다.<sup>612</sup>)

## 19.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 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자신은 자라가 아니라 고 둘러댄다.

[아니리] 호랑이가 척<sup>613</sup>) 내려와 보니,

아무 것도 없고 누어<sup>614</sup>) 마른 쇠똥같은 것만 나뭇이<sup>615</sup>) 엮졌것다.

‘이게 날 불렀는가?’

이게 무엇인고?

엇그저께 시제<sup>616</sup>) 끝에 빠쳐놓고<sup>617</sup>) 간 나무접신가?

나무접시 같으면 굵<sup>618</sup>)이 없고.

[Eonmori] The tiger comes down,  
The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with pine trees.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body is mottled.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long.  
His fore legs are robust.  
His hind legs are strong.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thick sand and the roots  
of the grass as if he were splattering snow in a cold winter.  
He opens his red mouth.  
He stops in front of Terrapin.  
It looks as if the stream and the mountain turn upside down,  
and the ground collapses.  
Terrapin is so scared and confused that he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19. (The Tiger and Hare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errapin, and tries to eat it. Terrapin lies,  
saying that he is not a terrapin.**

[Aniri] The tiger has come down.  
He realizes that there is only a flat thing which looks like dry  
cow dung.  
'Did this thing call me?  
What is this?  
Is this a wood dish which was used during a ritual the day  
before yesterday?  
But it doesn't have a bottom, so it's not a dish.

부처는 밀부꾸미<sup>619</sup>인가?

밀부꾸미 같으면 고순내<sup>620</sup>도 안 나고.

이것이 무엇이여?

자래를 호랑이 발로 짹 집어 들고 오뉴월 나주선<sup>621</sup> 내두르듯 허며,

“요것, 요것, 이리 봐도 둥굴둥굴,

저리 봐도 둥굴둥굴,

우둥굴<sup>622</sup>아?”

아무리 불리봐도 대답이 없지.

호랑이란 놈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더니마는

자다 꿈 깨듯 허것다.

“웁다, 이것이 하느님 똥이로구나.

하느님 똥 먹으면 명<sup>623</sup> 길다더라.

에라,<sup>624</sup> 이놈 주워 삼킬밖에. 어흥 으르르릉.”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앞발로 자라 복판<sup>625</sup>을 콕 뺏아놓으니,

자래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치고 저 안에서 입부리<sup>626</sup>만 겨우 열어가

지고,

“그대는 뉘시오?”

호랑이 깜짝 놀래 뒤로 주춤주춤 나왔더니,

“아,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sup>627</sup>하자네, 여!

허허, 그것 생긴 뽀<sup>628</sup>은 그렇게 생겼어도 제법 인사성<sup>629</sup>이 밝구나.

오냐, 나는 이 산중 지키는 맹호장군<sup>630</sup> 호생원<sup>631</sup>이다.

너는 명색<sup>632</sup>이 무엇이냐?”

별주부 호랑이란 말에 깜짝 놀래 바른대로 말을 허것다.

“예, 나는 명색이 자라새끼라 허요.”

호랑이가 듣고 좋아라고,

Is this a pancake?

It isn't a pancake because it doesn't smell good.

What is this?

The tiger holds Terrapin with his fore legs and shakes him as if he were shaking a fan in summer.

"Look at this. It looks round in this direction.

It looks round in that direction.

Hey Mr. Round!"

He doesn't answer no matter how the tiger calls.

The tiger looks up to the sky and down to the ground.

He talks as if he suddenly realized something.

"Yes, this must be God's dung.

Eating God's dung extends our life.

Let me pick this up and swallow it. Come here."

The tiger goes at Terrapin.

The tiger puts his fore leg in the middle of Terrapin's shell.

Astonished, Terrapin shrinks his neck and barely opens the end of his mouth in his body.

"Who are you, sir?"

Taken aback, the tiger steps backward.

"Oh, this thing wants to exchange names with me!"

This thing does not look great, but it is a polite animal.

Oh, I am Mr. Tiger, the ruler of this mountain.

What is your name?"

Terrapin is so startled at the word of tiger that he gives him his name.

"Yes! I go by the name 'terrapin'!"

The tiger is pleased.

[중중모리] “얼씨구나 좋을시고.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sup>(633)</sup>이 원일러니,<sup>(634)</sup>

맛 좋은 진미를 배어 먹어보자. 어흥 으르르르.”

하고 달려드니

자라가 깜짝 놀래,

“아이고, 내가 자라새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나?”

“나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sup>(635)</sup> 술에 타 먹고 보면 만병회춘<sup>(636)</sup> 명약<sup>(637)</sup>이라.

이리 오너라. 먹자.”

“아이고, 나 두꺼비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나?”

“나 남생이<sup>(638)</sup>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sup>(639)</sup>에는 당자니라.<sup>(640)</sup>

그저 삼킬란다.”

“아이고, 내가 남생이도 아니고,

먹고 죽는 비상<sup>(641)</sup>덩어리요!”

“비상이라도 삼킬란다.”

“아이고, 이 육시<sup>(642)</sup>를 헐 놈의 자식이

동의보감<sup>(643)</sup>을 얼마나 통달을 했는지

모르는 약이 없네그려.”

**[Jungjungmori]**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Oh boy!  
 What a delight!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Let me taste this cuisine. Come here!”  
 The tiger makes a move.  
 Terrapin is startled.  
 “Oh, I am not a terrapin!”  
 “Then, what are you?”  
 “I am a toad!”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gain my health  
 back.  
 Come here. Let me eat you.”  
 “Oh, I am not a toad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tortoise!”  
 “A tortoise is even better.  
 It is a good medicine for the diseases of wet energy.  
 I’ll swallow you.”  
 “Oh, I am not a tortoise either.  
 I am a poison that can kill you!”  
 “I’ll swallow you even if you are a poison.”  
 “Oh, this villain should be beheaded again and again.  
 He must have mastered the classic medical books.  
 He knows about all the medicine.”

## 20. (별주부 통곡) 별주부가 죽게 되자, 병든 용왕을 생각하며 통곡한다.

(A형)

[아니리] 별주부 하릴없이 죽게 되었구나.

충성이 지극한 별주부는

이 급한 때라도 용왕을 사모하여 양천통곡<sup>644</sup>을 하는데,

[중모리]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님을 못 보겠네.

천신이 감동하여 축송맹호<sup>645</sup>하여 주오.

연장군<sup>646</sup>의 살<sup>647</sup>을 빌려 사살백호<sup>648</sup>를 하여 주오.

나 죽기는 싫잖으나,<sup>649</sup>

내가 만일 죽고 보면 어느 누가 토끼를 구하여다 병든 용왕님을 구원하리?

어쩔거나, 어쩔거나.

우리 용왕님을 어쩔거나. 아이고 아이고.”

슬피 운다.

(B형)

[중모리]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님을 못 보겠네.

당상<sup>650</sup>의 백발 모친, 규중<sup>651</sup>의 홍안<sup>652</sup> 처자<sup>653</sup> 만리타국<sup>654</sup>에 날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이 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기다리고 바래는디,<sup>655</sup>

공연한 저놈을 만나 객사원귀<sup>656</sup>가 되겠으니,

이놈의 노릇을 어쩔거나.”



**20. (Terrapin's Cry) Terrapin is about to die. He cries  
as he thinks about his sick dragon king.**

**(Variation A)**

[Aniri] Terrapin is going to die for sure.

Terrapin is loyal to his king.

Even in this urgent situation, he cries plaintively, thinking about the dragon king.

[Jungmori] "I can't see him anymore.

I can't see my sick dragon king anymore.

I wish God would move and chase the tiger away.

Please shoot an arrow to this tiger and kill him.

I don't mind my dying.

If I die, however, who will bring a hare to the sick dragon king and save him?

What should I do?

What will become of my dragon king?"

Terrapin cries sadly.

**(Variation B)**

[Jungmori] "I can't see him anymore.

I can't see my sick dragon king anymore.

I am away from my old mother, my young wife, and my children.

They are looking forward to a message from me everyday.

I came across that villain and will die away from home.

What should I do?"

21-A. (송순섭) (별주부 목 내력) 별주부가 목이 늘어난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면서 불알을 짹 물  
자, 호랑이가 급히 도망한다.

[아니리] ‘에라, 내가 기왕 죽을 바에는 패술<sup>657</sup>)이나 한 번 써보고 죽  
을 밖에 수가 없다.’하고,

밤만한 돌을 입으로 바짝 깨물고, 목을 쑥 빼 들고,

“자, 내 목 나간다!”

호랑이가 보니 목이 쑥 나오제.

가만히 보니 한없이 나오거든.

“여보시오.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야, 이놈아. 수천 발뿐이나? 수만 발 나가지야.”

“대체 웬 목이 그렇게 길게 나오며,

그대는 뉘라 하옵시오?”

“오냐, 나는 수국 전옥주부<sup>658</sup>) 공신<sup>659</sup>) 사대손<sup>660</sup>) 별주부 별나리<sup>661</sup>)  
라고 한다.”

호랑이란 놈이 무식하여 자라 별 자<sup>662</sup>)를 모르고,

“별나리? 별나리?

근신령<sup>663</sup>)이 내리면 그저 나리도 무서울디,<sup>664</sup>)

별나리랬다.

별나리 같으면 세상에는 무얼 하러 나왔으며,

어찌하여 그렇게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뒤웅치기<sup>665</sup>)를 잘 하시오?”

“오냐. 내 목 이리 된 내력을 이를 테니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국 퇴락<sup>666</sup>)하여 영덕전<sup>667</sup>) 새로 지을 제,

21—A. (Song Sun-seob) (Story about Terrapin's Neck)

Terrapin narrates a story of how his neck became  
long, threatens the tiger, and bites his vital point.  
The tiger flees away.

[Aniri] He says, "Oh well. I am going to die. I have no choice but to play a trick on him before I die."

He holds in his mouth a stone of a chestnut size, and pulls out his neck.

"Here goes my neck!"

Tiger sees Terrapin's neck comes out.

The neck comes out continuously.

"Jesus! Stop coming out. Stop coming out.

If it comes out at that pace for a day, it might extend a few miles."

"You fool. It will extend not a few kilometers but thousands of kilometers."

"How come your neck comes out that long?

Who on earth are you?"

"Oh, I am Mr. Terrapin, a descendent of a meritorious prison official in the sea world."

The ignorant tiger does not understand what Terrapin says.

"Mr. Terrapin? Mr. Terrapin?

An order from any government official is formidable.

But you are a high government official.

What brought you, a high government official, here?

How come you can pull your neck in and out so effortlessly?"

"Okay. Let me tell you a story of how I got this neck."

[Jajinmori]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so we were building a palace again.

일천팔백 간<sup>668</sup> 기와를 내 솜씨로 올리다가,  
 처마 끝에 뚝 떨어져 뱅뱅 내려오다,  
 목으로 잘각<sup>669</sup>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명의다려<sup>670</sup> 문의<sup>671</sup>한즉,  
 호랭이 쓸개가 좋다기로  
 도리랑귀신<sup>672</sup> 잡아 타고 호랭이 사냥을 나왔더니,  
 네가 진정 호랑이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비수검<sup>673</sup>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리랑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랭이 불알을 짹 물고 뺑뺑 잡아 돌아놓으니,  
 호랑이 질색<sup>674</sup>하여,  
 “아이고 여보시오, 별나리! 이것 좀 놓으시오!”  
 “네 이놈. 잔말 말고 쓸개 내놔라, 이놈!”  
 “아이고, 여기를 봐야 쓸개를 내드리지요.”  
 “여기 놓으면 쓸개 내놓을래?”  
 “여기만 놓으면 쓸개보다 더한 것이라도 내드릴 테니,  
 제발 여기 좀 놓으시오.”  
**[아니리]** 별주부 곰곰 생각하니 저놈이 쓸개를 내놓겠다고 허는 것이  
 얼죽음<sup>675</sup>이나 된 모양이라.  
 짹 물었던 호랭이 불알을 슬그머니 놓아놓으니,  
 호랭이가 어찌 뛰고 구르고 도망을 해놨든지,  
 해남 관머리<sup>676</sup>에서 내뺐 것이 저기 함경도 쇠스랑고개에 가서 썩  
 불거졌었다.<sup>677</sup>  
 호랑이 그래도 거기서 장담을 허는디,  
 “내나 된께<sup>678</sup> 살아왔제,

I lifted tiles up to the roof with my hands to build a large house.  
I fell down from the corner of the eave.  
My neck touched the ground first, and it became like this.  
I consulted a famous doctor.  
He said a tiger's gall bladder is a good medicine.  
I came here, riding a stream demon of the sea world to hunt  
down tigers.  
Are you really a tiger?  
Is the stream demon there?  
Cut this tiger's belly in half with a sharp knife!"  
Terrapin moves unsteadily to the tiger.  
He bites the tiger's balls hard and turns around.  
The tiger is shocked.  
"Oh, Mr. Terrapin. Let go of these!"  
"You villain! Cut the noise out and take out your gall bladder."  
"Unless you let go of them, I can't give you my gall bladder."  
"Will you give me your gall bladder, if I release your balls?"  
"If you release my balls, I can give you anything.  
Please let my balls go."  
[Aniri] Terrapin thinks the tiger is in intense pain to volunteer  
to give his gall bladder.  
Terrapin slowly releases the tiger's balls that he has bitten.  
The tiger jumps, runs, and flees away.  
He runs fast from the southernmost area to a mountain pass in  
a northern area of Korea.  
Even so, he speaks with confidence there.  
"I could survive because I was great.

다른 놈 같았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다.”  
 장담하고 한 곳을 바라보니,  
 건넌산 바위틈에서 남생이란 놈이 뽀조조롭히고<sup>(679)</sup> 내다보니,  
 호랑이 깜짝 놀래,  
 “어따,<sup>(680)</sup> 저놈이 그 새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허고 거기서 내뺀 것이 의주 압록강 가에까지 갔던가보더라.  
 어디 그럴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것은 잠시 성악가의 재담<sup>(681)</sup>이었다.  
 별주부는 이렇게 호랑이를 쫓아놓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  
 호랑이라 허는 것은 산중지영물<sup>(682)</sup>이라,  
 내 충성이 부족하여 산신님이 변화를 부렸나보다 생각하고  
 산신제<sup>(683)</sup>를 지내는데,

**21-B. (박봉술) (별주부 호랑이 축송) 별주부가 목이 늘어  
 난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면서 불알을 짝  
 물자, 호랑이가 급히 도망한다.**

[아니리] 호랑이 보다가,  
 “아, 이놈아.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느냐?  
 이리 오너라. 먹자.”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 화타<sup>(684)</sup> 편작<sup>(685)</sup> 처방의 약화제<sup>(686)</sup>를 몽땅 살라<sup>(687)</sup>  
 먹고 달통<sup>(688)</sup>을 하였는가,  
 모르는 약이 없고,  
 되는대로 먹기로만 드는구나.  
 예라, 죽어도 패술<sup>(689)</sup>이나 한번 써보리라.”

Others would have died, had they been in my shoes.”  
 After speaking with confidence, the tiger looks at a certain place.  
 A tortoise pulls his head out a little from between rocks of a  
 nearby mountain.  
 The tiger is petrified.  
 “Oh my god. That villain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After saying like that, he runs away all the way to Abrok River.  
 The story above must not be true.  
 The story is made up by a singer for fun.  
 Terrapin ponders after he drove the tiger away.  
 He thinks that a tiger is a divine animal in mountains,  
 and that a mountain god appeared in the form of the tiger  
 because he was not respectful to him.  
 He holds a ritual to the mountain god.

**21—B. (Bak Bong-sul). (Terrapin Drives the Tiger  
 Away.) Terrapin tells the story of how his neck got  
 long, threatens the tiger, and bites his balls. The  
 tiger runs away.**

[Aniri] The tiger watches Terrapin.  
 “You rat! What are you saying to yourself?  
 Come here. Let me eat you.”  
 Terrapin is stunned.  
 “Oh, God. This villain must have mastered all the famous classic  
 medical books.  
 He knows about every medicine.  
 He is determined to eat anything.  
 Let me play a trick on him even if I die.”

하고 죽으면 대수<sup>(690)</sup>나 하고 몽그릴 제,<sup>(691)</sup>  
**[자진모리]** 저 자라 몽그렸다 목을 훔썌<sup>(692)</sup> 빼어 들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네 이놈, 말 들어라.  
 호랑아, 내 목 나간다.  
 나는 수국 전옥주부<sup>(693)</sup> 공신<sup>(694)</sup> 사대손<sup>(695)</sup> 별주부 별나리<sup>(696)</sup>라 한다.”  
 바짝바짝 달려드니,  
 호랑이 뒤로 엉금엉금.  
 “허허, 그것 괴이하다. 별나리, 별나리.  
 네가 이놈 별나리면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뒤웅치  
 기<sup>(697)</sup>를 잘하느냐?”  
 별주부 이 말 듣고, “나의 말을 들어봐라.  
 우리 수궁이 퇴락<sup>(698)</sup>하여  
 천여 간 온<sup>(699)</sup> 기와를 내 솜씨로 이을 제,<sup>(700)</sup>  
 이 골 이고, 저 골 이고,  
 충설<sup>(701)</sup> 끝 돌아 딛다 한 발이 자칫 미끄러져 뱅뱅 내려오다  
 목으로 절컹 꺼꾸러져 뒤웅치<sup>(702)</sup>가 되었는데,  
 명의다려<sup>(703)</sup>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귀신<sup>(704)</sup> 잡어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는데,  
 네가 바로 그것이나?  
 쓸개 한 보<sup>(705)</sup> 못 주겠나?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비수검<sup>(706)</sup>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리랑 도리랑 살같이 쫓아 들어가  
 호랑이 밀주머니<sup>(707)</sup>를 깎 물고 뺑뺑 돌아 뚝 떼어 제쳐노니,<sup>(708)</sup>



He is determined to do it, not afraid of death.  
**[Jajinmori]** Terrapin pulls his neck out long which was deep in his body.  
 He moves close to the tiger.  
 "You villain. Listen to me.  
 Tiger, here goes my neck.  
 I am Mr. Terrapin, a descendent of a meritorious prison official in the sea world!"  
 He runs at the tiger.  
 The tiger steps back slowly.  
 "Gee, that is strange, Mr. Terrapin.  
 Mr. Terrapin, how can you move your neck in and out freely?"  
 Terrapin responds, "Listen to my story.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I was covering a large roof with tile.  
 I carried tiles up to the roof.  
 I took a false step around the corner of an eave and swirled down.  
 My neck touched the ground first, and it became ugly like this.  
 I consulted a famous doctor.  
 He said a tiger's gall bladder is a good medicine.  
 I came here, riding a stream demon of the sea world to hunt down tigers.  
 Aren't you a tiger?  
 Don't you take out your gall bladder?  
 Is the stream demon there?  
 Cut this tiger's belly in half with a sharp knife!"  
 He approaches him unsteadily.  
 He bites the tiger's balls hard, turns around, and moves himself over.

호랑이 어찌 아프던지 구르고 뛰고 몸부림쳐 어형엉 울며 질색하네.  
 “아이고, 별나리, 나 죽겠소. 조금만 놓으시오.”  
 떨어지면 대수냐 하고 도망가는데,  
**[휘모리]** 호랑이 뭉그리고 펄쩍 뛰어 달아난다.  
 초가성<sup>709)</sup> 놀랜 패왕<sup>710)</sup> 겨우 약출<sup>711)</sup>하는 격으로,  
 편전<sup>712)</sup> 휘전<sup>713)</sup> 살 달아나듯,  
 매에 쫓긴 꿩 달아나듯,  
 귀에 불이 번쩍 칠환<sup>714)</sup> 단듯 주루루루,  
**[중모리]** 태산을 넘고 강수<sup>715)</sup>를 지내어,  
 여 가<sup>716)</sup> 번뜻,<sup>717)</sup> 저 가<sup>718)</sup> 번뜻, 번뜻번뜻이 달아날 제,  
 함경도 쇠스랑고개<sup>719)</sup> 번쩍 올라 앉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프고라.”<sup>720)</sup>  
 이놈이 아랫도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처음에는 귀주머니<sup>721)</sup>만큼 하던 것이 큰 북통만 하니 부어 버렸것다.  
 “아따, 그 징그런 놈.  
 나의 용맹이 아니었으면 속절없이 내가 꼭 죽었제.”  
 석산<sup>722)</sup> 바위틈에 뜻밖에 남생이란 놈이 목을 길게 늘이고 나오는데,  
 남생이를 자라로 보고,  
 “아이고, 저 징그런 놈, 그새 여기까지 따라 왔구나.”  
 이놈이 어찌 놀랐든지 백두산 상상봉<sup>723)</sup>을 번개같이 달아나 간 연  
 후에,  
 그 때여 별주부는 범을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내 충성이 부족한거나? 내 정성이 부족한가?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영물<sup>724)</sup>이라.  
 나의 지기<sup>725)</sup>를 보려 하고 이런 변화<sup>726)</sup>를 붙였는지,  
 산신제<sup>727)</sup>를 모시어 보리라.’ 할 제,

The tiger is so painful that he rolls over, jumps up, moves wildly, and cries.

“Oh, Mr. Terrapin. I might die. Let go of me.”

He runs, not minding that his balls might fall off.

**[Hwimori]** The tiger gets ready and runs away.

He runs as an ancient king who managed to escape a siege,  
as a short arrow flies,

as a pheasant runs from a hawk,

and as a bullet is fired from a rifle near an ear.

**[Jungmori]** The tiger goes over a mountain and crosses a river.

He shows up here and there as he runs away.

He climbs a mountain pass in Hamgyeong-do, the northern province of Korea.

“Oh, my legs. My legs hurt.”

The tiger looks down at the lower part of his body.

His balls were small, but they are swollen to the size of a drum.

“He is an awful bastard.

Without my bravery, I would have died.”

A tortoise suddenly comes out from between rocks of a rocky mountain with his neck stuck out long.

The tiger takes the tortoise to be Terrapin.

“What an awful bastard! He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The tiger is so startled that he flees to a peak of Baekdu Mountain at the speed of lightning.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he drove the tiger away.

He speaks to himself, ‘I was not conscientious.

A tiger is a divine animal in mountains.

A mountain god appeared in the form of the tiger to test my fortitude.

Let me hold a ritual to the mountain god.’

[아니레] 별주부는 일편단심<sup>728</sup>) 굳은 충성  
청수<sup>729</sup>)에 목욕재계<sup>730</sup>)하고,  
지성으로 산신제를 모시는데,

## 22. (별주부 산신제) 별주부가 산신제 준비를 하고 축문을 지어 읽으며 토끼 만나기를 기원한다.

[진양조] 계변양류<sup>731</sup>) 늘어진 가지를 앞니로 아드득<sup>732</sup>) 꺾어내어  
진토<sup>733</sup>)를 쓴 후에, 반석<sup>734</sup>)으로 제상<sup>735</sup>) 삼고,  
낙엽으로 먼지<sup>736</sup>)를 깔고,  
산과목살<sup>737</sup>) 주워다가  
홍동백서<sup>738</sup>)로 갈라놓고,  
은어 한 마리 잡어 내어 동두서미<sup>739</sup>)로 진설<sup>740</sup>)허더니,  
분향재배<sup>741</sup>)허며 독축<sup>742</sup>)을 한다.

[창조] “유세차<sup>743</sup>) 갑신<sup>744</sup>) 오월 기유<sup>745</sup>) 삭<sup>746</sup>) 십오일 계해<sup>747</sup>)  
남해수궁 별주부 자라 감소고우.<sup>748</sup>)  
상천일월성신<sup>749</sup>) 후토<sup>750</sup>) 명산 신령님전<sup>751</sup>) 지성발원.<sup>752</sup>)  
남해용왕이 우연득병<sup>753</sup>)하여  
천의도사<sup>754</sup>) 문병<sup>755</sup>) 후 천년토간<sup>756</sup>)이 즉차운현 고로,<sup>757</sup>)  
원해만리<sup>758</sup>) 신고월섭<sup>759</sup>)하여 내도차산하.<sup>760</sup>)  
천년토일수<sup>761</sup>)를 허급지지<sup>762</sup>) 복망<sup>763</sup>) 축수<sup>764</sup>)  
근이청작.<sup>765</sup>) 상사<sup>766</sup>) 상향.”<sup>767</sup>)

[아니레] 축문을 읽고 나서 한 곳을 바라보니,

[Aniri] Terrapin is loyal to his king.  
He takes a bath in the clean stream.  
He holds a ritual with great care.

**22. (Ritual to a Mountain God) Terrapin prepares for  
a ritual to a mountain god. He writes and reads  
a ritual prayer, wishing that he will meet a hare.**

[Jinyangjo] Terrapin cuts a drooping willow branch off by a stream with his front teeth.

He brushes dirt off a flat rock and uses it as a ritual table.  
He puts fallen leaves on the rock.

He picks up mountain fruits.

He puts red fruits to the east, and white fruits to the west.

He catches a fish and places it on the rock with its head to the east and its tail to the west.

He burns incense, bows twice, and recites a ritual prayer.

[Prayer Model]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May 15th.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prays to you.

I pray to the gods of the sun, the moon, the land, and famous mountains.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A god from heaven said a one-thousand-year-old hare's liver would cure him immediately.

I took a difficult journey from a distant sea to this mountain.

I pray for a one-thousand-year-old hare.

Please drink this clear wine."

[Aniri] After reciting the ritual prayer, Terrapin looks at a certain place.

### 23.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물으니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중중모리] 건넌산 바위틈에 묘한 짐승이 앉았다.

두 귀는 쫘긋,

눈은 도리도리,<sup>768)</sup>

허리는 늘씬,

꽁지<sup>769)</sup>는 묘뚝,<sup>770)</sup>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

녹수청산<sup>771)</sup>의 예굽은<sup>772)</sup> 장송 휘늘어진 양류<sup>773)</sup> 속

들랑달랑<sup>774)</sup> 오락가락 엉거주춤 기는 짐승,

그는 분명 토끼라.

화상 보고 토끼 보니

산중토<sup>775)</sup> 월중토<sup>776)</sup>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토끼가 듣고서 깡창<sup>777)</sup> 뛰며,

“거 뉘가 날 찾나? 거 뉘가 날 찾아?

날 찾을 이가 없건마는 거 뉘가 날 찾아?

기산<sup>778)</sup> 영수<sup>779)</sup> 소부<sup>780)</sup> 허유<sup>781)</sup> 피세가자고<sup>782)</sup> 날 찾나?

수양산<sup>783)</sup> 백이숙제<sup>784)</sup> 채미하자고<sup>785)</sup> 날 찾나?

백화심처일승귀라, 춘풍석교화림중<sup>786)</sup>에 성진<sup>787)</sup> 화상<sup>788)</sup>이 날 찾나?

완월장취<sup>789)</sup> 강남 태백<sup>790)</sup> 기경상천<sup>791)</sup>하는 길 함께 가자고 날 찾나?

**23. (Terrapin Meets Hare.) Terrapin spots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Jungjungmori] There is a strange animal sitting between rocks  
on the near mountain.  
His two ears are long.  
His two eyes are round.  
His waist is thin.  
His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A tall pine tree and a willow droop down by a blue stream and  
in the green mountain.  
It moves in and out of a tree, and crawls hesitantly.  
The animal must be a hare.  
Terrapin takes a look at the picture and the animal.  
The animal is certainly a hare from a mountain and the moon.  
Terrapin says to the hare, "Hi, there. Are you Mr. Hare?"  
Upon hearing Terrapin, the hare jumps up.  
"Who is looking for me? Who are you?  
I am expecting nobody. Who is looking for me?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join them to live in a mountain  
and by a river?  
Are ancient brothers asking me to join them picking up brackens  
for food in a mountain?  
Are you the Buddhist monk who came back to a place where  
there are all sorts of flowers, a spring wind, and a stone bridge?  
Is the ancient poet Li Bai(李白) who enjoyed wines and the  
moon asking me to join him on the journey to heaven riding  
a whale?

청산기주백록탄<sup>792)</sup>에 여동빈<sup>793)</sup>이 날 찾나?  
 도화유수<sup>794)</sup> 무릉도원<sup>795)</sup> 거주속객<sup>796)</sup>이 날 찾나?  
 차산중운심한데 부지처 오신 손님<sup>797)</sup>  
 거 뉘기가<sup>798)</sup> 날 찾나?  
 건넌 산 과부 토끼가 연분<sup>799)</sup>을 맺자고 날 찾나?”  
 이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호도독뚝<sup>800)</sup> 깡짱 내려온다.

## 24. (토끼 흥미 자랑) 별주부가 토끼를 만나 흥미를 묻자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며 얘기한다.

[아니래 후닥닥 허고 내려오다가 둘이 서로 들이받았겠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빡이야!”  
 “여보시오, 왜 초면<sup>801)</sup>에 방정맞게 남의 이마는 이리 들이받소?”  
 “당신 이마보다 복스럽게 생긴 내 코도 받혔구만.  
 그는 피차일반<sup>802)</sup>이니 그만두고,  
 우리 통성명<sup>803)</sup>이나 좀 합세.”<sup>804)</sup>  
 “그리합세.<sup>805)</sup> 대체 그대는 뉘라 허옵시오?”  
 “예, 수국 전옥주부<sup>806)</sup> 공신<sup>807)</sup> 사대손<sup>808)</sup> 별주부 별나리<sup>809)</sup>라 하오.”  
 퇴끼가 듣더니,  
 “예. 나는 천상<sup>810)</sup> 월궁<sup>811)</sup>에서 이음양순사시<sup>812)</sup>하던 예부상서<sup>813)</sup>  
 월토일러니,<sup>814)</sup>  
 도약주<sup>815)</sup> 취케 먹고  
 장생약<sup>816)</sup> 그릇 지어



Are you the ancient hermit who lived in a green mountain and  
feared a blue shallow stream?

Did a person from a paradise where peach blossoms flow in  
a river come here to offer wine to me?

A guest visited me, not knowing I am in deep mountains  
covered with clouds.

Who is looking for me?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The hare jumps here and there, and comes to Terrapin.

#### **24. (Hare's Bragging about His Life) Terrapin asks Hare about his life. Hare brags about his life.**

[Aniri] While careening down fast, the hare bumps into  
Terrapin.

"My nose hurts."

"My forehead hurts."

"Why did you bump into my forehead on the first time we met?  
How rude!"

"My nose is more beautiful than your forehead, but it got  
bumped too.

I can say the same thing to you.

Let's exchange names."

"That's a good idea. Who on earth are you?"

"I am Mr. Terrapin, the fourth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The hare responds,

"I am a ceremonial officer on the moon palace responsible for  
the smooth change of seasons.

I was drunk by a medicinal wine.

적하중산<sup>817</sup>)하야 머무른 지 오랏러니,  
 세상에서 나를 위지왈<sup>818</sup>) 토선비라고 하오.”  
 별주부가 토명<sup>819</sup>)을 어찌 반겨 들어왔던지, 문자<sup>820</sup>)를 쓴다고 쓴 것  
 이 정황이 없제.  
 “구양성화<sup>821</sup>)러니, 하상견지만만무고불측<sup>822</sup>)  
 후레이들놈의 자식이로고.”  
 퇴끼가 듣더니, “허허. 그분이 초면에 말을 함부로 방정맞게 허는디,”  
 ‘그놈 뿐<sup>823</sup>)이 천하<sup>824</sup>) 말질<sup>825</sup>) 뿐으로 생겼으되,  
 단문<sup>826</sup>)허고서야 저리 문자를 쓸 수 있나?  
 내 만일 저놈 앞에 문자 한 마디만 잘못 썼다가는,  
 나 하나로 인하여 세상의 문장들이 모두 망신을 당할 테니,  
 내 저놈 앞에 전일에 배운 문자를 한 번 베풀어볼 수밖에.’  
 “여보시오, 별주부. 내 문자통<sup>827</sup>) 궁굴어나가오.”  
 “어서 나와 보시오.”  
 “법안홍안<sup>828</sup>)이요,  
 홍안백발<sup>829</sup>)이요,  
 홍불감장<sup>830</sup>)이요,  
 이불가독식이요,<sup>831</sup>)  
 먹전통로<sup>832</sup>)요,  
 구행방통<sup>833</sup>)이요,  
 오류칠 두루송이<sup>834</sup>)요,  
 친사돈통가문<sup>835</sup>)이요,  
 당구삼년폐풍월<sup>836</sup>)이요,  
 우이독경<sup>837</sup>)이요,  
 어동육서<sup>838</sup>)  
 흥동백서<sup>839</sup>)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I have been relegated to the earth for long time.  
People on the earth call me Mr. Hare.”  
Terrapin is so glad to hear the name ‘Hare’ that he speaks a  
profound sentence in a confused way.  
“I’ve heard about your fame for long time. I didn’t expect it  
would take so long to meet you today.  
You are a bastard.”  
Hare says, “Gee, you speak an impolite language when we just  
met.”  
He speaks to himself, ‘He seems to evil.  
He must be an ignorant man to speak that low level of language.  
If I speak a profound sentence incorrectly,  
I will bring disgrace to the famous writers of the world.  
Let me throw profound sentences at this villain that I learned  
the other day.’  
“Hello, Mr. Terrapin. Here go my profound sentences.”  
“I am waiting for them.”  
“Eyes can penetrate things through principles.  
A face is healthy, and hair is gray.  
Something can be a fool’s gold.  
You shouldn’t take all the profits yourself.  
A new road is constructed.  
You mastered the laws of nature.  
You are lucky in gambling.  
Relatives by marriage are close.  
If a dog lives in a school for three years, it can read and write.  
You can’t teach a cow how to read.  
Fish to the east, and meat to the west.  
Red fruit to the east, and white fruit to the west.

좌포우혜<sup>840</sup>)

분향재배<sup>841</sup>)요,

명기위적<sup>842</sup>)은 전라감영<sup>843</sup>)이요,

일구이언은 백부지자라고.”<sup>844</sup>)

별주부 듣고 함소왈,<sup>845</sup>)

“대체 퇴선생 높은 위명<sup>846</sup>) 들은 지 오랜러니,

금일에야 화답<sup>847</sup>)을 해보니,

글이 문장이요,

얼굴이 선풍도골<sup>848</sup>)이라.

저런 귀꼴<sup>849</sup>)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세상 경개<sup>850</sup>)나 좀 일러주소.”

토끼가 듣고, “내 팔자야 무쌍이지요.”<sup>851</sup>)

[중모레] “임자 없는 녹수청산<sup>852</sup>)

일모황혼<sup>853</sup>)에 잠들었다 월출동령<sup>854</sup>)에 잠이 깨어,

청림벽계<sup>855</sup>) 집을 삼고,

값이 없는 산과목실<sup>856</sup>) 양식을 삼아서 감식<sup>857</sup>)허고,

신여부운<sup>858</sup>) 일이 없어 명산 찾아서 환경<sup>859</sup>)할 제,

여산<sup>860</sup>) 동남 오로봉<sup>861</sup>)과 진국명산<sup>862</sup>) 만장봉<sup>863</sup>) 기엄기엄 기어올

라 가만히 굽어보니,

화간점무분분설<sup>864</sup>)이요,

유상앵비편편금<sup>865</sup>)이라.

모란, 작약, 영산홍과 왜철쭉, 진달화<sup>866</sup>)는 여기저기 피었난디,

등태산소천하<sup>867</sup>)의 공부자<sup>868</sup>)의 대관<sup>869</sup>)인들 이에서 더하더란 말이나?

밤이면 완월<sup>870</sup>)하고,

낮이 되면 유산<sup>871</sup>)할 제,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We burn incense and bow twice.  
 The confession of a theft should be done in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Contradicting oneself is like having one hundred fathers.”  
 Terrapin laughs loudly.  
 “I heard about your high fame a long time ago.  
 I finally respond to you today.  
 Your sentences are profound.  
 Your face is that of a god.  
 You will become precious.  
 What do you usually do?  
 Please tell me about your life.”  
 Hare responds, “My life is the best.  
**[Jungmori]** “A blue river and a green mountain are ownerless.  
 I get up at twilight, when the moon rises over a peak in the  
 east.  
 I take green forests and streams as my home.  
 I take the delicious fruits in the mountains as my food and eat  
 it for free.  
 I visited famous mountains leisurely like clouds.  
 I slowly climbed the Five Peaks which look like old men and  
 a high peak near Seoul, and looked down around.  
 Butterflies dancing among flowers look like fluttering snow.  
 Nightingales flying over a willow tree look like numerous pieces  
 of gold.  
 Peonies and azaleas bloom here and there.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 Shan(泰山).  
 I watch the moon at night.  
 I visit mountains by day.

장산풍경 홍미간에<sup>872</sup> 지상신선<sup>873</sup>)이 나뿐인가?

적송자<sup>874</sup>)안기생<sup>875</sup>)은 나의 제자 삼아 두고,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 땅땅 때리고,

글로<sup>876</sup>) 소일<sup>877</sup>)을 허나이다.”

## 25. (토끼의 팔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삶을 말하며 겁을 준다.

[아니리] 별주부 듣고,

“과연 퇴선비, 퇴선비허더니마는, 얼굴이 남중일색<sup>878</sup>)이요,

발맵시가 단정한 오입장이<sup>879</sup>)라,

저런 풍신<sup>880</sup>)이 나를 따라 우리 수국 들어갔으면, 훈련대장<sup>881</sup>)은 돌려가면서 허겠으나,

세상에 그대로 있다가는 미간<sup>882</sup>)에 화망살<sup>883</sup>)이 비쳐서, 앞으로 죽을 봉변 여덟 번은 당허겠소,”

“허허. 그 분이 초면에 방정맞은 소리를 하는고!”

“방정맞은 소리가 아니라,

그대 팔난<sup>884</sup>)을 이를 테니,

한번 들어나 볼까요?”

“말이 났은개<sup>885</sup>) 일러는 보시오마는,

방정맞은 소리 너무 많이 허지 마시오.”

별주부가 토끼 팔난을 이르는데,

[자진모리] “일개 한토<sup>886</sup>) 그대 신세

삼춘구추<sup>887</sup>) 다 지내고,

대한<sup>888</sup>) 엄동<sup>889</sup>) 설한풍<sup>890</sup>) 만학에<sup>891</sup>) 눈 쌓이고

천봉에<sup>892</sup>) 바람칠 제,

I am the only living god on land, enjoying the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I take two legendary gods to be my students.  
When I am bored, I lash their calves.  
I kill time by doing that.”

**25. (Hare’s Eight Hardships) Terrapin threatens Hare,  
telling him about Hare’s hard life.**

[Aniri] Terrapin responds,  
“Sure enough. Mr. Hare is the most handsome man.  
Your feet indicate you are virile.  
You look majestic, so if you follow me to the sea world, you  
will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f you stay on land, you will go through eight critical hardships  
due to the unlucky fire energy between your eyebrows.”  
“We just met. How dare you make such a rude remark?”  
“I didn’t make a rude remark.  
Let me tell you about your eight hardships.  
Are you interested?”  
“You can speak about them since you already began to.  
But don’t make too many rude remarks.”  
Terrapin talks about Hare’s eight hardships.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화초목살<sup>893)</sup> 바이없어  
 앵무원앙<sup>894)</sup>이 끊쳤다.  
 어둑한 바위 밑에 고픈 배 틀어쥐고 발바닥만 할짝할짝<sup>895)</sup> 더진 듯  
 이<sup>896)</sup> 앓은 모양,  
 차운<sup>897)</sup> 편월<sup>898)</sup>의 무관수<sup>899)</sup> 초희왕<sup>900)</sup>의 원한이요,  
 일월고초 북해상 소호무호<sup>901)</sup> 기생<sup>902)</sup>이로다.  
 거의 주려서 죽을 토끼 삼동<sup>903)</sup> 고생을 겨우 지내,  
 벽도홍행<sup>904)</sup> 춘이월<sup>905)</sup>에 주린 구복<sup>906)</sup>을 채우려고, 심산공곡<sup>907)</sup> 찾  
 고 찾아 이리 저리 히델<sup>908)</sup> 적에,  
 골골이 묻은 것은 목달개<sup>909)</sup> 엄착귀<sup>910)</sup>요,  
 봉봉이<sup>911)</sup> 섰는 것은 매 받은<sup>912)</sup> 응주<sup>913)</sup>로다.  
 목달개에 채이거드면 결항치사<sup>914)</sup>가 대랑대랑 제수<sup>915)</sup> 고기가 될 것  
 이요,  
 물이꾼 사냥개 반송<sup>916)</sup> 떡갈잎 퍼긋퍼긋<sup>917)</sup> 뛰어갈 제,  
 토끼 놀래 호도독호도독,<sup>918)</sup>  
 ‘수알치<sup>919)</sup> 매 놓아라!’  
 해동청<sup>920)</sup> 보라매<sup>921)</sup> 짓두루미<sup>922)</sup> 빼깃<sup>923)</sup> 공작우<sup>924)</sup> 마루<sup>925)</sup> 도래  
 장스치 바까치 떨쳐,<sup>926)</sup>  
 쭉지 치고 수루루루루<sup>927)</sup> 달려들어,  
 그대 꺾전 양 발로 당그랴게<sup>928)</sup> 추켜 들고,  
 꼬부랑헌 주둥이로 양미간<sup>929)</sup> 골치 대목<sup>930)</sup>을 그저 콕콕!”  
 “허허, 그 분이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러기에 누가 게<sup>931)</sup> 있간디오?<sup>932)</sup>  
 산 중등<sup>933)</sup>으로 돌지.”  
 “중등으로 닫는 토끼, 송하에<sup>934)</sup> 숨은 것은 오는 토끼 놓으려고 불  
 차리는<sup>935)</sup> 도포수<sup>936)</sup>라.



Flowers, grasses, and fruits are gone.  
All birds disappear.  
In a dark place under a rock, you hold your hungry belly and  
lick the bottom of your feet feebly, while sitting weakly.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was  
imprisoned on a cold crescent mo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hang on in winter.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Snare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Hunters stand up, holding up hawks on every peak.  
If you are caught in a snare, you will be strangled to death and  
be served on a ritual food table.  
Hunters and hunting dogs run to a dark valley, panting heavily.  
Petrified, you move fast.  
'Hunter, release a hawk.'  
The young hawk has a tag of a crane's feather, a decoration of  
a peacock's feather, and a leather cord on its leg.  
It flaps its wings and flies at you.  
It catches you around your ears with two legs  
With the curved beak it punches the bone between your two  
eyebrows!"  
"My goodness. I told you to stop the rude talk.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middle of a mountain."  
"If you go to the middle of the mountain, a hunter hides under  
a pine tree, ready to shoot you.

풀감투<sup>937)</sup> 푸삼<sup>938)</sup> 입고,  
 방패, 궤미<sup>939)</sup> 앞세우고,  
 상사방물<sup>940)</sup> 왜물<sup>941)</sup> 조총<sup>942)</sup> 화약 덮사슬<sup>943)</sup>을 얼른 넣고,  
 반달같은 방아쇠,  
 고추 같은 불을 얹어,  
 한 눈 찡그리고 반만 일어서서,  
 귀약불<sup>944)</sup> 번뜻, 지끈<sup>945)</sup> 팽,  
 토끼 떼그르르르.”  
 “어따,<sup>946)</sup> 그분이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리 점점 하는데.  
 그러기에 뉘가 게 있간디?<sup>947)</sup>  
 너른 들로 다니제.”  
 “들로 단는 토끼, 초동 목수<sup>948)</sup> 아이놈들 몽둥이 드리메고,<sup>949)</sup>  
 없는 개 호구리며,<sup>950)</sup> ‘들토끼 잡으러 가자. 위리<sup>951)</sup> 두둑.’<sup>952)</sup> 쫓아  
 갈 제,  
 그대 간장<sup>953)</sup> 생각하니 백등칠일곤곤 한태조의 간장,<sup>954)</sup>  
 적벽강 전패<sup>955)</sup>허든 조맹덕<sup>956)</sup> 정신이라.  
 거의 주려 죽을 토끼  
 충암절벽<sup>957)</sup> 석간<sup>958)</sup>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제,  
 짜룬<sup>959)</sup> 풍지<sup>960)</sup> 살에<sup>961)</sup> 끼고 요리 깡짱, 저리 깡짱, 깡짱접동<sup>962)</sup>  
 뛰놀 제,  
 목궁기<sup>963)</sup> 쓴 내<sup>964)</sup> 나고,  
 밀궁기<sup>965)</sup> 조총 노니<sup>966)</sup>  
 그 아니 팔난<sup>967)</sup>인가?  
 팔난 세상 나는 싫네.  
 조생모사<sup>968)</sup>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뉘 이르며,

He wears a hat and clothing made of grass.  
 He has a shield and a string.  
 He loads a Japanese rifle with powder and a bullet right away.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s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The gunpowder explodes suddenly.  
 You roll over.”  
 “Gosh, I told you to cut out this unpleasant talk!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open field.”  
 “If you go down to the field, young woodcutters and cow-herds  
 carry sticks on their shoulders.  
 Although there is no dog, they call dogs to hunt down a hare  
 and they chase you.  
 You feel like the ancient king surrounded by an enemy for seven  
 days.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defeated by a  
 fire attack in Chibi River(赤壁江).  
 You almost starve to death.  
 You climb a cliff of rugged rocks, unsteadily squeezing through  
 the spaces between the rocks.  
 Your short tail is attached to your groin, and you jump around  
 here and there.  
 A bad smell comes out of your throat.  
 You are shot on the back.  
 These are the eight hardships.  
 I don't like the eight hardships.  
 Your life is always in jeopardy.  
 Who says you have any leisure time?

무슨 정에 유산?

무슨 정에 완월?<sup>969)</sup>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부렁이<sup>970)</sup>를 뉘 앞에다가 허랍신가?<sup>971)</sup>

## 26. (수궁 홍미) 별주부가 수궁의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니리] “에이, 여보시오. 그런 소리 허지 마시오.”

퇴끼 듣더니, “여보시오, 별주부. 당신 참말로 상<sup>972)</sup> 잘 보요.

아, 그 양반이 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는 듯이 말을 허는디,

주부 말씀이 똑<sup>973)</sup> 다 옳소. 옳아.

내 팔자가 영락없이 그렇게 생겼소.

여보시오, 별주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이제,

수궁 경개<sup>974)</sup>는 어땡소?

수궁 경치나 좀 알려주시오.”

“공연히 수궁 경개 일러놓으면 듣고 따라올라고?”

“아니, 안 따라갈 테니, 경치나 좀 알려주시오.”

“수궁 경개 이야기하면 당신 대번에<sup>975)</sup> 환장<sup>976)</sup>할 것이요.

우리 수궁 장허지요.<sup>977)</sup>

천양지간<sup>978)</sup>에 해내최대<sup>979)</sup>하고,

만물지중에<sup>980)</sup> 신위최령<sup>981)</sup>이라.

무변대해<sup>982)</sup>에 천여 간<sup>983)</sup>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호박 주초,<sup>984)</sup> 주란화각<sup>985)</sup>이 반공에<sup>986)</sup> 솟았는데,”

[진양조] “우리 용왕 즉위하사<sup>987)</sup> 만족<sup>988)</sup>이 귀시허고,<sup>989)</sup> 백성이 앙  
덕<sup>990)</sup>이로구나.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Did you think I would buy such a blatant lie?"

## **26. (Good Things about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o Hare to go with him.**

[Aniri] "Mr. Hare, your lie doesn't work."  
Hare responds, "Mr. Terrapin, you are good at reading somebody's fate by his appearance.  
You know about my life as if you have been following me everyday.  
Everything you said about my life is right.  
You are certainly right about my fate.  
Hello, Mr. Terrapin. You mentioned the sea palace.  
How does the sea palace look?  
Tell me about what the sea palace looks like."  
"I am afraid you will follow me after talk about the sea palace."  
"No, I won't follow you. Just tell me about it."  
"Once I talk about it, you will be excited about it right away.  
My sea palace is fantastic.  
The sea is the largest thing between heaven and earth.  
God is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world.  
My palace is wide in the limitlessly large sea.  
Glass pillars, jade cornerstones, and multicolored towers rise to the sky.  
[Jinyangjo] "When my king came to the throne, all the people treasured him and looked up to him.

왕모 금병 천일주<sup>991)</sup>와  
 천빈옥반<sup>992)</sup> 담은 안주  
 불로초<sup>993)</sup> 불사약<sup>994)</sup>을 취토록 먹은 후에,  
 일홍<sup>995)</sup>이 도도허면  
 미색<sup>996)</sup> 세악<sup>997)</sup> 갇은 풍악<sup>998)</sup> 대홍선<sup>999)</sup>에다 가득 싣고 요지<sup>1000)</sup>로  
 돌아들 제,  
 칠백 리 군산<sup>1001)</sup>은 물 속에 가 벌여 있고,  
 삼천 사장<sup>1002)</sup> 해당화는 약수<sup>1003)</sup>에 붉었도다.  
 해내태평<sup>1004)</sup>하야 월청명<sup>1005)</sup>  
 추강상<sup>1006)</sup>에 어적소리<sup>1007)</sup>로 화답<sup>1008)</sup>을 하고,  
 경수<sup>1009)</sup> 위수<sup>1010)</sup> 낙수<sup>1011)</sup> 회수<sup>1012)</sup> 양진<sup>1013)</sup> 포진<sup>1014)</sup> 팽려<sup>1015)</sup>  
 소상<sup>1016)</sup> 흑거흑래<sup>1017)</sup> 노닐 적에,  
 적벽강<sup>1018)</sup> 소자침<sup>1019)</sup>과 채석강<sup>1020)</sup> 이태백<sup>1021)</sup>이 이런 흥미 알았  
 으면, 세상에서 왜 있으리?  
 원컨대 토서방도 나를 따라 수궁 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고,  
 미인미색을 마음대로 다리고<sup>1022)</sup> 만세동락<sup>1023)</sup>을 허오리다.”

## 27. (여우 만류)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을 가는데, 여우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퇴끼가 듣더니 딱 반허제.<sup>1024)</sup>  
 “여보시오, 별주부. 주부 말씀은 듣고 보니, 수궁 경치가 참 좋소그려.  
 꼭 그렇게 좋기만 허면, 나 주부 따라 수궁에 구경 한 번 갈랴요.”  
 “나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을 알면서 공연히 긴찮은<sup>1025)</sup> 말을 했던 말여.”

A thousand-day-old wine is served in a golden glass.  
A food that can be served to a thousand valuable guests is on  
a jade tray.  
We help ourselves to the elixir of youth and elixir of no death.  
We drink and feel good.  
The pleasure boat filled with beautiful girls and music arrives  
at a divine pond.  
Many mountains are reflected in the pond.  
Wild roses are red on a long sandy field of a divine river.  
The sea is peaceful, and the moon is bright.  
We respond to a fisherman's flute on an autumn river.  
We travel to and come back from famous rivers, their tributaries,  
ports, lakes, and sites famous for scenic beauty.  
If ancient poets had known the excitement of the sea world,  
they would not have lived on the land.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acquire a high  
government position.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day and night forever."

**27. (Fox's Dissuasion) While Hare follows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fox shows up and tries to dissuade  
Hare from going.**

[Aniri] Hare, who has been listening to Terrapin, is moved.  
"Hello, Mr. Terrapin. After listening to you, I think the sea palace  
is a great place.  
If the sea palace is that great, let me follow you there for  
sightseeing."

“참말로 그리 좋으면 날 데리고 가시오.”

“꼭 따라올라요?”

“꼭 따라가지요.”

“그럼 같이 갑시다.”

[중모리]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sup>1026)</sup>

토끼는 뒤에서 깡깡깡깡

원로해변<sup>1027)</sup>으로 내려갈 제,

건너 산 바위틈에 여우란 놈이 나왔으며,

토끼를 보고 말을 한다.

“여봐라, 토끼야!”

“왜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별주부 따라 벼슬살러 간다.”

“어따,<sup>1028)</sup> 자식 실없는<sup>1029)</sup> 놈.

자라놈의 말을 듣고 망망창해<sup>1030)</sup>를 가라느냐?

옛 일을 모르느냐?

삼려대부 굴원<sup>1031)</sup>이는 어복중<sup>1032)</sup>에 고훈<sup>1033)</sup>이 되고,

장사<sup>1034)</sup> 태부<sup>1035)</sup> 가의<sup>1036)</sup>도 양자강에 가 빠져 죽고,

요녀순처<sup>1037)</sup> 아황여영<sup>1038)</sup> 창오산<sup>1039)</sup> 저문 날에 순임금 따라오다

가 소상강<sup>1040)</sup>에 가서 죽었으니,

가지 마라.”

“그래도 나는 수궁 가서 구경만 허고 올란다.”

“어따,<sup>1041)</sup> 내 말 또 듣거라.

고집허다 망신된 일 네 어이 모르느냐?



"That's what I expected.

I knew you would follow me, but you said you wouldn't."

"If the sea palace is that good, please take me there."

"Are you sure you want to follow me?"

"Yes, I am sure."

"Let's go together, then."

**[Jungmori]**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lair between rocks.

He speaks to Hare.

"Hello, Hare."

"Yes!"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sea palace."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I am going there to get a government position!"

"My goodness. You are a fool.

Are you going to the vast sea, persuaded by Terrapin?

Don't you know the old saying?

An ancient politician became a lonely spirit in a fish's belly.

An ancient poet was drowned in a river.

Two ancient queens followed their king on a mountain in darkness and were drowned in a river.

So don't go there."

"Even so, I will go sightseeing in the sea palace and come back."

"Gee, listen to me again.

There are many instances in which stubbornness led to trouble.

상주<sup>1042</sup>)의 몫쓸 고집 비간<sup>1043</sup>)의 말을 아니 듣고 목야분사<sup>1044</sup>)하여  
 있고,  
 진나라 시황<sup>1045</sup>) 고집 부소<sup>1046</sup>)의 말 아니 듣고 궁심소육<sup>1047</sup>) 십오년  
 에 이세망국<sup>1048</sup>)하여 있고,  
 한나라 한신<sup>1049</sup>)이도 괴철<sup>1050</sup>)의 말 아니 듣고 삼족<sup>1051</sup>)이 멸했으  
 며,<sup>1052</sup>)  
 칼 잘 쓰던 위인<sup>1053</sup>) 형가<sup>1054</sup>)  
 역수한풍<sup>1055</sup>) 슬픈 노래  
 장사<sup>1056</sup>) 일거<sup>1057</sup>) 제 못 왔고,  
 천추 원한<sup>1058</sup>) 초희왕<sup>1059</sup>)도 진 무관<sup>1060</sup>)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를  
 못했으니,  
 가지 마라.  
 녹녹한<sup>1061</sup>) 자네 마음 말려 무엇하랴마는,  
 옛글에 이르기를 토사호비<sup>1062</sup>)라고 일렀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에<sup>1063</sup>) 길들이고,<sup>1064</sup>)  
 임천<sup>1065</sup>)에 같이 늙어,  
 동성 삼아 동기상통<sup>1066</sup>) 일시 이별을 마쳤더니,<sup>1067</sup>)  
 네가 저 지경이 웬일이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국인즉 위방<sup>1068</sup>)이다.  
 위방불입<sup>1069</sup>)이니  
 가지 마라.”

A stubborn ancient tyrant did not listen to his loyal subject and was burned to death.

An ancient king did not listen to his eldest son, kept his way for fifteen years, and his country collapsed.

An ancient military office did not listen to a man, and his father's, mother's, and wife's families perished.

A skillful swordman tried to kill a tyrant.

He heard a sad song in a cold wind from a river while saying goodbye to his friends.

But he did not return after he left.

An ancient king went to the land of the enemy, lived a resentful life, and he never came back.

So don't go there.

You are worthless, so it is of no use to try to stop you,

A proverb says, however, that if a hare dies, a fox mourns.

We lived together in a burrow under a rock in this mountain.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here.

We promised to be friends and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I can't believe what you are doing.

Don't go there.

The sea palace is a dangerous place.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Don't go there."

## 28. (별주부 토끼 유인) 토끼가 주저하자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여 수궁으로 출발한다.

[아니리] 토끼가 듣고 깡깡 뛰어 돌아서더니,  
“여보시오, 별주부, 나 안 갈라요.  
내가 오늘 저 저 여우 사촌 아니었든들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소.  
여보시오, 별주부, 평안히 가시오.  
나는 안 갈라요.”  
도로 깡깡깡깡 뛰어 올라가니  
별주부가 기가막혀,  
“네 이놈, 여호야.  
내가 네 사촌 수달 따라 우리 수궁에 들어왔기로,  
타국 짐승이라고 귀히 여겨 호조판서를 시켰더니,  
호조<sup>1070</sup>) 돈 삼만 냥을 갑자고리<sup>1071</sup>)하야 없었기에,  
어전 곤장<sup>1072</sup>) 삼십 도<sup>1073</sup>)에 문외송출<sup>1074</sup>)을 시켰더니,  
네 말이 탄로될까 싶어 남까지 못 가게 심술을 부리느냐?  
이 못된 놈아, 이놈아.”  
토끼가 듣고 깡깡 뛰어 돌아서더니마는,  
“여보시오, 별주부, 주부 말씀이 똑<sup>1075</sup>) 다 옳소, 옳아.  
저놈 심술이 꼭 그러합니다.  
저놈 심술이 어디 먹을 데는 보면 제가 앞서 가고,  
재 너머 김포수 딱 이렇게 목잡고<sup>1076</sup>) 서 있는 데는 꼭 저 녀석이  
나를 먼저 보냅니다.  
여보시오, 별주부. 나 주부를 따라갈 마음은 있소마는, 한 가지 난처  
한 일이 있소.

**28. (Terrapin Wins Hare Over.) Hare hesitates.  
Terrapin wins Hare over. They depart for the sea  
palace.**

[Aniri] After listening to the fox, Hare jumps up and turns around.

“Hello, Mr. Terrapin. I won’t go there.

But for that fox, my cousin, I almost got into the course to death.

Hello, Mr. Terrapin. So long.

I won’t go there.”

Hare runs back up.

Terrapin is dumfounded.

“Fox, you villain.

You followed your cousin, an otter, to the sea country.

Since you were a foreign animal, we treasured you and appointed you as a finance minister.

You lost a million dollars of the government money in a gamble.

We caned you thirty times and kicked you out.

You act perversely now because you are afraid your past will be unveiled.

How bad you are, bastard!”

After hearing Terrapin, Hare turns up around.

“Hello, Mr. Terrapin. You are absolutely right.

That fox is a perverse animal.

Because of his perversity, he goes ahead of me when food waits for us.

When a hunter over the mountain waits for us on a trail, he puts me in front of him.

Hello, Mr. Terrapin. I wish to follow you, but one thing concerns me.

내가 주부 따라 수궁 천 리 먼 먼 길을 들어갔다 일거<sup>1077</sup>)에 소식이  
돈절<sup>1078</sup>)허면 그 아니 원통하오?”

별주부가 이 말을 듣더니 또 구변<sup>1079</sup>)을 내는디,

[중모레] “수궁 천 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sup>1080</sup>) 양혜왕<sup>1081</sup>)을 가 보았고,

위수<sup>1082</sup>) 어부 강태공<sup>1083</sup>)도 문왕<sup>1084</sup>) 따라서 입주<sup>1085</sup>)하고,

한기도창 축도난 황면장군 한신이<sup>1086</sup>)도 소하<sup>1087</sup>) 따라 한중<sup>1088</sup>) 가  
서 대장단에<sup>1089</sup>) 올랐으니,

토선생도 나를 따라 우리 수궁 들어가면, 훨씬 벗은<sup>1090</sup>) 저 풍골<sup>1091</sup>)  
에 훈련대장 혈 것이고,

미색<sup>1092</sup>) 기약<sup>1093</sup>)을 마음대로 데리고 만세동락<sup>1094</sup>)을 허오리다.”

“그리허면 같이 가세.”

벽해수변<sup>1095</sup>)을 내려갈 제,

강상에 등등 뗏는 배는

한가한 추강<sup>1096</sup>) 어부 풍월<sup>1097</sup>) 실러 가는 뱃가?

십리장강벽파상<sup>1098</sup>)에 왕래하던 거룻뱃가?<sup>1099</sup>)

오호상 연월 속에 범상공 가는 뱃가?<sup>1100</sup>)

야박진회근주가<sup>1101</sup>) 술 사 싣고 가는 뱃지?

양양창파<sup>1102</sup>) 노니난<sup>1103</sup>) 쌍쌍백구<sup>1104</sup>)만 떠서 논다.

“소소추풍송안군<sup>1105</sup>)에 울고 가는 저 기력아.

거기 잠깐 머물렀다 나의 한 말을 들어다오.

백운청산<sup>1106</sup>) 놀던 토끼가 벽해수궁<sup>1107</sup>)을 가더라고,

우리 벗님 앵무전에<sup>1108</sup>) 그 한 말 부디 전하여라.”

잔소리허며 내려갈 제,

그날사말고<sup>1109</sup>) 풍세<sup>1110</sup>)가 사나와

물결이 워르르 출렁 쇠, 뒤둥그러져<sup>1111</sup>) 떠나간다.

If I follow you to the sea palace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here and if I can't come back, that would be sad."

After hearing Hare, Terrapin becomes eloquent again.

**[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Mencius visited his king, taking a long journey.

An ancient fisherman followed his king and became his premier.

An ancient military officer who led his soldiers to a muddy road followed a politician and became a general.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because you look great."

You will enjoy beautiful girls and music to the full for thousands of years."

"Then, let's go together."

They leave for the blue sea.

A boat floats on the river.

Is it carrying a fisherman's poem in the quiet autumn river?

Is it the barge that crossed a wide blue river back and forth?

Is it the boat in which an ancient retired politician enjoyed himself on at a foggy moonlit night?

Is it the boat carrying wine to a bar at night?

Sea gulls fly in pairs over the endlessly wide blue water.

"Wild geese, you sing sadly in a lonely autumn wind.

Stay there for a moment and listen to me.

A hare who lived in a mountain and a cloud is going to the sea palace to get a government position.

Please tell my friend, a parrot, about that."

Hare walks along, while whining.

Of all days, it is a windy day.

Strong waves of water move away, twisted and crushed.

[아니래] 토끼가 보더니,  
 “아이고, 나 저 물 무서워 못 가겠다.  
 내가 수궁 들어가서 용왕 된대도 안 갈란다.  
 여보시오, 별주부, 평안히 가시오. 나 안 갈라요.”  
 도로 짱짱 뛰어 올라가더니,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그 잘 생긴 낮썽을 내놓고 요리 되작,<sup>1112)</sup> 저리 되작, 반찬대加里 굽  
 듯 되작거리고 앉았제.  
 별주부 기가막혀,  
 “예레이<sup>1113)</sup> 순 잡녀르<sup>1114)</sup> 자식아.  
 벼슬허로 가자는데도 용대기<sup>1115)</sup> 뒷줄 췌기듯<sup>1116)</sup>  
 자찌바띠허고<sup>1117)</sup> 앉았는 꼬라지<sup>1118)</sup> 눈공뎡이가<sup>1119)</sup> 시어서<sup>1120)</sup> 못  
 보겠네.  
 네 이놈 토끼야.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라. 아, 이놈아.  
 네 몸 위해서 가지, 날 위해서 가냐, 이놈아?  
 그러나 이놈, 네 생긴 상호<sup>1121)</sup>를 보면,  
 인중<sup>1122)</sup> 밑이 짧은 것은 단명격<sup>1123)</sup>이 분명허고,  
 안중<sup>1124)</sup>에는 화망살<sup>1125)</sup>이라.  
 내일 아침 묘시 말,<sup>1126)</sup> 진시 초<sup>1127)</sup>에 재 너머 김포수 무자현자금자  
 때<sup>1128)</sup> 온동사슬<sup>1129)</sup> 잘 가는 총으로,  
 네놈의 복두자리<sup>1130)</sup> 양미간<sup>1131)</sup> 골치대목<sup>1132)</sup>에다 들이대고 그  
 저 ‘탕!’”  
 퇴끼 깜짝 놀래,  
 “여보시오. 아, 그 탕 소리 좀 빼시오.  
 우리 삼대가 다 총으로 망했소, 이 양반아.  
 저 수궁에 가면 총 없소?”



[Aniri] Hare looks at the waves.

“God, I can’t go there because the water is scary.

I won’t go to the sea palace even if I become a dragon king there.

Mr. Terrapin. Take care. I won’t go there.”

Hare turns around and jumps up.

He sits down in a sunny place.

He moves his good-looking face as if he moves food on a frying pan.

Terrapin is struck dumb.

“How stupid and foolish you are!

I just want to get you a government job, but you are not pliable.

You blow hot and cold. You are unpredictable. I can’t stand you anymore.

Hare, you fool! You can come with me or stay there. You scoundrel!

We are going there for the sake of you, not me. You villain.

You villain. Let me tell you how you look.

The short line in your upper lip indicates you will surely die young.

Your deep eyes signify you will die by fire.

A hunter over a mountain will load a bullet in a rifle early tomorrow morning.

He will shoot you in the space between the two eyebrows. Bang.”

Hare is astonished.

“Hello. Please cut the word ‘bang’ out.

Rifles killed three generations of my family.

Will I be free of a rifle in the sea palace?”

“아, 이 양반아. 수화<sup>1133</sup>)가 상충<sup>1134</sup>)인디,

무슨 총이 있단 말이오?”

“대체 그렇겠소.

그러면 주부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시험해 봐가지고

목물<sup>1135</sup>)만 지면<sup>1136</sup>)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겠소.”

“글랑은 그리 허시오.”

별주부가 물에 풍 들어가서 이리저리 둥둥둥둥 떠다니니,

퇴끼가 보더니, “아, 그 물이 보기보다는 실없소그려.<sup>1137</sup>)

그러면 나도 밭 들여가오.”

“어서 들어오시오.”

토끼가 앞니로 버드나무 가지를 짹 물고,

뒷발을 물에다 실게미<sup>1138</sup>) 담거노니,

자래라 허는 것은 물에서는 편전<sup>1139</sup>) 살<sup>1140</sup>)같이 빠른 짐생이라,

우루루루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짹 물고 물속으로 울룩울룩<sup>1141</sup>)

해노니,

퇴끼 기가맥혀,

“아이고, 갑갑해 나 죽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짚물 들어가면 간 녹는다, 이놈아.

이녀석, 할 수 있느냐?

이왕 들어왔으니 내 등에 업혀라.

내 들어가며 곳곳이<sup>1142</sup>) 이를 테니 구경이나 착실히 하여라.”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수궁으로 들어가면서 사면 경개<sup>1143</sup>)를 이르

는다,

“You fool. Water is incompatible with fire.  
How can there be a rifle there?”  
“I see.  
If so, you get in the water first and check the depth.  
If the water stays below my neck, I will go.  
If not, I can’t go.”  
“Suit yourself.”  
Terrapin gets in the water and moves around on the surface.  
Hare responds, “Gee, the water is not dangerous.  
I am putting my feet in the water.”  
“Come in right away.”  
Hare bites a willow branch hard.  
He slowly puts his hind legs in the water.  
A terrapin is as fast as an arrow in water.  
He moves fast to Hare, bites Hare’s hind leg, and moves deep  
into water.  
Hare is scared.  
“My goodness. I might be suffocated to death.”  
“You fool. Don’t open your mouth.  
If salty water goes into your mouth, your liver might melt down.  
You villain. Can you hang on?  
Since you are in water, stay on my back.  
On our way to the sea palace, I will explain sites. Enjoy them.”  
As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he  
explains the landscape.

## 29. (범죄종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팔경을 구경하며 수궁으로 들어간다.

(A형)

[진양조] 범피중류<sup>1144</sup> 등덩실<sup>1145</sup> 떠나간다.

망망<sup>1146</sup>한 창해<sup>1147</sup>이며,

탕탕한<sup>1148</sup> 물결이라.

백빈주<sup>1149</sup> 갈매기는 홍요안<sup>1150</sup>으로 날아들고,

삼강<sup>1151</sup>의 기러기는 한수<sup>1152</sup>로 돌아든다.

요랑한<sup>1153</sup> 남은 소리 어적<sup>1154</sup> 이언마는<sup>1155</sup>

곡종인불견<sup>1156</sup>의 수봉<sup>1157</sup>만 푸르렀다.

애내성중만고수<sup>1158</sup>는 날로 두고 이름인가?

장사<sup>1159</sup>를 지내가니 가태부<sup>1160</sup>는 간 곳이 없고,

떡라수<sup>1161</sup>를 바라보니 굴삼려<sup>1162</sup> 어복충훈<sup>1163</sup> 무양<sup>1164</sup>도 하시  
던가?

황학루<sup>1165</sup>를 당도하니 일모향관하쳐시오?

연파강상의 사인수는 최호의 유적인가?<sup>1166</sup>

봉황대<sup>1167</sup>를 당도하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sup>1168</sup>는 이태백이 놀던 데요,

심양강<sup>1169</sup>을 돌아드니, 백낙천<sup>1170</sup> 일거후에<sup>1171</sup> 비파성<sup>1172</sup>도 끊  
어지고,

적벽강<sup>1173</sup>을 그제<sup>1174</sup> 가랴?

소동파<sup>1175</sup> 놀던 풍월 의구하여<sup>1176</sup> 있다마는,

조맹덕<sup>1177</sup> 일세지웅<sup>1178</sup> 이금에 안재오?<sup>1179</sup>

29. (On the Sea).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as they see the eight beautiful  
sites.

(Variation A)

[Jinyangjo] Terrapin and Hare go slowly in the wide sea,  
The sea is endlessly wide.  
The large waves are strong.  
Sea gulls fly from the island of white flowers to the hill of red  
reeds.  
Wild geese return from three rivers to another river.  
A far-reaching sound seems to be from a fisherman's flute.  
When the song is over, only a few green peaks are seen.  
The oar sounds seem to express anxiety.  
Terrapin and Hare pass a place where a famous politician and  
poet lived in ancient times.  
They watch a river and say hello to a loyal official who became  
food for fish in the river in ancient times.  
They arrive at a tower where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Where is my hometown?  
A fog rising up from the river intensifies my anxiety."  
Terrapin and Hare reach another tower and see clouds hanging  
around the middle of Three Peaks.  
A river flows around the island where another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Terrapin and Hare enter another river where a lute sound  
stopped after another ancient poet had gone.  
They drop by another river.  
The beautiful site remains the same as when another ancient  
poet Su Dong Po(蘇東坡) enjoyed himself.  
Cao Cao(曹操), a hero in ancient times was here, but he has gone.

월락오제<sup>1180</sup> 깊은 밤에 고소성외<sup>1181</sup> 배를 매니,  
 한산사<sup>1182</sup> 쇠북소리는<sup>1183</sup> 객선에<sup>1184</sup> 텅텅 떨어진다.  
 진회수<sup>1185</sup>를 바라보니,  
 연룡한수월룡사할 제,<sup>1186</sup>  
 상녀<sup>1187</sup>는 부지망국한<sup>1188</sup>하고, 격강유창후정화<sup>1189</sup>를 즐기더라.  
 소상강을 들어가니 악양루<sup>1190</sup> 높은 집은 호상에<sup>1191</sup> 솟았는 듯.  
 점점 수궁을 당도하여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 척<sup>1192</sup> 부상<sup>1193</sup> 위에  
 일륜홍이<sup>1194</sup> 어리었고,  
 바다가 뒤끓으며<sup>1195</sup> 어룡<sup>1196</sup>이 싸우는 듯  
 수진남천<sup>1197</sup> 둘러 있고,  
 서로<sup>1198</sup> 바라보니 서천서역<sup>1199</sup> 연화세계<sup>1200</sup> 삭발일체<sup>1201</sup> 대  
 사<sup>1202</sup>들이 경문<sup>1203</sup> 놓고 설법<sup>1204</sup>한다.  
 한 곳을 당도하니 금계<sup>1205</sup>소리가 쨍쨍 은은히 들리거늘,  
 눈을 들어 가만히 살펴보니 백옥 현판<sup>1206</sup>에 황금 대자<sup>1207</sup>로 ‘남해  
 수궁 수정문’이라 동두렷이<sup>1208</sup> 새겼거늘,

**(B형)**

[진양조] 이 편을 가리키며,  
 “강남지방<sup>1209</sup>이요,  
 저편은 고소성<sup>1210</sup>이라.  
 구름 밖에 솟은 것은 동정호<sup>1211</sup> 칠백 리요,  
 하늘에 닿은 것은 이비<sup>1212</sup>의 형남산<sup>1213</sup>이라.”  
 악양루<sup>1214</sup> 완경<sup>1215</sup>허고 파룡<sup>1216</sup> 군산 돌아드니,  
 경개가 처치기이<sup>1217</sup>허구나.

A boat casts anchor near a castle at night when the moon sets  
and a crow cries.

A drum sound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boat with  
a traveler.

Terrapin and Hare see a canal.

Thick fog hung over the cold river and the moonlight was shiny  
on the sandy field.

Bar girls across the river only sang a song without knowing of  
the fall of their country.

They enter a river and see a high pavilion on a lake.

They gradually arrive at the sea palace and see the sun on the  
horizon in the east.

The sea runs wild as if a fish and a dragon fight each other.

A blue sky meets the sea on the horizon.

In the Western Paradise, Buddhist monks with shaved heads  
explain Buddhist scriptures.

Terrapin and Hare arrive at a place and hear the sound of a  
golden pheasant.

They raise their eyes and see a white jade board with clear and  
large golden letters, "The Main Gate to the Sea Palace."

**(Variation B)**

**[Jinyangjo]** Terrapin points to a place.

"We are in Jiangnan(江南) region.

Gusu Castle(姑蘇城) is over there.

What reflects the clouds below is Dongting Lake(洞庭湖) of great  
length.

On the horizon is Jingnan Mountain(荊南山) of two ancient  
queens.

After watching Yueyang Pavilion(岳陽樓), Terrapin and Hare  
arrive at Baling(巴陵) region.

The landscape is exotic.

소상야우<sup>1218)</sup>

강천모설<sup>1219)</sup>

창오모운<sup>1220)</sup>

황릉애원<sup>1221)</sup>

무산낙조<sup>1222)</sup>

한산모종<sup>1223)</sup>

평사낙안<sup>1224)</sup>

원포귀범,<sup>1225)</sup>

팔경<sup>1226)</sup>을 다 본 후에, 양곡<sup>1227)</sup>으로 돌아들어

한 곳을 당도하니 금계소리<sup>1228)</sup>가 쟁그렁청 들리거늘,

토끼가 눈을 들어 사면을 살펴보니,

백옥<sup>1229)</sup> 현판<sup>1230)</sup>에 황금 대자<sup>1231)</sup>로 새겼으되, ‘남해 영덕전 수정  
문’이라 뚜렷이 새겼거늘,

### 30. (토끼 잡아들임) 수궁에 당도하여 나졸들이 토끼를 잡 아들이자,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리] 토끼가 보더니,

“좋다, 좋아. 내가 들어올 때 물을 몇 모금 먹기는 먹었지마는,  
들어와 보니 참말로 좋다.”

네 귀<sup>1232)</sup>에 풍경<sup>1233)</sup>이 웅그렁정그렁<sup>1234)</sup>하고,  
별유천지비인간<sup>1235)</sup>이라.

“이런 좋은 경치에 풍월<sup>1236)</sup>이나 한 수 읊어볼까?

‘산중유객이 도수궁하니,

사해풍광이 입안중이라.’<sup>1237)</sup>



They perceive the night rain of Xiaoxiang River(瀟湘江),  
 snow falling on a riverside in the evening,  
 a cloud of Cangwu Mountain(蒼梧山) in the evening,  
 the sorrow of two ancient queens in Huangling Shrine(黃陵廟),  
 the sunset of Wu Mountain(巫山),  
 the sounds of a bell in Hanshan Temple(寒山寺),  
 wild geese flying down on the flat sand,  
 and a sailing boat returning to a port in distance.  
 After watching all the eight beautiful sites, Terrapin and Hare  
 head to the east.  
 They arrive at a place and hear the sound of a golden pheasant.  
 Hare lifts up his head and looks around.  
 There is a white jade board with clear and large golden letters,  
 'The Main Gate to the Sea Palace.'

### **30. (The Arrest of Hare) Terrapin and Hare reach the sea palace. Guards arrest Hare, and Hare denies he is a hare.**

[Aniri] Hare watches the sites go by.  
 "Bravo. When I come here, I took a couple of sips of water.  
 The view is great in the sea."  
 Small bells jingle in the four corners of the building.  
 This is a paradise.  
 "This beautiful landscape makes me recite a poem.  
 'A guest from a mountain arrives in the sea palace.  
 Marine scenes enter eyes from all directions.'

좋다, 좋아.

여보시오, 별주부. 이왕<sup>1238</sup>)에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미관말직<sup>1239</sup>)이라도 참여나 하게 해주시오, 잉?

내가 정승 허기만 허면 주부는 꼭 판서 시키오리다.”

“글랑은 그리 허시오마는,

진세<sup>1240</sup>)나 수국이나 풍속이 좀 달라,

내 안에 들어가 남여<sup>1241</sup>) 내보낼 테니,

혹 ‘퇴끼 잡아들여라’하는 청령<sup>1242</sup>)이 나드래도 부디 놀래지 마시오.

세상 같으면, 훈련대장 입시<sup>1243</sup>) 들라<sup>1244</sup>)는 분부이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시오.

내 안에 들어가서 남여 내보내리다.”

“글랑은<sup>1245</sup>) 그리허시오마는, 법인즉 패려하오.<sup>1246</sup>)

내가 벼슬하기만 하면 그 법 꼭 뜯어고칠랴요.”

“그리허시오.”

별주부가 안예를 들어가니

용왕이 금방 사경<sup>1247</sup>)이로구나.

“진세<sup>1248</sup>)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sup>1249</sup>)이요.”

용왕이 이만허고<sup>1250</sup>) 보시더니,

“수로 육로 이만 리를 무사히 잘 다녀왔으며,

그래 토끼는 어찌 되었는고?”

“예. 토끼를 산 채로 생금<sup>1251</sup>)하여다가 쥘문 밖에 대령<sup>1252</sup>) 하엿나이다.”

“어, 기특코 고마운 말이로다.

네 여봐라. 내 우선 급허니 어서 토끼 잡아 들여라.”

“예이!”

청령이 으근으근허니<sup>1253</sup>) 야단이 났제.

퇴끼 저 잡것<sup>1254</sup>) 물색<sup>1255</sup>) 모르고,

Good. Good.  
 Hello, Mr. Terrapin. I am already here from land.  
 I wouldn't mind a low position. Give me any government position.  
 If I become a prime minister, I will appoint you as a minister."  
 "Suit yourself on that account.  
 The custom of the sea country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land.  
 I will go in there first and send you a carriage.  
 Don't be surprised even if you hear an official order 'Arrest Hare.'  
 The order means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s coming,' in the language of the land.  
 Sit tight here.  
 I will go inside first and send you a carriage."  
 "I'll do as you told me to do, but the law is sick.  
 If I become a government official, I will change the law without fail."  
 "Suit yourself."  
 Terrapin goes inside.  
 The dragon king is about to die.  
 "Your Majesty, this is Terrapin from the land!"  
 The dragon king vacantly looks at Terrapin.  
 "How was your long trip in the sea?  
 Did you bring a hare?"  
 "I brought a hare alive. He is waiting outside."  
 "That's excellent!  
 Guards, this is urgent. Bring the hare here right away."  
 "Yes!"  
 The guard becomes active and moves fast.  
 Hare is foolish, not knowing anything.

‘옳지, 이제 훈련대장 입시 들래나부다.’<sup>1256)</sup>

병부<sup>1257)</sup>를 여다<sup>1258)</sup> 찰까, 저다<sup>1259)</sup> 찰까,

한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생방정<sup>1260)</sup>을 떨고 있을 적에,

[자진모리] 좌우 나줄,<sup>1261)</sup> 금군<sup>1262)</sup> 모지리,<sup>1263)</sup> 수달 해구<sup>1264)</sup> 순  
령수<sup>1265)</sup>

일시에 내달려<sup>1266)</sup> 토끼를 에워쌀 제,

진황<sup>1267)</sup> 만리장성 쌓듯,

산양 싸움에 마초 싸듯,<sup>1268)</sup>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들입다 잡는 모양 영문출사<sup>1269)</sup>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꼭 잡고,

“내가 이놈 토끼냐?”

토끼 눈이 휘둥굴,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달음<sup>1270)</sup>에 너를 잡아 약개장<sup>1271)</sup>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계탕<sup>1272)</sup>을 달여 먹고,

네 가죽 벗겨 내어 잘량<sup>1273)</sup> 무어서<sup>1274)</sup> 깔고 자면

어혈<sup>1275)</sup> 내종<sup>1276)</sup> 혈담<sup>1277)</sup>에는 만병회춘<sup>1278)</sup>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sup>1279)</sup>에 너를 잡아

He thinks that the king now wants to see him,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The guard is confused about where to attach his emblem.  
He runs in one direction and in another direction, acting frivolously.

**[Jajinmori]** Gray mullets, otters, and seals on the left and right are soldiers and royal guards.

They run simultaneously and surround Hare,  
as if an ancient emperor constructed the Great Wall,  
and as if soldiers surrounded an ancient warrior in a battle.  
They surround Hare in rows and treat Hare harshly as if they had arrested a bandit.

They grab Hare by his ears tightly.

“Are you a hare, bastard?”

Hare’s eyes become large.

“I am not a hare!”

“Then, what are you?”

“I am a dog.”

“A dog is even better.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liver will be boiled down with a black chicken.  
Your hide will be peeled and used as a sleeping mat.  
It is effective for slow blood flow, sore organs, and bloody phlegm.

Let’s take this puppy to the king!”

“Oh my god. I am not a dog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calf!”

“A calf is far better.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두피,<sup>1280)</sup> 족,<sup>1281)</sup> 살찐 다리,  
 양,<sup>1282)</sup> 회간,<sup>1283)</sup> 처넙,<sup>1284)</sup> 콩팥  
 후박없이<sup>1285)</sup> 나눠 먹고,  
 네 뿔 빼어 활도 매고,<sup>1286)</sup>  
 네 껍질 벗겨 내어 신도 짓고, 북고 매고,  
 네 속에 든 우황<sup>1287)</sup> 값 중헌<sup>1288)</sup> 약이 되고,  
 똥 오줌은 거름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자!”  
 “아니고, 내가 소도 아니란 말이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아, 가만 있으시오. 내가 생각해 가지고 가르쳐 드릴 테니,  
 여기 좀 놓으시오.  
 망아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목후간족이라,<sup>1289)</sup>  
 요단향장천리마로다.<sup>1290)</sup>  
 연왕도 오백금으로 죽은 뻘 사갔으니,<sup>1291)</sup>  
 너를 산 채 몰아다 대왕전에<sup>1292)</sup> 바치면 천금상<sup>1293)</sup>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  
 토끼를 결박<sup>1294)</sup>하여 빨가란<sup>1295)</sup> 주장대<sup>1296)</sup>로 꼭 찢러 들어메니,  
 토끼 하릴없이 대랑대랑 달려<sup>1297)</sup>가며,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왜야?”  
 “내 탄 것 이것 이름이 무엇이냐, 이녀석아?”  
 “오, 그것 우리 수궁 남여라 허는 것이니라.”

Your head, skin, feet, plump leg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Your horn will be used to make a bow.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shoes and drums.  
The bile in your gall bladder is an expensive medicine.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Alas! I am not a calf either!"

"Then, what are you?"

"Hold on. I'll let you know once an idea pops up in my mind.  
Put me down.  
I am a colt!"

"A colt is much better.  
You have good eyes and legs.  
You must be a fine horse.  
An ancient king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Carry him inside."

They tie Hare with a rope, push a red stick between his legs,  
and carry him on their shoulders.  
Helpless, Hare hangs on the stick.

"Hey Terrapin. You scoundrel!"

"Yes!"

"What is this thing I am on? You bastard."

"Oh, that is a carriage in this sea palace."

“수궁 남여는 본래 이리느냐?”

“오냐, 그러느니라.”

“어따,<sup>1298</sup> 이 제기를 칠 놈의 남여 두 번만 타거드면 웅두리뼈<sup>1299</sup>도 안 남겠다.”

대랑대랑대랑 달려갈 제,

영덕전<sup>1300</sup> 넓은 마당 동댕이쳐,<sup>1301</sup>

“예이, 토끼를 잡아 들었소!”

### 31. (토끼의 꾀) 용왕이 토끼 배를 가르라고 하니, 토끼가 꾀를 내어 뱃속에 간ی 없다고 둘러댄다.

[아니리] 토끼를 잡아다가 영덕전 너른 마당에다가 서너 바퀴 내동댕이를 쳐노니,

토끼 기가 막혀 두 귀를 쫑긋이 세우고,

두 눈을 동글허니<sup>1302</sup> 뜨고 딱 쪼그리고 앉았제.

용왕이 토끼를 가만히 보더니,

“어따, 그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네 여봐라. 내 우선 급하니 어서 토끼 저것 배 착<sup>1303</sup> 가르고,

간 내서 더운 짐에 소금 찍어 올려라.”

분부를 내렸거든 간 내서 소금 찍어 먹어버렸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디,

일이 그릇되느라고,<sup>1304</sup>

용왕이 토끼를 가만히 보니

하<sup>1305</sup> 묘하게 생겼거든.

저것을 타국 짐승이라고



“Does a carriage look like this in this sea palace?”

“Yes, it does.”

“My goodness. If I ride this darn carriage twice, my bones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Hare is carried on the stick.

Hare is thrown down on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We have brought Hare here!”

**31. (Hare’s Trick) The king gives an order to open  
Hare’s belly. Hare thinks up a trick and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Hare is thrown down on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and rolls over three times.

Astonished, Hare erects his two ears.

Hare sits tight with his eyes wide open.

The dragon king takes a close look at Hare.

“There must be a liver in his belly.

Hey guard. This is urgent. Open Hare’s belly immediately.

Put his liver on salt and bring it to me while it is warm.”

Nothing would go wrong if the dragon king ate the liver with  
salt as he ordered.

But things go wrong.

The dragon king takes a close look at Hare.

The king is intrigued by the look of Hare.

Hare is a foreign animal.

귀히 여겨 말을 한 번 시켜보겠다.  
 “토끼 네 듣거라.  
 내 우연득병<sup>1306</sup>)하여  
 명의다려<sup>1307</sup>) 문의헌즉<sup>1308</sup>)  
 네 간이 으뜸약이라 허기로,  
 어진 신하 별주부를 세상에까지 내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그리 알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정조<sup>1309</sup>) 한식<sup>1310</sup>) 단오<sup>1311</sup>) 추석에는 제사라도  
 착실히 지낼 것이며,  
 뗏뗏한 너의 이름은 기린각,<sup>1312</sup>) 능운대<sup>1313</sup>)에다가 황금으로 새길 것  
 이니,  
 네 죽노라 한을 말어라.”  
 토끼 저 잡것 그제야 죽을 데 들어온 줄 알었구나.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지장<sup>1314</sup>)과 천택지군<sup>1315</sup>)이며,  
 무수한 어병지졸<sup>1316</sup>)이 겹겹이 둘러쌌으니,  
 진퇴유곡<sup>1317</sup>)이요,  
 용궁지하에 필사당토라.<sup>1318</sup>) 하릴없이 꼭 죽었제.  
 토끼 두 눈을 깜짝깜짝허더니,  
 피 하나를 얻른 생각해가지고  
 배를 훔썬<sup>1319</sup>) 내밀며,  
 “자, 내 배 따시오.”<sup>1320</sup>)  
 용왕이 의심이 나제.  
 ‘저놈이 필경 배를 안 때일라고<sup>1321</sup>) 방색<sup>1322</sup>)을 할 것인디,  
 배를 따라고 훔썬 내민 것이 필유곡절<sup>1323</sup>)이라.’  
 “토끼 네 듣거라.  
 네 마지막 죽는 마당에

Treasuring Hare, the king speaks to him.  
“Hare, listen to me.  
I happened to catch a disease.  
I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your liver is the best medicine.  
I sent Terrapin, a loyal official, to bring you here.  
That’s what happened.  
After you die, rituals will be held for you on New Year’s Day,  
April 4th, and May 15th, and August 15th.  
Your shiny name will be engraved with gold on a tower.  
Don’t resent your death.”  
Foolish, Hare now realizes that he will die here.  
On the left and right are fish warriors from rivers and fish  
soldiers from ponds.  
Hare is surrounded by numerous fish soldiers in rows.  
Hare can move neither forward nor backward.  
He cannot help dying in the sea palace.  
He blinks his eyes in anxiety.  
He hits upon a trick.  
He sticks out his belly inordinately.  
“Well, open my belly.”  
The dragon king takes Hare to be strange.  
The king thinks that Hare should go wild, refusing to have his  
belly opened,  
and that there must be reason why Hare sticks out his belly to  
be opened.  
“Listen, Hare.  
You are about to die.

허고싶은 말이 있을 터인즉,

말이나 한 번 하고 죽어라.”

“어디요?<sup>1324</sup> 말해 봐도 곧이듣지도 안 할 것이고,

말해 봤자 소용없을 것인개,<sup>1325</sup>

어서 배나 따 보시오.”

“어허, 이놈 어서 말을 하여라.”

“아, 말해 봐도 소용 없당개요.<sup>1326</sup>

어서 배만 따 보시오.”

“어허, 이놈 어서 말을 하여라.”

**[중모레]**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태산이 붕퇴하고<sup>1327</sup> 오성<sup>1328</sup>이 음음한데<sup>1329</sup>

시일갈상<sup>1330</sup> 노래 소리

억조창생<sup>1331</sup> 원망 중에,

탐학한<sup>1332</sup> 상주임금<sup>1333</sup>이 성현<sup>1334</sup>의 뱃속에 칠궁기<sup>1335</sup> 있다 하고,

비간<sup>1336</sup>의 배를 갈라 무고히<sup>1337</sup> 죽였은들 일곱 궁기<sup>1338</sup> 없었으니,

소토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토명<sup>1339</sup>만 꿔사웁제,

뉘를 다려<sup>1340</sup> 달라허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웁소서.”

용왕이 화를 내어,

“이 놈, 네 말이 당치 않은 말이로다.

의서<sup>1341</sup>에 이르기를 비수병즉구불능식<sup>1342</sup>하고,

담수병즉설불능언<sup>1343</sup>하고,

신수병즉이불능청<sup>1344</sup>하고,

간수병즉목불능시<sup>1345</sup>라.

I trust you have something to say.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before you die."  
 "I won't. Even if I tell you about something, you wouldn't  
 believe it.  
 It is of no use to tell you about it.  
 Just open my belly."  
 "You stupid. Just tell me about it."  
 "It is of no use to talk about it.  
 Just open my belly."  
 "You stupid. Just tell me about it."  
**[Jungmori]** "I will tell you about something because you insist,  
 Your Majesty.  
 A mountain collapsed, and Five Stars became dark.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The people resented the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f you open my belly but can't find a liver, you will only kill  
 a poor hare.  
 Whom would you ask to give you a liver?  
 How would you get a liver?  
 Open my belly right away."  
 The dragon king is infuriated.  
 "You rat! What you said is nonsense.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예. 소토<sup>1346)</sup>가 아뢰리다.  
 소토의 간인즉<sup>1347)</sup> 원륜정기<sup>1348)</sup>로 생겼삽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이내다.<sup>1349)</sup>  
 세상의 병객<sup>1350)</sup>들이 소토 곧 얼른하면<sup>1351)</sup> 간을 달라고 보채기  
 로,<sup>1352)</sup>  
 간을 내어 파초 앞에다가 꼭꼭 싸서,  
 칩으로 칭칭 동여,<sup>1353)</sup>  
 영주<sup>1354)</sup> 석상<sup>1355)</sup>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가지<sup>1356)</sup> 끝끄터리에<sup>1357)</sup>  
 달아매놓고,  
 도화유수<sup>1358)</sup> 옥계번<sup>1359)</sup>에 탁죽하러<sup>1360)</sup>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하기로  
 완경차<sup>1361)</sup>로 왔나이다.”  
 용왕이 꾸짖어 왈,  
 “이놈! 네 말이 간사현 말iero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내장<sup>1362)</sup>은 다를 바가 없는데,  
 출입치 못하는 간을  
 어찌 내고<sup>1363)</sup> 들이고 임의로<sup>1364)</sup> 출입한단 말이나?”  
 토끼가 히히 웃으면서,  
 “대왕이 도지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sup>1365)</sup>  
 태호 복희씨<sup>1366)</sup>는 어이하여 사신인수<sup>1367)</sup>가 되었으며,  
 신농씨<sup>1368)</sup> 어찌하여 인신우수<sup>1369)</sup>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드란허웁고,<sup>1370)</sup>  
 소토는 무슨 일로 꼬리가 이리 묘똥<sup>1371)</sup>하웁고,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 Majesty.  
My liver was created by the energy from the moon.  
On the full moon, I take it out.  
On the end of the month, I put it back in.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if I show up.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there is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am here to see the sights."  
The dragon king scolds Hare.  
"You bastard! Your words are wicked.  
For humans and beasts, a liver is an internal organ.  
You can't take your live in and out.  
How can you take it in and out at your will?"  
Hare laughs.  
"Your Majesty,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long tail?  
What made my tail this short?"

대왕의 옥체<sup>1372</sup>)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토의 몸에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sup>1373</sup>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사오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sup>1374</sup>)가 한가지라 뽀뽀 우기니 답답치 아니 하오리까?”  
 용왕이 그제야 돌리느라고,<sup>1375</sup>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들이고 허는 표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란 궁기<sup>1376</sup>)가 셋이 나란히 있거늘,  
 “저 궁기 모두 다 어쩐 내력<sup>1377</sup>)이냐?”  
 “예. 소퇴가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 출입하나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sup>1378</sup>)로 나오니<sup>1379</sup>  
 만물시생<sup>1380</sup>)에  
 동방삼팔목,<sup>1381</sup>  
 남방이칠화,<sup>1382</sup>  
 서방사구금,<sup>1383</sup>  
 북방일육수,<sup>1384</sup>  
 중앙오십토,<sup>1385</sup>  
 천지음양,<sup>1386</sup> 사시정기,<sup>1387</sup> 아침 안개 저녁 이슬, 오색광채<sup>1388</sup>)를  
 응하야<sup>1389</sup>)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나오니,<sup>1390</sup>



Why does Your Majesty have shiny scales?  
Why is my body covered with soft hair?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The dragon king is fooled.  
"If so, do you have a hole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Yes, I have."  
"Let me take a look."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in detail, Your Majesty.  
I use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e.  
I take my liver out and put it back in at my will through the  
last hole."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I receive the negative and positive energy of the earth and the  
sky, all the energy responsible for four seasons, the morning fog,  
the evening dew, and the five brilliant colors,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만병회춘<sup>1391</sup>)의 명약<sup>1392</sup>)이라 허나이다.”

“그러하면 네 간 먹고 효험 본 이<sup>1393</sup>) 뉘 있느냐?”

“있기를 이를 말씀이오?”

위수 어부 강태공<sup>1394</sup>)은 고기 낚으러 나왔다가,

우리 선조 간 씻을 적에 낚싯대 내버리고

찾던 표자<sup>1395</sup>)를 선뜻<sup>1396</sup>) 끌러 그 물 조금 떠 마시고,

궁팔십 달팔십<sup>1397</sup>)에 일백육십 세를 살으시고,

우리 부친 현고<sup>1398</sup>)께서 요산요수<sup>1399</sup>)를 허옵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될 적에,

동방삭<sup>1400</sup>)이가 건져주어

그 은혜 갚노라고 간 조금 주었더니

삼천갑자<sup>1401</sup>)를 살았으니,

대왕의 성덕으로 영주 석상 달아논 간 보چه<sup>1402</sup>) 들여다 자셨으면,<sup>1403</sup>)

백발이 환후,<sup>1404</sup>)

낙치부생,<sup>1405</sup>)

환골탈태,<sup>1406</sup>)

연년익수,<sup>1407</sup>)

만병회춘<sup>1408</sup>)을 허오리다.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였으면 간을 들여다가

대왕병 즉차하고,<sup>1409</sup>)

너도 충성이 나타나서

양주<sup>1410</sup>) 양합<sup>1411</sup>)에 좋을 것을.

미련하더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sup>1412</sup>)이 쓸 데가 있느냐?”

So my liver is said to be a panacea.”  
 “Are there people who were cured after eating your liver?”  
 “Of course, there are.  
 An ancient politician came to a river to fish.  
 He threw away his fishing rod after seeing my ancestor wash  
 his liver.  
 He untied his gourd dipper from his body, scooped up a little  
 bit of water from the river, and drank it.  
 He lived poorly for 80 years and happily for another 80 years,  
 so he lived for 160 years in total.  
 My late father liked mountains and rivers.  
 He was drowning in a river.  
 Another ancient politician saved my father from the river.  
 To return his favor, my father gave a little bit of his liver to him.  
 The ancient politician lived for 180,000 years.  
 If Your Majesty eats my entire liver that I left in a divine rocky  
 mountain,  
 your gray hair will become black,  
 new teeth will grow in the places where old teeth were pulled  
 out,  
 you will look far better,  
 you will live long,  
 and you will be cured of any disease.  
 How stupid you were, Terrapin!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in the land, I would have brought  
 my liver here.  
 The king would be cured immediately.  
 You would become a loyal official.  
 You and I would become friends.  
 How stupid you were, Terrapin!  
 It is of no use to regret the past.”

### 32.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리] 어찌 말을 잘해 왔던지, 용왕이 벌령 넘어갔던가 보더라.  
좌우 제신<sup>1413</sup>)들을 돌아보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제신들이 대답하되, “대체 토끼 뱃속에 간 유무는 알 수가 없나이다.”  
“어, 그러하면 토공을 빨리 해박<sup>1414</sup>)하라.”  
토끼를 해박하여 전상<sup>1415</sup>)에다 올려 앉혀 놓고 용왕이 토끼를 도르  
는디,<sup>1416</sup>  
이치에 꼭 닿게 도르제.  
“퇴공, 듣게.  
내가 지금 잠시 허던 이야기는  
퇴공이 전쟁을 당하야 시석중<sup>1417</sup>)에 가 들면, 사생<sup>1418</sup>)을 불피<sup>1419</sup>)할  
까 아니할까  
그 답기<sup>1420</sup>)를 보느라 허는 이야기니,  
부디 노여<sup>1421</sup>) 생각 말게.”  
토끼 속으로는 용왕 배 딸<sup>1422</sup>) 마음 있으되, 겉으로는 좋은 체하고,  
“거, 그럴 것이오.”  
“고마운 말씀이오.”  
용왕이 토끼를 위하여 술상을 들였는디,  
기린포<sup>1423</sup>)로 안주 놓고,  
앵무잔<sup>1424</sup>) 유리병에 천일주<sup>1425</sup>) 한 잔 졸졸 부어,  
용왕이 주인지도리<sup>1426</sup>) 허느라고 먼저 한 잔 먹고,  
토끼에게 술을 권해논 것이,  
토끼 이 잡것 물색<sup>1427</sup>) 모르고

### 32.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Believing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Hare was so eloquent that the dragon king was taken in.

He speaks to the subjects on the left and right.

“What should we do?”

The subjects reply, “We can’t tell whether there is a liver in Hare’s belly or not.”

“If so, release Hare immediately.”

The dragon king puts Hare in a high place and tells a lie to him.

The dragon king’s lie sounds plausible.

“Mr. Hare, listen to me.

Let me explain what I said to you before.

I wanted to know whether or not you would run away from the battlefield where arrows and stones fly.

I was testing your courage.

Please don’t be angry with me.”

Angry, Hare wishes to open the king’s belly, but he pretends to be happy.

“I understand.”

“Thank you.”

The dragon king offers a food table to Hare.

Giraffe meat is served along with wine.

A thousand-day-old wine is poured into a glass with a parrot drawn on it.

The dragon drinks a glass of wine as a host.

He offers wine to Hare.

Hare doesn’t know about the wine of the sea palace.

세상 술과 같은 줄 알고 이십여 잔,  
 맛 보느라고 여나무<sup>1428)</sup> 잔,  
 맛 보느라고 잔뜩 퍼 먹어논 것이,  
 술이 깜빡 취하야  
 용왕의 자<sup>1429)</sup>를 손수 지어가지고,  
 “여보게, 용검이!”  
 용왕도 술이 취하여 토끼 자를 맞지어서,<sup>1430)</sup>  
 “아, 퇴검이 무엇 하려나?”  
 “내가 전일에 동의보감<sup>1431)</sup>을 많이 보았으되,  
 토끼 간 약된단 말은, 뱃속에 달린 간을 내고 들인단 말은…….”  
 ‘아차차차 춘치자명<sup>1432)</sup>이로고.’  
 “내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수궁 풍류<sup>1433)</sup>나 한 번 들었으면 한이 없겠소.”  
 “그렇지 않아도 퇴공 위로혈라고 마침 등대했습네.”<sup>1434)</sup>  
 토끼를 위하여 수궁 풍류가 낭자<sup>1435)</sup>를 허는디,  
**[엇모레]** 왕자 진<sup>1436)</sup>의 봉피리,<sup>1437)</sup> 괘처사<sup>1438)</sup> 질장구,<sup>1439)</sup>  
 성련자<sup>1440)</sup> 거문고, 장량<sup>1441)</sup>의 옥통소,  
 혜강<sup>1442)</sup>의 해금<sup>1443)</sup>이며, 완적<sup>1444)</sup>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sup>1445)</sup>  
 능과사,<sup>1446)</sup> 보허사,<sup>1447)</sup> 우의곡,<sup>1448)</sup> 채련곡<sup>1449)</sup>을 곁들여서 노래  
 혈 제,  
 낭자한 풍악 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토끼도 신명내어,<sup>1450)</sup>

He drinks twenty glasses of the wine, thinking it is the same as that of the land.

He drinks slightly more than ten glasses of it to have a taste of it.

He drinks a lot of glasses of it to have a taste of it.

He suddenly becomes drunk.

He calls the dragon in an informal manner.

“Hello, Dragonie!”

Drunk also, the dragon king calls Hare in an informal manner.

“Harie, what are you up to?”

“I read a classic medical book carefully.

The ideas that a hare’s liver is a medicine, and that a hare can take his liver in and out is…….”

He murmurs, “I’ve asked for my own death.”

“I am already in the sea palace.

I would feel great if I hear the music of the sea palace.”

“The music was already ready to entertain you.”

The music of the sea palace spreads for Hare.

**[Eonmori]**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owl-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devine pond song and a legendary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Hare is exuberant.

### 33. (토끼 방정) 토끼가 출랑거리며 춤을 추고 놀다가 간이 들었다고 의심받자, 급히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아니레] 앞발을 뒷 산 자 뽀으로<sup>1451</sup> 바짝<sup>1452</sup> 추켜들고, 한번 노는디,  
[중중모리] 앞내 버들은 청포장<sup>1453</sup> 두르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sup>1454</sup> 둘러,  
한 가지 찢어지고,  
한 가지는 평퍼져,<sup>1455</sup>  
바람이 불면 혼들, 우줄우줄<sup>1456</sup> 춤을 출 제,  
어머니는 동이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sup>1457</sup>를 지고,  
노고지리<sup>1458</sup> 지리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추켜들고 출랑출랑<sup>1459</sup> 노닌다.  
[아니레] 대장 범치<sup>1460</sup>란 놈이 토끼 뒤를 따라 다니다가  
토끼 뺏속에서 무엇이 출랑출랑<sup>1461</sup>허는 소리를 듣고,  
“어따,<sup>1462</sup> 토끼 뺏속에 간 들었다!” 허고 고함을 질러노니,  
토끼 듣고 깜짝 놀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야, 이놈아!  
빈 속에 술잔간<sup>1463</sup>이나 들어가노니  
똥덩이 떠 놓치는<sup>1464</sup> 소리가 출랑출랑허는디,  
그게 간 노는<sup>1465</sup> 소리냐?  
이 발가락을 짹 잡아찢을 녀석아, 이 녀석!”  
토끼가 그리 말은 했지마는, 속이 탁 질렀던가보더라.  
‘속담에 이르기를 군자는 가기이기방<sup>1466</sup>이요, 견지이적<sup>1467</sup>이라 허  
였으니,



**33. (Hare's Flippancy)** Hare dances frivolously. Others think there must be a liver in his belly. He says he wants to go back to the land immediately.

[Aniri] Hare holds up his fore legs like the Chinese character Shan(山) and enjoys himself.

[Jungjungmori] Green willows are along the front stream.  
Green willows are along the back stream.

A branch is torn off.

Another is flat.

The branches dance in the wind in big motions continuously.

My mother carries a water jar on her head.

My father carries an iron pot on his back.

A skylark sings a song."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dances flippantly.

[Aniri] A goby has been following Hare.

The goby hears sounds from Hare's belly.

He shouts, "Look! There is a liver in Hare's belly!"

Hare hears the shout, gets shocked, and slumps down.

"You villain!

A lot of wine got into my empty stomach.

Shit moves around, making sounds in my belly.

Are those the sounds of a moving liver?

Your toes should be torn apart. You bastard!"

Hare spoke with confidence, but he was nervous inside.

Old sayings occur to Hare that a wise man can deceive others well, and that we should go far away, once we learned about the customs of a foreign land.

속인 김에 얼른 도망치는 것이 옳다.’ 하고,  
 용왕전 여짜오되,  
 “소토가 이리 놀기는 종사오나  
 대왕의 병세<sup>1468</sup> 만만위중<sup>1469</sup>하오니,  
 전번 세상에 나왔던 별주부를 안동<sup>1470</sup>하여 주시면  
 세상에를 나가 간을 속히 들여다가 대왕전 바치겠나이다.”  
 “기특코 고마운 말씀이오.  
 글랑은 그리 허오.”  
 별주부를 불러들여,  
 “네 토공을 모시고 세상에를 다시 나가, 간을 주시거든 속히 가지고  
 들어오너라.”  
 분부를 내려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 34.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중중모리]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토끼란 놈 본시<sup>1471</sup> 간사하오.  
 토끼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면, 초목금수<sup>1472</sup>라도 비소<sup>1473</sup>할 테요,  
 맹획<sup>1474</sup>을 칠종칠금<sup>1475</sup>하던 제갈량<sup>1476</sup>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은 일이요,  
 만일에 간이 없사오면 소신의 구축<sup>1477</sup>을 멸하여<sup>1478</sup> 주웁고,  
 소신을 능지처참<sup>1479</sup>하더라도 여한<sup>1480</sup> 없사오니

Hare thinks that he should flee now.  
He speaks to the dragon king.  
“I love having fun.  
But Your Majesty is seriously ill.  
Please allow me to take Terrapin with me who has been to the land.  
And I will go to the land and bring my liver to you immediately.”  
“I appreciate your words.  
Suit yourself.”  
The dragon king calls Terrapin.  
“Help Mr. Hare go back to the land and bring his liver here immediately!  
The order makes Terrapin speechless.

**34. (Terrapin’s Entreaty)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Jungjungmori] Terrapin speaks in tears.  
He speaks in tears.  
“A hare is originally a wicked animal!  
If we don’t take the liver out of Hare’s belly now, grasses, trees, and animals will laugh at us.  
I am not th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will I be able to get the hare once we set him free?  
Cut his belly open now. It would be good if a liver is in it.  
If there is no liver, you can kill all of my family and relatives.  
I will not resent you even if you chop my body into pieces.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토끼란 놈 듣고 기가 막혀,

“이놈아, 별주부야! 네 이놈 별주부야!

너 날과 무슨 원수더냐?

왕명이 지중<sup>1481</sup>)커든 내가 어찌 기망<sup>1482</sup>)허리?

옛 일을 모르느냐?

하결<sup>1483</sup>)이 학정<sup>1484</sup>)으로 용봉<sup>1485</sup>)을 살해하고<sup>1486</sup>) 미구에<sup>1487</sup>) 망  
국<sup>1488</sup>)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내 간이 없거드면,

불쌍한 나의 목숨 너의 나라 사귀<sup>1489</sup>)되어,

너의 용왕 백년 살데<sup>1490</sup>)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수궁 만조백관<sup>1491</sup>) 한 날 한 시에 모두 다 몰사<sup>1492</sup>) 시키리라.

아나,<sup>1493</sup>) 옛다,<sup>1494</sup>) 배 갈라라!

아나 옛다, 배 갈라!

똥밖에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네 보아라.”

**[아니리]** 어찌 포악<sup>1495</sup>)을 해놓았던지 용왕이 듣고 대경하여,<sup>1496</sup>)

“네 또 다시 토공을 해하는 자가 있으면 어망살<sup>1497</sup>) 앞으로 정배<sup>1498</sup>)  
를 보내리라.”

분부를 내려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토끼를 슬그머니 돌아보며,

“네 이놈, 용케 살이는 간다마는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 녀석!

할 수 있느냐? 내 등에 업혀라.”

토끼가 좋아라고 사은숙배<sup>1499</sup>) 하직하고,

자라 등에 선뜻 올라

사면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Please cut Hare's belly open immediately."

Hare is struck dumb.

"Hey you villain. You bad terrapin!

Why did you become my enemy?

The king's order is to be respected. How can I deceive him?

Don't you know the old story?

An atrocious king in ancient China killed his good official,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n it.

If there is no liver in it,

my poor soul will become an evil spirit of your country,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100 years,

and I will massacre all the officials of the sea palace at one time.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Open my belly and check for yourself."

**[Aniri]** Terrapin runs so wild that the dragon king is astonished.

"If anybody attempts to hurt Hare again, I will banish him to a trap."

With the order, Terrapin is stunned and slowly turns around to Hare.

"You rat! You are lucky to escape this, but you must have a conscience!

I have no choice. Get on my back."

Pleased, Hare bows to the dragon king politely.

He jumps on the back of Terrapin.

He watches the landscape while coming out of the sea palace.

### 35. (토끼 생환) 토끼가 별주부 등에 업혀 세상을 나가면서 사면 경치를 구경한다.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sup>1500</sup>)를 지내어 백로주<sup>1501</sup>)를 어서 가자.

삼산<sup>1502</sup>)을 바라보니 청천외<sup>1503</sup>)에 가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한데

부지하처조상군교?<sup>1504</sup>)”

한 곳을 당도하니 한 군자<sup>1505</sup>)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 쓰고,

문왈,<sup>1506</sup>) “토공이 하이지차오?”<sup>1507</sup>)

토끼가 대답하되,

“회족청산하니

관불과제관이요,

탁족무임하니

태불과봉황이라.

소무지식하여

유매평생이라.<sup>1508</sup>)

그 군자를 하직하고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오호창파<sup>1509</sup>) 연월<sup>1510</sup>) 속에

돛대 치는 저 사공은 월범려<sup>1511</sup>) 아니런가?

함외장강공자류<sup>1512</sup>)는 등왕각<sup>1513</sup>)이 여기로구나.”

[중중모리] 아서라, 다 버리고,

백로주<sup>1514</sup>)를 바빠 지내어 적벽강<sup>1515</sup>)을 당도하니,

소자침<sup>1516</sup>) 범주유,<sup>1517</sup>)

### 35. (Hare Returns Alive) Hare watches the landscape while coming back to the land on Terrapin'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Three divine mountains are below the blue sky far from here.  
The sun sets on the long sandy field, and a mountain with the  
autumn color is far from here.

It is clear where tribute should be paid to the ancient queen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place where a scholar stands.  
He wears blue clothing and a black hat.

He asks, "Mr. Hare, what brought you here?"

Hare responds as follows.

"I came back to the green mountains.

I can't just pass by them because I have missed them so much.  
They were not trodden upon by dirty feet.

It is so peaceful that even a phoenix will not just go by them.  
I was not knowledgeable.

I almost became a wandering ghost."

Hare says goodbye to the scholar.

Hare and Terrapin reach a place.

Smoky moonlight shines on the waves of the five lakes.

The boatman setting up a sail must be an ancient politician.  
A river flows incessantly below a tower."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give up other beautiful sites.  
They hurriedly pass by a sandy island and get to Chibi River(赤壁江).

An ancient Chinese poet Su Dong Po(蘇東坡)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동산상<sup>1518</sup>) 달 떠나  
 두우간<sup>1519</sup>) 배회하여,  
 백로횡강<sup>1520</sup>) 함께 가.  
 소지노화월일선<sup>1521</sup>) 추강<sup>1522</sup>) 어부가 빈 배.  
 기경선자<sup>1523</sup>) 간 연후에 공추월지단단.<sup>1524</sup>)  
 자라 등에다가 저 달을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sup>1525</sup>)  
 원해근산<sup>1526</sup>) 좋을시고.  
 위수<sup>1527</sup>)로 돌아드니  
 어조하던<sup>1528</sup>) 강태공<sup>1529</sup>)은 기주<sup>1530</sup>)로 돌아들고,  
 은린옥척<sup>1531</sup>) 이뿐이라.  
 벽해수변<sup>1532</sup>)을 당도.  
 토끼란 놈이 좋아라 이리 궁굴고,<sup>1533</sup>) 저리 궁굴고 이리저리 넘놀  
 제,<sup>1534</sup>)  
 “얼씨구나, 살았네.”

### 36. (토끼 별주부 조롱)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를 욕하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래 토끼가 자라 등에서 선뜻<sup>1535</sup>) 내려 모르는 체 깡충깡충 뛰어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시오, 토공! 아 여보, 퇴공!  
 나는 죽겠다 살겠다 여기까지 업어다노니,  
 당신은 그렇게 모르는 체라 깡충깡충 뛰어가신단 말씀이오?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The moon moves between Big Dipper and the Herdsman.  
A white heron crosses a river.  
With a smile, the heron points to a boat in an autumn river  
loaded with white reed flowers and moonlight.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there is nothing but the full  
moon in the sky.  
Put that half moon on Terrapin's back.  
Let's hurry to our hometown.  
Let's enjoy watching the bright moon in mountains.  
It is good that mountains are close and the sea is far.  
Hare and Terrapin reach a river.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in a tributary of this river.  
There are large shiny fishe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blue beach.  
Joyous, Hare rolls over here and there and has fun.  
"Hurrah, I am back alive."

**36. (Hare Mocks Terrapin.) After arriving in the land,  
Hare curses Terrapin and goes to the mountains.**

[Aniri] Hare jumps down from the back of Terrapi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Terrapin is stunned.  
"Hello, Mr. Hare. Hello!  
I carried you on my back all the way here.  
How can you go off without saying anything?"

이왕지사<sup>1536</sup>) 그렇게 가실라거든 간 내서 나를 파리 대가리만치만  
좀 떼어주고 가시오.”

가던 토끼가 깡충 뛰어 돌아서더니 옥을 뱉다<sup>1537</sup>) 퍼붓는다,

[중모리] “에이, 요 천하에<sup>1538</sup>) 발기를 갈 녀석.<sup>1539</sup>)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나?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의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의 용왕 실겁기<sup>1540</sup>) 날갯고,<sup>1541</sup>) 내 미련키 너의 용왕 같았으면 영  
락없이 죽을 것을.

내 밑궁기<sup>1542</sup>) 서이<sup>1543</sup>) 아니었으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아나리?

병든 용왕을 살리려 허고 성한 토끼 내가 죽을쏘냐?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sup>1544</sup>)으로 내 돌아간다.”

### 37. (토끼 엉터리 약 처방) 토끼가 별주부에게 엉터리 약 처방을 일러주며 조롱한다.

[아니리] “네 이 놈, 별주부야! 네 이놈!

네 소행머리<sup>1545</sup>)를 생각하면,

저기 내민 돌팍<sup>1546</sup>) 우에다가 네 복판<sup>1547</sup>)을 딱 올려놓고 우루루루  
쫓아가서,

대변에 꼭 밟어 웅기짐<sup>1548</sup>) 부서지는 소리가 나게 파삭 깨서 보낸 일이로되,  
내가 느그<sup>1549</sup>) 수국을 들어가서 보니, 네가 느그 용왕에게 충성이 지  
극허드구나.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는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추때기<sup>1550</sup>) 없는 버르장머리는 허지 마라.

내가 하마터면 저 녀석 때문에 수국에 들어가서 오사<sup>1551</sup>)할 뻔했던  
말이어.

If you want to go, please take out your liver and give me a little bit of it first.”

While going, Hare jumps up, turns around, and throws curse words at Terrapin.

**[Jungmori]** “You are a villain to be drawn and quartered.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my belly?

How stupid!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stupid.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as as smart as I, and if I was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if I didn’t have three holes in my body?

How can a healthy hare die for the sake of a sick dragon king?

I am going back to the green mountain covered with white cloud.”

### **37. (Hare’s Absurd Prescription) Hare makes fun of Terrapin, giving him an absurd prescription.**

**[Aniri]** “Terrapin, you scoundrel!

Thinking about your behavior,

I feel like to putting the middle of your body on the protruding rock over there,

and trampling on you so that you are broken into pieces like a pottery.

But I remember you were extremely loyal to your king in the sea palace.

Thinking about your loyalty, I send you back alive.

From now on, don’t act stupid like that again.

I almost died a disastrous death in the sea palace because of you.

허나 이놈, 네 충성을 생각하여 약을 한 가지 일러줄 터이니,  
 가서 그대로 써보아라.  
 너희 수궁에 들어가서 보니 암자라 이쁜 놈 많더라.  
 하루 일천오백 마리씩만 달여 먹이고,  
 북쟁이<sup>1552</sup>) 가루 천 석을 작말<sup>1553</sup>)하여  
 오자대<sup>1554</sup>) 환<sup>1555</sup>)을 지어<sup>1556</sup>)가지고  
 석달열흘만 퍼먹여 보아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양단간<sup>1557</sup>)에 결판이 날 것이다.  
 써봐서 안 듣거들랑 또 한 가지 약이 있는데,  
 화제<sup>1558</sup>)를 이를 테니 잘 들어!  
 화제는 가미허랑탕<sup>1559</sup>)인디,  
 두꺼비 쓸개 열 보,  
 빈대 오줌 한 그릇에다,  
 새새끼 발톱 작말 서 되,  
 하루살이 염통 열 보,  
 벼룩 간 다섯 보,  
 이것을 구름 단지에다 은하수 물을 붓고,  
 번갯불에다 얼른 달여,  
 그림자 수건으로 아드득<sup>1560</sup>) 짜서 먹이면은 즉효<sup>1561</sup>)를 보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염라대왕이 동성<sup>1562</sup>) 삼촌이요, 강림도령<sup>1563</sup>)이  
 외사촌<sup>1564</sup>) 남매간이라도 느그 용왕 살리기는 다 틀렸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녀석.!”  
 깡창깡창 뛰어 올라가제.  
 별주부 곰곰 생각하니,  
 그제야 저놈에게 속은 줄 짐작하고  
 하릴없이 수궁으로 돌아가고,

But let me give you a prescription because of your loyalty to your king.

Try the prescription there.

I noticed many beautiful female terrapins in the sea palace.

Have your king eat 1,500 female terrapins a day.

Make a thousand bags of powder out of blowfish.

Make balls as large as the fruit of a paulownia tree.

Have your king eat them for a hundred days.

And he will definitely take one path of death or life.

If that medicine doesn't work, there is another medicine.

Listen carefully to my prescription.

The medicine is called Absurd Soup.

Prepare ten gall bladders of toads,

a bowl of housebug's pee,

three packs of young birds' nail powder,

and ten hearts of day flies,

five bags of flea livers,

put them in a cloud urn and pour the Milky Way in it.

Boil it with lightning.

If you squeeze it with a shadow towel and your king drinks it, he will enjoy an immediate effect.

If the medicine doesn't work, your dragon king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father's brother's child, and his messenger is your mother's brother's child.

So long. I am leaving. You fool!"

Hare runs up to a mountain.

Terrapin ponders.

He now realizes that he was taken in by Terrapin.

He cannot but go back to his sea country.

토끼는 지가<sup>1565</sup> 살아왔대서 좋아라고

이리 뛰고, 저리 저리 뛰고,

앞발로 귀를 탈탈 털고

생방정<sup>1566</sup>을 떨고 올라가는데,

이런 가관<sup>1567</sup>이 없겠다.

**[중중모리]** “관대장자<sup>1568</sup> 한고조<sup>1569</sup> 국량<sup>1570</sup> 많기가 날만허며,<sup>1571</sup>

운주결승<sup>1572</sup> 장자방<sup>1573</sup>이 의사<sup>1574</sup> 많기가 날만?<sup>1575</sup>)

난세간웅 조맹덕<sup>1576</sup>이가 께 많기가 날만?

신출귀몰<sup>1577</sup> 제갈량이 조화 많기가 날만?

무릉도원<sup>1578</sup> 신선이라고 한가허기가 날만?

예 들던 청산 두견,

자주 운다 각 새 소리.

타향 수궁 갔던 벗님이 고국산천을 돌아오니,

어찌 이리도 반가우냐?”

예<sup>1579</sup>) 먹던 머루 다래를 오도독톡 깨물면서,

요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깡짱깡짱 노닌다.

**38. (토끼 그물에 걸림) 그물에 걸려 죽게 된 토끼가 쉬파리  
들에게 쉬를 슬어주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말하자,  
쉬파리가 사람의 손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한참 이리 놀다가 무엇이 토끼 발목에 탁 또 걸리제.

토끼가 산등성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칙닝쿨에도 걸리고,

머루 년출<sup>1580</sup>, 다래덩굴에 하도<sup>1581</sup> 걸렸싸서,

또 그런 데 걸린 줄 알고 발을 탁 채보니,

무엇이 심상치 않거든.

Hare is excited because he came back alive.  
He jumps around.  
He brushes his ears with his fore legs.  
He acts frivolously as he goes up to a mountain.  
This is quite a show.

**[Jungjungmori]** “I am more broad-minded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I have more thoughts than an ancient military planner.  
I am smarter than an ancient wicked hero of a chaotic period.  
I can work out more miracles than an elusiv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My life is more leisurely than that of gods in paradise.  
Green mountains and the cry of a cuckoo sound familiar to me.  
Birds are chirping.

I went to the sea palace and came back to my country.  
I am glad to see my country again.”

He bites wild grapes and gooseberry that he used to eat.  
He joyously jumps around.

**38. (Hare Gets Trapped.) Trapped, Hare tells flesh flies to lay eggs on him so that he can escape. The flesh flies say he cannot defeat a human being.**

**[Aniri]** While having fun as said above, something grabs Hare’s leg.

While wandering on the mountain ridge, Hare used to be hindered by the vines of kudzu, wild grape, and gooseberry.  
Hare thinks his leg is trapped by one of those vines.  
But he seems to be in trouble.

토끼가 발밑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촌 머슴들이 산짐승 잡으려고 모시 되게<sup>1582)</sup> 꼬아서 밀심<sup>1583)</sup> 먹여  
 뺏뺏이 세워논 치<sup>1584)</sup>에 토끼 발목이 또 탁 걸렸구나.  
 토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또 죽네!  
 내가 차라리 수국에서 죽었드라면  
 정조<sup>1585)</sup> 한식<sup>1586)</sup> 단오<sup>1587)</sup> 추석에는 제사라도 착실히 얻어먹고,  
 하다못하면 목비<sup>1588)</sup>라도 하나 해서 세워줄 것인데,  
 인제는 내가 뉘 놈의<sup>1589)</sup> 뱃속에다 안장<sup>1590)</sup>을 할거나?”  
 죽은 듯이 대량대량허고 옆졌을 적에,  
 뜻밖에 어디서 쉬파리떼<sup>1591)</sup>가 앵당그르르 하고 날아오니,  
 토끼란 놈이 반가라고,  
 “아이고, 쉬낭청<sup>1592)</sup> 사촌들,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오냐, 이놈 니 하릴없이 죽게 되었구나.”  
 “쉬낭청 사촌들, 어렵소마는 내 몸에 쉬<sup>1593)</sup>만 좀 슬어주면<sup>1594)</sup>  
 살아날 피가 있소.”  
 “어라,<sup>1595)</sup> 이놈! 내가 아무리 피가 많기로서니 사람의 손을 당할쏘냐?”  
 “대체 사람의 손이 어떻게 생긴 것이오?”  
 “사람의 손이라 허는 것이 니 잡아먹는 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천지음양지조화<sup>1596)</sup>가 그 장중<sup>1597)</sup>에 다 들어 있느니라.  
 내 이를게 들어보아라.”  
**[자진모리]**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얹어 노면<sup>1598)</sup> 하늘이요,  
 뒤세노면<sup>1599)</sup> 땅인데,  
 이리저리 금<sup>1600)</sup>이 있기는 일월<sup>1601)</sup>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잔가락<sup>1602)</sup>이 두 마디기는 천지인<sup>1603)</sup> 삼재<sup>1604)</sup>요,



He looks down at his feet.  
 Hare's leg is caught in a trap made out of hard ramie yard and  
 set up by country boys to catch animals.  
 Hare is stunned.  
 "My goodness. I am dying again!  
 I wish I had died in the sea palace.  
 Then, rituals would be held for me on New Year's Day, April  
 4th, and May 15th, and August 15th.  
 At least, a wood monument would be erected in memory of me.  
 In whose belly will I be put to rest forever?"  
 Hare lies down on his belly as if he were dead.  
 All of a sudden, a group of flesh flies come to Hare.  
 Hare is glad to see them.  
 "Flesh flies! My cousins! Where have you been?"  
 "You punk. You are bound to die."  
 "Flesh flies, please lay some eggs on my body.  
 I've got an idea to survive."  
 "You fool. However smart you might be, you can't defeat a  
 human hand."  
 "What does a human hand look like?"  
 "A human hand is a fearful thing that can catch and kill you.  
 It also contains the principles of nature in the middle of it.  
 Let me tell you about it."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humans.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two knuckles in the thumb stand for heaven, earth, and  
 humans.

집가락<sup>1605</sup>)이 장가락<sup>1606</sup>)만 못하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중에 길기는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sup>1607</sup>) 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sup>1608</sup>)가 그중에 짜롭고짜롭기<sup>1609</sup>)는 시월, 동지, 선달인데,  
 자오묘유<sup>1610</sup>)가 여기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sup>1611</sup>) 선천팔괘<sup>1612</sup>)가 여기 있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연,<sup>1613</sup>) 간상연,<sup>1614</sup>)  
 육도기문<sup>1615</sup>)에 대장경,<sup>1616</sup>)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라.<sup>1617</sup>)  
 네 아무리 께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 못 당하리라.  
 두 말 말고 네 죽어라.”

### 39. (초동목수 신세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풀 베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리] “죽고 살기는 내 께에 달렸으니,  
 쉬만 좀 슬어주면 살아날 께가 있소.”  
 “그래라.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 청<sup>1618</sup>)쫄이야 못 들어주겠느냐?”  
 쉬파리떼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 토끼털 속에다 빈 틈 하나 없이 쉬를  
 잔뜩 슬어노니,  
 토끼란 놈 무죄간에<sup>1619</sup>) 쉬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죽은 데끼<sup>1620</sup>) 대량  
 대량하고 었졌을 적에,  
 그때 마침 저 아래서 목동 초군<sup>1621</sup>)들이 지게 갈퀴에다 낫 갈아 짊어  
 지고 메나리<sup>1622</sup>)를 부르며 심심산골<sup>1623</sup>)로 나무를 하러 올라오니,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39.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It's up to my ability whether I live or die.

If you lay some eggs on me, I can escape."

"No problem. If you insist, we are happy to grant your wish."

The flesh flies lay a lot of eggs on Hare's body, leaving no empty spot.

Although alive, Hare lies on his belly with a lot of eggs on his back as if he were dead.

Just in time,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come to a deep valley with A-framed carriers, rakes, and sickles on their backs to cut wood, as they sing a folk song.

꼭 이렇게 올라오던가 보더라.

[중모레] “어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넘차 너화로다.

태고라 천황씨는 목덕으로 왕하시고,<sup>1624)</sup>

수인씨 교인화식<sup>1625)</sup>

어찌하여 마련되어 우리 곤케<sup>1626)</sup> 하셨는가?

하느님이 사람을 낼 제 별로 후박<sup>1627)</sup>이 없건마는,

우리놈의 팔자는 무슨너르<sup>1628)</sup> 팔자간디,

날 곧 새면 지게 갈퀴 짊어지고 심산궁곡<sup>1629)</sup>이 웬일이냐?

여보아라, 친구들아.

너는 저 꼴을 베고,

나는 이 꼴을 베어,

부러진 잡목, 떨어진 낙엽을 긋고,

베고, 엉뚱그러<sup>1630)</sup> 힘끗대로<sup>1631)</sup> 하여다가

위부모보치자<sup>1632)</sup>를 극진공대<sup>1633)</sup>하여 보세.

어이 가리 넘차 너화로다.”

#### 40.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레] 이렇듯이 한참 올라가다가 한 놈이 토끼를 보았구나.

“옛다,<sup>1634)</sup> 토끼 걸렸다.”하고 고함을 질러노니,

“어따,<sup>1635)</sup> 그놈 잘 걸렸다.

우리가 여러 날만에 고기도 먹고 싶던 판인디,<sup>1636)</sup>

그놈 잘 걸렸다.

점심 밥통에 된장 내고, 불 피워라.

이놈 바삭 구워먹고 가자.”

They sing the song as follows:

**[Jungmo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An ancient man became a king thanks to the Wood energy.  
A legendary man taught humans how to use fire to cook,  
But how come we are poor?  
When God created humans, there was not much inequality.  
But our darn fate is detestable.  
At dawn, we go to deep valleys, carrying A-frames and rakes  
on our backs.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at valley.  
I will work in this valley.  
Let’s rake broken scrubs and fallen leaves.  
Let’s cut trees down and wrap them up as much as we can.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as best as we can.  
Where should we go?”

#### **40. (Hare Survives) Wit saves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While climbing the mountain as said above, a boy sees  
Hare.  
He shouts, “Look! A hare is caught.”  
“We got a hare. Great.  
We have been wishing to eat meat for days.  
It’s good to catch a hare.  
Take out the bean paste from our lunch and make fire.  
Let’s roast this hare and eat it.”

또 한 놈이 옆에 섰다가 토끼를 덜렁 추켜들고 보더니,  
 “엇다, 걸린 지 오래 됐나보다.  
 여<sup>1637</sup>) 쉬를 잔뜩 슬어왔다.”  
 또 한 놈이 허는 말이, “애들아, 냄새나 맡아봐라.  
 맡아봐서 썩었거든 내버려라!  
 우리가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기로서니  
 걸린 지 오래 되어 썩은 고기를 먹었다가 배탈 나면 여러 놈 죽는다.”  
 이놈이 냄새를 맡는디,  
 대가리나 몸뚱이썩 대고 말았으면 잘 구워 먹고 갈 것인디,  
 일이 그릇되니라<sup>1638</sup>)  
 냄새를 맡아도 이 미련한 놈이 꼭 토끼 뒷궁둥이에다 대고 맡아논  
 것이,  
 토끼 음흉한 놈이 삼 년 몽구렸던<sup>1639</sup>) 도토리 방구를 시르를 꺾어  
 노니,  
 “휘! 썩어서 못 먹겠다.  
 구렁이 썩는 내가 난다.”  
 허고 휘 집어던져 노니,  
 저 건너 잔디밭에 가 깡충 뛰며,  
 “에라, 이놈들! 내가 썩어야?<sup>1640</sup>)  
 느그 눈구녁이 썩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수국에 들어가서 수궁 용왕도 속이고 살아왔ندي,  
 네까짓 놈들 손에 죽을 성싶으냐?  
 안 되었다. 안 되었다마는,  
 내가 한 번 놀 테니,  
 내 노는 구경이나 허고 가거라.”  
 토끼가 거기서 한 번 노는디,

Another boy picks up the hare and takes a look at him.  
 “Gee, it must have been caught a long time ago.  
 It is teeming with fly eggs.”  
 “Another boy says, “Take a smell at it.  
 If it smells bad, throw it away!  
 You maybe really want to eat meat.  
 But indigestion may kill you if you eat the rotten meat of the  
 hare caught a long time ago.”  
 The boy takes a smell of the hare.  
 If this boy smelt the hare’s head or the middle of the hare’s  
 body, he would have eaten it happily.  
 But things go wrong.  
 The boy is stupid to take a smell at the hare’s ass.  
 Cunning, Hare slowly releases an acorn fart he held back for  
 three years.  
 “My goodness. It is rotten. We can’t eat it.  
 He smells like a rotten snake.”  
 The boy throws Hare away.  
 Hare runs on the grass away from the boy.  
 “You fools! Am I rotten?  
 Your eyes are rotten.  
 You bastards! I deceived even the dragon king and came back  
 alive.  
 Do you think I will die in your hands?  
 That’s too bad for you.  
 Let me sing and dance.  
 Enjoy watching me sing and dance.”  
 Hare sings and dances.

(A형)

[중중모리] “얼씨고나 절씨고! 얼씨구나 살았네!

사지수국<sup>1641</sup>) 먼먼 길에 살아오니 장관<sup>1642</sup>)이요,  
복희씨 내신 그물에 겹겹이 싸였다가 살아나니 장관.

제 아무리 피 만현들<sup>1643</sup>) 나의 잔피를 당헐쏘냐?

얼씨고나 절씨고!

영산홍록<sup>1644</sup>) 봄바람에 넘노나니<sup>1645</sup>) 황봉백접,<sup>1646</sup>)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영강수<sup>1647</sup>)를 그림히고,<sup>1648</sup>)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흥<sup>1649</sup>)을 자랑한다.”

기산광야<sup>1650</sup>) 너른 들에 금잔디 자르르르 깔린 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덜거리며 논다.

(B형)

[중중모리] “관대장자<sup>1651</sup>) 한고조<sup>1652</sup>) 국량<sup>1653</sup>) 많기가 날만하며,<sup>1654</sup>)

운주결승<sup>1655</sup>) 장자방<sup>1656</sup>)이가 의사<sup>1657</sup>) 많기 날만해?

난세지웅<sup>1658</sup>) 조맹덕<sup>1659</sup>)이 피 많허기가 날만허며,

신출귀몰<sup>1660</sup>) 제갈량이 조화<sup>1661</sup>) 많기 날만허며,

무릉도원<sup>1662</sup>) 신선인들 한가하기가 날같으랴?

옛 들던 청산 두견,<sup>1663</sup>)

지지<sup>1664</sup>) 운다 각 새소리.

타향 수궁에 갔던 벗님 여기 달려서 내 왔네.

고국산천 다시 보니 어찌 이리 아니 반가우냐?

기산광야<sup>1665</sup>) 넓은 곳, 금잔디 자르르르 깔린 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강짱 뛰고 놀자.

얼씨구 얼씨구 좋을씨구. 절씨구 칠시구 팔시구 지화자자 좋을씨구.”



(Variation A)

[Jungjungmori] “What a delight! Hurrah!

It was great that I came back alive from the sea country, a dangerous place.

It is also great that I came back alive from the trap.

Who would be more cunning than I?

Hurrah, Hurray!

Yellow bees and white butterflies move around in spring wind over red and green mountains.

Mountains with red flowers and green leaves are reflected in a river.

Flying butterflies and singing birds boast of spring atmosphere.”

A wide field at the skirt of a mountain is covered with the golden grass.

Hare jumps around here and there.

(Variation B)

[Jungjungmori] “I am more broad-minded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I have more ideas than an ancient military planner.

I am smarter than an ancient wicked hero of China, Cao Cao(曹操).

I can work out more miracles than an elusiv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Zhu Ge Kong Ming(諸葛孔明).

My life is more leisurely than that of gods in paradise.

Green mountains and the cry of a cuckoo sound familiar to me.

Birds are chirping.

I ran back here from the sea palace, a foreign country.

I am glad to see my country again.”

On a wide field under a mountain covered with the golden grass, let's have fun, jumping here and there.

Oh boy! What a pleasure! What a pleasure! What a delight! Hurrah!”

#### 41.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속인수를 써서 독수리를 따돌리고 살아난다.

[아니리] 한참 이려고 노는디,  
공중에서 ‘위’ 소리가 나더니  
닭둥우리<sup>1666</sup>만한 독수리가 와서 토끼 대갈박<sup>1667</sup>을 탁 찔것다.<sup>1668</sup>  
토끼 깜짝 놀래 뒤를 열린 돌아보니 독수리거든.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 이렇게 오시오?”  
“오냐. 내가 공중에서 놀다가 하도 시장해서 너 잡아먹으러 왔다.”  
“장군님, 어디서부터 자실랴요?<sup>1669</sup>  
맛진<sup>1670</sup> 쯤지서부터 자실랴요?”  
“어라, 이놈! 맛진 대가리에서부터 통째로 내리 막 삼킬란다.”  
토끼가 눈을 깜짝깜짝허더니 또 꺾 하나를 열린 생각해 가지고,  
“장군님, 이왕 자실라면  
내 서러운 하소연이나 한 번 들은 다음에 잡수시오.”  
“오냐, 그래라. 그 청쫂미야 못 들어주겠느냐?  
그러나 이놈 너무 많이 울지 마라.  
많이 울면 살 내린다.”<sup>1671</sup>  
토끼가 공연한 설움을 내가지고 방성통곡<sup>1672</sup>을 허는디,  
[중모리]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 죽기는 싫잖으나<sup>1673</sup> 차마 눈을 못 감졌네.  
사지수국 먼먼 길에 겨우 얻어내 온 보물을 무주공산<sup>1674</sup>에다 더쳐  
두고,<sup>1675</sup>  
임자가 없으니 어쩔거냐?  
여보시오, 장군님! 어서 빨리 잡수시오.

41.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d Escapes.) Hare is caught by an eagle, but deceives the eagle and escapes from him.

[Aniri] Hare sings and dances as said above.

Something is heard from the sky.

A large eagle comes and grabs Hare's head swiftly.

Startled, Hare turns around fast and sees the eagle.

"General, where are you coming from?"

"I was in the air. I was so hungry that I came down here to get you."

"General, which part of my body do you want to eat first?"

Do you want to eat my delicious tail first?"

"You rat! I will eat your head first and swallow your body whole."

Hare blinks his eyes fast and hits upon a trick quickly.

"General, you will definitely eat me.

Please listen to my sorrow before you eat me."

"No problem. I can grant you that small wish.

But don't cry too much.

If you cry too much, you will lose weight."

Hare expresses his sorrow openly, crying loudly.

[Jungmori] "Alas. Alas. I can't believe this. How bad my fate is!

I don't grieve my death, but I can't close my eyes.

A thing I managed to bring from the distant sea palace is kept in an empty mountain.

It is left unowned by anybody. What should I do?

Hello, general! Eat me right away.

차라리 어서 죽어 이 설움을 잊을라요.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요.”

[아니레] 독수리가 듣더니,

“네 이놈, 금방 죽을 놈이 무엇이 서러워서 그렇게 설리 운단 말이나?”

“장군님, 들어보시오. 내가 이번에 수국을 들어갔습지요.”

“그래서?”

“수궁 용왕이 나를 보더니 타국 짐승이라고 귀히 여겨서

의사쭈치<sup>1676)</sup>를 하나 줍니다.”

“의사쭈치가 무엇이나?”

“글쎄, 들어보시오.

의사쭈치를 썩 퍼놓고 보면 구멍이 여럿이 뚫렸지요.

한 궁기<sup>1677)</sup>를 툭 튕기면서, ‘개창자 썩은 것, 돼지새끼 죽은 것 나오느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툭 튕기면서, ‘병아리새끼나 새새끼 남시랭이<sup>1678)</sup> 나오느라.’ 하면, 일천오백 마리가 그저 꾸역꾸역 나오는데,

이런 보물단지를 무주공산에다 더져두고 탁족<sup>1679)</sup>하러 내려왔다가, 장군님을 만나 죽게 되었으니

그 아니 원통하오?”

독수리가 듣더니 딱 반하겠다.<sup>1680)</sup>

“애, 토끼야, 그것 나 도라.”

“그것 드리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 뺏어놓고 나까지 마저 잡아 자실라고요?”

“아, 이 미련한 놈아,

너를 잡아먹으면 한 때 시장 요기<sup>1681)</sup>뿐이요,

그것만 얻어 놓으면 평생 끼니 걱정을 안 할 텐디,

미쳤다고 너를 잡아먹겠느냐?

I want to die quickly so that I can shake off this sorrow.  
Please kill me immediately.”

**[Aniri]** The eagle responds,

“You scoundrel, You will die soon. What made you resentful and sad?”

“Listen to me, general.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So?”

“The dragon king treasured me because I was a foreign animal.  
He gave me Wish-Granting Bag.”

“What is Wish-Granting Bag?”

“Listen to me, sir.

If you unfold Wish-Granting Bag, you can see several holes on it.”

If you flick one of the holes and say, ‘Come out, rotten dog intestines and dead baby pigs,’ they come out continuously.

If you flick another hole and say ‘Come out, chicks or baby birds,’ 1,500 of them come out continuously.

I left this treasure in an empty mountain, came down to wash my feet, and came across you.

Isn’t this resentful?”

Hearing the story, the eagle is excited.

“Hey Hare. Give the bag to me.”

“I don’t mind giving it to you.

But I am afraid you might deprive me of it and eat me.”

“How foolish you are!

You are just one meal for me.

But if I have the bag, I won’t have to worry about food for the rest of my life.

Why would I eat you?

그것 나 도라.”

“그러시오.”

“그것 어디다 두었느냐?”

“저 건너 석산<sup>1682</sup> 바위틈에다 두었소.

저것 보시오. 까막까치<sup>1683</sup>가 저것 냄새를 맡고, 저기서 넘놀고<sup>1684</sup>  
야단났소.”

“그럼 어서 가자.”

독수리가 두 발로 토끼를 짹 집어 소주병 들고 가듯 허겼다.

석산 바위틈에다 툇 놓더니,

“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좋아라고 막 굴로 들어가려고 하니,

독수리가 탁 덮치더니,

“네 이녀석! 들어가면 안 나올라고?”

“어따, 원 장군님, 그렇게 못 믿으시오?

정 못 믿거든 내 뒷발을 짹 잡고 뉘주라는 대로 조금씩 뉘주시오.  
내 안에 들어가서 앞발로 끄집어내오리다.”

“그래라.”

독수리가 토끼 뒷발목을 짹 잡고,

“자, 어서 내오너라.”

토끼가 안예를 들어가더니,

“자, 조금만 뉘주시오.”

“오냐.”

“조금만 더 놓으시오.”

“오냐. 오냐.”

“조금만 더 놓으시오, 앞발에 걸신걸신허요.”<sup>1685</sup>

그렇저런 것이 토끼 뒷발뚱을 잡았것다.

Give it to me.”

“No problem.”

“Where did you put it?”

“I put it between rocks in the rocky mountain over there.  
Look! Crows and magpies smelt it and are hovering over it now,  
fussing about it.”

“Then, let’s go there.”

The eagle lifts up Hare’s head like a wine bottle.  
He puts Hare between the rocks.

“Bring the bag out right away.”

Delighted, Hare tries to get in.

The eagle grabs Hare.

“You bastard. You will come out, won’t you?”

“My goodness, general. Don’t you trust me?”

If you can’t trust me, hold my hind leg and release it little by  
little at my request.

Let me crawl in and get the bag with my fore legs.”

“Good.”

The eagle grabs Hare’s hind leg tightly.

“Bring it out now.”

Hare gets in.

“Well, release me a little.”

“Okay.”

“Release me a little more.”

“Okay.”

“Release me a little more. My fore legs almost reach it.”

The eagle now holds Hare’s claws.

“야, 이놈아, 너무 과하다.”

“조금만 더 놓으시오. 조금만 더 놓으시오.” 허더니,  
뒷발을 탁 차고 쑥 들어가서  
한가헌 채허고 시조 초장<sup>1686</sup>)을 썩 끄집어 내놓는다,  
[시조창] “반 남아<sup>1687</sup>)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리라.”

[아니레] 독수리 기가 막혀,

“네 이놈, 토끼야. 네 이놈, 어서 안 나올래?

네 시장허다. 어서 나오너라.”

“네 이놈, 독술아! 내가 너한테 잡혀 영락없이 죽을 것을,  
너를 꼬아서<sup>1688</sup>)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게 의사죽치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녀석, 어서 날아가거라.

내 발 나가면 네 해골<sup>1689</sup>) 절판날<sup>1690</sup>) 것이다, 이놈!”

독수리 기가 막혀,

“너 이놈, 토끼야.

너 내 발심<sup>1691</sup>) 알제?

내 발 들어가서 휘저어노면 어느 발톱에 걸려 나와도 걸려 나올 것  
이다.”

“오냐, 이놈! 네 발목덩이<sup>1692</sup>) 들여놓기만 들여놔봐라.

돌멩이로 탕탕 좇아서<sup>1693</sup>) 다른 것도 못 잡아먹게 해버릴 것이다.”

“네 이놈, 토끼야!

너 생전 안 나올 것이냐?

나오기만 나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야, 이놈아! 내가 늙은 말년에 무엇하러 또 나가겠느냐?

안에 앉아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sup>1694</sup>)이나 허고 지낼란다.

잔말 말고 어서 날아가거라.”



"You rat! You are asking too much."

Hare says, "Release me a little more."

Hare kicks the eagle with his hind legs and goes deep inside.

He recites a poem of his own to pretend that he is at leisure.

**[Poetic Mode]** "Half of my life is gone. I can't become young again."

**[Aniri]** The eagle is struck dumb.

"Hare, you scoundrel! Don't you come out?"

I am hungry. Come out now."

"Eagle, you bastard! I was about to be killed by you.

I enticed you to let me escape from you.

Isn't this Wish-Granting Bag?

Fly away immediately, fool.

If I kick you, your skull will be broken into pieces. You villain!"

The eagle is dumfounded.

"Hare, you rat.

Don't you know about the strength of my legs?

If my legs get in and run around, you will be pulled out by my claws."

"Go head, bastard! Put your darn feet inside.

I will break your feet into pieces with a stone so that you can't catch anything."

"Hare, you rat.

Won't you come out before you die?

Once you come out, you will die."

"You villain! I am old. What would I go out for?

I will spend my time, taking care of my grandchildren and myself.

Cut the noise out and fly away!"

## 42.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용왕은 병이 낫고, 토끼는 산중에서 늙도록 지내게 된다.

[옛중모리] 독수리 그제야<sup>1695</sup>) 돌린 줄<sup>1696</sup>) 알고 훨훨 날아가고,  
그때 별주부는 수궁에 돌아가서 토분<sup>1697</sup>)을 시탕<sup>1698</sup>)하여  
용왕 환후<sup>1699</sup>) 직차<sup>1700</sup>)하고,  
토끼는 그 산중에서 암혈<sup>1701</sup>)에 늙다가  
신선 따라 월궁<sup>1702</sup>)에 가서 도약<sup>1703</sup>)허고 지낸다니,  
그 뒤야 누가 알리?  
더질더질. <sup>1704</sup>)

42.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dragon king gets cured. Hare grows old in the mountains.

[Eotjungmori] The eagle finally realizes he was taken in and flies away.

Meanwhile, Terrapin carries Hare's dung to the sea palace and serves it to the king.

The king's illness is cured immediately.

Hare clearly grows old in the burrow of the mountain.

He follows a god to the moon and lives there making a medicine.

Who knows what happens thereafter?

Let me finish.

- 
- 1) 歲在. 때는.
  - 2) 至正. 중국 원나라 순제 때의 연호. 갑신년이면 1344년임.
  - 3) 仲夏月. 한여름에 해당하는 음력 오월.
  - 4)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5) 卜日. 점으로 가려낸 좋은 날.
  - 6) 大宴. 큰 잔치.
  - 7) 排設.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재구를 벌여 베풀어 놓음.
  - 8) 때에.
  - 9) 三海. 세 방면의 바다.
  - 10) 君臣賓客. 임금과 신하, 그리고 손님.
  - 11) 千乘萬騎. 수많은 수레와 말. 승은 수레를 세는 단위.
  - 12) 開盛宴於九重. 궁궐 안에서 큰 잔치를 엮.
  - 13) 擊金鼓而詠歌. 북을 치고 노래를 부름..
  - 14) 酒肉. 술과 고기.
  - 15) 數三日. 삼일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기간.
  - 16) 海內熱風. 바다의 뜨거운 바람.
  - 17) 腹中. 배속
  - 18) 過히. 지나치게 많이.
  - 19) 猝然得病. 갑자기 병을 얻음.
  - 20) 斷無回春之道. 결단코 나을 방법이 없음.
  - 21) 難得名醫之數. 명의의 치료법을 구하기 어려움.
  - 22) 名醫. 훌륭한 의원.
  - 23) 전혀 없어.
  - 24) 榻床. 걸상이나 침대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25) 두드리며.
  - 26) 天無烈風. 하늘에 거센 바람이 불지 않음.
  - 27) 海不揚波. 바다에는 파도가 일지 않음.
  - 28)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함.
  - 29) 奇軀. 기이한 몸.
  - 30) 醫藥萬歲. 의약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이 높음.
  - 31)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 32) 華陀.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 약제의 조제, 침술, 뜸질에 두루 통했으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을 쓰기도 했다고 함. 조조의 병을 치료하다가 짐으로 돌아가, 아내가 아프다는

- 핑계로 돌아오지 않자, 조조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음.
- 33) 扁鵲. 이름은 진월인(秦越人). 중국 전국 시대의 의학자. 명의로서 전설적 명성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라고 하는 의서가 많음.
- 34) 老越人. 늙은 월나라 사람. 곧, 편작.
- 35) 玄雲. 검은 구름.
- 36) 黑雲. 검은 구름.
- 37) 飄風細雨. 회오리바람이 불고 가는 비가 내림.
- 38) 仙衣道士. 신선의 옷을 입은 도사.
- 39) 鶴氅衣. 옛날 옷옷의 한 가지로, 뒷술기가 터지고 소매가 넓으며, 가를 돌아가며 검은 형갈을 넓게 대었음.
- 40) 드러나게 차려 입고.
- 41) 再拜而進曰. 두 번 절하고 나와 말하기를.
- 42)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물로,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여국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는 2,700리이며,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43) 白雲 瑤池宴. 흰 구름 속의 요지에서 열리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
- 44) 千年碧桃. 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 45) 寡弱風便. 매우 약한 소문.
- 46) 病勢. 병의 상태나 형세.
- 47) 萬萬危重타기로. 매우 위태하고 심하다고 하기로.
- 48) 뵈고자 해서.
- 49) 반가워하시어.
- 50) 이렇게.
- 51) 遑遑. 두렵고 급한.
- 52) 特效之藥. 특효약.
- 53) 病執症. 병의 증세를 짚어봄.
- 54) 兩角. 두 개의 뿔.
- 55) 崢嶸. 험하게 높이 솟음.
- 56) 如意珠. 부처의 사리에서 나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것을 지니면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 하여 붙은 이름.
- 57)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재간.
- 58) 한다면.
- 59) 연못.
- 60) 大海. 큰 바다.
- 61) 情狀. 딱한 형편.
- 62) 肝脈. 간의 경락.
- 63) 驚動. 크게 놀람.
- 64) 腹中. 뱃속.

- 65) 肝經陰火. 간의 경락에 생긴 음증.
- 66) 論之. 따져서 말함.
- 67) 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68) 靈砂. 수은을 고아서 결정체로 만든 약재.
- 69) 熊膽. 곰의 쓸개.
- 70) 蒼朮. 한약재로 쓰는 당삼주(영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의 멍치지 않은 뿌리. 소화 불량, 설사, 수종(水腫) 따위에 쓴다.
- 71) 白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성질이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돕고, 소화불량, 구토, 설사, 습증 등에 씀.
- 72) 蘇葉. 차조기의 잎.
- 73) 防風.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방풍나물의 말린 뿌리. 고뿔(감기), 풍병 등에 약으로 씀. 방풍나물은 미나리과에 딸린 세해살이 풀.
- 74) 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
- 75) 丹砂. 주사(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76) 車前子(車前子). 이뇨제로 쓰이는 질경이의 씨앗.
- 77) 蓮實. 연꽃의 열매.
- 78) 柴胡.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그 뿌리를 발한, 해열제로 씀.
- 79) 前胡.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바디나물의 뿌리. 성질이 약간 차며, 외감에서 오는 두통·담·해소·해열 따위에 씀.
- 80) 木通.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임질과 부증(몸이 뚱뚱하게 붓는 병)에 쓰임.
- 81) 加味六君子湯. 보혈제로 쓰이는 탕약.
- 82) 清暑六和湯. 더위에 상한 심장을 다스리는 데 쓰는 탕약.
- 83) 二元益氣湯. 내장을 다스리며 기력을 돋우는 탕약.
- 84) 五加湯. 오가피나무의 껍질을 끓인 탕약.
- 85) 四物湯. 보혈제로 쓰이는 탕약.
- 86)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 87) 百草藥. 온갖 약초로 된 약.
- 88) 少商. 폐경에 속한 혈. 엄지손가락 요골 쪽 손톱 뒤 모서리에서 1푼 뒤에 있는 우묵한 곳. '폐경'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태음폐경'은 모든 경맥들 중 기본이 되는 12개의 경맥 중의 하나.
- 89) 魚際.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곳에 있는 피부 색깔이 나누어지는 곳으로, 마치 물고기 배의 색이 나뉘어지는 경계와 같은 신체부위임.
- 90) 太淵. 폐경(肺經)에 속하는 혈(穴). 손목 관절 손바닥 쪽의 가로 간 금에서 요골 동맥이 만져지는 곳이다.

- 91) 經渠. 한방에서 삼부구후(三部九候)를 가리키는 말. '삼부구후'는 인체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고 각 부에서 각기 3자리씩 선택하여, 총 아홉 자리에서 맥을 살핀다는 삼부구후맥법(三部九候脈法)을 이룸.
- 92) 內關.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혈 이름. 손목의 손바닥쪽 가로 간 금의 가운데로부터 2치 올라가서 장장근건과 노뼈 쪽 수근굴근건 사이에 있다.
- 93) 間使. 간사혈(間使穴)을 이르는 말임.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에 속하며 경금혈(經金穴)이다. 팔의 앞부분 손바닥쪽에 위치하며, 손목의 가로지른 금에서 위로 3촌(寸)을 라가 장장근(長掌筋)과 요측수근굴근(橈側手根屈筋)사이에 있는 혈자리임.
- 94) 公孫.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발 안쪽에서 제1 발목뼈바닥의 안쪽 전하방과 단모지굴근 사이에 있는 우묵한 곳이다.
- 95) 肩髃. 어깨의 쇄골 끝부분과 평골대결절(肱骨大結節. 위팔뼈에 두툼하게 크게 솟은 부분) 사이에 있는데 상박을 수평으로 들어올렸을 때 어깨 앞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에 속하는 혈임.
- 96) 臚中. 양 젖꼭지 사이의 한가운데에 있는 혈자리. 기(氣)가 모인다는 뜻으로 상기해(上氣海)라고도 부르며 일체의 기병(氣病)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고 있는 혈자리임.
- 97) 鳩尾. 임맥의 낙혈 이름. 검상돌기와 갈비뼈가 갈라진 사이를 연결한 중심에서 1치 아래에 있다.
- 98) 中腕.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4촌 되는 곳이다.
- 99) 三里. 팔꿈치 바로 아래의 수삼리혈(手三里穴)과 무릎 관절 아래의 족삼리혈(足三里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00) 絕骨. 바깥 복사뼈에서 곧장 위로 약 3치 되는 오목한 곳에 있는 신체부위임.
- 101) 神庭. 발제(髮際)라고도 하며, 독맥(督脈)에 속하고, 머리 정중앙선에서 앞으로 다섯 치 되는 오목한 곳. 두통, 어지럼증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혈자리임.
- 102) '소상 ~ 사혈'까지는 모두 침 놓는 자리임.
- 103) 回春. 병이 나아 회복됨.
- 104) 塵世山間.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산 속.
- 105) 兔肝. 토끼의 간.
- 106) 同姓. 성씨가 같음.
- 107) 강림使者. 강림도령. 무당이 모시는 신의 하나로 염라대왕의 사자라고 함.
- 108) 外四寸. 외삼촌의 아들이나 딸.
- 109) 身死離遠. 몸이 죽어 (황천으로) 멀리 떠남.
- 110) 누를 黃, 샘 泉, 돌아가歸하겠소. 황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곧, 죽겠다는 말.
- 111) 卯乙巽은 陰木이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묘와 십간의 을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데, 팔괘의 손(巽)이 소음(少陰)이므로, 셋이 합하여 음의 목이 된다.
- 112) 辰戌은 陽土.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진과 십간의 술은 오행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팔괘의 간은 소양(少陽)이므로 셋이 합하여 양의 토가 된다는 말.
- 113) 相尅. 오행설에서 쇠는 나무를, 나무는 흙을, 흙은 물을, 물은 불을, 불은 쇠를 이김을 이르는 말.
- 114) 甲寅辰巽大江水. 갑인진손은 대강수. 십간과 십이지의 갑과 인과 진과 팔괘의 손은 큰 강의 기운을 나타낸다. 육십갑자 병납음(並納音)에는 '갑인을묘(甲寅乙卯) 대계수

- (大溪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의 잘못으로 생각됨.
- 115) 辰艮巳山元屬木. 진간사산은 원속목. (점술이나 택일에 쓰이는 흥변 오행에) 진과 간과 사와 산은 원래 목에 속한다는 말.
- 116) 木剋土. 오행의 목이 토를 이김.
- 117) 水生木하였으니. 오행에서 물이 목을 낳는다는 뜻. 오행으로 보았을 때, 용은 진이고, 진은 원래 목에 속하며, 토끼는 묘이고, 묘는 대계수에 속하므로, 상생이 되어 수생목이 된다는 말.
- 118) 王曰. 왕이 말하기를.
- 119) 然하다. 그렇다.
- 120) 雖然. 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 121) 蒼茫. 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122) 塵世間的. 이 세상의.
- 123) 碧海. 푸른 바다.
- 124) 萬頃 밖에. 만 이랑이나 되게 넓은 푸른 바다 밖에.
- 125) 白雲이 九萬里요. ‘흰 구름이 구만리나 뻗어 있는 먼 곳이요’라는 의미로 쓰였음.
- 126) 驪山 松栢.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 127) 鬱鬱蒼蒼. 뻘뻘이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여기서는 ‘울울창창한 속에’의 뜻.
- 128) 三千古墳. 삼천 개나 되는 옛 무덤. 황제도 죽어 삼천 개나 무덤이 있다는 뜻.
- 129) 海外. 바다 밖. 곧, 육지.
- 130) 日月의. 해와 달의. 해와 달이 뜨는.
- 131) 白雲靑山. 구름 낀 푸른 산.
- 132) 無定處를. 정한 곳 없이. 아무데나.
- 133) 是非 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 134) 藥名. 약의 이름.
- 135) 聖德. 임금의 덕을 높여서 이르는 말.
- 136) 忠義之臣. 의로운 신하.
- 137) 下直코. 하직하고.
- 138) 因忽不見. 보이지 않음.
- 139) 水府朝廷. 물의 나라를 다스리는 조정.
- 140)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 141) 들라. 들어오라.
- 142) 令. 명령.
- 143)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 144) 水國. 물속에 있는 나라.
- 145) 等物이. 등물들이. 여러 사물들이.
- 146) 얻어가지고.
- 147) 可觀. 볼만한 광경.



- 148)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 149) 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정삼품의 벼슬아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관.
- 150)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역사 자료를 기록하던 정7품 벼슬.
- 151)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 152) ‘박죽상어’인 듯. ‘박죽상어’는 중간 크기의 상어를 말함.
- 153) 大司成.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 154) 바닷물고기로, 몸길이 15~26cm에 입이 큼.
- 155)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156)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157) 바위갯과의 하나. 등딱지의 길이는 3cm, 폭은 3.5cm 정도이며, 어두운 녹색이고 몸은 사각형으로 우툴두툴하고 다리에 털이 적다. 등에 ‘H’ 자 모양의 흠이 뚜렷하며 집게발은 수컷이 암컷보다 역세다.
- 158) 兵使. 병마절도사.
- 159) 海狗. 물개.
- 160) 曹部將. 부장 벼슬의 초기. ‘조기’의 ‘조’자를 성으로 하여 만든 말임. 부장은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벼슬.
- 161) 備邊郎 郎聽. ‘비변랑’은 나라 안팎의 군사기밀을 다루던 종6품 벼슬. ‘낭청’은 조선 후기에, 실록청 도감(都監) 등의 임시 기구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당하관 벼슬.
- 162) ‘달강어’의 방언. 몸이 가늘고 길며, 머리는 크고 검은데, 등은 고운 주홍빛을 띤 바닷물고기.
- 163) 몸길이 40cm 안팎으로 가늘고 길며, 주둥이가 빠죽하고 몸빛이 붉은 바닷물고기.
- 164) 校理. 조선시대 홍문관의 정5품 벼슬.
- 165) 修撰. 조선시대 서적을 출판하는 책임을 맡은 홍문관의 정6품 벼슬.
- 166) 持平. 조선조 때 사헌부의 정5품 벼슬.
- 167) 掌書. 조선조 때 사헌부의 정4품 벼슬.
- 168) 청가오리. ‘청분’이라고도 함. 가오리의 한 종류로, 꼬리에 가시가 있음.
- 169) 禁府邏卒. 딸린 하급 병졸. 나줄은 말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170) 左右 巡令手. 좌 순령수와 우 순령수. ‘순령수’는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171) 海狗. 물개.
- 172) ‘송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송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73) 龍參軍. 참군 벼슬을 하는 자라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참군’은 조선조 때 한성부 훈련원의 정7품 벼슬.
- 174)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175) 鼈主簿.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176) 모래무지. 민물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으로,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부름.
- 177) 미끌미끌한.
- 178) 座首. 조선조 때 지방에 두었던 향청의 우두머리.
- 179) 민물고기의 한 가지로, 동자개와 비슷하나 몸이 작고, 입 둘레에 네 쌍의 수염이 있으며, 몸빛은 누르다.
- 180)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81)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 182) 큰 명절을 앞두고 서는 장날.
- 183) 生鮮塵. 생선을 파는 가게.
- 184) 都物主.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밀전을 대어주고 장사를 시키는 우두머리.
- 185) 경들. '경'은 임금이 신하를 이르는 말.
- 186) 朕.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나'라는 뜻으로 스스로 일컫는 말.
- 187) 諸臣. 여러 신하.
- 188) 魚頭鬼面之卒. 물고기의 머리에 귀신 얼굴을 한 졸병.
- 189) 面面相顧. 얼굴만 쳐다봄.
- 190) 默默不答.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음.
- 191) '혀를 끝끝 차며'를 이르는 말인 듯.
- 192) 割股事君.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였다고 함.
- 193) 介子推. 춘추시대 진(晉)나라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194) 誑楚亡身 紀信.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195) 能臣. 능력 있는 신하. 할 수 있는 신하.
- 196) 丞相.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은 중국의 벼슬.
- 197) 어떠한가?
- 198) 正言.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벼슬. 정원은 2명이고 품계는 정6품이었음.
- 199) 智略. 슬기로운 계략. 슬기와 꾀.
- 200) 넓사웁고. 넓고.
- 201)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겹테기를 말함.
- 202) 玳瑁인 고로. 대모이기 때문에.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말하는데, 공예품이나 장식품의 고급 재료로 쓰임.
- 203) 玳瑁粧刀. 만든 장도.

- 204) 살쩍밀이. 망건을 쓸 때 살쩍을 망건 밑으로 밀어 넣는 데 쓰는 도구. ‘살쩍’은 귀 밑에 난 털.
- 205) 宕巾.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져음. 집안에서는 이것만 쓰기도 했음.
- 206) 탕건에 붙이는 장식물인 듯하나 불명.
- 207) 쥘쌈지. 담배를 넣어서 옷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쥘쌈지의 하나. 장방형(長方形)의 형겼으로 한 쪽에만 넣을 자리가 있는데,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음. 혹, 끈을 달아 묶기도 함.
- 208)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209) 鐵甲. 쇠붙이를 겹에 붙여 만든 갑옷. 여기서는 조개의 껍이 단단한 것을 이름.
- 210) 굳굳하고. 단단하고.
- 211) 防身制度. 몸을 지키는 방법.
- 212) 觀蚌鷸之勢하고 坐收漁人之功이라. 홀조(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어부가 둘 다 손쉽게 잡는다는 뜻으로, 둘이서 다투다가 마침내는 엉뚱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어부지리(漁父之利).
- 213) 단념할 수밖에 별 도리 없이.
- 214) 매기.
- 215) 長鬚口大. 길고 입이 큼.
- 216) 好風身. 풍채가 좋음.
- 217) ‘입’의 비어.
- 218)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의 뜻.
- 219) 靑林碧溪. 숲과 푸른 시내.
- 220)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221) 시장기를 면할 재료.
- 222) 해멜.
- 223) 蓑笠. 도롱이나 삿갓.
- 224)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 225) 斜風細雨不須歸. 비스듬히 부는 바람과 가는 비에도 (세월을 잊고) 돌아갈 줄을 모름. 당나라 시인 장지화(張志和)의 시 〈어부(漁夫)〉의 한 구절.
- 226) 미끼.
- 227) 食食. 음식을 탐냄. 음식을 탐내어 먹음.
- 228) 斷不饑貧.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꼼짝없이’라는 뜻.
- 229) 痢疾. 변에 곱이 섞여 나오며 뒤가 잦은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
- 230) 腹疾. 배를 앓는 병.
- 231)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232) 바위갯과의 하나. 등딱지의 길이는 3cm, 폭은 3.5cm 정도이며, 어두운 녹색이고 몸은 사각형으로 우툴두툴하고 다리에 털이 적다. 등에 ‘H’ 자 모양의 홈이 뚜렷하며 집게발은 수컷이 암컷보다 역세다.

- 233) 靑林碧溪. 숲 속의 푸른 시냇물.  
 234) 山川水. 산속의 냇물.  
 235)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236) 千峯萬壑. 산봉우리와 골짜기.  
 237) 山中兔. 산 속의 토끼.  
 238) 月中兔. 달 속의 토끼.  
 239) 顔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240)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241) 엄지발가락.  
 242) 무거운 물건을 힘겹게 들 때 나는 소리.  
 243) 大王前. 대왕께.  
 244) 臣. 신하.  
 245) 公論. 일반의 공통된 의견.  
 246) 未決할 제. 아직 결정하지 못할 때.  
 247)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 등신화》의 〈수궁경회록〉 편에 나옴.  
 248) 隱目短足. 작고 다리가 짧음.  
 249)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250) ‘호흉배(虎胸背)’의 잘못. ‘호흉배’는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조각.  
 251) 防牌.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252) 어린아이나 다리가 짧은 동물이 느리게 걸거나 기어가는 모양.  
 253) 鞠躬再拜. 굽혀 두 번 절함.  
 254) 上疏. 임금에게 올리는 글.  
 255) 珍味. 맛있는 음식.  
 256) 자라탕.  
 257) 手足. 손과 다리. 여기서는 네 다리를 가리킴.  
 258) 江上에. 강물 위에.  
 259) 逢敗. 일이 잘못됨.  
 260) 海中之所生. 바다 속에서 태어남.  
 261) 畫像. 얼굴을 그린 그림.  
 262) 그것일랑은. 그것은.  
 263) 畫工. 예전에 화가를 이르던 말.  
 264) 畫寫者.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가.  
 265) 洞庭琉璃靑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 색과 붉은 색이 나는 고운 벼루.  
 266) 錦水秋波.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267)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벼루물을 담는 그릇.  
 268) 兩頭畫筆. 양쪽에 화필이 달린 붓.

- 269) 덩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270)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깔.  
 271) 天下名山勝地間의. 온 세상의 이름난 산과 뛰어난 경치 속의.  
 272)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273) 지저귀어 울 제.  
 274) 芝草. 지치.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275) 香草. 향기나는 풀.  
 276) 봉래산(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277) 방장산(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278) 雲霧. 구름과 안개.  
 279) 내. 냄새.  
 280) 大寒.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소한의 다음이며, 양력 1월 21일 경으로 가장 추운 때임.  
 281) 嚴冬. 매우 추운 겨울.  
 282)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 추위.  
 283) 防風. 바람을 막음.  
 284) 萬化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285)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286) 嘗百草. 온갖 풀을 맛봄. 신농씨가 온갖 풀의 맛을 보아 약초를 찾아낸 것을 이룸.  
 287) (입술이나 귀 따위를) 뻗뻗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이 내미는 모양.  
 288) 동글동글함.  
 289) 미끈하게 긴 모양.  
 290) 꼬리.  
 291)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292) 綠水인데. 푸른 물인데.  
 293)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294) 조금 휘어져 굽은.  
 295) 長松. 키가 큰 소나무.  
 296) 楊柳. 수양버드나무.  
 297)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298) 山中兔. 산 속의 토끼.  
 299) 얼른.  
 300) 峨眉山月이 半輪兔.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인 “峨眉山月半輪秋” (아미산 위에 뜬 반달이 벌써 가을이 되었다)를 변형한 것. 문자 그대로를 풀이하면,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의 토끼’란 뜻임.  
 301) 이보다.

- 302) ‘여기 있다’의 준말.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303) 덜미. 목덜미.
- 304) 謝恩肅拜. 서울을 떠나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던 일.
- 305) 御酒. 임금님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
- 306) 三盞. 석 잔.
- 307) 本宅. 자기가 살고 있는 집.
- 308) 數數千年. 여러 천 년. 곧 수천 년.
- 309) 長歎息.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함.
- 310) 누가.
- 311)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 312) 烏鳶. 까마귀와 솔개.
- 313) 누가.
- 314) ‘후여’하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솔개를 소리를 질러 내쫓는 것을 말함.
- 315)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함.
- 316) 여기서는 나랏님, 곧 임금을 말함.
- 317) 患候. 어른의 병.
- 318) 心慮하지. 마음속으로 걱정하지.
- 319) 拜別. 절하고 작별한다는 뜻으로, 존경하는 사람과의 작별을 높여 이르는 말.
- 320)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변이 경치가 좋아 소상팔경이 있다.
- 321) 宅號. 집주인의 벼슬 이름이나 처가나 본인의 고향 이름 따위를 붙여서 그 집을 부르는 말.
- 322) 堂上.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323) ‘풀이 길게 자란 밭’을 이르는 말인 듯.
- 324) 남생잇과의 하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진한 갈색의 딱지로 되어 있고, 네 발에는 각각 다섯 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다.
- 325) 調. 조격(調格). 품격이나 인품에 어울리는 태도.
- 326) 덧불임 四寸. 군더더기로 팔려 있는 사촌.
- 327) 倣似하니. 방사하게. 비슷하게.
- 328) 남모르게 자꾸 드나드는 모양.
- 329) 久望에. 오래도록 바라보니.
- 330)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말.
- 331) 노린내. 짐승의 고기에서 나는 기름기 냄새나, 고기 또는 털 따위의 단백질이 타는 냄새처럼 역겨운 냄새.
- 332) 고소한 냄새.
- 333) 그것으로.
- 334) 증험(證驗).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

- 335) 자야 할 것이다.
- 336) 水晶門. 수정으로 만든 문.
- 337) 景概. 경치.
- 338)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 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339)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340)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341) 자욱하게 긴.
- 342) 月峰으로.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343) 豫章村.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344)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 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345) 蘆花. 갈대꽃.
- 346) 눈처럼 다 희게 변하여 날리고.
- 347)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348)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349) 꿩과에 딸린 작은 새로,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350) 洞庭如天之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리다.
- 351) 錦水秋波. 고운 가을 물결.
- 352) 碧波. 푸른 물결.
- 353) 滄浪. 맑은 물결.
- 354)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걸거나 가는 모양.
- 355) 地廣. 땅 넓이.
- 356) 波光. 물 빛깔.
- 357) 天一色이다. 천일색인데. 하늘과 같은 색깔인데.
- 358) 天外巫山十二峯. 천외무산의 십이봉.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359) 海外 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 360) 眼下의. 눈 아래의.
- 361) 吳楚는 어이하여 東南으로 벌여 있고, 乾坤은 어이하여 日夜에 등실 솟았다.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탁(吳楚東南拓)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 362)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를 걸리는 거리임.
- 363) 武關囚의.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 갔음.
- 364) 楚 懷王. 초(楚)나라의 왕으로,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 때임.

- 365) 江岸. 강둑.  
 366) 橘濃. 귤이 익음.  
 367) 千片. 천 개의 조각. 수많은 조각.  
 368) 蘆花. 갈대꽃.  
 369) 風起. 바람이 일어남.  
 370) 白雪. 흰 눈. 여기서는 갈꽃이 날리는 것을 흰 눈에 비유한 것임.  
 371) 萬點. 수많은 조각.  
 372) 嘶霜七澤影傳吳 卅月三湘聲落楚라. 칠택에 서리 내리는 밤에 그림자는 오나라까지 미치고, 삼상의 밝은 밤에 울음소리는 초나라까지 들린다. 시인 굴원이 기러기를 두고 읊은 시의 두 구절. '칠택'은 전국시대 초나라에 있던 일곱 개의 연못이고, '삼상'은 상향(湘鄉), 상택(湘澤), 상음(湘陰)의 세 호수를 말한다.  
 373) 天外孤城의 萬里邊. 만 리나 멀리 떨어진 변방에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외로운 성.  
 374) 離離聲. 기러기의 화려한 울음소리.  
 375) 쉼여서 돌아.  
 376) 大河. 큰 강.  
 377) 靑林. 푸른 숲.  
 378) 碧溪. 푸른 시내.  
 379) 山川水. 산 속의 물.  
 380) 엮어져. 엮드려.  
 381) 千峰萬壑.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382)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383)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384)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385) 毘蘆峯. 산봉우리의 이름.  
 386)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387) 층층층(層層層). 층층으로 쌓인 높은 모양.  
 388)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389) 크고 무거운 물건이 깊은 물에 잇따라 떨어지는 소리.  
 390) 萬山. 온갖 산.  
 391) '울울(鬱鬱)'을 표현한 말인 듯. '울울'은 나무가 뻗뻗이 우거진 모양.  
 392) 落花. 떨어진 꽃.  
 393)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394)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395) 碧波. 푸른 물결.  
 396) 물이 떨어지는 소리.  
 397) 몽뚝한 다래나무.  
 398) 칙덩굴.  
 399) 으름덩굴.



- 400) 뱃나무.  
 401) 柑子. 감자나무의 열매. 감자나무는 귤과 비슷하나 열매가 귤보다 작음.  
 402) 果木. 과일나무.  
 403) 굽이져.  
 404) 千 里 시내. 천 리나 되는 긴 시냇물.  
 405) 물줄기 따위가 계속해서 힘차게 흘러내리는 소리.  
 406) 合水져. 물이 합쳐져.  
 407)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408) 거품이 일어.  
 409) 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410) 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  
 411) 거품.  
 412) 술 식혀 등이 꺾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413)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414)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415)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416) 해오라기. 백로.  
 417)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418)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419) 산비둘기의 진라도 사투리. 쑥이 새순이 날무렵 ‘지-지-쑥쑥’ 하고 구슬피 울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420)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421) 물총새과의 새. 몸길이 약 27.5cm이다. 몸 윗면의 머리·등·날개·꼬리는 붉은색이고 아랫면은 턱밑을 제외하고는 오렌지색이다. 다리도 붉은색이고 부리는 색이 더 짙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름철새이다.  
 422) 浩然壯大. 씩씩하게.  
 423)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 가에 떠 있는 붉은 해.  
 424)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425)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426) 자옥하게 낀.  
 427) 月峰으로.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428) ‘예장촌(豫章村)’의 잘못된 듯.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429)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430) 蘆花. 갈대꽃.  
 431)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432)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433) 보통은 ‘잘새’로 부른다. ‘잘새’는 잠을 자려고 하는 새. ‘자고새’로 볼 수도 있는데,

- ‘자고’는 평과에 딸린 작은 새로,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434) 동정여천파시추(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리다.
- 435) 金聲秋波. 가을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
- 436) 碧波. 푸른 물결.
- 437) 滄浪. 맑은 물결.
- 438)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걷거나 가는 모양.
- 439) 地廣. 땅 넓이.
- 440) 波光. 물 빛갈.
- 441) 天一色이라. 하늘과 같은 색깔이라.
- 442) 天外巫山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443) 海外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 444)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이다.
- 445) 吳楚는 어이하어 東南으로 벌여 있고, 乾坤은 어이하어 日夜에 등실 떠서.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반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탁(吳楚東南拓)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 446)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 447)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 448)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틀 걸리는 거리임.
- 449) 武關囚의.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 450) 楚懷王.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때임.
- 451) 冤魂.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 452)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고.
- 453)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454)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455)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 456)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 457) 비로봉(毘蘆峯).
- 458)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 459) 층층층(層層層). 층층으로.
- 460)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 461) 萬山. 수많은 산. 모든 산.

- 462) ‘울울(鬱鬱)’을 표현한 말인 듯. ‘울울’은 나무가 뻗뻗이 우거진 모양.
- 463) 落花. 떨어진 꽃.
- 464)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 465)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466)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 467) (가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한.
- 468) 뭉뚱한 다래나무.
- 469) 칙덩굴.
- 470) 으름덩굴.
- 471) 뱃나무.
- 472) 온갖.
- 473) 果木. 과일나무.
- 474) 굽이져.
- 475)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 476)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477) 江上. 강물 위의.
- 478) 때로 다니는 고니.
- 479) 少昊天子 紀官하던. ‘소호천자가 벼슬의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이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호천자는 중국 전설 상의 임금으로, 소호 금천씨(金天氏).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이름을 붙였다고 함.
- 480)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 481) 洋洋滄波點點動. 넓고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서 움직이다.
- 482) 사랑스럽다.
- 483) 烏鵲이. 까마귀와 까치.
- 484) 녀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 485) 징경이.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 486) 새울음소리를 흉내낸 말.
- 487)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488) 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 489) 白沙地땅. 흰 모래사장.
- 490) 약간 휘우듬하게 구부러진.
- 491)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492) 狂風. 사나운 바람.
- 493)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몸 전체를 율동적으로 멋있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 494) 流水. 흐르는 물.
- 495) 물줄기 따위가 끊이지 않고 강하게 흐르는 소리.
- 496) 한 곳으로.
- 497) 합수(合水)져. 물이 합쳐져.

- 498)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구부저.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499) 거품이 일어.  
 500) 병풍석(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501) 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로.  
 502) 거품.  
 503) 술 식혀 등이 괴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504)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505)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506) 어느 곳으로.  
 507) 가자는 말인가?  
 508) 예로구나. 여기로구나.  
 509) 雲層境. 구름이 층층이 쌓인 높은 곳.  
 510) 기어다는 짐승.  
 511) 可觀.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쓰는 말.  
 512) 孔夫子. 공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  
 513)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춘추》는 공자가 지은 노나라 역사.  
 514) 絶筆. 붓을 놓고 글쓰기를 그만둠.  
 515)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다(획린, 獲麟).”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 의 뜻으로 쓰임.  
 516) 三軍三營.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517) 舉動時에. 임금님이 나들이를 할 때에.  
 518) 天子 玉輦.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  
 519) 玉京仙官.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520) 乘匹. 타고 다님.  
 521) 西伯. 주나라의 문왕.  
 522)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523) 非熊非豹. 아니고, 표범도 아님.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점을 쳤는데,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524) 滄海博浪沙中 狙擊始皇. 창해군을 만나 (사람을 얻어) 박랑사에서 진시황을 습격함.  
 525) 다람쥐.  
 526)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527) 원숭이.  
 528) 山皮. 산짐승의 가죽.  
 529) 獬皮. 담비 가죽.  
 530) 족제비과 담비속에 딸린 만주날담비와 목도리날담비의 속칭.

- 531) 날담비에 이어서 기어다니는 담비라는 의미로 쓴 말. ‘담비’는 족제비과에 딸린 동물. 족제비와 비슷한데 조금 크고 빛깔이 고움.
- 532) 等物이. 등등의 것들이.
- 533) 上座 다툼.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
- 534) 年年이. 해마다.
- 535) 年齒. 나이를 높이어 이르는 말.
- 536) 上座. 윗자리 또는 높은 자리.
- 537) 座中.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 538) 異口同聲. 사람이 같은 소리를 함.
- 539) 獼把摠. ‘파총 벼슬을 하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파총’은 군영의 종4품 무관 벼슬.
- 540) 騎鯨上天. 타고 하늘로 올라감.
- 541) 同接.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관계.
- 542) 匡山. 이태백이 십 년 동안 글공부를 했다고 하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산.
- 543) 玉京. 도가에서 옥황상제가 있다는 신선 세계의 서울.
- 544) 上天. 하늘로 올라감.
- 545) 微物. 보잘 것 없는 물건.
- 546) 年甲. 나이가 같음.
- 547) 나잇살. 지긋한 나이를 낮잡아 일컫는 말.
- 548) 銅雀臺. 중국 후한 건안 15년 겨울에 조조가 위나라 수도인 업(鄴)의 북서쪽에 지은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으로 지붕 위를 장식한 데에서 생긴 말이다.
- 549) 玉龍閣. 동작대의 우편에 크고 높다랗게 지은 집.
- 550) 金鳳樓. 동작대 좌편에 세운 누대.
- 551) 二喬女. 중국 삼국시대에 강동에 살던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한다.
- 552) 曹子建. 이름은 식(植). 조조의 아들이자 글재주가 뛰어나, 조조가 〈동작대부〉를 짓게 했음.
- 553) 銅雀臺 韻賦하던. 〈동작대부〉를 읊던. 〈동작대부〉는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자건(曹子建)이 지은 시.
- 554)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555) 年甲. 동갑. 나이가 같음.
- 556) 멧돼지.
- 557) 거스러미 눈. ‘거스러미’는 나무의 결 같은 것이 얇게 터져서 일어난, 가시처럼 된 부분. ‘거스러미 눈’은 멧돼지의 눈썹이 가시처럼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컫는 말임.
- 558) 연이어 천천히 꺾박이는 모양.
- 559) 저중군(猪中軍). 중군장을 맡은 돼지라는 뜻으로, 돼지를 의인화한 표현.
- 560) 匈奴國. 흉노족이 세운 나라. ‘흉노’는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 561) 주린 忠節 十九年에 首髮이 盡白하여. 굶주리면서 충성스런 절개를 지킨 지 19년 만에

- 머리털이 모두 희어져.
- 562) 허위적허위적. (벗어나거나 헤어나려고)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563) 蘇中郎. 중랑장 벼슬의 소무(蘇武). ‘소무’는 한나라 때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충절을 지키다, 19년 만에 백발노인이 되어 돌아왔음.
- 564) 현손(玄孫).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 565) 漢 光武. 한나라 광무제. 후한을 세운 유수(劉秀).
- 566) 諫議大夫.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아치.
- 567) 浮雲. 뜬구름.
- 568) 遮日.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569) 桐江 七里灘. 중국 절강성 동로현에 있는 여울. 한나라 때 엄광(嚴光)이 여기서 낚시질을 하였다고 함.
- 570) 嚴子陵. 이름은 광(光)이고, 자릉은 그의 자(字)임. 후한을 세운 유수와 어려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후에 유수가 광무제가 되어 간의대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숨어 살았음.
- 571) ‘시조(始釣)’는 낚시질을 시작함. 따라서 여기는 ‘시조하고’를 빼버리고 ‘엄자릉과 낚과 돌이’로 해야 어법에 맞음.
- 572) 茶啖床.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차린 상.
- 573) 별장계. 불계.
- 574) 커고. 눈이 붉은 것을 불을 켜 것에 비유함.
- 575) 일췌일췌. 조금 큰 것이 잇따라 눈앞에 잠깐씩 나타났다 없어지는 모양.
- 576) 맛있는 무리.
- 577) ‘그만두어라’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 578) 此山中. 이 산중.
- 579) 그인데. 그것인데.
- 580) 선생이 앞에 태어났다는 뜻이므로, 이에 이어서 뒤에 태어났다는 뜻으로 한 말.
- 581) 하느냐?
- 582) 混沌未分太極初. 우주가 생겨서 혼돈이 아직 태극으로 나뉘어지기 전의 태초.
- 583) 끝없이.
- 584) 넓은.
- 585) 鑽石. 쇠붙이를 유리하게 채취할 수 있는 광물이나 또는 그 집합체.
- 586) 女媧氏. ‘여왜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누이동생으로, 복희씨 다음으로 임금이 되었는데, 제후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하늘 한 쪽이 부서져서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자, 돌을 다듬어 부서진 곳을 메우고, 거북의 다리를 잘라 사방의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 587)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해서. 여기서는 ‘태어나서’라는 뜻으로 썼음.
- 588) 덜름. 어울리지 않게 홀로 우뚝한 모양.
- 589) ‘달짝달짝’보다 강한 말. ‘달짝달짝’은 어깨나 엉덩이 따위가 가볍게 자꾸 들렸다 놓였다 하는 모양.
- 590) 身數. 한 사람의 운수.

- 591) 망가질 것이다. 끝장나라라.
- 592) 急煞맛을. 갑자기 닥쳐오는 재액을 당할.
- 593) 叢中. 한 무리의 속.
- 594) 약을 먹은 뒤에 다른 음식을 먹어 입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 또는 그 음식.
- 595) 얼룩덜룩.
- 596) 등급.
- 597) 生員. 일반 백성이 양반 선비를 부르던 말.
- 598) 今時初聞. 지금 처음 들음.
- 599) 松林. 소나무 숲.
- 600) 골짜기.
- 601) 잠두(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특 불거진 모양을 가리킴.
- 602)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 603) 箭筒. 화살을 넣는 통.
- 604)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 605) 석로 만든 냇.
- 606) 큰 모래.
- 607) 嚴冬雪寒.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
- 608) 白雪格으로. 흰 눈처럼.
- 609) 뒤집혀 넘어지고.
- 610) 魂不附身. 정신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음. 곧 아무 정신이 없음.
- 611) 움츠리고.
- 612) 엮드려 있다.
- 613) 전혀 서슴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 614) 누여.
- 615) 작은 것이 좀 넓고 평평하게.
- 616) 時祭.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 617) 빠트려놓고.
- 618) 그릇 따위의 밑바닥에 붙은 나지막한 받침.
- 619) 밀로 만든 부꾸미. ‘부꾸미’는 찰쌀·밀·수수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번칠(지짐질을 하는 데 쓰는 무쇠 그릇)에 지진 음식.
- 620) 고소한 냄새.
- 621) 羅州扇. 나주에서 만든 부채.
- 622) 두루뭉술.
- 623) 命. 목숨. 수명.
- 624) 생각을 단념하거나 무엇을 포기하려 할 때 내는 소리.
- 625)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겹대기를 말함.
- 626) 입의 내민 부분.
- 627)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 628) 모양.
- 629) 人事性. 예의 바르게 인사를 차리는 성질이나 품성.
- 630) 猛虎將軍. '사나운 호랑이 장군'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631) 虎生員. 호랑이를 의인화한 표현.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 632)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 633) 자라탕.
- 634) 願일러니. 소원이었는데.
- 635) 불에 태워.
- 636) 萬病回春.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637) 名藥. 효험이 좋은 이름난 약.
- 638)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639) 濕氣. 한의학에서 습한 기운을 이르는 말.
- 640) 當者니라. 바로 그 사람이니라. 여기서는 '꼭 맞는 것이니라'라는 의미로 썼음.
- 641) 砒霜. 비석(砒石)에 열을 가하여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 거담제와 학질 치료제로 쓰였으며, 독성이 아주 강하다.
- 642) 戮屍.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베는 형벌을 가함.
- 643)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 644) 仰天痛哭. 우러르며 슬프게 울.
- 645) 逐逐猛虎. 호랑이를 쫓아 보냄.
- 646) 連將軍. 장기에서, 어느 한쪽에서 연달아 부르는 장군. 또는 그런 말발에 놓인 관계.
- 647) 화살.
- 648) 射殺白虎. 활로 쏘아 죽임.
- 649) 서럽지 않으나.
- 650) 堂上.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651) 閨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652) 紅顏.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653) 妻子. 아내와 자식.
- 654) 萬里他國. 만 리나 되게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 655) 바라는데.
- 656) 客死冤鬼. 객지에서 죽은 원통한 귀신.
- 657)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658)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659)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660) 四代孫. 4대 후손.



- 661) 鼈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662) 자라 鼈 字. 자라 ‘별’이라는 글자.
- 663) 勤慎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라는 명령.
- 664) 무서울 텐데.
- 665) 되움치기.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의 일부를 내밀었다가 갑자기 오그려 들여보내는 동작을 반복하기.
- 666)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 667)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668) 간(間). 건축물에서 사방 일곱 자(약 210cm) 내지 아홉 자(약 270cm) 평방의 넓이를 이르는 단위.
- 669) 작고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 670) 名醫에게. 이름난 의원에게.
- 671) 問醫.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봄.
- 672)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673) 匕首劍. 날카롭고 짧은 칼.
- 674) 窒塞. (숨이 꼭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 675) 반죽음. 거의 죽게 된 상태.
- 676) 關머리. 고을의 처음.
- 677) 갑자기 나타났었다.
- 678) 되니까.
- 679) 뽕죽한 끝을 약간 내밀어.
- 680)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681) 才談.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하는 말.
- 682) 山中之靈物. 산 속의 신령스런 짐승.
- 683) 山神祭. 산신령에게 지내는 제사.
- 684) 華陀.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 약제의 조제, 침술, 뜸질에 두루 통했으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을 쓰기도 했다고 함. 조조의 병을 치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오지 않자, 조조의 노여움을 사 죽음을 당했음.
- 685) 扁鵲. 이름은 진월인(秦越人). 중국 전국 시대의 의학자. 명의로서 전설적 명성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라고 하는 의서가 많음.
- 686) 藥和劑. 약방문(藥方文).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종류와 분량을 적은 글.
- 687) 불에 태워서.
- 688) 達通. 사물의 이치에 정통함.
- 689)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690) 대단한 일.
- 691) 어떤 일을 하려고 버르거나 굳게 마음먹을 때.
- 692) 정도 이상으로 많게.

- 693) 典獄主簿.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694)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695) 四代孫. 4대 후손.
- 696) 鼯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697) 되움치기.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의 일부를 내밀었다가 갑자기 오그려 들어보내는 동작을 반복하기.
- 698)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 699) 모든.
- 700) 기와로 지붕 위를 덮을 때.
- 701) 衝舌. 추녀.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 702) 몸이 오그라들게 된 상태를 말하는 듯.
- 703) 名醫다려. 명의에게.
- 704)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705) 돼지나 곰의 쓸개를 썰 때 쓰는 수효.
- 706) 匕首劍. 날카로운 단도.
- 707) 불알.
- 708) 짓혀놓으니.
- 709) 楚歌聲. 초나라 노래 소리. 항우가 유방과 해하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일 때, 유방의 군대가 달밤에 초나라 노래를 구슬프게 불러,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으로 진영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 항우가 전투에서 졌다고 함.
- 710) 霸王. 항우(項羽)를 이룸. 중국 진(秦)나라 말엽의 무장. 기원전 209년 유방(劉邦)과 같이 진나라를 쳐서 멸하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됨.
- 711) 躍出. 힘차게 뛰어나옴.
- 712) 片箭. 아기사알. 짧고 작은 화살. 일천 보(步) 이상의 거리에 능히 이르며, 날썰고 축이 날카로워 갑옷이나 투구를 능히 뚫음.
- 713) 화살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714) 鐵丸. 처란. 엽총에 쓰는 잘게 만든 탄알.
- 715) 江水. 강물.
- 716) 여기 가서.
- 717) 갑자기 나타나는 모양.
- 718) 저기 가서.
- 719) 고개 이름이나 불명.
- 720) 아프구나.
- 721) 아래의 양쪽에 귀가 나오게 된 주머니. 네모지게 지어 아가리 쪽으로 절반을 세 골로 접어 만듦.
- 722) 石山. 돌산. 바위로 이루어진 산.

- 723) 上上峰. 높고 높은 봉우리.  
 724) 山中之靈物. 산 속의 신령스런 짐승.  
 725) 志氣. 의지와 기개.  
 726) 變化.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727) 山神祭.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  
 728) 一片丹心.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충성된 마음이나 절개.  
 729) 清水. 맑은 물.  
 730) 沐浴齋戒.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731) 溪邊楊柳. 버드나무.  
 732) 작고 단단한 물건을 힘껏 깨물어 깨뜨리는 소리.  
 733) 塵土. 먼지와 흙.  
 734) 盤石. 넓고 평평한 큰 돌.  
 735) 祭床. 제사상.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차려놓는 상.  
 736) 面紙. 제사 때 제사상 위에 까는 종이.  
 737)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738) 紅東白西.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739) 東頭西尾. 머리를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음.  
 740) 陳設. 잔치나 제사 때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 위에 벌여 놓음.  
 741) 焚香再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함.  
 742) 讀祝. 축문을 읽음.  
 743) 維歲次.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744) 甲申. 갑신년.  
 745) 己酉. 오월에 해당하는 간지. 월건(月建).  
 746) 朔. 초하루. 축문에서 월건 다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임.  
 747) 癸亥. 15일날의 일진에 해당하는 간지.  
 748) 敢昭告于. 감히 고하나이다.  
 749) 上天日月星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750) 后土. 토지의 신.  
 751) 神靈面前. 신령님 앞에. 신령님께.  
 752) 至誠發願. 지극한 정성으로 바라는 마음을 나타냄.  
 753) 偶然得病. 병을 얻음.  
 754) 天醫道士. 하늘나라 의사인 도사.  
 755) 問病. 본래는 '앓는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함'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병에 관하여 묻는다는 뜻으로 쓰임.  
 756) 千年兔肝. 천 년 묵은 토끼의 간.  
 757) 卽瘥云헌 故로. 곧 나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758) 遠海萬里. 만 리나 떨어진 먼 바다.

- 759) 辛苦越涉. 고생하여 건너옴.
- 760) 來到此山下. 이 산 아래에 도착함.
- 761) 千年龜一首. 천 년 묵은 토끼 한 마리.
- 762) 許給支之. 허락하여 내어줌.
- 763) 伏望. 엎드려 바람.
- 764) 祝手. 두 손 모아 빌.
- 765) 謹以清酌. 삼가 맑은 술 한 잔으로.
- 766) 常事.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기》에 나오는 말. 제문이나 축문의 끝에 상투어로 씀.
- 767) 尚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 드시기를 비는 말. 흠향하시옵소서.
- 768) 동글동글.
- 769) ‘꼬리’의 속된 말.
- 770)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771) 綠水青山. 물이 흐르는 푸른 산.
- 772) 조금 휘어져 굽은.
- 773) 楊柳. 버드나무.
- 774)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 775) 山中兔. 산 속의 토끼.
- 776) 月中兔. 달 속의 토끼.
- 777) 깡충.
- 778)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 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숨어 산 곳.
- 779) 潁水.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허유가 못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귀를 씻은 곳.
- 780)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고사(高士).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 781) 許由. 중국 요임금 때의 은사(隱士).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은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 782) 避世가자고. 세상을 피해 숨자고.
- 783) 首陽山. 중국의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산으로 백이와 숙제가 굶어 죽은 곳.
- 784) 白夷 叔齊. 중국 은(殷)나라의 처사.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려고 하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효(孝)가 아니며,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렸다. 그러나 무왕이 은(殷)을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겨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아사(餓死)했다.
- 785) 採薇하자고. 고사리를 캐자고.
- 786) 百花深處一僧歸 春風石橋花林中. 온갖 꽃이 피어 있는 곳에 한 중이 돌아온다, 꽃수풀 속 봄바람 부는 돌다리에.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에서 성진이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을 다녀오다가,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돌다리에서 여덟 선녀를 만나게 된 일을 가리킨 것임.

- 787) 性眞. 〈구운몽〉의 남자 주인공의 천상계에서의 이름.
- 788) 和尚. 중을 높여 부르는 말.
- 789) 玩月長醉. 달을 즐기면서 늘 술에 취해 있음.
- 790) 太白. 당나라 때의 시인 이태백.
- 791)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이태백은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 792) 靑山夔洲白礫灘. 청산에 살면서 섬과 회고 푸른 여울을 두려워함.
- 793) 呂洞賓. 당나라 때 사람으로 호는 순양자(純陽子). 64세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강호를 떠돌았는데, 목숨을 연장하는 술법을 배워 여덟 명의 신선 중 하나로 일컬어짐.
- 794) 桃花流水. 물 위에 뜬 복숭아꽃.
- 795) 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흘러오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 796) 舉酒屬客. 술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는 사람.
- 797) 此山中 雲深한데 不知處 오신 손님. 이 산중에 구름이 깊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찾아오신 손님.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의 시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에 나오는 '지재차산중(只在此山中) 운심부지처(雲深不知處)'(이 산 속에 있기는 하지만, 구름이 깊어서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의 변형임.
- 798) 누구가. 누가.
- 799) 緣分.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800) 가벼운 짐승이 빠르고 가볍게 뛰는 소리.
- 801) 初面. 처음 보는 것.
- 802) 彼此一般. 서로 똑같음.
- 803)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 804) 합시다.
- 805) 그렇게 합시다.
- 806)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807)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808) 四代孫. 4대 후손.
- 809) 鼈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810) 天上. 하늘 위.
- 811) 月宮. 달나라에 있다는 상상 속의 궁전.
- 812) 理陰陽順四時. 음양을 맡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순조롭게 함.
- 813) 禮部尙書.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814) 月兔일러니. 달 속의 토끼이더니(토끼인데).
- 815) 搗藥酒. 약초를 넣어 빻은 술.
- 816)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 817) 謫下中山. 산 속으로 귀양을 음.

- 818) 謂之曰. 일러 말하기를.
- 819) 兎名. 토끼라는 이름.
- 820) 文字.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문장.
- 821) 久仰聲華. 훌륭한 명성을 오래 동안 우러러 봄. 첫인사에서 인사로 하는 말.
- 822) 何相見之晚晚無故不測. 이렇게 늦게서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
- 823) 본(本). 본보기가 되는 모양.
- 824) 天下.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 825) 未疾. 고치기 어려운 나쁜 병증.
- 826) 短文. 글을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 827) 문자통. '통'은 정통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문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 쓰임. 여기서는 '문자꾸러미' 정도의 의미.
- 828) 法眼弘眼. 도를 통해 무엇이나 널리 꿰뚫어 볼 수가 있음.
- 829) 紅顏白髮. 좋은 얼굴에 흰 머리.
- 830) 紅不甘醬. 빛은 붉은빛이지만 맛이 짜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신통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831) 利不可獨食이요. 이익을 혼자서 모두 차지하지는 못함.
- 832) 覓前通路. 앞을 찾아 길을 냄.
- 833) 九行方通. 달이 운행하는 아홉 가지 길에 두루 통함. 곧, 천문을 잘 알고, '구행'은 적도, 흑도, 백도, 청도의 각기 두 가지씩에 황도를 더한 아홉 가지.
- 834)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가보잡기에서 5, 6, 7을 합해서 여덟곳이 되는 낱수를 가리키는 말.
- 835) 親查頓通家門. 친가와 사돈집이 서로 대문이 통해 있음. 그렇게 가깝다는 말.
- 836) 堂狗三年吠風月. 서당개 삼년이면 시를 읊는다.
- 837) 牛耳讀經. 소 귀에 경 읽기. 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
- 838) 魚東肉西. 제사상을 차릴 때 물고기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다 놓는 것을 이르는 말.
- 839) 紅東白西.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40) 左脯右醢. 말린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 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841) 焚香再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함.
- 842) 明其爲賊. 도적질한 것을 밝히는 일.
- 843) 全羅監營. 전라감사가 업무를 보는 곳.
- 844) 一口二言은 百父之子로고.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은 백 명의 아버지를 둔 자식이다.
- 845) 含笑曰. 웃음을 머금고 말함.
- 846) 威名. 위엄을 떨치는 명성.
- 847)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848) 仙風道骨. 신선의 풍채와 도사의 몸매.
- 849) 貴骨.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될 모습.
- 850) 梗概. 전체 내용의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한 줄거리.
- 851) 無雙이지요. (짜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이지요.

- 852) 綠水青山.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 853) 日暮黃昏. 저무는 황혼.
- 854) 月出東嶺. 산봉우리에 달이 뜬.
- 855) 靑林碧溪. 숲과 푸른 시내.
- 856) 山果木實.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857) 甘食. 달게 먹음. 맛있게 먹음.
- 858) 身如浮雲. 뜬구름과 같음.
- 859) 玩景. 경치를 즐기.
- 860)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 861) 五老峯.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다섯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유래하였다고 함.
- 862) 鎮國名山. 서울이나 성 뒤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여 있는 산.
- 863)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
- 864) 花間蝶舞紛紛雪. 꽃 사이에서 춤추는 나비는 마치 흩날리는 눈과 같다.
- 865) 柳上鶯飛片片金. 버드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피꼬리는 수많은 조각의 황금과 같음.
- 866) 진달래꽃.
- 867)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말로, 《맹자》에 나옴.
- 868)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869)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 870)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871) 遊山. 산으로 놀러 다님.
- 872) 江山風景 興味間에. 강산 풍경의 흥미를 즐기는 중에.
- 873) 地上神仙. 땅 위에 사는 신선.
- 874)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875)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876) 그것으로.
- 877) 消日. 어떠한 것에 재미를 붙여 심심하지 아니하게 세월을 보냄.
- 878) 男中一色. 남자 중의 최고 미남.
- 879) 여자에 방탕하게 빠진 사람
- 880) 風身. 생김새.
- 881) 訓練大將. 훈련도감의 종이품 으뜸 장수.
- 882) 眉間. 두 눈썹 사이.
- 883)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884) 八難.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칼·병란.
- 885) 나왔으니까.
- 886) 一介 寒龜.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 887)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구추'는 음력 구월을 가을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 888)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 889) 嚴冬. 아주 추운 겨울.  
 890)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추위.  
 891)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892) 千峰에. 수많은 산봉우리에.  
 893) 花草木實. 꽃, 풀, 나무열매.  
 894) 鸚鵡鴛鴦. 앵무새와 원앙새.  
 895) 힘없이 활는 모양.  
 896) 던진 듯이. 내던져진 듯이.  
 897) 차가운.  
 898) 片月. 조각달.  
 899) 武關囚의.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900)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901) 日月苦楚北海上 蘇乎武乎. 흉노 땅의 북해(카스피해)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갇은 고생 끝에 19년만에 늙어 돌아옴. ‘중랑’은 소무가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902) 其生. 그 삶.  
 903) 三冬. 겨울 석 달.  
 904) 碧桃紅杏. 붉은 살구꽃.  
 905) 春二月. 봄 이월.  
 906) 空腹. 배속.  
 907) 深山窮谷. 산 속 깊은 골짜기.  
 908) 헤멜.  
 909) 올가미.  
 910)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911) 峰峰이. 산봉우리마다.  
 912) 매를 받쳐 들고 있는.  
 913) 鷹主. 매 주인. 혹 ‘웅사’라고도 함. ‘웅사’는 고려, 조선 시대에 매사냥을 위해 웅방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그곳에 소속된 매사냥꾼을 웅사라고 하였음.  
 914) 結項致死. 목이 졸려 죽음.  
 915)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물건이나 음식.  
 916) 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917) 지쳐서 힘들게 뛰어가는 모양.  
 918) 짐승 등이 잡자기 튀어나가는 소리.  
 919) 매사냥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수왓치 혹은 수할치라고도 한다.  
 920) 海東靑. 매 중에서 가장 튀어나고 색깔이 푸른 매.



- 921) 그 해에 깐 새끼 매로, 길이 잘 든 매. 가슴의 깃이 보라색임.
- 922) 두루미깃. 두루미의 깃털로 만든 깃. '깃'은 깃을 가리킴.
- 923) 매의 꼬지 위에 표를 하려고 덧꽃아 맨 새의 깃털. 닭이나 기러기 깃에다가 각을 붙인 것. '각'은 '시치미'라고도 하는데, 매가 날아가 버렸을 때 매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매의 꼬리에다 주인의 주소와 이름, 매의 이름을 적어 달아두는 꼬리표.
- 924) 孔雀羽. 공작의 깃털. 공작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매의 꼬리에 단다.
- 925) 불명. 앞의 내용으로 보면 공작의 깃을 달아 만든 마루새인 듯. 마루는 매의 일종.
- 926) '도래'는 매의 발목을 묶은 바까치와 장스치를 연결하는 쇠고리. 회전이 자유스러워 줄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음. '장스치'는 도래에 연결된 가죽 줄. '바까치'는 매의 발목을 맨 가죽끈.
- 927) 부드럽게 날아가는 모양.
- 928) 덩그렇게. 높이 솟아 당당하게.
- 929) 兩眉間. 두 눈썹 사이.
- 930) 머릿골이 있는 부분.
- 931) 거기에.
- 932) 있나요?
- 933) 중턱.
- 934) 松下에. 소나무 밑에.
- 935) 총을 쏠 준비를 하는.
- 936) 都砲手. 포수 중의 우두머리.
- 937)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풀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 938)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입는, 풀을 꿇은 적삼.
- 939) 물건을 꿰는 데 쓰는 끈이나 꼬챙이 따위. 또는 거기에 무엇을 꿰는 것.
- 940) 商事方物. 장사꾼이 파는 물건 중. 여기서는 '장사치들이 수입된 물건을 팔던 것 중'이라는 의미인 듯. 혹 '상사(相思) 밤울'로 보아, '토끼를 생각하며 지새는 밤울'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함.
- 941) 倭物. 일본 물건.
- 942) 鳥銃. 화승의 불로 터지게 만든 구식 총. '화승'은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꼬아 만든 것으로, 옛날 총열에 화약과 탄알을 채고 이 노끈에 불을 댕겨 귀약 통에 대어 폭발시켰다.
- 943) 이중 탄환.
- 944) 화약불. '귀약'은 화승총 옆에 채는 화약.
- 945) 크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세게 부러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946)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947) 있나?
- 948) 樵童 牧豎. 나무하는 아이와 목동.
- 949) 둘러메고.
- 950) 서로 부르며.
- 951) 개를 부르는 말.

- 952) 후드득. 의성어.
- 953) 肝腸. 마음.
- 954) 白登七日困困 漢太祖의 肝腸.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해 7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 태조의 마음. 기원 전 200년 흉노가 한나라에 침입해 왔는데, 이때 한 고조 유방은 친히 30만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 나섰다가, 흉노의 모돈선우(冒頓單于)의 40만의 군사에 의해 백등에서 포위당하였다. 7일이 지난 후에 진평(陳平)이 밀사를 보내어 모돈에게 뇌물을 주어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 955) 戰敗. 전쟁에서 패함.
- 956)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자(字).
- 957) 層巖絕壁. 바위가 층층이 쌓인 높은 절벽.
- 958) 石間. 돌 사이. 바위 사이.
- 959) 짧은.
- 960) 꼬리.
- 961) 사타구니에.
- 962)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양.
- 963) 목구멍.
- 964) 쓴 냄새. 힘든 일을 표현하는 말
- 965) 밀구멍.
- 966) 조충을 쓰니.
- 967) 八難.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칼·병란.
- 968) 朝生暮死.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는 죽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키는 말.
- 969)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970) ‘거짓말’의 낮춤말.
- 971) 하시는가?
- 972) 相. 관상(觀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수명·길흉·성질 등을 판단하는 일.
- 973) 꼭.
- 974) 景概. 경치.
- 975) 서슴지 않고 단숨에. 갑자기.
- 976) 換腸. 환심장(換心腸).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
- 977) 壯하지요. 대단하지요.
- 978) 天壤之間. 하늘과 땅 사이.
- 979) 海乃最大. 바다가 제일 큼.
- 980) 萬物之中에. 세상의 온갖 사물 가운데.
- 981) 神爲最靈. 신이 가장 신령스러움.
- 982)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 983) 間. 짐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 984) 柱礎. 주춧돌.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춧돌. 둥근 기둥 밑에 받침.

- 985) 朱欄畫閣. 단청 칠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누각.
- 986) 半空에. 반공중에. 하늘 높이.
- 987) 卽位하사. 즉위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988) 萬族. 온갖 족속.
- 989) 貴示하고. 귀하게 여기고.
- 990) 仰德. 덕을 우러러 봄.
- 991) 王母 金瓶 千日酒. 서왕모가 금으로 만든 술병에 담아 보낸,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맛 좋은 술. '서왕모(西王母)'는 요지(瑤池)에 산다는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
- 992) 千賓玉盤. 천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옥쟁반.
- 993) 不老草.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약초.
- 994)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 995) 逸興. 남다른 흥미 또는 세속을 벗어난 흥취.
- 996) 美色. 아름다운 여자.
- 997) 細樂. 취타(吹打)가 아닌 장구, 북, 피리, 저, 깡깡이 따위로 구성한 군악(軍樂).
- 998) 風樂. 예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주로 기악을 이룬다.
- 999) 大紅船. 빛깔 고운 큰 놀이배.
- 1000) 瑤池.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는 연못.
- 1001) 群山. 산의 무리.
- 1002) 三千沙場. 삼천 개나 되는 모래밭.
- 1003) 弱手.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조(靑鳥.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 1004) 海內太平. 바다 속이 태평함.
- 1005) 月清明. 달은 맑고 밝음.
- 1006) 秋江上. 가을 강물 위.
- 1007) 漁笛소리.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008)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1009) 涇水. 중국 감숙성 화평현과 고원현의 두 곳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에서 위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국에서는 경수(涇水)·위수(渭水)·이수(伊水)·낙수(洛水)·한수(漢水)·소수(灋水)·상수(湘水)·장수(章水)·공수(貢水)를 구류(九流)라고 하고, 황하(黃河)·양자강(楊子江)·회수(淮水)·제수(濟水)를 사독(四瀆)이라고 하고, 절강(浙江)과 양자강을 이강(二江)이라 하고, 동정(洞庭)·청초(靑草)·단양(丹陽)·팽러(彭蠡)·태호(太湖)를 오호(五湖)라고 한다.
- 1010)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11) 洛水. 섬서성 정변현에서 비롯하여 위수와 합쳐져 황하로 들어가는 강.
- 1012)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 1013) 漾津. 섬서성 반종산에서 비롯하여 흐르는 한수의 상류.
- 1014) 蒲津. 산서성에서 비롯하여 황하로 흘러가는 포수(蒲水)에 있는 나루인 듯하다.
- 1015) 彭蠡. 강서성에 있는 호수인 파양호의 옛 이름.

- 1016) 瀟湘.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영릉 부근으로, 소수와 상수가 합치는 곳.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소상팔경(瀟湘八景)’으로 유명함.
- 1017) 或去或來.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 왔다 갔다 함.
- 1018) 赤壁江.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가 귀양가서, 음력 7월 16일 날 밤에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하는 강. 호북성 황강현에 있음.
- 1019) 蘇子瞻. 송나라 대문호인 소동파(蘇東坡). ‘자첨(子瞻)’은 그의 자(字).
- 1020) 采石江.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이 술에 취해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강.
- 1021) 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은 그의 자(字).
- 1022) 데리고.
- 1023) 萬歲同樂. 만 년 동안이나 함께 즐김. 오래오래 함께 즐김.
- 1024) 반하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마음이 홀린 것같이 쏠리다.
- 1025) 긴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 1026) 엉금엉금
- 1027) 遠路海邊. 바닷가까지의 먼 길.
- 1028)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029) 착실하거나 미답지 않은.
- 1030) 茫茫滄海. 넓고 큰 바다.
- 1031) 三閭大夫 屈原. 삼려대부 벼슬을 했던 굴원. ‘굴원’은 중국 전국 시대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B.C.343?–B.C.277?). 이름은 평(平), 원(原)은 자. 초사(楚辭)라고 하는 운문형식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모함을 입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작품은 모두 율분이 넘쳐 고대문학에서는 드물게 서정성을 띠고 있다.
- 1032) 魚腹中. 물고기의 뱃속.
- 1033) 孤魂.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넋.
- 1034)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1035) 太傅. 벼슬 이름.
- 1036) 賈誼.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넋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1037) 堯女舜妻.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부인.
- 1038) 娥皇女英. 아황과 여영. 요임금의 두 딸인데, 모두 순임금에게 시집갔다가,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따라 죽었다고 함.
- 1039) 蒼梧山. 순임금이 죽은 곳.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음.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함.
- 1040)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41)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042) 商紂. 상나라, 곧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
- 1043)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 1044) 牧野焚死. 목야에서 불타 죽음. ‘목야’는 지금의 허난성 지현(汲縣) 부근이라고 추정된다. 《사기(史記)》 〈주본기(周本記)〉에 의하면 무왕 11년 12월에 무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맹진에서 황하를 건너, 상나라의 도성 남쪽인 목야에서 하늘에 출진(出陣)을

- 맹세하고 진군하게 되자, 상의 주왕은 군사 70만 명을 거느리고 이에 대항했으나 패배하고, 주왕은 불 속에 빠져 자살하여 상나라는 멸망하였다.
- 1045) 始皇. 시황제.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B.C.259—B.C.210). 이름은 정(政).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였다.
- 1046) 扶蘇.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장자로서 성은 영(嬴), 이름은 부소이다. 친어머니인 정비(鄭妃)가 《시경(詩經)》 ‘정풍(鄭風)’에 실린 ‘산유부소(山有扶蘇)’란 노래를 잘 불려서 ‘부소’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어질고 총명해서 시황제와 중신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부소는 분서갱유(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땅에 묻어 죽임)가 천하의 안정을 해친다면서 여러 차례 간언을 하다가 시황제의 노여움을 사 북방으로 보내졌다. 시황제는 죽으면서 부소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라고 했으나, 시황제의 막내아들 호해(胡亥), 승상 이사(李斯), 환관 조고(趙高)는 함께 모의하여 호해가 황위(皇位)를 계승하도록 유서(遺書)의 내용을 날조하고, 부소에게는 자결하도록 하는 조서를 보냈다. 이에 부소는 자결하였다.
- 1047) 窮心所欲. 하고자 하는 대로 힘을 다함.
- 1048) 二世亡國. 두 번째 대에서 나라가 망함.
- 1049)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왔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고조의 기틀이 완성된 뒤,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 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 교활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잡아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1050) 蒯徹. 중국 한(漢)나라 때 범양(范陽) 사람. 한나라 유방의 부하 장수인 한신에게 왕이 되어 천하를 삼분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미친 시늉을 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 1051) 三族. 부계(父系), 모계(母系), 처계(妻系)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052) 滅했으며. 망하여 죄다 없어졌으며.
- 1053) 衛人. 위나라 사람. 위나라는 하남성에 있었음.
- 1054) 荊軻. 중국 전국시대 자객.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 정(政)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진왕에게 죽음. 진왕 정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으로 고쳐 불렀음.
- 1055) 易水寒風. 역수의 차가운 바람. ‘역수’는 중국 하북성에 있는 강 이름. 형가가 진왕 정을 죽이려고 떠날 때, 태자 단과 친구들이 나와서 전송한 곳.
- 1056) 형장사. 형가(荊軻).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 연의 태자 단의 객이 되어 명에 의해 진 시황을 위협하여 제후의 침치를 찾으려고 비수를 품고 진궁에 들어갔으나, 마침 미인의 탄금을 듣다 잡혀 죽음.
- 1057) 一去. 한번 간 후.
- 1058) 千秋 怨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시지 않을 원한.
- 1059)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1060) 秦 武關. 진나라의 무관. 무관은 지명. 중국 협서성 상은현 동쪽에 있는데, 진나라의 남쪽 관문이었음.
- 1061) 碌碌한. 보잘 것 없는.
- 1062) 兔死狐悲.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 1063) 巖穴에. 바윗굴에.
- 1064) 여기서는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다’는 뜻.
- 1065) 林泉. 숲 속에 있는 샘. 변하여 자연을 뜻하기도 함.
- 1066) 同性 삼아 同氣相通. 여기서 ‘동성’은 ‘같은 부류’의 의미로 쓰임. ‘동기상통’은 같은 종류끼리 서로 통함.
- 1067) 말자고 하였더니.
- 1068) 危邦. 위험한 나라.
- 1069)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 1070) 戶曹. 고려·조선시대에 호구(戶口)·공부(貢賦)·전토 및 식량과 기타 재화·경제에 관한 정부(政務)를 맡아보던 중앙관청.
- 1071) 골짜 노름의 일종.
- 1072) 梶杖. 조선 후기 죄인의 불기와 허벅다리를 번갈아 치는 곤형의 집행을 위해 나무로 만든 형벌 기구.
- 1073) 度. 횡수를 나타내는 말.
- 1074) 門外送出. 문 밖으로 내보냄.
- 1075) 꼭.
- 1076)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잡고.
- 1077) 一舉. 한 번 움직임. 한 번 일을 벌임.
- 1078) 頓絕.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 1079) 口辯.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 1080)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 않음.
- 1081)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 나라의 제후 앵(鶯)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되었는데, 이가 혜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들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 1082)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83) 漁父 姜太公.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가리킴.
- 1084) 文王.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이름은 창(昌). 강태공을 모사로 삼고 국정을 바로잡아 국력을 길러 천하의 반을 통일하였음.
- 1085) 入周. 주나라에 들어감. 강태공이 문왕을 따라 주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리킴.
- 1086) 漢既渡會 蜀道難의 黃面將軍 韓信이. 한나라 군사를 이끌고 험한 길인 진창을 건넌던 얼굴색이 누렇던 한신 장군. ‘한기도장’은 ‘한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진창을 이미 건너’라는 뜻. 한신이 진나라와 싸울 때 수령이 많은 진창 지방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일을 말함. '촉도난'은 '험한 촉나라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후에는 '험한 길'을 뜻하게 되었다. '황면장군'은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을 가리키는데, 한신의 얼굴이 누렇다하여 붙인 이름.

- 1087) 瀟何. 한 고조 유방의 참모로, 한신을 천거하여 도원수로 삼게 했다.
- 1088)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1089) 大將壇. 장수가 지휘를 위해 위치하는 단.
- 1090) 벗어난. 훌륭한.
- 1091) 風骨. 풍채와 골격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92) 美色. 아름다운 여자.
- 1093) 妓樂. 기생과 풍류.
- 1094) 萬歲同樂. 만 년 동안이나 함께 즐길. 오래오래 함께 즐길.
- 1095)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 1096) 秋江. 가을 강.
- 1097)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곧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가로 읊음, 혹은 그 지은 시.
- 1098) 十里 長江 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큰 강.
- 1099) 거룻배인가?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1100) 五湖上 煙月 속에 范相公 가는 배인가. 오호의 안개 자욱한 달밤에 범상공이 타고 가는 배인가. '오호'는 동정호, 또는 테호라고도 하고, 공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 유희의 다섯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범상공'은 오호에 배를 띄우고 여생을 한가하게 보냈던 범려(范蠡). '범려'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월나라의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 이를 버리고 미인 서서를 데리고 도 지방에 가서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함. 후에 그 재물마저 나누어주고 강호에서 노닐었다고 함.
- 1101) 夜泊秦淮近酒家.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깝다.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연봉한수월통사 야 박진회근주가 상녀부지망국한 격강유창후정화(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는 진회수를 가리킴.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102) 洋洋滄波. 끝없이 넓은 푸른 물결.
- 1103) 놀면서 날아다니는.
- 1104) 雙雙白鷗. 짝을 지어 노는 갈매기.
- 1105) 蕭蕭秋風送雁群. 쓸쓸한 가을 바람이 기러기떼를 날려보내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시 〈추풍인(秋風引)〉의 '何處秋風送雁群(어디서 오는 가을 바람이 쓸쓸한 기러기떼를 보내는가)'에서 따온 구절.
- 1106)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107) 碧海水宮. 푸른 물 속에 있는 수궁.  
 1108) 鸚鵡前에. 앵무새에게.  
 1109) 하필이면 그날에.  
 1110) 風勢. 바람의 기세.  
 1111) 마구 뒤틀리고 우그러져서.  
 1112) 뒤적거리는 모양.  
 1113)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랄 때 하는 소리.  
 1114)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1115) 龍大旗. 교룡기(蛟龍旗). ‘교룡기’는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큰 기로,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 형질이 달렸음.  
 1116) 당기듯.  
 1117) 이랬다 저랬다하고.  
 1118) 꼴.  
 1119) 눈꼬리. 눈초리. 눈의 귀 쪽으로 찌진 부분.  
 1120) 강한 빛을 받아 눈이 부시어 슴벅스름 찢리는 듯하여.  
 1121) 相好. 본래는 ‘부처의 몸에 갖추어진 훌륭한 용모와 형상’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몸에 갖추어진 용모와 형상’이라는 뜻.  
 1122) 人中. 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1123) 短命格. 목숨이 짧은 데 어울리는 생김새.  
 1124) 眼中. 눈 속.  
 1125)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1126) 卯時 末. 아침 일곱 시 무렵. 묘시는 아침 다섯 시부터 일곱 시 사이.  
 1127) 辰時 初. 아침 일곱 시 무렵. 진시는 아침 일곱 시부터 아홉 시 사이.  
 1128) 戊字金字 戊字 戊字 戊字 때. ‘무’ 자는 날짜 곧 일진에 무(戊)자가 들어간 날, ‘현’ 자는 방위 곧 북쪽, ‘금’ 자는 시각 곧 경신시인 오후 다섯시에서 일곱시 사이.  
 1129) 큰 짐승을 잡을 때에 쓰는 총알.  
 1130) 幪頭자리. 복두를 쓰는 자리. ‘복두’는 머리에 쓰는 관의 한 가지.  
 1131) 兩眉間. 두 눈썹 사이.  
 1132) 머릿골이 있는 부분.  
 1133) 水火. 물과 불.  
 1134) 相衝.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1135) 목까지 차는 물.  
 1136)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나타나거나 이루어지면. 따라서 ‘목물만 지면’은 ‘목까지 물이 차는 상태가 되면’이라는 뜻.  
 1137) 대단하지 않습니다.  
 1138) 슬그머니.  
 1139) 片箭. 축이 날카롭고 짧은 화살.  
 1140) 화살.



- 1141) 울렁울렁.  
 1142) 곳곳마다.  
 1143) 景概. 경치.  
 1144)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1145) 물건이 공중이나 바다에 떠 있는 모양.  
 1146) 茫茫. 넓고 아득함.  
 1147) 滄海. 넓고 큰 바다.  
 1148) 蕩蕩然. 넓고 큰 물살이 힘찬.  
 1149)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1150)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1151) 三江. 삼강은 중국에 있는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  
 1152)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1153) 嘹唳然.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1154)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1155) 이것이지만.  
 1156) 曲終人不見. 노래가 끝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음.  
 1157) 數峯. 몇몇 산봉우리.  
 1158)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1159)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1160)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 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님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1161)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중국 전국시대 굴원이 주위의 참소를 당하고 분함을 못 이겨 빠져 죽은 곳.  
 1162)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汨라수에 빠져 죽었다.  
 1163)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1164) 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인사말로 쓰임.  
 1165)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장현의 서쪽의 황학산에 있는 누각.  
 1166) 日暮鄉關何處是요, 연파강상(煙波江上)의 사인수(使人愁)는 최호(崔灝)의 유적(遺蹟)인가.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는 시구는 당나라 때 시인 최호가 남긴 자취인가. 최호가 쓴 〈황학루〉의 끝 구절. 최호는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1167)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1168) 三山은 반낙청천외(半落青天外)요, 이수중분백로주(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 가리킴.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 1169)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늙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1170)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1171) 一去後에. 한번 간 뒤에.
- 1172)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1173)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174) 그냥.
- 1175)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1176) 依舊하여. 옛과 같아서.
- 1177)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1178) 一世之雄. 한 시대의 영웅.
- 1179) 而今에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1180)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1181) 姑蘇城外. 고소성 밖.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182)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183) 쇠로 된 북의 소리. 곧 종소리.
- 1184)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 1185)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186) 煙籠寒水月籠沙할 제.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 데.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 1187) 商女. 술 파는 여인.
- 1188) 不知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을 모름.
- 1189) 隔江猶唱後庭花.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이 지은 〈박진회(泊秦淮)〉라는 시의 한 구절.
- 1190)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위치한 누대. 당나라 때에 세워졌으며, 아름다운 동정호의 조망으로 유명한 곳임.
- 1191) 湖上에. 호수 위에.
- 1192) 三百尺. 삼백 자. 약 90m.
- 1193) 扶桑. 해 뜨는 곳. 혹은 해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1194) 一輪紅이. 해가.
- 1195) 한 데 마구 섞여서 몹시 끓으며.

- 1196) 魚龍. 물고기와 용.  
 1197) 水盡. 藍天. 물이 끝나는 곳에 쪽빛 하늘이 있음.  
 1198) 西로. 서쪽으로.  
 1199) 西天西域. 옛날에 인도를 이르던 말. 불가의 이상국.  
 1200) 蓮花世界. 연꽃이 피어 있는 세계. 불교에서 극락을 뜻함.  
 1201) 削髮一切. 모두 머리를 깎고 있는.  
 1202) 大師. '남자 중'을 높이어 일컫는 말.  
 1203) 經文. 불교의 경전에 실은 문장.  
 1204) 說法. 불교의 교의를 풀어 밝힘.  
 1205) 金鷄. 중국 신화 속의 새. 도도산(桃都山)에 도도수(桃都樹)라는 큰 나무가 있고, 나무 가지와 가지 사이가 삼천리나 되는데, 그 위에 금계가 있어, 해가 처음 뜰 때에 햇빛이 그 나무에 비치면 우는데, 금계가 올면 천하의 닭들이 모두 따라 울어 새벽이 왔음을 알린다고 함.  
 1206) 懸板.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  
 1207) 黃金 大字. 황금색의 큰 글자.  
 1208) (큰 물체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모양.  
 1209) 江南地方. 양자강 남쪽의 따뜻한 지방.  
 1210) 姑蘇城. 중국 강소성 소주(蘇州)의 옛 이름.  
 1211) 洞庭湖. 중국 호남성(湖南省) 북동쪽에 있는 호수. 상강, 양자강의 종류에 있는 민물 호수인데, 호수 안에는 악양루(岳陽樓)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1212)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娥黃)과 여영(女英).  
 1213) 荊南山. 동정호 안에 있는 산인 군산(君山). 순임금의 죽음을 슬퍼하여 상수에 빠져죽은 이비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함.  
 1214)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시의 고적 악양고성 서문의 윗쪽에 있다. 아래 쪽으로는 동정호가 보이며, 앞으로는 군산을, 북쪽으로는 장강에 접한다. 악양루는 강남 사대 명루의 하나로 손꼽힌다. 당나라 때에 세워졌다.  
 1215) 玩景. 풍경 따위를 즐김.  
 1216) 巴陵. 악양(岳陽)의 옛 이름.  
 1217) 處處奇異. 곳곳마다 기이함.  
 1218) 瀟湘夜雨. 소상강의 밤비. 소상팔경의 하나.  
 1219) 江天暮雪. 멀리 보이는 저녁 강가의 하늘에 내리는 눈. 소상팔경의 하나.  
 1220) 蒼梧暮雲. 창오산의 저녁 무렵의 구름. '창오산'은 중국 호남성 영원현의 동남쪽에 있음. 순(舜) 임금의 남방을 순행하다가 죽었다는 곳임. 일명 구의(九疑)라고도 함. 소상팔경에 들지 않음.  
 1221) 黃陵哀怨.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인 황릉묘에 어린 애달픈 정서. 소상팔경에 들지 않음.  
 1222) 巫山落照. 무산의 지는 해. '무산'은 중국 사천성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명산. 소상팔경에 들지 않음.  
 1223) 寒山暮鐘. 한산사의 저녁 종소리. 소상팔경에 들지 않음. '한산사'는 중국 강소성 소주

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224)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소상팔경의 하나.
- 1225) 遠浦歸帆.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 소상팔경의 하나.
- 1226) 八景. 여덟 가지의 뛰어난 경치. 여기서는 소상팔경을 가리킴.
- 1227) 陽谷. 해 뜨는 곳.
- 1228) 金鷄소리. 평과에 딸린 화려한 새인 금계의 소리.
- 1229) 白玉. 흰 빛깔의 옥.
- 1230) 懸板.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
- 1231) 黃金大字. 황금색의 큰 글자.
- 1232) 귀통이.
- 1233) 風磬.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는 봉어 모양의 쇠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
- 1234) 풍경소리를 흥내낸 말.
- 1235) 別有天地非人間. 인간 세상과는 다른 천지가 따로 있다. '이상향'을 이르는 말.
- 1236) 風月. 청풍명월(淸風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가리키는 말로, 청풍명월을 노래한 시를 가리키기도 함.
- 1237) 山中遊客이 到水宮하니, 四海風光이 入眼中이라. 산 속에서 놀던 손님이 수궁에 도착하니, 사방의 바다 경치가 눈 안에 들어오는구나.
- 1238) 已往. 기왕. 이미.
- 1239) 微官末職. 지위가 낮은 보잘 것 없는 벼슬아치, 또는 그 직위.
- 1240) 塵世. 속세. 인간이 사는 이 세상.
- 1241) 藍輿. 뚜껑이 없는, 의자 비슷한 작은 가마. 앞 뒤 각각 두 사람이 메게 되어 있음.
- 1242) 廳舍.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
- 1243)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244) 들어오라.
- 1245) 그것일랑은. 그것은.
- 1246) 悻悻.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납소.
- 1247) 死境. 죽을 지경. 죽음에 임박한 경지.
- 1248) 塵世.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 1249) 現身.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 1250) 아무 말 없이 몰끄러미.
- 1251) 生擒. 산 채로 잡음. 사로잡음.
- 1252) 待命. 윗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 1253) 우쭐우쭐하게. 어떤 기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기세가 세차게.
- 1254) 점잖치 못하고 잡스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1255) 物色. 까닭이나 형편.
- 1256) 들어오라고 하나보다.
- 1257) 兵符. 발병부(發兵符). 조선 시대에,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던 동글납작한 나무

- 패. 한 면에 ‘發兵’이란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觀察使’, ‘節度使’ 따위의 글자를 기록하였다.
- 1258) 여기에다.
- 1259) 저기에다.
- 1260) 터무니없이 무리하게 떠는 방정.
- 1261) 左右 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의 나졸. ‘나졸’은 조선조 때 포도청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 1262) 禁軍. 조선조 때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동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아 하던 말 탄 군사.
- 1263) ‘송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송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264) 海狗. 물개.
- 1265) 巡守手.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1266) 갑자기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가.
- 1267) 秦皇. 진시황.
- 1268) 山陽 싸움에 馬超 싸듯. 삼국지를 토대로 해서 쓴 고소설 《산양대전》에서 마초(馬超)가 조조의 부하 장수 한효에게 포위당한 일을 가리킴. 마초는 관우의 도움으로 풀려났음. 마초는 서량태수(西涼太守) 마등(馬騰)의 아들로, 아버지 마등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자, 군사를 일으켜 장안성을 열흘 동안 포위했다가 함락시키는 등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음.
- 1269) 營門出師. 병영에서 군사를 내보냄.
- 1270) 三伏달음. 복날에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기로 국을 끓여 먹는 일.
- 1271)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 1272) 烏鷄湯. 검고 작은 닭인 오계를 푹 삶아 고은 탕.
- 1273) 개잘량.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
- 1274) 만들어.
- 1275) 癰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뭉쳐 있는 증세, 또는 그 피. 흔히 무엇에 부딪쳤을 때 생김.
- 1276) 內腫. 내장에 난 부스럼.
- 1277) 血痰. 피 섞인 가래.
- 1278)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1279) 塗炭에. 진흙과 숯불에.
- 1280)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 1281) 足. 잡은 소의 네 다리.
- 1282) 소의 발통을 고기로 이르는 말.
- 1283) 회쳐 먹는 간.
- 1284)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것으로, 잎 모양의 많은 조각이 있음.
- 1285)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 1286) 꾸며 만들고.

- 1287) 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노란 색깔의 단단한 물체. 한약재로 쓰임.
- 1288) 重한. 무거운. 많은.
- 1289) 先看目後看足이라.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 1290) 腰短項長千里馬로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것이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천리마로다.
- 1291) 燕王도 五百金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연나라 소왕(昭王)이 꾀외에게 어진 신하를 구하는 법을 묻자, 꾀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느 왕이 신하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는 오백금을 주고 죽은 말 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연유를 묻자, 죽은 말의 뼈도 오백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얼마를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천리마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어진 신하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과연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임.
- 1292) 大王前에. 임금님 앞에.
- 1293)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 1294) 結縛. 몸이나 두 손을 동여 묶음.
- 1295) 붉은.
- 1296) 朱杖대.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 1297) 매달려.
- 1298)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299) 짐승의 정강이에 튀어나온 뼈.
- 1300) 靈德殿. 수궁의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1301) 무엇을 들어 힘차게 내던져.
- 1302) 동그랗게.
- 1303) 짹. 대변에 세계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304) 잘못되느라고.
- 1305) 아주.
- 1306)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 1307) 名義에게. 이름난 의원에게.
- 1308) 問醫한즉.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 1309) 正朝. 설날 아침.
- 1310) 寒食. 명절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 쯤 든다. 한식날은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이 날은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 1311)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312) 麒麟閣. 한나라 선제가 세운 누각. 한나라 선제 때에 흉노가 항복해 왔는데, 선제는 그것이 모두 자기 신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오래 기리기 위해 기린 각에 충신 열 사람의 초상과 이름을 새겨놓았음.
- 1313) 凌雲臺. 위(魏)나라 명제가 낙양에 세운 누대.

- 1314) 江漢之將. 큰 강을 지키는 장수.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1315) 川澤之軍. 냇물과 연못에 사는 군인. 냇물과 연못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1316) 魚兵之卒. 수많은 물고기 병졸들.
- 1317) 進退難谷. 궁지에 다다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길이 없음.
- 1318) 龍宮之下에 必死當冤라. 용궁에서는 토끼가 죽을 수밖에 없다.
- 1319) 보통보다 더한 정도로.
- 1320) 가르시오.
- 1321) 배 가르는 일을 안 당하려고.
- 1322) 防塞.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막음.
- 1323) 必有曲折. 반드시 까닭이 있음.
- 1324)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 1325) 것이므로.
- 1326) 없더니까요.
- 1327) 泰山이 崩頽하고. 태산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면 임금에게 재앙이 있다고 함.
- 1328) 五星. 풍수지리설에서 하늘의 형체를 이룬다는 다섯 별인 火星·金星·水星·木星·土星.
- 1329) 陰陰한데. 어두운데.
- 1330)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겹(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 1331)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 1332)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 1333) 商紂임금.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 1334)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 1335) 일곱 구멍.
- 1336)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 1337) 無故히. 까닭없이.
- 1338) 구멍이.
- 1339) 兎名. 토끼의 이름.
- 1340) 누구에게.
- 1341) 醫書. 의술을 적은 책.
- 1342) 脾受病則口不食. 비장(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 1343) 膽受病則舌不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 1344) 腎受病則耳不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 1345)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 1346) 小兎. 토끼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347) 肝人卽. 간은 곧.
- 1348) 月輪精氣. 달의 정기.

- 1349) 들이나이다. 집어넣습니다.
- 1350) 病客. 아픈 사람.
- 1351) 언뜻하면. 무엇이 잠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 1352) 요구하여 귀찮도록 조르기 때문에.
- 1353) 동여.
- 1354) 瀛州. 영주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1355) 石上. 바위 위.
- 1356) 上上가지. 맨 위의 가지.
- 1357) 맨 꼬트머리에다가.
- 1358)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 1359) 玉溪邊. 맑은 시냇가.
- 1360) 濯足하리. 발을 씻으리.
- 1361) 玩景次. 구경하리.
- 1362) 一身之內臟. 한 몸 속의 내장.
- 1363) 꺼내고.
- 1364) 任意로. 마음먹은 대로.
- 1365) 徒知一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 1366) 太昊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데’는 매우, ‘호’는 밝다는 뜻. 따라서 덕이 높은 천자로서 매우 밝아 해나 달과 같다는 뜻임.
- 1367)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1368)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369)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1370) 길고.
- 1371) 몽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1372) 玉體. 사람의 몸을 높여 부르는 말.
- 1373) 털이 보드랍게 복실복실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1374)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1375) 속느라고.
- 1376) 구멍.
- 1377)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 1378) 밑구멍.
- 1379) 내기 때문에.
- 1380) 萬物始生. 만물이 처음 생김(생겼을 때에).



- 1381)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 1382) 南方二七火.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 1383)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 1384)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 1385)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으며, 중앙을 가리킨다.
- 1386) 天地陰陽. 온 세상의 음양.
- 1387) 四時精氣. 사계절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
- 1388) 五色光彩. 다섯 가지 색깔의 찬란한 빛.
- 1389) 應하여. 받아서.
- 1390) 내기 때문에.
- 1391)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나아 살아남.
- 1392) 名藥. 이름난 약.
- 1393) 사람.
- 1394) 渭水 漁夫 姜太公.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며 지내다가 문왕(文王)을 만나 은(殷)나라를 멸망시킨 강태공. 강태공은 중국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로 본명은 여상(呂尚). 위수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문왕을 처음 만나 그의 군사(軍師)가 되었으며, 뒤에 무왕(武王)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여 제(齊)나라에 제후로 봉해졌다.
- 1395) 瓢子. 표주박.
- 1396)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 1397) 窮八十 達八十. 가난한 80년, 영달한 80년. 강태공이 무왕을 만나기 이전까지 가난하게 80년을 살았고, 후에 영달하여 80년을 살았던 것을 이룸.
- 1398) 顯考.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주나 축문 첫머리에 쓰는 말.
- 1399) 樂山樂水.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산수(山水) 경치를 좋아함을 이르는 말.
- 1400) 東方朔. 한나라 무제 때의 신하. 자(字)는 만청(曼倩).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렀으며,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함.
- 1401) 三千甲子. 육십갑자의 삼천 배. 곧 18만 년을 이른다.
- 1402) '보'가 돼지나 곰의 쓸개를 썰 때 쓰는 수효이므로, '보제'는 한 덩이 전체를 이르는 말.
- 1403) 잡수셨으면.
- 1404) 還黑. 다시 검어짐.
- 1405) 落齒復生. 빠진 이가 다시 남.
- 1406) 換骨奪胎. 용모가 환하고 아름다워 판사람처럼 됨.
- 1407) 延年益壽.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삶.

- 1408) 萬病回春. 모든 병이 다 나음.  
 1409) 卽瘥하고, 병이 곧 낫고.  
 1410)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라는 의미.  
 1411) 兩舍. 둘이 서로 마음이 일치함.  
 1412) 晚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1413) 左右 諸臣. 곁에 있는 여러 신하.  
 1414) 解縛. 결박을 풀.  
 1415) 殿上. 궁전의 자리 위.  
 1416) 속이는데.  
 1417) 矢石中.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1418) 死生. 죽고 사는 것.  
 1419) 不避. 피하지 아니함.  
 1420) 膽氣. 사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1421) 노엽게. 분하고 섭섭하게.  
 1422) 가를.  
 1423) 麒麟脯. 기린고기를 양념하여 말린 것.  
 1424) 鸚鵡盞. 자개를 가지고 앵무새의 부리 모양으로 만든 술잔.  
 1425)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좋은 술.  
 1426) 主人之道理. 주인으로서의 도리.  
 1427) 物色. 까닭이나 형편.  
 1428) 여남은. 열이 조금 넘는 수.  
 1429) 字.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 본 이름 외에 부르기 위하여 짓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름.  
 1430) 마주 지어서.  
 1431)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1432) 春雉自鳴. 봄날 꿩이 제 울음 때문에 들켜 죽는다는 말.  
 1433) 風流.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1434) 등대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1435)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1436) 王子 璉.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1437) 鳳피리.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듯함.  
 1438)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곽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곽도원은 격구(擊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439) 당나라 대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듯함.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밥을 담는 큰甬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440) 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441) 張良.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장량(張良).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음.
- 1442)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
- 1443) 奚琴. 깡깡이를 아악에서 이르는 이름.
- 1444)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 자(字)는 사종(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445) 擊鼙鼓 吹籥笛. 악어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446)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447)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448)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449)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릉(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450) 흥겨운 신과 떼을 내어.
- 1451) '피 산(山)'이라는 글자 모양으로.
- 1452) 번쩍.
- 1453) 靑布帳. 푸른색의 포장. 버들가지가 우거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1454) 柳綠帳. '버들의 푸른 장막'이란 뜻으로, 여름이 되어 우거진 버드나무 숲을 가리킴.
- 1455) 옆으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하게 되어.
- 1456) 우쭐우쭐. 크게 울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양.
- 1457) 노구술. 아무데나 옮겨서 걸고 쓸 수 있는 술.
- 1458) '노고지리'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노구술을 지리'라는 뜻을 담고 있음.
- 1459)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 1460) 망둥이.
- 1461) 물 따위가 물결을 이루며 자꾸 흔들리는 소리.
- 1462)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463) 술藪間. 상당한 수의 술잔.
- 1464) 몽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 1465)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 1466) 君子는 可欺以其方. 군자는 그럴 듯한 방법으로 남을 속일 수 있다. 《맹자》의 <만장>편에 나오는 말임.
- 1467) 見知離逃. (이방의 풍속을) 보고 알았으면 멀리 떠나야 한다.

- 1468) 病勢. (더하고 덜한) 병의 형세.
- 1469) 萬萬危重. 매우 위험할 만큼 중함.
- 1470) 眼同.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거나 물건을 지니고 감.
- 1471) 本是. 본디. 본래.
- 1472) 草木禽獸. 풀이나 나무, 짐승들.
- 1473) 誹笑. 비웃음.
- 1474) 孟獲. 남만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 1475)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 1476) 諸葛亮.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字)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중에 병사하였다.
- 1477) 九族. 고조, 증조,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및 형제, 사촌형제, 육촌형제, 팔촌형제를 아울러 일컫는 말.
- 1478) 滅하여. 사라지게 하여. 처부수어. 여기서는 ‘죽여’라는 뜻.
- 1479) 陵遲處斬. 죄인을 머리, 손, 발, 몸뚱이 따위로 토막을 내는 극형.
- 1480) 餘恨. 남는 한. 못다한 한.
- 1481) 至重. 매우 무거움.
- 1482) 欺罔. 남을 속여 넘김.
- 1483) 夏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 걸.
- 1484) 虐政. 포악한 정치.
- 1485) 龍逢. 걸 임금의 충신. 옳은 일을 간하다 죽임을 당함.
- 1486) 殺害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 1487) 未久에.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 1488) 亡國. 나라가 망함.
- 1489) 邪鬼. 사악한 귀신.
- 1490) 살 것음.
- 1491)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 1492) 沒死. 모조리 다 죽임.
- 1493)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 1494) 여기 있다.
- 1495) 暴惡. 사납고 악함.
- 1496) 大驚하여. 크게 놀라.
- 1497) 어살. 물고기를 잡는 장치.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꽃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두거나, 길발, 길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 1498) 定配.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 1499) 謝恩肅拜. 예전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던 일.
- 1500) 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 1501)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502) 三山.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1503) 青天外. 푸른 하늘 밖.
- 1504) 日落長沙秋色遠한데 不知何處弔湘君고. 해는 긴 모래밭에 떨어지고 가을 산빛은 아득한데,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에 있는 구절.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1505) 君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 1506) 問曰. 물어 말하되.
- 1507) 何以至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 1508) 回足青山하니 觀不過諸觀이요, 濯足無臨하니 殆不過鳳凰이라. 素無知識하여 流魅平生이라. 청산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라. 본디 아는 게 없어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갔다가)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뻔했다.
- 1509) 五湖滄波. 오호의 푸른 물결. '오호'는 동정(洞庭)·청초(青草)·단양(丹陽)·팽려(彭蠡)·태호(太湖)를 이룸.
- 1510) 烟月. 연기에 어린 은은한 달빛.
- 1511) 越范蠡. 월나라의 범려. '범려'는 중국 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쳐 멸망시켰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 1512) 檻外長江空自流.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滕王閣)〉의 마지막 구절. 난간 밖의 강물만이 부질없이 흐른다.
- 1513) 藤王閣. 중국 강서성 남창현에 있는 누대로, 당 고조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도독(洪州都督)으로 있을 때 세웠는데, 그가 등왕에 봉해졌으므로 등왕각이라고 부른다.
- 1514)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515)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516) 蘇子瞻.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부〉를 썼음.
- 1517) 泛舟遊. 를 띄우고 놀다.
- 1518) 東山上. 동쪽 산 위에.
- 1519) 斗牛間.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
- 1520) 白鷺橫江. 백로가 강을 가로질러 감.
- 1521)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 1522) 秋江. 가을 강.
- 1523)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 1524) 空秋月之團圓. 빈 하늘엔 가을달만 둥글다.

- 1525)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 1526)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은 가까움.
- 1527)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528) 漁釣하던. 낚시질하던.
- 1529) 姜太公. 주나라 때 사람으로, 문왕을 만나 등용되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
- 1530) 岐周.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인 고공(古公)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오랑캐를 피하여 자리잡은, 섬서성 기산현에 있는 기산 남쪽의 주원 지방을 가리키는데, 뒤에 무임금 이 이 땅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주(周)라고 했다.
- 1531) 銀鱗玉尺. 비늘이 은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 1532)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 1533) 甍竊고.
- 1534) 넘나들며 놀 때.
- 1535)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런 모양.
- 1536) 已往之事. 이미 지나간 일.
- 1537)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
- 1538) 天下에.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1539) ‘발기다’(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헤쳐 발리다)에서 나온 욕으로, ‘찢어죽일 녀석’이라는 뜻.
- 1540) 슬기롭기.
- 1541) 나와 같고.
- 1542) 밀구멍.
- 1543) 셋이. 세 개가.
- 1544)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545) 所行머리.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 따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
- 1546) 돌멩이.
- 1547)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꺾데기를 말함.
- 1548) 웅기짐. 웅기 그릇을 짚어진 짐.
- 1549) 너희.
- 1550) ‘보추’를 낮잡아 일컫는 말. ‘보추’는 진취성이나, 활발하며 시원한 성질. 여기서는 ‘버릇이나 짝수’라는 의미로 쓰였음.
- 1551) 誤死. 형벌이나 재앙으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에 죽음.
- 1552) 북.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 1553) 作末. (찢거나, 갈거나 뺄아서) 가루로 만들.
- 1554) 梧子大. 오동나무 열매만큼 큰 덩이.
- 1555) 丸. 환약(丸藥).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둥글하게 빚은 약.
- 1556) 만들어.

- 1557) 兩端間.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두 가지 가운데.
- 1558) 和劑. 약화제(藥和劑). 약방문(藥方文).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종류와 분량을 적은 글.
- 1559) 加味虛浪湯. '허랑'은 말이나 행동이 허황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고, '가미'는 원방에다 다른 약재를 섞은 한약을 말함. '가미한 허랑탕'이라는 이름으로 우습게 지어 붙인 이름.
- 1560) 아무지개 이를 갈 때 나는 소리. 여기서는 이를 악물고 힘을 쓸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임.
- 1561)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 1562) 同姓. 성씨가 같음.
- 1563) 강림도령. 무당이 모시는 신의 하나로 염라대왕의 사자라고 함.
- 1564) 外四寸. 외종 사촌으로 외삼촌의 자녀.
- 1565) 자기가.
- 1566) 지나친 방정.
- 1567) 可觀.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
- 1568)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점잖은 사람.
- 1569)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 1570) 局量. 도량이나 궁리.
- 1571) 나만하며.
- 1572) 運籌決勝.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쟁가지로 주역의 괘를 뽑아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함.
- 1573) 張子房.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모사. 이름은 량(良). 자방은 그의 자(字).
- 1574) 意思. 생각.
- 1575) 나만한가?
- 1576) 亂世奸雄 曹孟德. 어지러운 시대의 간사한 영웅 조조(曹操).
- 1577) 神出鬼沒.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쉽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의 비유.
- 1578) 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흩날리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 1579) 예전에.
- 1580) 덩굴.
- 1581) 아주. 몹시.
- 1582) 아주 단단하게.
- 1583) 蜜食. 종이나 끈 등을 뻗뻗하고 질기게 하거나 물에 젖지 않게 하려고 바르는 밀. '밀'은 벌집을 이루는 성분.
- 1584) 덧.
- 1585) 正朝. 설날 아침.
- 1586) 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 높고 큰 은덕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고, 묘지에 손질을 하는 날임.
- 1587)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588) 木碑. 나무로 만든 비석.
- 1589) 어떤 놈의.
- 1590) 安葬. 편안하게 장사지냄.
- 1591) 쉬파리의 때. '쉬파리'는 파리의 일종.
- 1592)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라는 뜻으로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 1593) 파리의 알.
- 1594)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겨 주면.
- 1595) '집어치워라'라는 뜻으로 쓰는 말.
- 1596) 天地陰陽之造化. 우주 만물의 이원대립적 관계를 상징하는 음과 양의 이치를 신통하게 꾸며놓은 일, 또는 그 재간.
- 1597) 掌中. 손바닥 가운데.
- 1598) 엮어놓으면.
- 1599) 뒤집어놓으면.
- 1600) (줄을) 굵거나 접거나 한 자리.
- 1601) 日月. 해와 달.
- 1602) 여기서는 '작은 손가락'이라는 의미.
- 1603) 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
- 1604) 三才. '삼재'는 음양설에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컫는 말.
- 1605) 집게손가락.
- 1606) 가운데손가락.
- 1607) 無名指. 약손가락.
- 1608) 小指. 새끼손가락.
- 1609) 짧고짧기.
- 1610)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 1611)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612) 先天八卦. 주나라 문왕이 만든 후천팔괘와 함께 주역의 근본이 되는, 복희씨가 만든 팔괘.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613)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 1614)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 1615)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 1616)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 1617) 一掌中이라. 손바닥 하나 속에 있다.



- 1618) 請. 부탁.
- 1619) 無罪間에. 아무 죄도 없이.
- 1620) 죽은 듯이.
- 1621) 나무꾼.
- 1622) 경상도 민요의 선율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메나리조로 된 민요를 뜻함.
- 1623) 깊고깊은 산골짜기.
- 1624) 太古라 天皇氏는 木德으로 王하시고. 먼 옛날 천황씨라는 분이 나타나 목덕(木德. 金木水火土의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靑에 가까운 기운을 이룸)으로써 임금이 되었다 하고.
- 1625) 燧人氏 教人火食. 수인씨가 사람들에게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 수인씨는 중국의 삼황오제 시절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을 사용하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626) 困게. 곤궁하게.
- 1627) 厚薄. 후함과 박함. 너그러움과 너그럽지 못함.
- 1628)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629) 深山窮谷. 깊은 산 깊은 골짜기.
- 1630) 뭉뚱그려. 되는 대로 뭉치어 써서.
- 1631) 힘껏. 있는 힘을 다하여.
- 1632) 爲父母保妻子.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보호함.
- 1633) 極盡恭待. 그 이상 더할 수 없이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634) 여기 있다.
- 1635)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636) 중인데.
- 1637) 여기.
- 1638) 잘못되느라고.
- 1639) 어떤 일을 하려고 버르거나 굳게 마음먹었던.
- 1640) 썩었느냐?
- 1641) 死地水國. 죽을 곳인 수국.
- 1642) 壯觀.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 1643) 많은들.
- 1644) 映山紅綠. 붉고 푸른 산빛이 비침.
- 1645) 넘노는 것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나는 것이.
- 1646) 黃蜂白蝶. 노란 벌과 흰 나비.
- 1647) 山影江水. 산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
- 1648) 그리고.
- 1649) 春光春興.
- 1650) 岐山曠野. 기산의 넓은 들. ‘기산’은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이곳에 터를 잡고 어진 정사를 펴자, 문왕 때에 이르러 봉황이 나와 울었다고 함.
- 1651)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점잖은 사람.

- 1652)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 1653) 局量. 도량이나 궁리.
- 1654) 나만하며. 나정도 되며.
- 1655) 運籌決勝.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쟁가지로 주역의 괘를 뽑아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함.
- 1656) 張子房.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모사. 이름은 량(良). 자방은 그의 자(字).
- 1657) 意思. 생각.
- 1658) 亂世之雄. 어지러운 세상의 영웅.
- 1659)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1660) 神出鬼沒.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쉽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의 비유.
- 1661)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재간.
- 1662) 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흩날리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 1663) 杜鵑. 두견새.
- 1664) 지저귀어.
- 1665) 岐山曠野. 기산의 넓은 들. ‘기산’은 주나라 문왕의 아버지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이곳에 터를 잡고 여진 정사를 펴자, 문왕 때에 이르러 봉황이 나와 울었다고 함.
- 1666) 닭이 들어가 알을 품거나 낳도록 만든 둥우리. ‘둥우리’는 짚이나 땔싸리 따위로 바구니와 비슷하게 엮어 만든 그릇. 추녀나 서까래 밑에 매달아 두며, 둥근 모양이나 마음 모 모양 따위의 여러 가지가 있다.
- 1667) ‘머리’의 비어.
- 1668) 날째게 빼앗았겠다. 날째게 움켜 가졌겠다.
- 1669) 잡수실까요?
- 1670) 맛있는.
- 1671) 찌거나 부엌던 살이 빠진다.
- 1672) 放聲痛哭. 목을 놓아 슬프게 울.
- 1673) 슬프지 않으나.
- 1674)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 1675) 던져두고.
- 1676) 意思중치. 의사주머니. 생각주머니.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듯함.
- 1677) 구멍.
- 1678) 남스령이. 남은 부스러기 따위.
- 1679) 濯足. 발을 씻음.
- 1680) 마음이 홀린 것같이 쏠리겠다.
- 1681) 療飢.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 1682) 石山. 돌산. 돌로 된 산.

- 1683) 까마귀와 까치.
- 1684) 넘나들면서 놀고.
- 1685) 걸릴 듯 걸릴 듯합니다.
- 1686) 삼장으로 된 시조의 첫째 장.
- 1687) 반 이상.
- 1688) 꺾어서.
- 1689) 骸骨. 생각하는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 1690) 망가지거나 끝장이 날.
- 1691) 발의 힘.
- 1692) 발목덩이.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부분을 속되게 이르는 말.
- 1693) 쪼아서. 뽕쪽한 끝으로 쳐서 찌어서.
- 1694) 自奉. 몸을 스스로 잘 봉양함.
- 1695) 그때서야.
- 1696) 속은 줄.
- 1697) 兔糞. 토끼의 똥.
- 1698) 侍湯. 어버이의 병환에 약시증을 드는 일.
- 1699) 患候. 옷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1700) 卽瘥. 병이 곧 나음.
- 1701) 巖穴. 바위에 뚫린 굴.
- 1702) 月宮. 달나라에 있다는 상상 속의 궁전.
- 1703) 搗藥. 환약 재료를 골고루 섞어 반죽을 한 후 찼어 부드럽게 하는 일.
- 1704) 더질더질. 판소리의 맨 끝에 오는 말로, 북소리의 의성어인 듯.



박초월 바디 수궁가(최난수 창)

Bak Cho-weol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Choe Nan-su)

##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병을 얻어 나을 가망이 없자, 홀로 탄식을 한다.

[아니리] 갑신년<sup>1)</sup> 중하월<sup>2)</sup>에 남해 용왕이 영덕전<sup>3)</sup> 새로 짓고,  
대연<sup>4)</sup>을 배설<sup>5)</sup>할 제,<sup>6)</sup>  
삼해 용왕<sup>7)</sup>을 청하여<sup>8)</sup>  
군신빈객<sup>9)</sup>이 좌우로 늘어앉아 수삼일<sup>10)</sup>을 즐기더니,  
과음<sup>11)</sup>하신 탓인지 용왕이 우연득병<sup>12)</sup>하여  
백약<sup>13)</sup>이 무효라.  
혼자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진양조] 탑상<sup>14)</sup>을 탕탕 두드리며 탄식하여 울음을 운다.  
“용왕의 기구로되<sup>15)</sup> 괴이한 병을 얻어  
수정궁<sup>16)</sup> 높은 집에 벗 없이 누웠으니,  
화타,<sup>17)</sup> 편작<sup>18)</sup>이 없었으니  
어느 누구가 날 살릴거나?”  
웅장한 용성<sup>19)</sup>으로 신세자탄<sup>20)</sup> 울음을 운다.

## 2. (도사 문병)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왕의 병세를 살 피고자 한다.

[엇모레] 뜻밖에 현운,<sup>21)</sup> 흑운<sup>22)</sup>이 궁전을 뒤덮고,  
사풍세우<sup>23)</sup>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선의도사<sup>24)</sup>가 학창의<sup>25)</sup>를 떨쳐 입고<sup>26)</sup> 궁전으로 내려와 재배이진  
왈,<sup>27)</sup>  
“약수삼천리<sup>28)</sup>에 해당화 구경과 백운 요지연<sup>29)</sup>의 천년벽도<sup>30)</sup>를 얻  
으라고 가옵다가,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ill. He is not likely to recover, so he despairs.**

[Aniri] In summer of a certain year,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builds a new palace.

He throws a big party.

The dragon kings of three seas were invited.

The kings, subjects, and guests enjoy the party for a few days.

The dragon king gets ill possibly due to excessive drinking.

All sorts of medicines are ineffective.

The dragon king sighs by himself.

[Jinyangjo] The dragon king pounds on the table while crying and sighing.

“This weird body got a bizarre disease.

I am lying down alone without a friend in this lofty palace.

Competent doctors are not around.

Who can save me?”

He sighs and cries in the grand dragon voice.

**2. (A God Visits) A god comes down from the heaven and diagnoses the dragon king.**

[Eotmori] All of a sudden, black clouds cover the palace.

A wind and a drizzle surround it.

A god wearing blue clothes comes down to the palace and bows twice and speaks.

“I have come to the earth to see wild roses and a long river and to pick divine peaches by a legendary pond.

과약풍편에<sup>31)</sup> 듣자오니, 대왕의 병세가 만만위중타기로<sup>32)</sup> 뵈웁고  
저<sup>33)</sup> 왔나이다.”<sup>34)</sup>

[아니레]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sup>35)</sup>을 보아  
황황한<sup>36)</sup> 나의 병세 특효약<sup>37)</sup>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 3. (약성가) 도사가 진맥을 한 뒤 온갖 약과 침을 다 써도, 용왕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다.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앉아 맥을 볼 제,  
“심소장<sup>38)</sup>은 화<sup>39)</sup>요,  
간담<sup>40)</sup>은 목<sup>41)</sup>이요,  
폐대장<sup>42)</sup>은 금<sup>43)</sup>이요,  
신방광<sup>44)</sup> 수<sup>45)</sup>요,  
비위는<sup>46)</sup> 토라.  
간목<sup>47)</sup>이 태과<sup>48)</sup>하여  
목극토<sup>49)</sup>하였으니 비위가 상하웁고,<sup>50)</sup>  
담경<sup>51)</sup>이 심하니<sup>52)</sup> 신경<sup>53)</sup>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왕성하니 간담경<sup>54)</sup> 자진<sup>55)</sup>이라.  
방서<sup>56)</sup>에 일렀으되, 비내일신지조종<sup>57)</sup>이요,  
담은 내일신지표본<sup>58)</sup>이라.  
심정즉 만병이 식하고,<sup>59)</sup>  
심동즉 만병이 생하웁고,<sup>60)</sup>  
심경<sup>61)</sup> 곧 상하오면<sup>62)</sup>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칠상<sup>63)</sup>이 급하오니  
보증탕<sup>64)</sup>을 잡수시오.”  
숙지황<sup>65)</sup> 주중<sup>66)</sup> 닷 돈<sup>67)</sup>이요,



I heard Your Majesty has a serious illness. I came here to see you.”

[Aniri] “I wish you check my pulse.

Please tell me about an effective medicine in detail.”

### **3. (Medicine Song) The god checks the pulse and tries all sorts of medicines and needles in vain.**

[Jajinmori] The king holds out his arm, and the god checks his pulse.

“The heart and the small intestine are Fire.

The liver and the gall bladder are Wood.

The lungs and the large intestine are Gold.

The kidney and the bladder are Water.

The spleen and the stomach are Earth.

Your liver is too strong.

Wood defeats Earth, so your liver has injured your spleen and stomach.

Your gall bladder is so strong that your kidneys are weak.

Your lungs and large intestine overshadow your liver and gall bladder.

A medical book says the spleen is the most important organ.

The gall bladder is the indicator of the bodily condition.

If you aren't anxious, all illnesses will disappear.

If you have any anxiety, all illnesses will appear.

If your heart is weak, all illnesses will appear.

All your internal organs are weak.

Please take some medicinal soup.”

The god prepares a steamed medicinal root.

산사육<sup>68)</sup> 천문동<sup>69)</sup> 세신<sup>70)</sup>을 거토,<sup>71)</sup>  
 육정용<sup>72)</sup> 택사<sup>73)</sup> 앵속각<sup>74)</sup> 각 한 돈, 감초<sup>75)</sup> 칠 폰,<sup>76)</sup>  
 수일승전반연용<sup>77)</sup> 이십여 첩<sup>78)</sup>을 쓰되 소무동정<sup>79)</sup>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백출탕<sup>80)</sup>을 잡수시오.”  
 백출<sup>81)</sup>을 초구<sup>82)</sup>하여 서 돈이요,  
 사인<sup>83)</sup>을 초구하여 두 돈이요,  
 백복령<sup>84)</sup> 사향<sup>85)</sup> 오미자<sup>86)</sup> 회향<sup>87)</sup> 당귀<sup>88)</sup> 천궁<sup>89)</sup> 강활<sup>90)</sup> 목통<sup>91)</sup>  
 각각 한 돈, 감초 칠 폰<sup>92)</sup>  
 수일승전반연용 사십여 첩을 쓰되 소무동정<sup>93)</sup>이라.  
 신농씨<sup>94)</sup> 백초약<sup>95)</sup>을 갖가지로 다 쓰다기는<sup>96)</sup> 지레<sup>97)</sup> 먼저 죽을 테니,  
 백초약을 한 데 모을 적에,  
 인삼은 미감<sup>98)</sup>하니 대보원기<sup>99)</sup>하고, 지갈생진<sup>100)</sup>하며 조영양위<sup>101)</sup>  
 로다.  
 백출은 감온<sup>102)</sup>하니 건비강위<sup>103)</sup>하고, 제사제습<sup>104)</sup>하고 겸치담  
 비<sup>105)</sup>라.  
 감초는 감온<sup>106)</sup>하니 구즉온중<sup>107)</sup>하고 생즉사화<sup>108)</sup>로다.  
 침구<sup>109)</sup>로 다스릴 제,  
 천지지상경<sup>110)</sup>이면 갑일<sup>111)</sup> 갑술시에<sup>112)</sup> 담경<sup>113)</sup> 유주<sup>114)</sup>를 주고,  
 을일<sup>115)</sup> 유시<sup>116)</sup>에 대장경 상양<sup>117)</sup>을 주고, 영구<sup>118)</sup>로 주어 보자.  
 일 신맥,<sup>119)</sup> 이 조해,<sup>120)</sup> 삼 외관,<sup>121)</sup>  
 사 임읍,<sup>122)</sup> 육 공손,<sup>123)</sup>  
 칠 후계,<sup>124)</sup> 팔 내관,<sup>125)</sup> 구 열결,<sup>126)</sup>  
 삼기<sup>127)</sup> 불인 팔맥<sup>128)</sup>과 좌맥<sup>129)</sup>을 불러 쓰되 효험이 없으니,  
 십이경<sup>130)</sup> 주어 보자.

He shakes dust off medicinal fruit and a medicinal root.  
 He also prepares medicinal plants, 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2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medicines above in vain.  
 “You have serious diarrhea. Eat medicinal root soup.”  
 The god fries a medicinal root.  
 He also roasts medicinal seeds.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 tuckahoe, a yam root, a schizandra, a fruit, an angelic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4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preceding medicines in vain.  
 The king might die before he takes all of the herbal medicines one by one.  
 The god puts all the medicines together.  
 Ginseng is sweet, so it creates vigor, eases thirst, and strengthens the stomach.  
 A japonica root is warm and sweet, so it stops diarrhea and makes healthy the spleen, the stomach, and the gall bladder.  
 A licorice root is sweet, it is ideally warm when it is fried, and it gives off heat when it is raw.  
 The god tries acupunctur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gall bladder at the right tim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large intest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Needles are applied to the shinbones, the ankle bones, the wrists,  
 the top and bottom of the feet,  
 fingers, palms, a part of the wrists,  
 eight other parts of the king’s body in vain.  
 The god tries twelve special places in the king’s body.

승장<sup>131</sup>) 염천<sup>132</sup>) 천돌<sup>133</sup>) 구미<sup>134</sup>)  
 거궤<sup>135</sup>) 상완<sup>136</sup>) 중완<sup>137</sup>) 하완<sup>138</sup>) 신궤<sup>139</sup>) 단전<sup>140</sup>)  
 곤륜<sup>141</sup>)을 주고, 족태음비경<sup>142</sup>) 삼음교<sup>143</sup>) 음릉천<sup>144</sup>)을 주었으되,  
 아무리 약과 침법을 쓰되, 병세<sup>145</sup>) 점점 위중<sup>146</sup>)터라.

#### 4. (토끼 간 처방) 도사가 토끼의 간을 처방하니, 용왕은 토끼를 구하기 어렵다며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중모래] 도사 다시 맥을 볼 제,  
 “맥이 경동맥<sup>147</sup>)이라  
 비위맥<sup>148</sup>)이 상하오니 복중으로<sup>149</sup>) 난 병이요,  
 복중<sup>150</sup>)이 점점 아프기는 화병<sup>151</sup>)으로 난 병인데, 음양풍병<sup>152</sup>)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야,<sup>153</sup>)  
 손기,<sup>154</sup>) 신기<sup>155</sup>)는 정음<sup>156</sup>)이요, 진경해미난<sup>157</sup>) 정양<sup>158</sup>)이라.  
 음위화동<sup>159</sup>) 황달<sup>160</sup>)을 겸하였사오니,  
 진세산간<sup>161</sup>)의 토끼 간을 얻으면 차효<sup>162</sup>)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동성<sup>163</sup>) 삼촌이요, 동박삭<sup>164</sup>)이가  
 조상이 되어도 누루 황, 시암 천, 돌아갈 귀하겠소.”<sup>165</sup>)  
 [아니래] 용왕이 왈,  
 “어찌 신농씨<sup>166</sup>) 백초약은 약이 아니 되옵고, 조그마한 토끼 간이 약  
 이라 하오리까?”<sup>167</sup>)  
 도사 왈, “대왕은 진이요,<sup>168</sup>) 토끼는 묘라,<sup>169</sup>)

They are the lower lip, the tongue bone, the chest bone, the space between ribs, upper parts of the navel, the navel, a lower part of the navel, an upper part of the ankle, and diverse parts of the feet. No matter what medicine and needles are applied, the king's illness gradually gets more and more serious.

**4. (Prescription of a Hare's Liver) The god prescribes a hare's liver. The dragon king asks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saying it is hard to get a hare.**

[Jungmori] The god checks the king's pulse again.

"Your pulse moves in fear.

The veins in the spleen and stomach were damaged, so your illness occurred in the belly.

It stemmed from the mental disorder and the disharmony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energies.

Six energies were activated.

The strongest negative energy and the strongest positive energy coexisted.

The negative energy shrunk, the positive energy rose, and jaundice followed.

A hare's liver from the mountain of the human world would work.

If you don't get the hare's liver, you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uncle, and even if your ancestors lived very long.

[Aniri] The dragon king speaks.

"How come a famous ancient doctor's medicines don't work, but a little hare's liver does?"

The god responds, "You are a dragon, and he is a hare.

묘을손은 음목이요,<sup>170)</sup>  
 간진술은 양토<sup>171)</sup>라 허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수궁에는 토끼가 없는지라, 용왕이 홀로 앉어 탄식을 하시는디,  
 [진양조] 왕왕<sup>172)</sup>  
 “연하다.<sup>173)</sup> 수연이나,<sup>174)</sup> 창망헌<sup>175)</sup> 진세간의<sup>176)</sup> 벽해<sup>177)</sup> 만경 밖  
 의,<sup>178)</sup> 백운이 구만리요,<sup>179)</sup>  
 여산 송백<sup>180)</sup> 울울창창<sup>181)</sup> 삼천고분<sup>182)</sup> 황제의 묘라.  
 토끼라 허는 짐생은<sup>183)</sup> 해외<sup>184)</sup> 일월의<sup>185)</sup> 밝은 세상, 백운 청산 무  
 정처로<sup>186)</sup> 시비 없이<sup>187)</sup> 다니는 짐생을  
 내가 어찌 구하리까?  
 죽기는 쉽사와도 토끼는 구하지 못허겼으니,  
 달리 약명을 일러를 주오.”

## 5. (어전 회의)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하니 신하들이 들어온다.

[아니리] 도사 가로되,  
 “용왕의 성덕<sup>188)</sup>으로 어찌 성공지신<sup>189)</sup>이 없사오리까?”  
 말을 마친 후 인홀불견<sup>190)</sup> 간 곳이 없으니,  
 용왕이 그제야<sup>191)</sup> 도사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  
 례<sup>192)</sup> 후에,  
 수궁조정<sup>193)</sup> 만조백관<sup>194)</sup>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이 세상 같고보면<sup>195)</sup> 일품<sup>196)</sup> 재상님네<sup>197)</sup>가 들어오시려마는,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sup>198)</sup> 각각 벼슬 이름만 맡어가지고 나오  
 는디,

Wood has negative energy.

Earth has positive energy.

How can the hare's liver not be a medicine?"

There is no hare in the sea palace, so the dragon king sighs alone.

**[Jinyangjo]** The king speaks,

"That makes sense, but the human world is out of this blue sea, and far from here.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obtain one?

It's easier to die than to acquire a hare.

Please prescribe a different medicine for me."

## **5. (Royal Meeting)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nd his subjects come.**

**[Aniri]** The god speaks,

"There is sure to be a loya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After finishing speaking, the god suddenly disappears.

The king now realizes he is a god, and bows to the sky several times.

He orders all of his officials to come to the palace for a meeting.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But this is a sea world, so fishes come in according to their government titles.

가관<sup>199</sup>)이었다.

[중중모리] 승상<sup>200</sup>)은 거북,

승지<sup>201</sup>)는 도미,

판서 민어,

주서<sup>202</sup>) 오징어,

한림<sup>203</sup>) 박대,<sup>204</sup>)

대사성<sup>205</sup>) 도로목,<sup>206</sup>)

방첨사<sup>207</sup>) 조개,

해운궁<sup>208</sup>) 방개,<sup>209</sup>)

병사<sup>210</sup>) 청어,

군수 해구,<sup>211</sup>)

현감 홍어,

조부장<sup>212</sup>) 조구,<sup>213</sup>)

부변랑청<sup>214</sup>) 장대,<sup>215</sup>) 승대,<sup>216</sup>) 청달이,<sup>217</sup>) 가오리,

좌우 나줄,<sup>218</sup>) 금군<sup>219</sup>) 모조리,<sup>220</sup>) 상어, 솔치,<sup>221</sup>) 눈치,<sup>222</sup>) 준치,<sup>223</sup>)

멸치, 삼치, 가재, 개구리까지

영<sup>224</sup>)을 듣고, 어전에 입시하야<sup>225</sup>) 대왕에게 절을 꾸벅 꾸벅.

## 6. (거북 천거) 용왕이 토끼 간을 가져올 신하를 천거하라고 하니, 잉어가 거북이를 천거하는데, 신하들이 반대한다.

[아니레] 병든 용왕이 요만허고<sup>226</sup>) 보시더니마는,

“내가 용왕이 아니라, 팔월 대목장날 생선전<sup>227</sup>)의 도물주<sup>228</sup>)가 되었구나.



That is quite a show.

**[Jungjungmori]** A turtle is a minister.

A snapper is an advisor to the king.

A croaker is a minister.

An octopus is a recorder of history.

A shark is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shellfish holds a ceratin military position.

A diving beetle is a ship captain.

A herring is a general.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 skate is a provincial head.

A yellow corbina is a military officer.

A sea robin, a purple fish, a blue ray, and a ray are secret agents.

A cornet fish, a shark, a minnow, a herring, an anchovy, a mackerel, a crawfish, and a frog are soldiers.

With the king's order, they come to the palace and bow to the king.

**6. (Recommendation of a Turtle.) The dragon king tells his subjects to recommend a subject to bring a hare's liver. A carp recommends a turtle. Subjects object to the recommendation.**

**[Aniri]** The sick dragon king has been sitting back and watching his subjects.

"It looks like I am not a dragon king but a head merchant of the fish market before a big holiday.

경내<sup>229)</sup>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할쏜가?”<sup>230)</sup>

면면상고<sup>231)</sup> 묵묵부답<sup>232)</sup>이었다.

[중모레] 왕이 다시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sup>233)</sup> 개자초<sup>234)</sup>와

광초망신 기신이난<sup>235)</sup> 죽을 인군<sup>236)</sup>을 살렸건마는,

우리 나라도 충신이 있으련마는, 어느 누구가 날 살리리오?”

정언 잉어가<sup>237)</sup> 여짜오되, “승상<sup>238)</sup> 거북이 어떠하뇨?”<sup>239)</sup>

“승상 거북은 지략<sup>240)</sup>이 넓사웁고,

복판<sup>241)</sup>이 모두 다 대문고로,<sup>242)</sup>

세상에를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어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sup>243)</sup> 밀이개살짝,<sup>244)</sup> 탕건<sup>245)</sup> 묘또기,<sup>246)</sup> 주일쌈지 끈가

지<sup>247)</sup> 대모가 아니면은 혈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허리다.”

## 7. (조개, 물떼기 천거) 용왕이 조개와 메기를 천거하자 신하들이 반대한다.

[아니레] “그럼,

[중중모레] 방첨사<sup>248)</sup> 조개가 어떠한고?”

“방첨사 조개는 철갑<sup>249)</sup>이 굳고,

방신제도난<sup>250)</sup> 종사와도,

옛 글에 이르기를, ‘관방홀지세허고 좌수어인지공이라’,<sup>251)</sup>

홀조<sup>252)</sup>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루 펄펄 날아들어,

홀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홀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힐 적에,

Who will go out to the world of the land and bring a hare to cure my disease?"

Officials are silent, looking at each other's face.

[Jungmori] The king heaves a sigh again.

"There were loyal subjects in other countries.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I have some loyal officials, but who can save me?"

The carp says, "What about the turtle, the minister?"

"The turtle is smart and knowledgeable.

But his shell is used by humans as knife ornaments.

If he goes out, humans will catch him and cut his shell off.

His shell will be widely used to make such things as knives, tools, skullcaps, tobacco pouches, and cords.

So we can't send him there."

## **7. (Recommendation of a Shellfish and a Catfish.) The dragon king recommends a shellfish and a catfish, and subjects oppose the recommendation.**

[Aniri] "If so,

[Jungjungmori] How about a shellfish?"

"The shellfish's body is covered with hard shell.

The shell protects his body.

But an ancient book says a shellfish once fought with a snipe.

The snipe flew at the shellfish vigorously.

The snipe and the shellfish bit each other and refused to release each other.

어부에게 모두 다 잡히어 속절이 없이<sup>253)</sup> 죽을 것이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아니레] “그럼 수문장 물메기<sup>254)</sup>가 어떠한고?”

[자진모리] 정언이 여짜오되,  
“메기는 장수구대<sup>255)</sup>허여 호풍신<sup>256)</sup>허거니와,  
아가리가<sup>257)</sup> 너무 커서 식량이 너룬고로,<sup>258)</sup>  
세상에를 나가면 요기감<sup>259)</sup>을 얻으려고 조그만헌 산천수<sup>260)</sup> 이러저  
리 다니다,  
사립<sup>261)</sup> 쓴 어웅<sup>262)</sup>들이 사풍세우불수귀리<sup>263)</sup> 입갑<sup>264)</sup> 꺾어<sup>265)</sup> 물에 풍덩,  
탐식<sup>266)</sup>으로 덜컹 생켜<sup>267)</sup> 담불여대<sup>268)</sup>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 복질,<sup>269)</sup> 설사, 배아피허는 디<sup>270)</sup>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허리다.”

## 8. (방계 자원) 방계가 자신이 가겠다고 하자 신하들의 공 론이 분분하다.

[아니레] 해운공<sup>271)</sup> 방개란 놈이 열 발을 짹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  
여짜오되,

[중중모리] “신<sup>272)</sup>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sup>273)</sup> 산천수<sup>274)</sup> 가만히 잠신하야<sup>275)</sup> 천봉만학<sup>276)</sup>을 바라보니,  
산중퇴<sup>277)</sup> · 월중퇴<sup>278)</sup> 안면<sup>279)</sup>이 있사오니,  
소신<sup>280)</sup>의 엄지발<sup>281)</sup>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드득 집어다  
가 대왕전<sup>282)</sup> 바치리다.”

[아니레] “저러고 저놈이 어찌 신<sup>283)</sup>이라 할 수 있느냐?  
두 엄지발을 뚝 떼어 밖으로 쫓아버려라.”  
공론<sup>284)</sup>이 분분할 제,<sup>285)</sup>

They were caught by a fisherman and died helplessly.  
So we can't send the shellfish there."

[Aniri] "If so, how about the gatekeeper, the catfish?"

[Jajinmori] The carp speaks.

"The catfish looks good with a big mouth and long whiskers.  
But his mouth is so big that he eats a lot.

If he goes out, he will wander around in small stream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with baits  
into water.

The gluttonous catfish will bite the hook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as a medicine for dysentery, stomachache,  
diarrhea, and belly trouble.

So we can't send him there."

## **8. (A Diving Beetle Volunteers) A diving beetle volunteers. Subjects have conflicting reactions.**

[Aniri] A diving beetle, a ship captain, steps forward slowly with  
his ten legs wide open.

[Jungjungmori] "The land is my hometown.

Immers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I watched  
numerous mountain peaks and valleys.

I am familiar with a hare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I will grab the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Aniri] "He looks bad. How can that villain be a subject?"  
Cut his fore legs off and drive him away."

Reactions are diverse.

9. (별주부 자원) 이 때 별주부가 들어와 토끼 간을 구해오  
겠다고 하면서, 토끼 화상을 그려달라고 청한다.

[진양조] 영덕전<sup>286</sup>)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죽<sup>287</sup>)이요, 장경오혜<sup>288</sup>)로다.

호흥배<sup>289</sup>) 등에다 방패<sup>290</sup>)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 들어와,  
국궁재배<sup>291</sup>)를 허는구나.

[아니리] 왕에게 상소<sup>292</sup>)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 떼어보니,

수국 전옥주부<sup>293</sup>) 별주부<sup>294</sup>) 차례였다.

“네 충성은 지극하나 수국인갑<sup>295</sup>)이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sup>296</sup>)  
가 된다 하니,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쏘냐?”

별주부<sup>297</sup>) 여짜오되,

“소신<sup>298</sup>)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sup>299</sup>)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  
오니

무슨 봉패<sup>300</sup>) 있사오리카마는,

해중지소생<sup>301</sup>)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sup>302</sup>)을 한 장 그려주옵소서.

화상을 한 장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기특코 고마운 말이다.

글랑은<sup>303</sup>) 그리 하여라.

화공<sup>304</sup>)을 불러라.”

**9. (Terrapin Volunteers.) A terrapin comes, volunteers  
to bring a hare's liver, and asks for a picture of a  
hare.**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comes in slowly with a cloth on his hard shell.

He bows twice to the king.

**[Aniri]** He gives a formal letter to the king.

The king takes letter.

He is Terrapin, a prison official.

"Your loyalty is great, but if you go out, you will be a great delicacy for humans.

How can I feel comfortable after I send you there?"

Terrapin answers,

"Although I am not talented, I am good at seeing things on the surface of a river.

I will not fall into disaster.

I was born here, so I am not familiar with what a hare looks like.

Please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me.

If you draw the picture for me, I will bring a hare here without fail."

"I feel thankful for your words.

I grant your wish.

Bring an artist here."

## 10. (토끼 화상) 화공을 불러 자라에게 줄 토끼 화상을 그린다.

[중중모리]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 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홍연<sup>305)</sup> 금수추파<sup>306)</sup> 거북 연적<sup>307)</sup> 오징어로 먹 갈어,  
양두화필<sup>308)</sup>을 덩벽<sup>309)</sup> 풀어 단청 채색<sup>310)</sup>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  
리 그린다.

천하명산<sup>311)</sup> 승지강산<sup>312)</sup> 경개<sup>313)</sup> 보던 눈 그리고,  
봉래<sup>314)</sup> 방장<sup>315)</sup> 운무<sup>316)</sup> 중에 내<sup>317)</sup> 잘 말던 코 그리고,  
난초 지초<sup>318)</sup> 온갖 향초<sup>319)</sup> 꽃 따 먹던 입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sup>320)</sup>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sup>321)</sup>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대한<sup>322)</sup> 엄동<sup>323)</sup> 설한풍<sup>324)</sup> 어한허던<sup>325)</sup> 털 그리고,  
두 귀는 종긋,<sup>326)</sup>  
눈은 도리도리,<sup>327)</sup>  
허리는 늘씬,<sup>328)</sup>  
똥덩이<sup>329)</sup> 묘뚝,<sup>330)</sup>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디,<sup>331)</sup>  
녹수청산<sup>332)</sup>의 에굽은<sup>333)</sup> 장송,<sup>334)</sup>  
휘늘어진 양류수<sup>335)</sup> 들랑달랑<sup>336)</sup> 오락가락  
양거주춤<sup>337)</sup> 기는 토끼,  
화중퇴<sup>338)</sup> 얼핏<sup>339)</sup> 그러,  
아미산월이 반륜퇴,<sup>340)</sup> 이에서<sup>341)</sup> 더할쏘냐?  
“아나, 옛다,<sup>342)</sup>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 10. (A Picture of a Hare) An artist is called in and draws a picture of hare for the terrapin.

[Jungjungmori] “Bring an artist here.”

An artist comes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on the ink of various colors and  
moves the brush around.

He draws the picture of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es and flowers,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and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eyes are round.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A hare appears to move in and out of a willow drooping down.

The hare appears to crawl hesitantly.

The hare is drawn swiftly in the picture.

H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go out.”

## 11. (별주부 모친 만류) 별주부가 화상을 간직하고 집에 가 니, 모친이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곱곰이<sup>343</sup>) 생각하니,  
화상을 넣을 데가 없지.  
한 피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고 목덜미<sup>344</sup>)에 화상을 딱 붙이고 목을 움츠려노니,  
화상이 저 아래 막통창사<sup>345</sup>) 안에 가 늘어붙었던 것이었다.  
‘옳지, 이만하면 수로 만리<sup>346</sup>)를 나가도 화상에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어주삼배<sup>347</sup>) 얻어 먹고 용왕께 하직하고, 본택<sup>348</sup>)으로 돌아오는데,  
[창조](조통달) 주부 어머니 대부인<sup>349</sup>)이 계시는데,  
청춘과수<sup>350</sup>)로 늙어 여든아홉 살 먹은 암자라 하나가 있던가 보더라.  
구십여섯인가 일곱인가 먹었는데,  
어찌 늙었는지 꿈지랄라<sup>351</sup>) 문드러져<sup>352</sup>) 가지고 없는데,  
별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더니마는 울며불며 야단이 났는데,  
주부가 물색없이<sup>353</sup>) 들어온단 말이여.  
못 가게 만류를 허는데,  
[진양조]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 허러 가랴느냐?  
삼대독자<sup>354</sup>) 네 아니냐?  
장탄식<sup>355</sup>) 병이 든들 뉘 알뜰히 구환<sup>356</sup>)허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연<sup>357</sup>)의 밥이 된들,  
뉘랴 손뼉을 두다리며,<sup>358</sup>) 후여 쳐<sup>359</sup>) 날려줄 이가<sup>360</sup>) 뉘 있드란 말  
이냐?

11. (Terrapin's Mother Stops Terrapin.) Terrapin goes home with the picture. His mother tells him not to go to the land.

[Aniri] Terrapin takes the picture and ponders for a while.  
It seems there is no place to carry the picture.  
He hits upon a good idea.  
He stretches his neck out, puts the picture on the back of his neck, and draws his neck in.  
The picture is attached to his deep place below, viz., his appendix.  
He murmurs, 'Good. If the picture is kept like this, there is no way it will get wet on a long journey in the sea.'  
Terrapin drinks three glasses of wine from the king, says goodbye to him, and goes home.  
[Song Mode](Jo Tongdal) Terrapin's mother is at home.  
She became a widow when she was young, and she is now a 89-year-old female terrapin.  
She might be 96 or 97 years old.  
She is so old that her tail was worn thin and cut off.  
After hearing that her son will go to the land, she bursts into tears, and goes wild.  
Her son comes in, knowing nothing about how she is doing.  
She stops him from going to the land.  
[Jinyangjo] "Hello, my son.  
I've heard you are going to the land.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You are the only son for three generations in my family.  
I might get sick and give a deep sigh.  
I might die and fall prey to crows and kites.  
Who will clap his hands and shout out to drive the birds away?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 허는 데는 수궁 인갑<sup>361</sup>)이 얼른허면<sup>362</sup>) 잡기로만 위주를  
 한다.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십리 사장<sup>363</sup>) 모래 속에 속절이 없이<sup>364</sup>) 죽었다단다.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마는,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입<sup>365</sup>)이니 가지를 마라.”

## 12. (별주부 부인 작별) 별주부가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모친을 당부한다.

[아니리] 별주부 여짜오되,  
 “나라<sup>366</sup>)에 환후<sup>367</sup>) 있어 약을 구하러 가옵난디<sup>368</sup>)  
 무슨 봉패<sup>369</sup>)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성이 그런 줄 내 이미 알았지만,  
 네 지기<sup>370</sup>)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허였구나.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sup>371</sup>) 잡고  
 “당상의<sup>372</sup>) 학발 모친<sup>373</sup>) 기체<sup>374</sup>)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소.”  
 [창조]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중중모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My son, don't go to the land. Don't go there.  
Humans are very much interested in catching fish and shellfish  
from the sea.  
One day, your father went to the land for sightseeing.  
He helplessly died in a long sand field.  
Don't go to the land.  
If you kill me and bury me here, you can go there.  
You can't go there while I am alive, my son.  
We shouldn't go to a dangerous foreign country."

**12.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asking her to take good care  
of his mother.**

[Aniri] Terrapin responds,  
"The king is ill, so I am leaving to get a medicine.  
How could I fall into disaster?"  
Terrapin's mother speaks.  
"I knew my son is a loyal subject to the king.  
I tried to stop you from going there to test your fortitude.  
Come back in one piece from the long journey in the sea."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mother.  
He comes to his bedroom and grabs his wife's hands.  
"The welfare of my old mother rests in your hands now."  
[Song Mode] Terrapin's wife toddles forward.  
[Jungjungmori] "Hello, darling. I can't believe you are going to  
the land.

위수과광<sup>375</sup> 깊은 물에 양주<sup>376</sup> 마주 떠 맛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  
 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sup>377</sup>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게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sup>378</sup>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sup>379</sup> 장한 충성 조정 사직<sup>380</sup>을 못 잊어요?  
 규중<sup>381</sup>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sup>382</sup>를 못 잊어요?”  
 [아니레] “그 말은 방불<sup>383</sup>허나,  
 뒤 진털발<sup>384</sup> 남생이<sup>385</sup>가 나허고 흡사하게 닮았거든.  
 그러나 그놈 몸에서는 노랑내<sup>386</sup>가 나니, 저녁으로 그놈 조심허소.”  
 충충히<sup>387</sup> 작별 후  
 수정문 밖 썩 나서 세상 경개<sup>388</sup>를 살피며 나오는다,

### 13. (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고고천변일륜홍<sup>389</sup> 부상<sup>390</sup>에 높이 떠,  
 양곡<sup>391</sup>의 잣은<sup>392</sup> 안개 월봉으로<sup>393</sup> 돌고돌아,  
 어장춘<sup>394</sup> 개 짓고,  
 회안봉<sup>395</sup> 구름이 떴구나.  
 노화<sup>396</sup>는 다 눈 되고,  
 부평<sup>397</sup>은 물에 둥실,  
 어룡<sup>398</sup>은 잠자고,  
 자교새<sup>399</sup>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에파시추<sup>400</sup> 금성추파<sup>401</sup>가 여기라.

We had good time together on the surface of a deep river. You are forgetting everything and going to the distant land.

When do you come back?"

"I am going there without forgetting one thing."

"What is it that you can't get off your mind?"

Are you worried that your old mother might not be taken care of?

Are you worried about this country as a loyal subject?

Are you worried your young wife might not be faithful?"

[Aniri] "Quite close.

A tortoise lives on a field with long grass, and he resembles me. Bad smell comes out from his body, so watch out for him every evening."

He says goodbye to her in a hurry.

He goes out through the gate of the sea palace and sees the beautiful scenery.

### 13. (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 valley moves around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앞발로 벽파<sup>402)</sup>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랑<sup>403)</sup>을 탕탕.  
 요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sup>404)</sup> 등실 떠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sup>405)</sup>은 칠백리,  
 파광<sup>406)</sup>은 천일색이라.<sup>407)</sup>  
 천외무산십이봉<sup>408)</sup>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 소상<sup>409)</sup>은 일천 리 눈 앞의 경개라.<sup>410)</sup>  
 오초는 어이하야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여 일야에 등실 떠,<sup>411)</sup>  
 남훈전<sup>412)</sup> 달 밝은디 오현금<sup>413)</sup>도 끊어지고,  
 낙포<sup>414)</sup>로 등등 가는 저 배,  
 쪼각달 무관수의<sup>415)</sup> 초 회왕<sup>416)</sup>의 원혼<sup>417)</sup>이오.  
 모래 속에 가 잠신하야<sup>418)</sup> 천봉만학<sup>419)</sup>을 바라보니,  
 만경대<sup>420)</sup> 구름 속 학선<sup>421)</sup>이 울어 있고,  
 칠보산<sup>422)</sup> 비리봉<sup>423)</sup>은 허공에 솟아  
 계산파무울차야,<sup>424)</sup> 산은 칭칭칭<sup>425)</sup> 높고,  
 경수무풍야자파<sup>426)</sup> 물은 풍 풍 깊고,  
 만산<sup>427)</sup>은 우루루루루루루,<sup>428)</sup>  
 국화는 점점, 낙화<sup>429)</sup>는 동동,<sup>430)</sup>  
 장송<sup>431)</sup>은 낙락,<sup>432)</sup> 늘어진 잡목,  
 평퍼진<sup>433)</sup> 떡갈, 다래뭉둥,<sup>434)</sup>  
 칩넌출,<sup>435)</sup> 머루, 다래,  
 으름넌출,<sup>436)</sup> 능수버들, 뱃남기,<sup>437)</sup>  
 오미자, 치자, 감, 대추,  
 갓은<sup>438)</sup> 과목<sup>439)</sup>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sup>440)</sup> 칭칭 감졌다.  
 어선은 돌아들고,



The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beautiful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on the bright  
 moon.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a wide oak trees, stumpy actinidia argutas,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persimmon,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firm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백구는 분비,<sup>441)</sup>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sup>442)</sup> 원앙새,  
 강상<sup>443)</sup>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sup>444)</sup>  
 소호천자 기관허던<sup>445)</sup> 만수문전의<sup>446)</sup> 봉황새,  
 양양창과점점동<sup>447)</sup> 사랑홉다<sup>448)</sup>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sup>449)</sup>  
 목포리, 해오리, 너수,<sup>450)</sup> 징경새,<sup>451)</sup> 아옥따옥<sup>452)</sup> 요리 저리 날아들 제,  
 또 한 경개<sup>453)</sup>를 바라보니,  
 치어다보니 만학천봉이요,<sup>454)</sup>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땅.<sup>455)</sup>  
 에구부러진<sup>456)</sup> 늙은 장송<sup>457)</sup> 광풍<sup>458)</sup>을 못 이기어 우줄우줄<sup>459)</sup> 춤을  
 출 제,  
 시내 유수<sup>460)</sup>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쫄쫄,<sup>461)</sup>  
 열의 열두 골 물이 한테로<sup>462)</sup> 합수쳐,<sup>463)</sup>  
 천방자 지방자 월턱져 구부져,<sup>464)</sup> 방울이 버큼져,<sup>465)</sup>  
 건너 평풍석<sup>466)</sup>에다 마주 팡팡 마주 때려,  
 대해수중<sup>467)</sup>으로 내려가느라고 버큼<sup>468)</sup>이 북적,<sup>469)</sup>  
 울렁거려<sup>470)</sup> 뒤틀어, 우르르르르렁 쫄쫄 뒤둥그러져<sup>471)</sup> 산이 울렁거  
 려 떠나간다.  
 어디메로<sup>472)</sup> 가잔 말?<sup>473)</sup> 아마도 예로고나,<sup>474)</sup>  
 요런 경개가 또 있나?  
 아마도 예로구나,  
 요런 경개가 또 있나?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a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river,  
crows and magpies which form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come from different  
places.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A stream turns around a green mountain.  
Flowing water mak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This is the scenery we have been looking for.  
What a spectacle this is!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this is!

14. (봉황새 상좌 다툼) 날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하는데, 봉황새가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자라가 운충경<sup>475</sup>)에 기어 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온갖 날짐생<sup>476</sup>)들이 모여 앉아 상좌다툼<sup>477</sup>)을 허는데,  
봉황새 척 나왔으며,

[중모리] “이 내 말을 들어봐라.

순임금<sup>478</sup>) 남훈전<sup>479</sup>)에 오현금<sup>480</sup>) 가지시고 소소귀성<sup>481</sup>) 노래할 제,  
기산<sup>482</sup>) 높은 봉 아침 별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우니,  
팔백 년 문물이<sup>483</sup>) 울울허여<sup>484</sup>) 주 문무<sup>485</sup>) 나 계시고,  
만고대성<sup>486</sup>) 공부자<sup>487</sup>)도 내 앞에서 탄식하고,  
천 길<sup>488</sup>)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sup>489</sup>)허여 있고,  
영주산<sup>490</sup>) 석상 오동<sup>491</sup>) 기엄기엄 기어올라  
소상오죽<sup>492</sup>)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었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15. (까마귀와 부엉이의 상좌 다툼) 까마귀와 부엉이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툰다.

[아니리] 까마귀 꾸짖어 왈,  
“너는 대구리<sup>493</sup>) 크고 털 덥숙헌<sup>494</sup>) 놈이 어디로 상좌를 헌단 말이나?”  
봉황새 꾸짖어 왈,  
“너는 전신에 흰 점 없고,  
두 눈이 거명창<sup>495</sup>)뿐인 놈이  
어디로 상좌를 헌단 말이나?”  
까마귀 왈,

**14. (A Phoenix Vies for a High Seat) The birds  
compete for a high seat. A phoenix explains why  
he deserves it.**

[Aniri] Terrapin climbs to a place covered with clouds and looks around.

All sorts of birds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a high seat.  
A phoenix steps forward.

[Jungmori] “Listen to my words!

King Shun(舜) played a pentachord in a palace, making a dreary sound.

I sang a song on a peak in the morning sun.

Two great kings of Zhou(周) were born when the nation prospered for eight hundred years.

The greatest saint, Confucius, sighed because of me.

I flew high without eating food even if I was hungry.

I crawled up on a paulownia tree in a legendary mountain.

I fed on the good fruit of variegated bamboo on a river.

Aren't I older than you?”

**15. (A Crow and an Owl Fight for the High Seat) A  
crow and an owl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A crow scolds the phoenix.

“You have a big head and many feathers. How can you sit on the high seat?”

The phoenix trashes the crow.

“There is no white color in your entire body.

Even your eyes are all black.

How dare you sit on the high seat?”

The crow responds,

[엇중모리] “내 근본<sup>496</sup> 들어라. 네 내 근본을 들어 봐라.

내 주둥이 길기난<sup>497</sup> 월왕 구천<sup>498</sup>이 방불허고,

이 몸이 검기난,<sup>499</sup> 산음<sup>500</sup>땅 지내다가 왕희지<sup>501</sup> 세연지<sup>502</sup>에 풍

덩 빠져 먹물 들어, 이 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 삼긴<sup>503</sup> 후에 그 물에 다리를 놓아 건우 직녀 건너주고,

오는 길에 적벽강<sup>504</sup> 선유<sup>505</sup>혈 제,

남비<sup>506</sup> 둥둥 떠 삼국홍망<sup>507</sup>을 의논혈 제,

천하에 반포은<sup>508</sup>은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에 비금주수<sup>509</sup> 효자는 나뿐인가?

아이고, 설움이야.

아이고, 설움이야. 에에에이 설움이야.”

[자진모리] 부엉이 허허 웃고,

“네 암만 그런대도, 네 심성<sup>510</sup> 불측허여<sup>511</sup>

열두 가지 울음을 울어,

과부집 낭기<sup>512</sup> 앓어 울음을 울어 동요혈 제,<sup>513</sup>

까옥까옥 또락또락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 과부<sup>514</sup> 유인혈 제,

네 소리 짹짹 나면 세상 인간이 미워라 돌을 들어서 날리면,

너 날자 배 떨어지니,

세상의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빈 통이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불길허다.”

**[Eot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root.

My beak is long like an ancient Chinese king.

My body is black because I fell into the pond on which an ancient calligrapher washed his ink stone, and was dyed with ink.

Ever since the galaxy was created, I served as a bridge between Herdsman and Vega.

On my way back, I relaxed on a boat on Chibi River(赤壁江). Hovering in the south sky, I pondered the rise and fall of the three ancient countries.

I take care of my old parents in an empty forest.

I am the only animal supporting its parents.

Alas. How sad I am!

Alas. How sorrowful I am!”

**[Jajinmori]** An owl laughs loudly.

“Even so, you are born wicked.

You make twelve sounds.

You sit on a tree of a widow’s house and confuse her.

With a weird voice, you entice a widow faithful to her deceased husband.

If your unpleasant cry is heard, humans throw stones in hatred and drive you away.

If you fly, a pear falls down.

Who else is so detested?

Go and find an empty stump.

You bring bad luck to this seat.”

## 16. (길짐승 상좌 다툼) 한 곳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한다.

[아니레]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 만좌중에<sup>515</sup> 내 땅신을 그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이때 별주부가 또 한 편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생<sup>516</sup>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허는디,

[중모레] 공부자<sup>517</sup> 작춘추에<sup>518</sup> 절필<sup>519</sup>허든 기린이며,<sup>520</sup>

삼군삼영<sup>521</sup> 거동시에<sup>522</sup> 천자 옥련<sup>523</sup>의 코끼리며,

옥경 선관<sup>524</sup> 승필<sup>525</sup>허던 풍채 좋은 사자로다.

서백<sup>526</sup>이 위수<sup>527</sup> 사냥혈 제 비웅비표<sup>528</sup> 곰이로다.

창해 박랑사의 저격시황<sup>529</sup>의 저 다람이,<sup>530</sup>

강수동류원야성<sup>531</sup>의 슬피 운다고 저 잔나비,<sup>532</sup>

피 많은 여우, 날랜 토끼,

털 좋은 너구리며,

암곰·수곰·멧돌<sup>533</sup>이며, 노루·사슴·송냥이,<sup>534</sup> 이러한 등물들이<sup>535</sup> 앙금앙금 내려와서

상좌 다툼<sup>536</sup>을 허는구나.

## 17. (노루, 너구리의 상좌 다툼) 노루, 너구리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툼다.

[아니레] “우리가 연년이<sup>537</sup> 회취하고<sup>538</sup> 노는 놀음에,

상좌 없이는 못 놀겠네.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노는 것이 어떠한가?”



**16. (Four-legged Animals Fight for the High Seat).**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that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Even though what you said above is true, how can you  
put me to such shame in front of others?”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Jungmori]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king came across a competent subject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A squirrel watched someone try to kill a king.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 sly fox, a fast hare,

a raccoon with great fur,

a female bear, a male bear, a wild pig, a roe deer, a deer and  
a dhole gather slowly.

They compete for the high seat.

**17. (A Quarrel of a Roe Deer and a Raccoon) A roe deer  
and a raccoon fight for the high seat.**

[Aniri] “We gather every year to have fun.

We can’t have fun without a boss.

Why don’t we have a party after designating the boss?”

그 말이 옳다하고,  
 “저기 앓은 장도감<sup>539)</sup>은 언제 났소?”  
 [중모리] “자네들 내 나를<sup>540)</sup> 들어보소.  
 내 나를 셀작시면,<sup>541)</sup>  
 기경상천<sup>542)</sup>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접<sup>543)</sup>하야 광산<sup>544)</sup> 십년 글을  
 읽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sup>545)</sup>으로 상천<sup>546)</sup>하고,  
 나는 미물<sup>547)</sup> 짐생이라 이리 천케<sup>548)</sup>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sup>549)</sup>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겼나?”  
 달과충<sup>550)</sup> 너구리가 나았으며,  
 “장도감도 내 아래요.”  
 “달과충은 언제 났소?”  
 “나의 수자<sup>551)</sup> 들어 보소.  
 동작대<sup>552)</sup> 지은 집에, 좌편 청룡각<sup>553)</sup>이요, 우편은 금봉루라.  
 이교에<sup>554)</sup> 뜻을 두고  
 조자건<sup>555)</sup>이 글을 지어 동작대부 운허던<sup>556)</sup>  
 조맹덕<sup>557)</sup>의 연갑<sup>558)</sup>이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겼나?”

## 18. (토끼 등장) 토끼가 나서며 자신이 상좌에 앉아야 한다고 한다.

[아니리] 토끼란 놈이 깡쨍 뛰어 나았더니마는,  
 [중중모리]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봐.  
 한 광무<sup>559)</sup> 시절에 간의대부<sup>560)</sup>를 마다하고,  
 부운<sup>561)</sup>으로 채일<sup>562)</sup> 삼고,

Everyone is persuaded.

“Hi, there, Mr. Roe Deer. When were you born?”

[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Let me estimate my age.

Li Bai(李白) read poems with me for ten years and flew up to heaven, riding a whale.

He was such a talented man that he ascended to the capital city of heaven.

Being an animal, I am worthless and humble here.

I am as old as the poet, so I deserve the high seat.”

A raccoon steps forward.

“Mr. Roe Deer, you are younger than I.”

“Mr. Raccoon,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Cao Cao(曹操) built a pavilion on the left and a tower on the right.

The premier had two girls in his mind.

He told his son to write a poem about the pavilion.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 **18. (A Hare Turns Up.) A hare shows up and says he deserves the high seat.**

[Aniri] A hare jumps in.

[Jung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folks.

Yan Zi Ling(嚴子陵) declined the offer of a government position in ancient times.

He instead took clouds as a parasol.

동강의 칠리탄<sup>563</sup>) 낚싯줄을 담가놓고 고기 낚기 힘써 허든,  
엄자릉<sup>564</sup>)의 시조허든<sup>565</sup>) 날과 돌이 동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겼나?”

### 19. (멧돼지 등장) 멧돼지가 나서며 자신이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레] 멧돌<sup>566</sup>)이란 놈이 꺼시락눈<sup>567</sup>)을 끄적끔적허고 나왔더니마  
는,

[중모레] “나의 연세를 들어 보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sup>568</sup>)에 사신 갔다,

주린 충절 십구년에 수발이 진백허여,<sup>569</sup>)

고국 산천 험한 길을 허유허유<sup>570</sup>) 돌아오든

소중량<sup>571</sup>)의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허겼나?”

### 20. (조통달)(호랑이 등장) 호랑이가 등장하여 멧돼지를 잡아먹으려 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노닐 적에,

여러 날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무엇 하나 잡아먹으려고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졌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한 마리라도 내 눈에 띄일 텐디, 애들이 어디 갔는고?’

하고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여시<sup>572</sup>)란 놈이 ‘꽤’하고 소리를 지르니,

호랑이가 그곳을 보니,

오목한<sup>573</sup>) 데가 모두 앉아 있는데,

He dipped a fishing line in a river and engrossed himself in picking up fish.

The fishing man and I are of the same age.

Isn't the high seat mine?"

**19. (A Wild Pig Appears.) A wild pig comes out and gives a reason why he deserves the high seat.**

[Aniri] A wild pig slowly blinks his thorny eyes and moves forward.

[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Su Zhong Lang(蘇中郎) of Han(漢) dynasty visited an enemy country as a diplomat.

His life was hard but he remained loyal to his country for 19 years, and his hair became gray.

He made an arduous journey back to his country.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20. (Jo Tongdal)(A Tiger Comes Out.) A tiger comes out and tries to eat the wild pig.**

[Aniri] The animals have a party as I've just said.

A tiger who hadn't eaten anything for several days comes to eat something and finds nothing.

"This is strange. I should see at least one animal. Where did they go?"

The tiger thinks as I said above.

At that moment, a fox lets out a scream.

The tiger looks at the place.

All the animals are hiding in a concave place.

호랑이 마음에 좋았던 모양이더라.

‘아, 이놈들이 저기 다 모여 있으니, 내 눈에 한 놈도 안 띄었구나.’

‘어흥’하고 들어가니,

노는 자리가 아니라 고록젓<sup>574)</sup> 되어가지고,

똥 오줌을 질금질금<sup>575)</sup> 싸면서,

[창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가 이 말석<sup>576)</sup>에 참예<sup>577)</sup>하셨소?”

[아니레] “으음. 내가 지금 저기서 놀다가

하도 시장해서 너희들 중에 살 좋은 놈으로 한 놈 식홀라고<sup>578)</sup> 왔다.”

[창조]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맘을 못 놔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저희들 둘 중에 누구를 먼저 잡수실까요?”

[아니레] “따질 거 뭐 있느냐?

살 좋은 멧돼야지 너를 내가 먹을란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거기까지 못 가니,

네가 좀 이리 오너라.”

아, 호랑이 눈을 보니, 눈알이 벌그린 것이 한 놈뿐 아니라, 여러 놈 식후개<sup>579)</sup> 생겼든 것이었다.

[창조] 멧돼야지가 아니 갈 수도 없고,

호랑이 앞으로 뭉그적뭉그적<sup>580)</sup> 들어가며,

이놈이 유언을 남기는디,

“너 이놈들. 내년에도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절대 부정탄<sup>581)</sup> 놈 여기 끼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 멧돼야지 큰아들한테 해마다 제사나 착실히 지내달라고 해라.”

엉그적엉그적<sup>582)</sup> 들어가는디,

The tiger is pleased to see them.  
 'I couldn't see any of them because they were all here together.'  
 The tiger roars as he approaches them.  
 The party suddenly becomes chaotic.  
 The animals take a shit and a pee little by little.  
 [Song Mode] "General, why are you joining us so late?"  
 [Aniri] "Well, I relaxed over there.  
 I was so hungry that I came here to eat a chubby one of you."  
 [Song Mode] An elk and the wild pig are worried.  
 "General, which of us do you want to eat first?"  
 [Aniri] "I can choose any of you first.  
 Let me eat you, the chubby wild pig, first.  
 I am so hungry now that I can't walk over to you.  
 You come here."  
 The tiger's eyes are red. It looks like he will eat not just one  
 animal but several animals.  
 [Song Mode] The wild pig has no choice but to go.  
 He moves forward reluctantly to the tiger.  
 He gives his last word.  
 "You villains. When you have a party here next year, be sure  
 not to have an unlucky animal.  
 Make sure to tell my eldest son to hold a ritual for me every  
 year without fail."  
 He reluctantly moves to the tiger.

## 21. (호랑이 내려옴) 별주부가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이 발음을 잘못하여 호생원을 부르니, 호랑이가 듣고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리] 호랑이가 그 좋은 발톱으로 되야지 뱃대기<sup>583</sup>)를 갈라가지고 맛나게 먹을 판인디,

그때 마침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sup>584</sup>

호랑이란 놈이 바우 우에 덜렁 앉았는디,

야를<sup>585</sup>) 토끼로 봤던 모양이라.

‘거 토끼가 조그만헌 짐생<sup>586</sup>)인 줄 알었더니, 아주 엄하게<sup>587</sup>) 생겼는 걸.

그러나 내가 저를 보러 왔으니 한번 불러볼 수밖에 없구나.’

‘저기 저, 눈이 벌건허고,<sup>588</sup>) 몸에 바둑점 백이고<sup>589</sup>) 얼쑤덜쑤<sup>590</sup>)헌 게 퇴생원 아니시오?’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만리<sup>591</sup>)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 아래턱이 뻗뻗하야,

퇴 자를 호 자로 변하여 불러 보는디,

“저기 주둥이 벌건허고<sup>592</sup>) 얼쑤덜쑤헌<sup>593</sup>) 게 퇴 퇴 퇴 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중<sup>594</sup>)에서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엇모래]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sup>595</sup>) 깊은 골로<sup>596</sup>) 한 짐생 내려온다.

누에머리<sup>597</sup>)를 흔들며,

양 귀 쪽 찢어지고,

몸은 얼쑤덜쑤,<sup>598</sup>)

꼬리는 잔뜩 한 발<sup>599</sup>)이 넘고,

동개<sup>600</sup>)같은 앞다리,



21. (The Tiger Comes Down.) Terrapin mistakenly  
calls the tiger by mispronouncing the hare's name.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Aniri] The tiger is about to cut the pig's belly open with his claws and enjoy a good meal.

At that moment, Terrapin looks at the tiger.

The tiger was sitting on a rock.

Terrapin takes the tiger to be a hare.

'I thought a hare is a little animal, but it looks fearsome.

Since I came here to meet a hare, let me say hello to him.'

Terrapin intended to say "You have red eyes, and your body is mottled with black and white. Aren't you Mr. Hare?"

His lower jaw is stiff because he pushed water with it o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He mispronounced the hare's name.

Terrapin says, "Your mouth is red, and your body is mottled. Isn't that Mr. Tiger?"

This is the first time the tiger is addressed with such respect. Pleased, he comes down.

[Eotmori] The tiger comes down.

A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with pine trees.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body is mottled.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long.

His fore legs are strong.

전동<sup>601</sup>)같은 뗏다리,  
 쇠낫<sup>602</sup>)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sup>603</sup>) 백설격으로<sup>604</sup>)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르르 흘치고,<sup>605</sup>)  
 주홍 입 떡 벌리고 자래 앞에 가 우뚝 서  
 ‘홍앵홍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넘고,<sup>606</sup>) 땅이 툭 꺼지는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었졌구나.

## 22.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 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자신은 자라가 아니라 고 둘러댄다.

[아니래 호랑이가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어 마른 쇠똥같  
은 것밖에는 없지.  
 ‘아니, 이것이 나를 불렀나?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우둥글납작<sup>607</sup>)이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오, 이것이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sup>608</sup>)현다드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sup>609</sup>)을 짹 짹 씹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부리<sup>610</sup>)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sup>611</sup>)협시다.”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허자고?  
 그래,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sup>612</sup>)이 무엇인고?”

His hind legs are robust.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thick sand and the roots  
of the grass as if he were splattering snow in cold winter.  
He opens his red mouth and stops in front of the terrapin.  
The tiger's roar seems to shake a stream and a mountain and  
destroy the ground.  
The terrapin is so scared that he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22. (The Tiger and Terrapin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he terrapin, and tries to eat him.  
Terrapin says that he is not a terrapin.**

[Aniri] The tiger has come down and realizes that there is only  
something which looks like dry cow dung.  
'Did this thing call me?  
It looks round in this direction.  
It looks round in that direction.  
Is this Mr. Round?'  
He doesn't answer no matter how the tiger calls.  
'Oh, this must be God's dung.  
God's dung is said to be a panacea.'  
The tiger grab the middle of the terrapin with his strong claws  
to eat it.  
The terrapin sticks out the end of his mouth.  
"Let's exchange names with each other."  
"Do you want to exchange names with me?"  
Oh, I am Mr. Tiger, the ruler of the mountains.  
What is your name?"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sup>613</sup> 공신<sup>614</sup> 사대손<sup>615</sup> 별주부 자래라 하오.”  
 호랑이가 자래란 말을 듣더니,  
**[아니리](조통달)** 자래가 놀래가지고  
 어찌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지, 모래가 딱 덮혀가지고  
 영낙없이 죽 떠 먹은 자리가 되었구나.  
 호랑이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지.  
 호랑이 기가맥혀,  
 ‘아, 금방 호생원 아니시오 허고 나를 불렀는디, 야가<sup>616</sup> 어디 갔는고?’  
 왜야지라도 잡아먹을라고 보니,  
 그동안 싹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구나.  
 “허허 내가 오늘 시장기가 들라고 별 꼴을 다 보네그려.”  
 호랑이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디,  
 자래란 놈도 재수가 없을라고 그랬는지,  
 꼭 호랑이 앞발 딛는 데가 앞졌다가,<sup>617</sup>  
 호랑이가 앞발을 디뎠다가  
 딱 때니 자라가 장기 궁썩<sup>618</sup> 나자빠지듯 발라당<sup>619</sup> 나자빠졌지.  
 ‘아니, 요것이 날 불렀는가?  
 거 묘하게 생겼네그려.  
 나무 접시 모양으로 생겼는디,  
 굽이 없어 그것도 아니고,  
 정월 대보름날 쑥떡처럼 생겼는디,  
 고물이 없어 그것도 아니고,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우둥굴납작<sup>620</sup>이나?’

“Yes. I am Terrapin, a fourth descendent of a prison official in the sea world.”

The tiger hears the word ‘terrapin.’

**[Aniri](Jo Tongdal)** The terrapin is startled.

He moves into the sand so deeply that he is completely covered with the sand.

The terrapin left his trace on the surface of the sand.

When the tiger arrived, he could not see the terrapin.

The tiger is stunned.

‘Oh, a minute ago, somebody called me. Where is he now?

I was trying to eat the pig.

Everybody fled away, and I can see nobody.’

“I fell into this disaster so that I can feel hungry today.”

The tiger goes back to the mountain.

The terrapin is unlucky too as follows.

He was lying under the place the tiger was about to put his fore foot.

The tiger puts his fore foot right there.

Because of the tiger’s foot, the terrapin is kicked away from the hiding place.

‘Oh, did this thing call me?

It looks peculiar.

It looks like a wood dish.

Not having a supporting place at the bottom, it’s not a wood dish.

It looks like a mugwort rice cake that we eat on the day of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Not having powdered bean, it’s not the mugwort rice cake.

It’s round in this direction.

It’s round in that direction.

Is this Mr. Round?”

아무 대답이 없지.

‘아니, 요것이 무엇이여?’

아, 호랭이란 놈이 하늘을 보고 땅을 딱 보더니마는,  
‘하나님 똥 먹으면 잔병<sup>(621)</sup> 없어지고 명<sup>(622)</sup> 길어진다더라.  
부애난개<sup>(623)</sup> 내가 이거라도 먹을 수밖에.’

[창조] 아, 그 큰 입을 벌리고 먹기로 작정을 허는구나.

자래가 수로만리까지 왔다가 말 한 마디 못하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  
어안이 병병허여,<sup>(624)</sup>

[아니리] ‘에에라, 쟈장칠녀르 것.’<sup>(625)</sup>

내가 이놈한테 죽기는 꼭 죽는디,

이놈 이름이나 알고 죽어야겠다.’

저 아래 뱃속에서 겨우 입부리만 내가지고,

“당신이 뉘시오?” 해는 것이,

호랭이란 놈이 어찌 자망허게<sup>(626)</sup> 놀랬던지,

“아, 이런 급살<sup>(627)</sup>을 맞을!

아,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sup>(628)</sup>하자고?

오, 그래. 나는 이 산중 어른 호생원이라고 한다.

너는 명색<sup>(629)</sup>이 무엇인고?”

아, 호생원이라는 말을 듣더니 공연스리<sup>(630)</sup> 무서운 기가 왈각 들어,  
겁짐에 바른대로 말하는디,

“예. 나는 명색이 별주부 자라새끼라고 그러요.”

호랑이가 자라라는 말을 듣고 좋아라고 한번 놀아보는디,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  
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sup>(631)</sup>이 원이더니,<sup>(632)</sup>

다행히 만났으니

There is no answer.

‘What on earth is this?’

The tiger looks up to the sky and down to the ground.

‘It is said God’s dung can free us of various diseases.

Since I am angry now, I will eat this.’

**[Song Mode]** The tiger opens his big mouth to eat the terrapin.  
Terrapin is dumfounded, thinking that he will die without saying  
a word after the long journey from the sea.

**[Aniri]** ‘Oh my goodness.

I am bound to be killed by this villain.

Let me find out his name and die.’

Terrapin barely pokes the end of his mouth out from his belly.

Terrapin says, “Who are you?”

The tiger is surprised very much.

‘What a damn thing!

Does this thing want to exchange names with me?

Oh, good. I am the ruler of this mountain, Mr. Tiger.

What on earth are you?”

The word ‘tiger’ suddenly sends a chilling energy to Terrapin.  
Scared, Terrapin speaks frankly.

“Yes. I am Terrapin, an official in the sea palace.”

Pleased to know that he is a terrapin, the tiger performs a show.

**[Jungjungmori]** “Hurrah! What a pleasure! Hurray! Oh boy!  
Yippee! What a delight!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I am lucky to meet you.

맛 좋은 진미<sup>(633)</sup>를 베어 먹어보자!”

자라가 기가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요!”

“내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sup>(634)</sup>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sup>(635)</sup> 명약이라,

두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 아양!”

자라가 기가막혀,

“아이고! 이 급살<sup>(636)</sup> 맛을 놔!

동의보감<sup>(637)</sup>을 살라서<sup>(638)</sup>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 23. (별주부 목 내력) 별주부가 목이 늘어난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 급소를 물자, 호랑이가 겁이 나서 도망한다.

[아니리] 자라가 겨우 입부리만 내어,

호랑이 앞으로 목을 길게 빼고 바짝 달려들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래어,

“여,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그 조그만허신 분이 목이 들락날락<sup>(639)</sup> 되웁치기<sup>(640)</sup>를 잘 허시오?”

“오, 내 목 내력<sup>(641)</sup>을 이를 테니 들어봐라!”

[아니리](조통달) ‘아이고, 이 쯔장칠녀르 것.



Let me taste this cuisine.”

Terrapin is speechless.

“Oh, I am not a terrapin!”

“Then, what are you?”

“I am a toad!”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gain my health back.

Let me stop talking and eat you.

Come here!”

Terrapin is startled.

“Alas! This villain should die a sudden death.

He must have burned classic medical books and eaten them.

He only wants to eat me.”

**23. (Story about Terrapin’s Neck) Terrapin narrates a story of how his neck became long, and then bites the tiger’s genital. The tiger flees away.**

[Aniri] Terrapin barely sticks out the tip of his mouth.

Terrapin pulls out his neck long and gets close to the tiger.

“Here goes my neck!”

The tiger is astonished.

“Hey! Stopping coming out.

Your body is small, but you can move your neck in and out freely.”

“Let me tell you how I got this neck. Listen.”

[Aniri](Jo Tongdal) ‘Oh my goodness.

내가 이놈한테 죽기는 꼭 죽는다,  
 마지막으로 패술<sup>642</sup>이나 한번 쓰고 죽어야겠다.’  
 자래가 한 피를 내어,  
 그 긴 목을 쭈욱 뻗다가, 죄우로 흔들었다가, 목을 콕 움츠렸다 하면서,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대체 제가 무엇인디,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고?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가 한눈팔다가 딱 본개,<sup>643</sup>  
 똥고름허게<sup>644</sup> 생긴 것이 목이 빠졌는디,<sup>645</sup>  
 어떻게 징그럽던지,  
 “여보, 여보, 여보. 목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일천오백 발<sup>646</sup>도 더 나오겠소.  
 아, 그런디, 키는 조그만한 분이 어찌 그리 목이 들랑달랑<sup>647</sup> 뒤움치  
 기<sup>648</sup>를 잘 하시오?”  
 별주부가 ‘웁지 됐다’ 생각하고,  
 “오, 내 목 내력을 이를 테니 들어봐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sup>649</sup>하야,  
 천여 간<sup>650</sup> 기와집을 내 숨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덜컥 떨어져 이 병신이 되었으니,  
 명의더러<sup>651</sup> 문의헌죽<sup>652</sup>  
 호랑이 쓸개가 좋다허기로,  
 도리랑귀신<sup>653</sup>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정<sup>654</sup> 호랭이나?  
 쓸개 한 보<sup>655</sup> 못 주겠나?  
 도리랑귀신 게<sup>656</sup> 있느냐?  
 비수검<sup>657</sup>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I am bound to be killed by this villain.  
 Let me play a trick on him before I die.'  
 Terrapin hits upon an idea.  
 He pulls out his long neck, shakes it left and right, and moves  
 it back and forth.  
 He runs up to the tiger closely.  
 "What on earth are you to be bold in front of me?  
 Here goes my neck!"  
 After looking away, the tiger pays attention to the terrapin.  
 A neck comes out of a round thing.  
 The terrapin is creepy to the tiger.  
 "Hello, don't stick out your neck,  
 If your neck comes out at that pace, it might extend a few  
 kilometers a day.  
 Your height is low, but how can you pull your neck in and out  
 so freely?"  
 Terrapin thinks his trick worked.  
 "Oh, let me tell you a story about my neck. Listen!"  
**[Jajinmori]**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I was building a large tile-roofed house.  
 I fell down with my neck first, breaking it.  
 I consulted a famous doctor.  
 A tiger's gall bladder is an effective medicine.  
 I came here, riding a stream demon, to hunt down a tiger.  
 Are you a tiger?  
 Give me your gall bladder.  
 Is the stream deamon there?  
 Cut this tiger's belly open with a sharp knife!"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도리랑 도리랑.

[아니리] 호랑이 다리 사이 거기<sup>(658)</sup>를 그냥 콧 물고, 앙 허고 콧 채노니,  
이놈이 어떻게 아팠던지, 훌쩍 뛰어 도망을 헌 것이 저 의주 압록강까  
지 갔던가보더라.

이놈이 숨 좀 쉴라고 혈떡거리며 앉았는데,  
호랭이가 재수가 없을라고 그랬던가,  
그때 마침 바우 틈바구니<sup>(659)</sup>에서 남생이<sup>(660)</sup> 한 마리가 빼조쫄롬허  
게<sup>(661)</sup> 호랭이 눈에 비쳤든가,<sup>(662)</sup>

가를 자래로 알고,

“어메, 저놈이 그새 여기까지 쫓아왔네!”하고  
들입다<sup>(663)</sup> 뻔<sup>(664)</sup> 것이 함경도 새소나무고개<sup>(665)</sup>까지 갔던 것이었다.

거기 가서 제 손수 장담<sup>(666)</sup>을 허는디,

“아따, 그놈 용맹이 참 무서운 놈이다.

나나 된개<sup>(667)</sup>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같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고 나서 곰곰이 생각허니,

‘호랑이라 허는 것은 산중지영물<sup>(668)</sup>이라,

내 눈에 와 보일진대 내 정성이 부족함이로구나.’

목욕재계<sup>(669)</sup> 정히<sup>(670)</sup> 허고 산신제<sup>(671)</sup>를 지내는데,

## 24. (산신제) 별주부가 토끼 만나기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낸다.

[진양조] 계변양류<sup>(672)</sup> 늘어진 가지 하나를 앞니로 잘끈<sup>(673)</sup> 꺾어내어  
진토<sup>(674)</sup>를 쓸어버리고, 암상<sup>(675)</sup>으로 제관<sup>(676)</sup> 삼고,

The terrapin moves close at the tiger.  
**[Aniri]** The terrapin bits the genital between the tiger's legs and  
 holds it tightly.  
 He feels so much pain that he flees swiftly all the way to Abrok  
 River.  
 This villain pants while sitting to take a rest.  
 The tiger must be unlucky.  
 At that moment, a tortoise between rocks is seen by the tiger's  
 eyes.  
 The tiger takes the tortoise to be the terrapin.  
 He says, "Oh my god. That villain chased me all the way here."  
 The tiger runs fast from there to a mountain pass in Hamgyeong  
 Province.  
 He speaks with confidence there.  
 "Gee, that villain is brave and formidable.  
 I am alive now because I am great.  
 Others in my situation would have died."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he drove the tiger away.  
 'A tiger is a divine animal in mountains.  
 He must have appeared to me because I was not conscientious.'  
 Terrapin takes a bath carefully and holds a ritual to a mountain  
 god.

#### **24. (Ritual to a Mountain God) Terrapin holds a ritual to a mountain god so that he can meet a hare.**

**[Jinyangjo]** Terrapin cuts a drooping willow branch off by a  
 stream with his front teeth.  
 He brushes dirt off a flat rock with the branch and uses it as  
 a ritual table.

낙엽으로 먼지<sup>677</sup>)를 깔고,  
 산과목실<sup>678</sup>)을 주워다가  
 방위 가려서 갈라 놓고,  
 은어 한 마리 잡어내어 어동육서<sup>679</sup>)로 받쳐놓고,  
 석하에<sup>680</sup>) 배례<sup>681</sup>)하며 지성<sup>682</sup>)으로 독축<sup>683</sup>)을 한다.  
 [축문] “유세차<sup>684</sup>) 갑신 유월 갑진 삭<sup>685</sup>) 임자 초칠일<sup>686</sup>)  
 남해 수궁 별주부 자래 감소고우.<sup>687</sup>)  
 상천일월성신<sup>688</sup>) 후토<sup>689</sup>) 명산 신령님전<sup>690</sup>) 지성<sup>691</sup>)으로 비나이다.  
 용왕이 우연득병<sup>692</sup>)하여  
 선의도사<sup>693</sup>) 문병<sup>694</sup>) 후에, 토끼 간이 낫사오니,<sup>695</sup>)  
 중산<sup>696</sup>) 토끼 한 마리를 허급<sup>697</sup>)허읍심을 상사<sup>698</sup>) 상향.”<sup>699</sup>)

## 25.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물으니,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레] 빌기를 다한 후에  
 [중중모레] 한 곳을 바라보니 묘한 짐생<sup>700</sup>)이 앉았다.  
 두 귀는 쫘긋,  
 눈은 도리도리,<sup>701</sup>)  
 허리 늘씬,  
 뽕뎡이<sup>702</sup>) 묘뚝,<sup>703</sup>)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디,<sup>704</sup>)  
 녹수청산<sup>705</sup>)의 예굽은<sup>706</sup>) 장송 휘늘어진 양류<sup>707</sup>) 속

He puts fallen leaves on the rock.  
He picks up mountain fruits.  
He puts the fruits in the right direction.  
He catches a fish and places it to the east and red meat to the west.  
He recites a ritual prayer conscientiously, giving a bow in front of a rock.  
[Ritual Prayer]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the 7th of this month.  
Terrapinn from the sea palace prays to you.  
I pray to the gods of the sun, the moon, stars, the ground, and famous mountains.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A god from heaven recommended a hare's liver.  
Please grant me a hare from a mountain and take this offering."

**25. (Terrapin Meets a Hare.) Terrapin spots a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Th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Aniri] Terrapin finishes the ritual.  
[Jungjungmori] Terrapin spots a strange animal sitting in a place.  
His two ears are long.  
His two eyes are round.  
His waist is thin.  
His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A tall pine tree and a willow droop down by a blue stream and in the green mountain.

들랑달랑 오락가락 앙그조춤<sup>708)</sup> 기는 토끼, 산중퇴<sup>709)</sup> 월중퇴.<sup>710)</sup>  
 자래가 보고서 괴이<sup>711)</sup> 여겨,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반기<sup>712)</sup> 여겨,  
 “저기 쏜 게 퇴생원 아니오?”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고 깡깡 뛰어 나오면서,  
 “그 누가 날 찾나?  
 날 찾을 이가 없건마는 그 누가 날 찾아?  
 기산<sup>713)</sup> 영수<sup>714)</sup> 소부<sup>715)</sup> 허유<sup>716)</sup> 피세가자고<sup>717)</sup> 날 찾나?  
 수양산<sup>718)</sup> 백이·숙제<sup>719)</sup> 재미허자고<sup>720)</sup> 날 찾나?  
 백화심처일승귀 춘풍석교화림중<sup>721)</sup> 성진<sup>722)</sup> 화상<sup>723)</sup>이 날 찾나?  
 완월장취<sup>724)</sup> 강남 태백 기경상천<sup>725)</sup>하는 길 함께 가자고 날 찾나?  
 도화유수<sup>726)</sup> 무릉<sup>727)</sup>의 거주속객<sup>728)</sup>이 날 찾나?  
 청산기주백로탄<sup>729)</sup> 여동빈<sup>730)</sup>이 날 찾나?  
 차산중 운심헌데 부지처 오신 손님<sup>731)</sup> 날 찾을 리 만무로구나.<sup>732)</sup>  
 거 누가 날 찾나?  
 건년산 과부 토끼가 연분<sup>733)</sup>을 맺자고 날 찾나?”  
 요리로 깡깡, 저리로 깡깡 자우뚱거리고<sup>734)</sup> 내려온다.



A hare which is said to be in mountains and on the moon crawls  
in and out of the trees.

The hare catches Terrapin's interest.

Terrapin looks at the picture and the hare, and becomes certain  
that he is a hare.

Terrapin is delighted to see the hare.

"Isn't that Mr. Hare over there?"

Pleased to be called, Hare runs to Terrapin.

"Who is looking for me?"

I am expecting nobody. Who is looking for me?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join them to live in a mountain  
and by a river?

Are ancient brothers asking me to join them picking up brackens  
for food in a mountain?

Are you the Buddhist monk who came back to a place where  
there are all sorts of flowers, a spring wind, and a stone bridge?  
Is the ancient poet Li Bai(李白) who enjoyed wines and the  
moon asking me to join him on the journey to heaven riding  
a whale?

Did a person from a paradise where peach blossoms flow in  
a river come here to offer wine to me?

Are you the ancient hermit who lived in a green mountain and  
feared a blue shallow stream?

I am in deep mountains covered with clouds, so I am not  
expecting anybody.

Who is looking for me?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The hare jumps here and there unsteadily, and comes to  
Terrapin.

## 26. (녹수청산)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아니리] 이리 한참 내려오다가 별주부하고 탁 받았겠다.<sup>735)</sup>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야.”

“초면에<sup>736)</sup> 남의 이마를 왜 이리 받으시오?”

“피차<sup>737)</sup> 일반<sup>738)</sup>이오.

우리 그만두고 통성명<sup>739)</sup>이나 험시다.”

“그럼시다.”

“게서는<sup>740)</sup> 뉘라 허오?”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sup>741)</sup> 공신<sup>742)</sup> 사대손 별주부 자래라 허오.

게서는 뉘라 허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이음양순사시<sup>743)</sup>하던 예부상서<sup>744)</sup> 월톨러니,<sup>745)</sup>

도약주<sup>746)</sup> 대취하야<sup>747)</sup>

장생약<sup>748)</sup> 그릇 짓고

적하중산<sup>749)</sup>허여 머무른지 오렐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sup>750)</sup> 퇴선생이라 부르오.”

별주부 듣고 함소왈,<sup>751)</sup>

“퇴선생 높은 이름 들은 지 오렐러니,

오늘날 상봉키는 하상견지만만무고불측<sup>752)</sup>이로소이다.”

아, 토끼란 놈이 들으니,

주먹만한 것이 문자<sup>753)</sup>를 탁 쓰네그려.

‘허허, 요것 보소.

내가 만일에 문자 하나라도 단문<sup>754)</sup>허게 썼다가는, 나 하나로 인하여

세상 문장<sup>755)</sup>들이 망신을 당할 모양이니,

## 26. (Blue River and Green Mountain) The hare brags about his life.

[Aniri] While the hare comes down, he bumps into Terrapin.

“My nose hurts.”

“My forehead hurts.”

“Why did you bump into my forehead on the first time we met?”

“I can say the same thing to you.

Let’s stop arguing and exchange names.”

“Good idea.”

“Who are you?”

“I am Mr. Terrapin, the fourth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Who are you?”

“I am the hare on the moon. I was a ceremonial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mooth change of seasons.

I was drunk by a medicinal wine.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I have been relegated to the earth for a long time.

They call me Mr. Hare here on earth.”

Terrapin smiles and speaks.

“I heard of your name long time ago.

I didn’t expect it would take so long to meet you today.”

The hare has been listening to Terrapin.

The terrapin is small, but he speaks a high level language.

‘Gee. Look at this animal.

If I speak a low level language in front of him, I will bring disgrace to the famous writers of the world.

내 이놈에게 문자통<sup>756</sup>)을 내등굴려 볼 수밖에 없구나.’하고,  
“자, 별주부 나도 문자통 굴러가니 착실히 들어보시오.

법안홍안<sup>757</sup>)이요,

홍안백발<sup>758</sup>)이요,

이불가독식<sup>759</sup>)이요,

아가사창<sup>760</sup>)이요,

당구삼년<sup>761</sup>)이요,

우이독경<sup>762</sup>)이요,

점불가장<sup>763</sup>)이요,

탄탄대로요,

어동육서<sup>764</sup>)

좌포우혜<sup>765</sup>)

분향재배<sup>766</sup>)요,

오륙칠 두루송이,<sup>767</sup>)

일삼오 대감<sup>768</sup>)이요,

명기위적<sup>769</sup>)은 전라감영<sup>770</sup>)이오.”

아, 이놈이 동서에도<sup>771</sup>) 닿지 않는 문자를 엮어 썼다, 뒤집어 썼다  
생지랄<sup>772</sup>) 염병<sup>773</sup>)을 하고 자빠졌네그려.

자래 듣고 함소왈,

“퇴선생 높은 위명<sup>774</sup>) 들은 지 오랜러니,

오늘날 화답허니 어두궁기<sup>775</sup>)가 확실허오.

놀랍소, 놀라워.

글도 잘허거니와

풍신<sup>776</sup>)이 소년대장을 꼭 혈 인물이오.

발맴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고,

아닌 게 아니라, 잘났소, 잘났어.

Let me throw profound sentences at this villain.'  
 "Mr. Terrapin. Let me speak profound sentences to you too.  
 Listen carefully.  
 Eyes can penetrate things through principles.  
 A face is healthy, and hair is gray.  
 You shouldn't take all the profits yourself.  
 Your criticism against me can be directed to you.  
 If a dog lives in a school for three years, it can read and write.  
 You can't teach a cow how to read.  
 You should not let things go gradually worse.  
 The road is broad and flat.  
 Fish to the east, and meat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We burn incense and bow twice.  
 Five, six, and seven are lucky in gambling.  
 One, three, and seven are lucky in gambling, too.  
 The confession of a theft should be done at the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The hare utters profound sentences in a senseless and  
 disorganized manner, causing laughter to others.  
 Terrapin laughs loudly.  
 "I heard about your high fame long time ago.  
 Today, you finally responded me clearly.  
 How fantastic you are!  
 Your sentences are profound.  
 Your appearance indicates you are fated to become a great  
 figure.  
 Your feet signify you are virile.  
 You are really a great figure.

그런디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시오?”

“내 재미는 무쌍이지마는,<sup>777)</sup>

나 지내는 흥미나 이를 테니 들어볼까요?”

[중모리] “임자 없는 녹수청산<sup>778)</sup>

일모황혼<sup>779)</sup> 저문 날에 월출동령<sup>780)</sup> 잠을 깨어,

청림벽계<sup>781)</sup> 집을 삼고,

값이 없는 산과목실<sup>782)</sup> 양식을 삼어서 감식<sup>783)</sup>혈 제,

신여부운<sup>784)</sup> 일이 없어 명산 찾아 완경<sup>785)</sup>혈 제,

여산 동남<sup>786)</sup> 오로봉<sup>787)</sup>과,

진국명산<sup>788)</sup> 만장봉<sup>789)</sup>과

봉래 방장 영주 삼산<sup>790)</sup>이며,

태산 숭산 형산 화산<sup>791)</sup> 만학천봉,<sup>792)</sup>

구월산<sup>793)</sup>과 삼각<sup>794)</sup> 계룡<sup>795)</sup> 금강산 아미산<sup>796)</sup> 수양산<sup>797)</sup>을 아니

본 곳 없이 모두 놓고,

영주 상상봉<sup>798)</sup>을 완완히<sup>799)</sup> 기어올라

흑운을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여산의 낙조경<sup>800)</sup>과 위수<sup>801)</sup>의 일출경<sup>802)</sup>을 안하<sup>803)</sup>에 삼렬하니,<sup>804)</sup>

등태산소천하<sup>805)</sup>의 공부자<sup>806)</sup>의 대관<sup>807)</sup>인들 이에서<sup>808)</sup> 더하드란

말이나?

밤이면은 완월<sup>809)</sup> 구경,

낮이 되면 유산<sup>810)</sup>혈 제,

이따금 심심하면 적송자<sup>811)</sup>에 안기생<sup>812)</sup>을 종아리 때리고 노니,

강산풍경 흥미간의<sup>813)</sup>

지상신선<sup>814)</sup>이 나뿐인가.”

What fun do you have in this world?"

"I have the best fun here.

Do you want to listen to my story about my enjoyments?"

[Jungmori] "A blue river and a green mountain are ownerless.  
I get up at twilight, when the moon rises over a peak in the east.

I take green forests and streams as my home.

I take the delicious fruits in the mountains as my food and eat them for free.

I visited famous mountains leisurely like clouds.

I visited the Five Peaks which looks like old men,  
the high peak on which the future of a country depends,  
the three divine mountains,  
and numerous valleys and other peaks.

There is not a famous mountain in Korea or China that I didn't visit.

I slowly climbed a divine mountain peak.

I kicked away a black cloud and faced a white cloud.

I watched the sunset over a mountain and the sunrise over a river below me.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 Shan(泰山).

I watch the moon at night.

I visit mountains by day.

When I am bored, I lash the calves of two legendary gods for fun.

I enjoy the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I am the only living god on land."

## 27. (토끼의 험난한 생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생활을 말하며 겁을 준다.

[아니리] “아닌 게 아니라 좋소, 좋아.

발맽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거니와 풍채<sup>815</sup>)도 참 장히<sup>816</sup>) 좋소.

그런디 퇴선생 양미간<sup>817</sup>)에 화망살<sup>818</sup>)이 있어,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혀졌소.”

“허어, 그분 초면에<sup>819</sup>) 방정맞은 소리 허는구먼.

내 모양이 어찌 그렇단 말이오?”

“내가 이를 테니 들어볼까요?”

[자진모리] “일개 한퇴<sup>820</sup>) 그대 신세

삼춘구추<sup>821</sup>)를 다 지내고,

대한<sup>822</sup>) 엄동<sup>823</sup>) 설한풍<sup>824</sup>)에 만학에<sup>825</sup>) 눈 쌓이고, <sup>826</sup>)

천봉에<sup>827</sup>) 바람이 칠 제,

앵무원앙<sup>828</sup>)이 끊어졌네.

화초목실<sup>829</sup>) 없어질 제,

어둑한 바위 밑에 고픈 배 틀어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더진 듯이<sup>830</sup>)

앉은 거동,

초희왕<sup>831</sup>)의 원혼이요,

일월 고초 북해상 소중량<sup>832</sup>) 원혼이오.

거의 주려 죽을 토끼 새우등 구부리고 삼동<sup>833</sup>) 고생을 겨우 지내,

벽도흥행<sup>834</sup>) 춘이월에<sup>835</sup>) 주린 구복<sup>836</sup>)을 채우려고, 심산궁곡<sup>837</sup>)을

찾고 찾아 이리 저리 다닐 적에,

골골이<sup>838</sup>) 문힌 건 목달개<sup>839</sup>) 엄찰개<sup>840</sup>)요,

봉봉이<sup>841</sup>) 섰는 건 매 받은<sup>842</sup>) 응주<sup>843</sup>)로다.



27. (Hare's Hardships) Terrapin threatens the hare,  
telling him about the hare's hard life.

[Aniri] "Your life is really great.

Your feet indicate you are virile, and your appearance is truly great.

But the space between your eyebrows means you are fated to die by fire.

If you stay on land, you are fated to go through eight critical hardships."

"We just met. How dare you make such a rude remark?

On what grounds did you make such a remark?"

"Listen to my explanation."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All the birds disappear.

Flowers, grasses, and fruits are gone.

In a dark place under a rock, you hold your hungry belly and lick the bottom of your feet feebly, while sitting weakly.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died in pris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hang on in winter with your backbone bent.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Snares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Hunters stand up, holding up hawks on every peak.

목다래<sup>844</sup> 채거드면<sup>845</sup> 결항치사<sup>846</sup>가 대량대량<sup>847</sup> 제수<sup>848</sup> 고기가  
 될 것이요,  
 청천에<sup>849</sup> 뗏난 건, 퇴끼 대구리<sup>850</sup> 덮치려고 우그리고<sup>851</sup> 드는<sup>852</sup>  
 수리<sup>853</sup> 지 으로<sup>854</sup> 휘어들고,  
 물이꾼 사냥개 음산골<sup>855</sup>로 기어 올라 퍼긋퍼긋<sup>856</sup> 뛰어갈 제,  
 토끼 놀라 호도독호도독,<sup>857</sup>  
 ‘수알치<sup>858</sup> 매 놓아라.’  
 해동청<sup>859</sup> 보라매<sup>860</sup> 짓두루미<sup>861</sup> 빼지시<sup>862</sup> 공작이<sup>863</sup> 마루<sup>864</sup> 도  
 리당사 저 끝치 방울 떨쳐,<sup>865</sup>  
 쪽지 치고 수루루루루루,  
 그대 귓전 양 발로 당그랴게<sup>866</sup> 집어다가,  
 꼬부랑한 주둥이로 양미간<sup>867</sup> 골치 대목<sup>868</sup>을 콕콕!“  
 “어허, 그 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 하느디.  
 그러면 뉘가 거그<sup>869</sup> 있가디오?<sup>870</sup>  
 산 중동<sup>871</sup>으로 돌제.”  
 “중동으로 돌면은, 송하에<sup>872</sup> 숨은 포수,<sup>873</sup>  
 오는 토끼 잡으라고 불 채리는<sup>874</sup> 도포수.<sup>875</sup>  
 풀감투<sup>876</sup> 푸삼<sup>877</sup>을 입고,  
 상사배물에<sup>878</sup> 왜물<sup>879</sup> 조충<sup>880</sup> 화약 사실<sup>881</sup>을 얼른 넣어,  
 반달같은 방아쇠,  
 고초같은<sup>882</sup> 불을 얹어,  
 한 눈 찌그리고<sup>883</sup> 반만 일어서서,  
 단는 토끼 쨍그려 보고, 우루루루루 탕!”  
 “허, 그 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 하는군.  
 그러면 뉘가 거 있가디오?  
 흰헌 들로 내리제.”<sup>884</sup>

If you are caught in a snare, you will be strangled to death and  
be served on a ritual food table.

From the high sky, an eagle intending to grab your head swoops  
down on the foot of a mountain.

Hunters and hunting dogs run to a dark valley, panting heavily.  
Petrified, you move fast.

‘Hunter, release a hawk.’

The young hawk has a tag of a crane’s feather, a decoration of  
a peacock’s feather, and a leather cord on its leg.

It moves its wings and flies.

It catches you around your ears with two legs

With the curved beak it punches the bone between your two  
eyebrows!”

“My goodness. I told you to stop the rude talk, but you keep  
doing it.”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middle of a mountain.”

“If you go to the middle of the mountain, a hunter hides under  
a pine tree.

A head hunter ready to fire a rifle at you waits for you.

He wears a hat and clothing made of grass.

He loads a Japanese rifle with powder and a bullet right away.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You run, but he frowns at you. Bang!”

“Gosh, I told you to cut out this unpleasant talk!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open field.”

“들로 내리면은, 초동 목수<sup>885)</sup> 아이들이 몽둥이 드리메고<sup>886)</sup>  
 없는 개 호구리며,<sup>887)</sup> 위리<sup>888)</sup> 두둑<sup>889)</sup> 쫓는 양은 선술<sup>890)</sup> 먹은 초  
 군<sup>891)</sup>이요,  
 그대 간장<sup>892)</sup> 생각허니 백등칠일곤곤 한태조 간장,<sup>893)</sup>  
 적벽강상화진중<sup>894)</sup> 조맹덕<sup>895)</sup> 정신이라.  
 거의 주려 죽을 토끼  
 층암절벽<sup>896)</sup> 석간<sup>897)</sup>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제,  
 짜룬<sup>898)</sup> 꼬리를 살에<sup>899)</sup> 찌<sup>900)</sup> 요리 깡짱, 저리 깡짱, 깡짱집동<sup>901)</sup>  
 뛰놀 제,  
 콧궁기<sup>902)</sup> 쓴 내<sup>903)</sup> 나고,  
 밑궁기<sup>904)</sup> 조총 노니<sup>905)</sup>  
 이 아니 팔난<sup>906)</sup>인가?  
 팔난 세상 나는 싫네.  
 조생모사<sup>907)</sup> 자네 신세  
 한가허다고 뉘 이르며,  
 무슨 정으로 유산?  
 무슨 정으로 완월?<sup>908)</sup>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는  
 그런 거짓뿌렁이<sup>909)</sup>를 뉘 앞에서 내어 씹나?”<sup>910)</sup>

## 28. (수궁 홍미) 별주부가 수궁의 삶을 자랑하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나리 별주부가 어떻게 구변<sup>911)</sup>을 내어놓았던지 토끼가 딱 돌려가  
 지고,<sup>912)</sup>  
 “대체 별주부 관상<sup>913)</sup> 잘 보시오.

“If you go down to the field, young woodcutters and cow-herds  
 carry sticks on their shoulders.  
 There is no dog, but they call dogs and chase you fast like drunk  
 woodcutters.  
 You feel like the ancient king surrounded by an enemy for seven  
 days.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defeated by a  
 fire attack in Chibi River(赤壁江).  
 You almost starve to death.  
 You climb weakly a rugged cliff through the spaces between the  
 rocks.  
 Your short tail is attached to your groin, and you jump around  
 here and there.  
 A bad smell comes out of your nose.  
 You are shot on the back.  
 These are the eight hardships.  
 I don’t like the eight hardships.  
 Your life is always in jeopardy.  
 Who says you have any leisure time?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How can you tell such a blatant lie to me?”

**28. (Good Things about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o Hare that he go with  
 him.**

[Aniri] Terrapin is so eloquent that Hare is persuaded.  
 “Mr. Terrapin, you are good at reading somebody’s fate by his  
 appearance.

영락없이 그렇소.

내 세상은 그렇거니와

수궁 홍미는 어떠하오?”

“수궁 홍미 좋지요.

수궁 홍미 반겨 듣고 가자 해도 갈 수 없으니,

애당초 듣지도 마시오.”

“여보시오, 별주부.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허면 쇠아들놈이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진양조] “우리 수궁 별천지<sup>914)</sup>라.

천양지간에<sup>915)</sup> 해내최대<sup>916)</sup>허고,

만물지중에<sup>917)</sup> 신위최령<sup>918)</sup>이라.

무변대해<sup>919)</sup>에다 천여 간<sup>920)</sup>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호박 주초,<sup>921)</sup> 주란화각<sup>922)</sup>이 반공에<sup>923)</sup> 솟았는데,

우리 용왕 즉위하사<sup>924)</sup> 만족<sup>925)</sup>이 귀시허고,<sup>926)</sup> 백성에게 앙덕<sup>927)</sup>

이라.

앵무배<sup>928)</sup> 천일주<sup>929)</sup>와

천빈옥반<sup>930)</sup> 담은 안주

불로초<sup>931)</sup> 불사약<sup>932)</sup>을 싫도록 먹은 후에,

취흥<sup>933)</sup>이 도도혈 적,<sup>934)</sup>

미색<sup>935)</sup> 기악<sup>936)</sup> 갖은 풍류<sup>937)</sup>를 대홍선<sup>938)</sup>에다 가득 싣고 자연거수

승거산<sup>939)</sup>이라.

요지<sup>940)</sup>로 돌아드니,

칠백 리 군산<sup>941)</sup>은 물 속에 벌여 있고,

삼천사장<sup>942)</sup> 해당화는 약수<sup>943)</sup>에 붉었는데,

해내태평<sup>944)</sup> 월청명<sup>945)</sup>

You are right about my fate.  
 You are right about my life on the land.  
 How is the life in the sea palace?"  
 "The life in the sea palace is great.  
 You will like it if you hear about it, and ask me to take you  
 there, but you can't go there.  
 So you don't want to hear about it in the first place."  
 "Hello, Mr. Terrapin. If I hear about it, and ask you to take me  
 there, I will be damned.  
 Let me hear about it."  
 "Then, do you want to hear about it?"  
**[Jinyangjo]** "My sea palace is a paradise.  
 The sea is the largest thing between heaven and earth.  
 God is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world.  
 My palace is wide in the limitlessly large sea.  
 Glass pillars, jade cornerstones, and multicolored towers rise to  
 the sky.  
 When my king came to the throne, all the people treasured him  
 and looked up to him.  
 A thousand-day-old wine is served on a shell.  
 Food that can be served to a thousand valuable guests is on  
 a jade tray.  
 We help ourselves to the elixir of youth and elixir of no death.  
 We drink and feel good.  
 We enjoy ourselves with beautiful girls on a shiny pleasure boat,  
 thinking the water is better place to live in than a mountain.  
 The boat arrives at a divine pond.  
 Many mountains are reflected on the pond.  
 Wild roses are red on a long sandy field of a divine river.  
 The sea is peaceful, and the moon is bright.

추강상<sup>946</sup>)에 어적소리<sup>947</sup>)를 화답<sup>948</sup>)하고,  
 경수<sup>949</sup>) 위수<sup>950</sup>) 낙수<sup>951</sup>) 회수<sup>952</sup>) 양진<sup>953</sup>) 포진<sup>954</sup>) 팽예<sup>955</sup>) 소상<sup>956</sup>)  
 혹거혹래<sup>957</sup>) 왕래혈 적,  
 적벽강<sup>958</sup>) 소자침<sup>959</sup>)과 채석강<sup>960</sup>) 태백<sup>961</sup>) 홍미 예<sup>962</sup>) 와서 알았으  
 면, 이 세상에 왜 있으리?  
 채약허든<sup>963</sup>) 진시황<sup>964</sup>)과 구선허던<sup>965</sup>) 한무제<sup>966</sup>)도 이런 재미를 알  
 았던들 이 세상에 있을쏜가?  
 팔난 세상을 다 버리고 퇴선생도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sup>967</sup>) 저 풍골  
 예<sup>968</sup>) 좋은 벼슬을 할 것이요,  
 미인미색을 밤낮으로 다리고<sup>969</sup>) 만세동락<sup>970</sup>)을 할 것이오.”

## 29. (여우 만류) 토끼가 별주부에게 속아 수궁을 따라가는 데, 여우가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어떻게 구변<sup>971</sup>)을 잘 해냈던지 토끼가 싹 돌렸것다.<sup>972</sup>)  
 하릴없이 수궁을 들어가는디,  
 [중모리]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sup>973</sup>)  
 토끼는 뒤에서 깡충깡충  
 원로수변<sup>974</sup>)을 내려갈 제,  
 건넌산 바우 틈에 여우란 놈이 나았으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sup>975</sup>)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We respond to a fisherman's flute on an autumn river.  
 We travel to and come back from famous rivers, their tributaries,  
 a port, a lake, and a site famous for scenic beauty.  
 If ancient poets had known the excitement of the sea world,  
 they would not have lived on the land.  
 If the ancient king who collected medicinal herbs and the  
 ancient king who wanted to become a god had known the  
 pleasures of the sea life, they would not have lived on the land.  
 Given that you look far more majestic than the average, if you  
 throw away the eight hardships and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acquire a high government position.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day and night forever."

**29. (Fox's Dissuasion) While Hare follows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fox tries to dissuade Hare from  
 going.**

**[Aniri]** Terrapin is so eloquent that Hare is persuaded.  
 Hare has no choice but to go to the sea palace.  
**[Jungmori]**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lair between rocks.  
 "Hello, Hare!"  
 "Yes!"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sea palace."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나 별주부 따라 벼슬하러 간다.”

“허허, 자식 실업은<sup>976)</sup> 놈.

불쌍타, 저 퇴공아.

녹록헌<sup>977)</sup> 네놈 마음 말려 무엇허라마는,

고인<sup>978)</sup>이 이르기를 토사호비<sup>979)</sup>라 허였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에<sup>980)</sup> 길들이고,<sup>981)</sup>

임천<sup>982)</sup>에 같이 놀아,

풍월<sup>983)</sup>로 벗을 삼고,

비 오고 안개 낀 날 발자취 서로 찾아,

동성 삼아 동기상통<sup>984)</sup> 일시 이별을 마쳤더니,

저 지경이 웬 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칼 잘 쓰는 연인<sup>985)</sup> 형가<sup>986)</sup> 역수한풍<sup>987)</sup> 슬픈 소리 장사일거<sup>988)</sup>  
게<sup>989)</sup> 못 왔고,

천추 원한<sup>990)</sup> 초희왕<sup>991)</sup>도 진 무관<sup>992)</sup>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를 못하  
였구나.

가지마라, 가지 마라!

수궁이라 하는 데는 한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느니라.

위방불입<sup>993)</sup>

난방불거<sup>994)</sup>라니

수궁 길을 가지 마라.”

**[아니리]** 토끼란 놈이 딱 들어보더니,

“여보시오, 별주부.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드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수궁을 들어가 용왕이 된다 해도 나는 못 가겠소.”

“여보시오, 퇴선생.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볼라요?

“I am following Terrapin to get a government position.”  
 “My goodness. You are a fool.  
 How pitiful you are, Mr. Hare!  
 You are worthless, so it is of no use to try to stop you,  
 A proverb says, however, that if a hare dies, a fox mourns.  
 We lived together in a burrow under a rock in this mountain.  
 We had fun together in nature.  
 We took nature to be our friend.  
 On rainy and foggy days, we traced each other, using footprints.  
 We were good friends and promised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even temporarily.  
 I can’t believe what is happening now.  
 Don’t you know the old saying?  
 An ancient swordsman left a river in a cold wind to kill a tyrant,  
 and he could not return.  
 An ancient king went to a certain place, lived a resentful life,  
 and he never came back.  
 Don’t go there!  
 The sea palace is a place of no return.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A disorderly country is not to be lived in.  
 Don’t go to the sea palace.”  
**[Aniri]** Hare was listening to the fox.  
 “Hello, Mr. Terrapin. But for my cousin, the fox, I would have  
 gotten into big trouble.”  
 I won’t go to the sea palace even if I become the dragon king  
 there.”  
 “Hello, Mr. Hare. Suit yourself.  
 Do you want to know how perverse the fox is?

실상은 내가 육지에 온 날이 여러 날 되었소.  
 맨처음 저 여시<sup>995</sup>)란 놈을 만나가지고  
 저를 데려가 달라고 허나,  
 간교한 저놈 심술 불가근<sup>996</sup>)하졌기에 안 된다고 딱 잡아떼었더니,  
 이 속을 어찌 알고  
 퇴선생을 떼어버리고 지가<sup>997</sup>) 따라갈라고 허는 짓이여, 시방.<sup>998</sup>)  
 먹을 데가 있으면 지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데는 퇴서방을 앞세워 갈 테이니.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 탕!”  
 “허, 그 분 탕 소리는 빼래도.  
 그런디 그렇다고 아니 갈 수 있소?  
 여기서 수궁이 얼마나 되오?”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는디,

### 30. (토끼 별주부 강가 당도) 별주부가 토끼를 달래어 산에서 내려와 강가에 당도한다.

[중모리] “수궁 천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sup>999</sup>) 양혜왕<sup>1000</sup>)을 가 보았고,  
 위수<sup>1001</sup>) 어부 강태공<sup>1002</sup>)도 문왕<sup>1003</sup>) 따라 입주<sup>1004</sup>)를 허고,  
 한기도창촉도난의 황면장군 한신이<sup>1005</sup>)도 소하<sup>1006</sup>) 따라 한중<sup>1007</sup>)  
 가서 대장단<sup>1008</sup>)에 올랐으니,  
 퇴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좋은 벼슬을 헐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sup>1009</sup>)  
 “그러면은 갑세.”<sup>1010</sup>)

To be frank, several days have passed since I came to the land.  
That fox is the first animal I met.  
He asked me to take him to the sea palace.  
I rejected his request, thinking he is cunning and bad-tempered.  
He knows my thoughts.  
He tries to push you off and follow me to the sea palace.  
He will go ahead of you when the destination is food.  
He will go behind you when the destination is death.  
Besides, a hunter will fire tomorrow morning. Bang!”  
“Hey! I told you not to say bang.  
It looks like I should go there anyway.  
How far is the sea palace from here?”  
Terrapin uses his eloquence again.

**30.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Riverside) Terrapin  
persuades Hare, and they come down from a  
mountain and arrive at a riverside.**

[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Mencius visited a king, taking a long journey.  
An ancient fisherman followed his king and became his premier.  
An ancient military officer who led his soldiers to a muddy road  
followed a politician and became a general.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young  
general, so don’t worry.”  
“Then, let’s go.”

강상을 바라보니,  
 도옹도옹<sup>1011</sup>) 뗏은 배는  
 한가현 추강<sup>1012</sup>) 어부 풍월<sup>1013</sup>) 실러 가는 뱃지,  
 십리 장강 벽파상<sup>1014</sup>)의 왕래를 허던 거룻뱃지?<sup>1015</sup>)  
 오호상 연월 속의 범상궁 노든 뱃가?<sup>1016</sup>)  
 동강칠리탄<sup>1017</sup>)의 엄자룻<sup>1018</sup>) 뉘싯뱃가?  
 양양창과<sup>1019</sup>) 노니난디<sup>1020</sup>) 쌍쌍백구<sup>1021</sup>)가 흘리뗏네.<sup>1022</sup>)  
 “소소추풍송안군<sup>1023</sup>)의 슬피 우는 저 기력아.  
 네 어디로 행하느냐?<sup>1024</sup>)  
 소상<sup>1025</sup>)으로 행하느냐,  
 동정<sup>1026</sup>)으로 가라느냐?  
 가지 말고 게<sup>1027</sup>) 잠깐 머물러 나의 한 말<sup>1028</sup>) 듣고 가라.  
 백운청산<sup>1029</sup>) 놀든 토끼가 수궁 천리 내가 들어가드라고,  
 우리 벗님 앵무전에<sup>1030</sup>) 그 말 조금 전하여라.”  
 잔말<sup>1031</sup>)을 허고 내려갈 적에,  
 그 날사 말고<sup>1032</sup>) 풍일<sup>1033</sup>)이 사나와,  
 물결이 워르르르르르르 출렁 췌, 뒤둥거리<sup>1034</sup>) 흘러가네.

### 31. (범피중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팔경을 구경하며 수궁으로 들어간다.

[아니레] 그날사 말고 풍일이 사나와 갖고  
 물결이 워르르릉 출렁출렁허니,  
 토끼란 놈이 물을 딱 보더니마는,  
 “어따메, 저 물 좀 보소. 여보시오, 별주부.

They look at the river.  
 A boat moves gently by the waves.  
 Is it going to carry a fisherman's poem in the quiet autumn river?  
 Is it the barge that crossed a wide blue river back and forth?  
 Is it the boat in which an ancient retired politician enjoyed  
 himself on at a foggy moonlit night?  
 Is it the fishing boat of another ancient politician?  
 Sea gulls fly in pairs over the endlessly wide blue water.  
 "Wild geese, you sing sadly in a lonely autumn wind.  
 Where are you headed?  
 Are you headed to a river?  
 Are you headed to a lake?  
 Don't go. Stay there for a moment and listen to me.  
 A hare who lived in a mountain covered with white cloud is  
 going to the sea palace.  
 Please tell my friend, a parrot, about that."  
 The hare whines as he walks along.  
 Of all days, it is a windy day.  
 Strong waves of water move away, twisted and crushed.

**31. (On the Sea).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as they see the eight beautiful  
 sites.**

[Aniri] Of all days, it is a windy day.  
 Waves of water are strong.  
 Hare sees water and says,  
 "Gosh! Look at that water. Hello, Mr. Terrapin.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못 가겠소.”  
 아, 요놈이 따뜻한<sup>1035)</sup> 양지쪽을 찾아가더니,  
 제 몸뚱아리를 진짓상<sup>1036)</sup> 받듯 딱 받고,  
 제 얼굴을 반찬 토막 되작거리듯<sup>1037)</sup> 되작되작<sup>1038)</sup>하니,  
 별주부 기가막혀,  
 “야, 이놈아. 벼슬허러 가자는디  
 용대기<sup>1039)</sup> 뒷줄 땅기듯<sup>1040)</sup> 자시는<sup>1041)</sup> 꼴  
 아니꼴살시리<sup>1042)</sup> 못 보겠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어라.”  
 별주부가 물에 들어가서 동당동당<sup>1043)</sup>하고 놀며,  
 “아, 이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시오?  
 퇴공 나는 가오”  
 토끼 허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고 내 안 갈 리가 있겠소?  
 좋은 수가 있소.  
 저기 저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를 잡고 내 뒷발을 점거보아<sup>1044)</sup>  
 목물지면<sup>1045)</sup> 가되,  
 더 깊으면 안 갈라요.”  
 “글랑은 그리 허요.”  
 아, 이놈이 익히 아는 체하고 버드나무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점그러  
 할 제,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생<sup>1046)</sup> 아닌가?  
 편전<sup>1047)</sup> 살과 같이 우루루루루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꼭 물고  
**[창조]** 물속으로 울렁 울렁 울렁 울렁 울렁 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막혀,  
 “아이구, 이놈아. 좀 놓아라!



I won't get into that water even if I become a dragon king."  
 The hare goes to a warm and shiny place.  
 He carefully places his body there.  
 He brushes his face with his fore legs again and again.  
 Terrapin is stunned.  
 "You scoundrel, I am just trying to get you a government  
 position.  
 You are stubborn, and you are not pliable.  
 I can't stand you anymore.  
 You can come with me or stay there."  
 Terrapin gets into the water and moves his legs.  
 "This water is not deep enough to make you stay there.  
 Mr. Hare, I am leaving."  
 Hare says, "Hello, Mr. Terrapin.  
 Would I stay here because of the water?  
 I've got an idea.  
 I will hold that drooping willow branch and dip my hind leg  
 in the water.  
 If the water stays below my neck, I will go.  
 If the water is deeper, I won't go."  
 "Suit yourself."  
 Pretending to know something, Hare holds the willow branch  
 and tries to dip his hind leg in water.  
 Isn't the terrapin an aquatic animal?  
 Like a sharp arrow, Terrapin runs to Hare and bites his hind  
 leg.  
**[Song Mode]** Terrapin gets into the water, creating waves.  
 Hare is startled.  
 "You bastard! Let go of me!

[아니리] “야, 이놈아. 아가리<sup>1048</sup>) 벌리지 마라.

아가리에 찢물 들어가면 병어리가 되느니라.

내 등에 얹혀<sup>1049</sup>) 소상팔경<sup>1050</sup>) 구경이나 히고 가려무나.”

[아니리](조통달) “똥마렵다, 놓아라. 나 좀 살려라.”

“야, 이놈아. 똥 마려우면 물 속에다 똥 누어라.”

“아이고 이놈아. 물속에다 똥 누면 벼락맞는다더라.”

“야, 이놈아 그러면 사공들은 벼락맞다가 볼 일 못 보게야?”

“아이고, 그러면 뒤지<sup>1051</sup>)는 뭘로 할 것이냐?”

“야, 이놈아. 물속에서 뭘 뒤지가 필요허냐?

그냥 홀렁홀렁해 부러라.<sup>1052</sup>)

그리고 이놈. 아가리<sup>1053</sup>) 벌리지 마라.

아가리에 찢물 들어가면 병어리 되고,

혹시 그 간 녹을랑가 모르겠다.

그리고 산중에서 놀던 놈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소상팔경<sup>1054</sup>) 구경을 하고 가야할 것 아니냐?”

아, 할 수 있는가?

자래 등 그 좁은 데 가 납작<sup>1055</sup>) 엹져가지고<sup>1056</sup>) 소상팔경 구경을  
히고 가느디,

경치가 장히<sup>1057</sup>) 좋던 것이었다.

[진양조] 범피중류<sup>1058</sup>) 등덩실<sup>1059</sup>) 떠나간다.

망망<sup>1060</sup>)헌 창해<sup>1061</sup>)이며,

탕탕헌<sup>1062</sup>) 물결이로고나.

백빈주<sup>1063</sup>) 갈매기는 홍요안<sup>1064</sup>)으로 날아들고,

삼강<sup>1065</sup>)의 기러기는 한수<sup>1066</sup>)로만 돌아든다.

요량헌<sup>1067</sup>) 남은 소리 어적<sup>1068</sup>)이 이언마는<sup>1069</sup>)

곡종인불견<sup>1070</sup>)의 수봉<sup>1071</sup>)만 푸르렸다.<sup>1072</sup>)

[Aniri] “You, punk. Don’t open your mouth.

If salty water goes into your mouth, you will become dumb.  
Just enjoy the eight beautiful sites on my back.”

[Aniri](Jo Tongdal) “I want to take a shit. Let go of me. Help me.”

“You rat! If you want to take a shit, you can do it in water.”

“You scoundrel. If you take a shit in water, you will be struck by lightning.”

“You jerk! If you were right, boatmen would not be able to take shits because of lightning.

“Oh my god. By the way, what about a toilet paper?”

“You villain. Why do you need a toilet paper in water?

Shake your body in water.

You rat. Don’t open your mouth.

If salty water goes into your mouth, you will become dumb.

I am afraid your liver might melt down.

You lived in mountains. How can you be arrogant in water?

On the way to the sea palace, we will see the eight beautiful sites.”

Is that possible?

The hare sits on the terrapin’s small back and sees the eight beautiful sites.

The sites are spectacular.

[Jinyangjol] The terrapin and the hare go slowly in the wide sea.

The sea is endlessly wide.

The large waves are strong.

Sea gulls fly from the island of white flowers to the hill of red reeds.

Wild geese return from three rivers to another river.

A far-reaching sound seems to be from a fisherman’s flute.

When the song is over, only a few green peaks are seen.

애내성중만고수<sup>1073</sup>)난 날로 두고 이름인가?  
 장사<sup>1074</sup>)를 지내가니 가태부난<sup>1075</sup>) 간 곳이 없고,  
 떡라수<sup>1076</sup>)를 바라보니 굴삼려<sup>1077</sup>) 어복충훈<sup>1078</sup>) 무량<sup>1079</sup>)도 허뚫든  
 가?<sup>1080</sup>)  
 황학루<sup>1081</sup>)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의 사인수난 최호의 유적이라.<sup>1082</sup>)  
 봉황대<sup>1083</sup>)를 다다르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sup>1084</sup>)난 이태백이 노든 디요,<sup>1085</sup>)  
 심양강<sup>1086</sup>)을 들어가니, 백락천<sup>1087</sup>) 일거후에<sup>1088</sup>) 비파성<sup>1089</sup>)도 끊  
 어졌다.  
 적벽강<sup>1090</sup>)을 그저<sup>1091</sup>) 가라?  
 소동파<sup>1092</sup>) 놀던 곳은 의구하야<sup>1093</sup>) 있다마는,  
 조맹덕<sup>1094</sup>) 일세지웅<sup>1095</sup>) 이금에 안재재오?<sup>1096</sup>)  
 월락오제<sup>1097</sup>) 깊은 밤에 고소성<sup>1098</sup>)에다가 배를 매니,  
 한산사<sup>1099</sup>) 쇠북소리<sup>1100</sup>)는 객선<sup>1101</sup>)에 뚱뚱 들려온다.  
 진회수<sup>1102</sup>)를 바라보니,  
 격강<sup>1103</sup>)의 상녀들<sup>1104</sup>)은 망국한<sup>1105</sup>)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에<sup>1106</sup>) 후정화<sup>1107</sup>)만 부르더라.  
 소상강 들어가니 악양루<sup>1108</sup>) 높은 집은 호상에<sup>1109</sup>) 높이 뻗다.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 척<sup>1110</sup>) 부상<sup>1111</sup>)까지 일류홍<sup>1112</sup>)이 어려 있고,  
 바다가 뒤틀리며 어룡<sup>1113</sup>)이 출몰<sup>1114</sup>)허고,  
 한 곳을 당도허니 금계소리<sup>1115</sup>)가 쟁그랑 쟁 들리거늘,  
 눈을 들어 살펴보니 흰 옥 현판<sup>1116</sup>)에 황금 대자<sup>1117</sup>)로 ‘남해 수궁  
 수정문’이라 둥두렷이<sup>1118</sup>) 새겼난디,<sup>1119</sup>)  
 토끼가 보고서 좋아라고 한다.

The oar sounds seem to express anxiety.  
 Terrapin and Hare pass a place where a famous politician and poet lived in ancient times.  
 They watch a river and say hello to a loyal official who became food for fish in the river in ancient times.  
 They arrive at a tower where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Where is my hometown?  
 A fog rising up from the river intensifies my anxiety.  
 They reach another tower and see clouds hanging around the middle of Three Peaks.  
 A river flows around the island where another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Terrapin and Hare enter another river where a lute sound stopped after another ancient poet had gone.  
 They drop by Chibi River(赤壁江).  
 The beautiful site remains the same as when another ancient poet Su Dong Po(蘇東坡) enjoyed himself.  
 In ancient times Cao Cao(曹操) was here, but he has gone.  
 A boat casts an anchor near a castle at night when the moon sets and a crow cries.  
 A drum sound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boat with a traveler.  
 They see a canal.  
 Bar girls across the river did not know the fall of their country.  
 They only sang a song when thick fog hung over the cold river and the moonlight was shiny on the sandy field.  
 They enter a river and see a high pavilion on a lake.  
 They see the sun on the horizon in the east.  
 A fish and a dragon appear and disappear in the twisted sea.  
 They arrive at a place and hear the sound of a golden pheasant.  
 They raise their eyes and see a white jade board with clear and large golden letters 'The Main Gate to the Sea Palace.'  
 The hare is delighted to see it.

### 32. (토끼 잡아들임) 나졸들이 토끼를 잡아들이려고 하자,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리] 토끼란 놈이 좋아라고,

“여보시오, 별주부. 아닌 게 아니라 좋소. 좋아.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대장 좀 살게 해 주시오.”

“글랑은<sup>1120</sup>) 그리허오.

그러나 저 안에서 흑간<sup>1121</sup>) ‘토끼 잡아 들여라’ 하고 청령<sup>1122</sup>)이 나가  
든 부디 놀래지 마시오.”

“아, 그게 뭘 말이오?”

“세상 같고 보면 ‘훈련대장 입시<sup>1123</sup>)요.’ 그 말이오.”

“그 법은 못 쓰겠소.

내가 만일 훈련대장을 허면 그 법부터 뜯어고치겠소.”

그때여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sup>1124</sup>) 뜰에 공손히 복지하야<sup>1125</sup>) 여짜  
오되,

“만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sup>1126</sup>)이오.”

용왕이 반기하사<sup>1127</sup>) 겨우 일어나시는데,

삼년을 앓아논 것이 육탈<sup>1128</sup>)이 짝 되어 백다귀에다 가죽만 입고,  
눈도 게우<sup>1129</sup>) 뜨더니,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sup>1130</sup>)하야 문밖에 대령<sup>1131</sup>)하였나이다.”

“그러면 토끼를 빨리 잡아들여라.”

영<sup>1132</sup>)을 내려놓으니,

[자진모리] 좌우 나졸,<sup>1133</sup>) 금군<sup>1134</sup>) 모조리,<sup>1135</sup>) 순령수<sup>1136</sup>) 일시에  
내달아<sup>1137</sup>)

퇴끼를 에워쌀 제

### 32. (The Arrest of Hare) Guards try to arrest Hare, and Hare denies he is a hare.

[Aniri] The hare feels good.

“Hello, Mr. Terrapin. I agree the sites are great.

Let’s hurry. Let me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Don’t worry about that.

Don’t be surprised even if you hear an official order ‘Arrest Hare.’ in the sea palace.”

“What on earth are you saying?”

“The order means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s coming.’  
in the language of the land.”

“That’s a bad law.

If I become a training officer, I will change the law without  
hesitation.”

Terrapin now kneels down in the wide yard in the palace in  
a respectful manner.

“Your Majesty, this is Terrapin from the land!”

Pleased, the king manages to get up.

Having been sick for three years, he lost a lot of weight, and  
is only skin and bones.

He barely opens his eyes.

“How was your long trip in the sea?

Did you bring the hare?”

“Yes, I brought a hare alive. He is waiting outside.”

“If so, bring the hare here right away.”

The order is given.

[Jajinmori] Soldiers and royal guards on the left and right run  
forcefully.

They surround Hare,

진황<sup>1138</sup>) 만리장성 싸듯,  
 산양 싸움에 마초 싸듯<sup>1139</sup>) 첩첩이 둘러싸고,  
 퇴끼 들입다<sup>1140</sup>) 잡는 거동<sup>1141</sup>) 영문출사<sup>1142</sup>) 도둑 잡듯,  
 토끼 두 귀를 꼭 잡고,  
 “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막혀 벌렁벌렁 떨어,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달음<sup>1143</sup>)에 너를 잡아 약개장<sup>1144</sup>)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계탕<sup>1145</sup>) 달여 먹고,<sup>1146</sup>)  
 네 껍질 벗겨내어 잘랑<sup>1147</sup>) 모아<sup>1148</sup>) 깔거드면,<sup>1149</sup>)  
 어혈<sup>1150</sup>) 내종<sup>1151</sup>) 혈담<sup>1152</sup>)에는 만병회춘<sup>1153</sup>)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sup>1154</sup>)  
 “아이고, 나 개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송아지새끼요!”  
 “소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에<sup>1155</sup>) 너를 잡어  
 두피,<sup>1156</sup>) 족,<sup>1157</sup>) 살진 다리,  
 양, 횃간,<sup>1158</sup>) 처넙,<sup>1159</sup>) 콩팥  
 후박없이<sup>1160</sup>) 나눠 먹고,  
 네 뿔 빼어 활도 매고,<sup>1161</sup>)  
 네 가죽 벗겨내어 신도 짓고,<sup>1162</sup>) 북도 매고,  
 똥 오줌은 거름을 허니



as if an ancient Chinese emperor constructed the Great Wall,  
 and as if soldiers surrounded an ancient warrior in a battle.  
 They treat the Hare harshly as if they arrested a bandit.  
 They grab Hare by his ears tightly.  
 “Are you a hare, bastard?”  
 Stunned, Hare trembles.  
 “My goodness! I am not a hare.”  
 “Then, what are you?”  
 “I am a dog.”  
 “A dog is even better.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liver will be boiled down with a black chicken.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as a mat.  
 It is effective for slow blood flow, sore organs, and bloody  
 phlegm.  
 Let’s take this puppy to the king!”  
 “Oh my god. I am not a dog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calf!”  
 “A cow is far better.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Your head, skin, feet, plump leg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Your horn will be used to make a bow.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shoes and drums.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나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새끼요!”

“말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목후간족이라,<sup>1163)</sup>

요단향장천리마로다.<sup>1164)</sup>

연왕도 오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sup>1165)</sup>

너를 산 채 몰아다가 대왕전에<sup>1166)</sup> 바쳤으면 천금상<sup>1167)</sup>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루루!”

토끼를 결박하여 빨그란 주장대<sup>1168)</sup>로 꼭 찢러 드러매니,

토끼 하릴없이 대랑대랑 매달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와야!”<sup>1169)</sup>

“아, 나 탄 게 이거 무엇이냐?”

“오, 그거 수궁 남여<sup>1170)</sup>라 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살<sup>1171)</sup>을 맞을너르<sup>1172)</sup> 남여 두 번만 타거드면 웅두리

뼈<sup>1173)</sup>도 안 남겠네.”

토끼를 결박<sup>1174)</sup>하야 영덕전 너른 뜰에 동맹이쳐,<sup>1175)</sup>

“예, 토끼 잡아들였소!”

### 33. (토끼의 궤) 토끼가 궤를 내어 뺏속에 간이 없다고 돌려댄다.

[아니레] 토끼 잡혀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Alas! I am not a calf!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colt!"  
 "A horse is much better.  
 You have good eyes and legs.  
 You must be a fine horse.  
 An ancient king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Carry him inside!"  
 They tie Hare with a rope, push a red stick between his legs,  
 and carry him on their shoulders.  
 Helpless, Hare hangs on the stick.  
 "Alas! You scoundrel! Terrapin!"  
 "Yes!"  
 "What is this thing I am on?"  
 "Oh, that is a carriage in this sea palace."  
 "Ouch. If I ride this darn carriage twice, my bod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Hare is thrown down on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We have brought Hare here!"

### **33. (Hare's Trick) Hare thinks up a trick and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Taken inside, Hare takes a look around.

강한지장<sup>1176</sup>과 천택지신<sup>1177</sup>이 좌우로 옹위<sup>1178</sup>를 허였거늘,  
 눈만 깜작깜작하고 앓았을 제,  
 용왕이 분부하시되,  
 “네 토끼 듣거라.  
 내 우연득병하야<sup>1179</sup>  
 명의더러<sup>1180</sup> 물은즉  
 네 간이 으뜸이라 허기로,  
 우리 수궁의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어왔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짹 갈라 간을 내어,  
 더운 짐에 소금 찍어 두서너 점만 올려라.”  
 토끼가 생각허니, ‘별주부한테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에라, 이왕 내가 죽을 바에야 패술<sup>1181</sup>이나 한번 쓰고 죽자.’  
 토끼란 놈이 한 피를 얼른 내어 배를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sup>1182</sup>  
 용왕이 생각허기를, ‘저놈이 배를 안 때일라고<sup>1183</sup> 무수히 잔말<sup>1184</sup>을  
 헐 텐디,  
 저리 의심없이 배를 척 내민 걸 보니, 필유곡절<sup>1185</sup>이 있는 게로구나.’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오. 내가 말을 해도 끝이 안 들을 테니,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야, 이놈아. 말이나 허고 죽으려무나.”  
 “아니오. 내가 말을 해도 끝이 안 들을 테니,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아, 배 따보라고 헐 제 얼른 배 따가지고 간 내 먹었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디,

On the left and right are numerous soldier fishes from rivers,  
streams, and ponds.  
Hare blinks his eyes in anxiety.  
The dragon king speaks.  
“Hare, listen to me.  
I happened to catch a disease.  
I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your liver is the best medicine.  
I sent a loyal official to bring you here.  
Don’t resent your death.  
Hey, open Hare’s belly fast and take out his liver.  
Put his warm liver on salt and bring it to me!”  
Hare talks to himself ‘I was deceptively taken here by Terrapin  
and am about to die.  
I am going to die anyway, so let me try a trick on them before  
I die.’  
Hare thinks up a trick and sticks out his belly boldly.  
“Well, open my belly.”  
The king thinks Hare should make noises in order not to have  
his belly opened.  
There must be reason why Hare sticks out his belly boldly.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go ahead.”  
“No, you will not believe what I will say.  
Stop talking and open my belly.”  
“You villain. Say what you want to say before you die.”  
“No, you will not believe what I will say.  
Stop talking and open my belly.”  
If the king opened Hare’s belly as he was told, took out the  
liver, and ate it, nothing would happen.

꼭 일이 그릇되느라고,<sup>1186)</sup>

“아니, 이놈아. 이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허고 죽으려무나.”

[중모레]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태산이 봉퇴허여<sup>1187)</sup> 오성<sup>1188)</sup>이 음음헌디,<sup>1189)</sup>

시일갈상<sup>1190)</sup> 노래 소리

탐학헌<sup>1191)</sup> 상주임군<sup>1192)</sup> 성현<sup>1193)</sup>의 뱃속에 칠궁기<sup>1194)</sup>가 있다기로,

비간<sup>1195)</sup>의 배를 갈라 무고히<sup>1196)</sup> 죽었으나 일곱 궁기<sup>1197)</sup> 없었으니,

소퇴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은 불쌍헌 퇴명<sup>1198)</sup>만 꿔사오니,

뉘를 보고 달라허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서 보옵소서.”

용왕이 듣고 진노<sup>1199)</sup>허여,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sup>1200)</sup> 말이로구나.

의서<sup>1201)</sup>에 이르기를 비수병즉구불능식<sup>1202)</sup>허고,

담수병즉설불능언<sup>1203)</sup>허고,

신수병즉이불능청<sup>1204)</sup>허고,

간수병즉목불능시<sup>1205)</sup>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예. 소퇴가 아뢰리다.

소퇴의 간인즉<sup>1206)</sup> 월륜정기<sup>1207)</sup>로 삼겼삽더니,<sup>1208)</sup>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이내다.<sup>1209)</sup>

세상에서 병객<sup>1210)</sup>들이 소퇴 곧 얼른허면<sup>1211)</sup>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sup>1212)</sup>

간을 내어 파초 앞에다 꼭 꼭 싸서,

Things go wrong.

"You scoundrel. You will die anyway, so say what you want to say before you die."

[Jungmori] "Let me say what I want to say, Your Majesty.

A mountain collapsed, and Five Stars became dark.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f you open my belly but can't find a liver, you will only kill a poor hare.

Whom would you ask to give you a liver?

How would you get a liver?

Open my belly right away."

Listening to him, the dragon king is infuriated.

"You rat! What you said is nonsense.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 Majesty.

My liver was created by the energy from the moon.

On the full moon, I take it out.

On the end of the month, I put it back in.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if I don't take great care.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칩노<sup>1213</sup>)로 칭칭 동여,  
 영주<sup>1214</sup> 석상<sup>1215</sup>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가지<sup>1216</sup> 끝끝터리에<sup>1217</sup>  
 달아매고,  
 도화유수<sup>1218</sup> 옥계변에<sup>1219</sup> 탁족하로<sup>1220</sup>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로<sup>1221</sup> 왔나이다.”  
 용왕이 듣고 화를 내며,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내장<sup>1222</sup>은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sup>1223</sup> 출입현단 말이나?”  
 토끼가 당돌히<sup>1224</sup> 여짜오되,  
 “대왕은 지기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sup>1225</sup>  
 복희씨<sup>1226</sup>는 어이하야 사신인수<sup>1227</sup>가 되었으며,  
 신농씨<sup>1228</sup> 어쩐 일로 인신우수<sup>1229</sup>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이하야 꼬리가 저리 지드란허웁고,<sup>1230</sup>  
 소퇴는 무슨 일로 꼬리가 요리 묘뚝<sup>1231</sup>허웁고,  
 대왕의 옥체<sup>1232</sup>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퇴의 몸은 털이 이리 송살송살,<sup>1233</sup>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sup>1234</sup>가 한 가지라 뵙뵙<sup>1235</sup> 우기니 답답지 아니  
 허오리까?”  
 용왕이 듣고 진노하여,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들이고<sup>1236</sup> 임의로<sup>1237</sup>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there is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am here for sightseeing.”  
 The dragon king is indignant.  
 “You bastard! What you said is all nonsense.  
 For humans and beasts, a liver is an internal organ.  
 How can you take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Hare dares to say as follows.  
 “Your Majesty,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long tail?  
 What made my tail this short?  
 Why does Your Majesty have shiny scales?  
 Why is my body covered with soft hair?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The dragon king is exasperated.  
 “If so, do you have a hole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Yes, I have.”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란 궁기<sup>1238</sup>)가 셋이 늘어<sup>1239</sup>) 있거날,

“저 궁기가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뢰리다.

한 궁기난 대변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궁기로난 간 내고 들이고 임의로 출입허나이다.”<sup>1240</sup>)

“그러하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sup>1241</sup>)로 나오니,<sup>1242</sup>)

만물시생<sup>1243</sup>)의

동방삼팔목,<sup>1244</sup>)

남방이칠화,<sup>1245</sup>)

서방사구금,<sup>1246</sup>)

북방일륙수,<sup>1247</sup>)

중앙오십토,<sup>1248</sup>)

천지음양,<sup>1249</sup>) 오색광채,<sup>1250</sup>)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을 화하야<sup>1251</sup>)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나오니,<sup>1252</sup>)

만병회춘<sup>1253</sup>)의 명약<sup>1254</sup>)이라.

으뜸 약이 되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옳게 듣고,

“그러하면 세상에서 병객<sup>1255</sup>)들이 네 간을 먹고 효험 본 증거가 있느냐?”

“예, 증거를 아뢰리다. 증거를 낱알이 아뢰리다.

소퇴 부용<sup>1256</sup>) 소년 시절에 풍정차<sup>1257</sup>)로 게<sup>1258</sup>) 왔다가 벽파수<sup>1259</sup>)

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 무제<sup>1260</sup>) 신<sup>1261</sup>) 동방삭<sup>1262</sup>)이가 유산<sup>1263</sup>)하러 게 왔다가 덩

병<sup>1264</sup>) 건져 살려주거늘,

“Let me take a look.”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in detail.

I use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e.

I take my liver out and put it back in at my will through the last hole.”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I harmonized with the negative and positive energy of the earth and the sky, the five brilliant colors, the morning fog, and the evening dew.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My liver is a panacea.

It is the best medicine.”

The dragon king is persuaded.

“Do you have evidence that sick people in land were cured after they ate your liver?”

“Yes, let me tell you about all the evidence.

When I was a boy, I visited a place for sightseeing, fell into water, and almost died by drowning.

A subject to an ancient king visited a mountain for sightseeing, jumped into the water, and saved me.

그 은혜를 갚을 양으로 간을 내어 팔난<sup>1265</sup>만큼 떼 주었더니,  
 동방삭이 탄식하고  
 그 간을 먹은 후에 삼천갑자<sup>1266</sup>를 더 살었고,  
 그 후에 위수변<sup>1267</sup>으로 돌아들 적에 간을 내어 위수 여울에다 씻쳤  
 더니,<sup>1268</sup>  
 궁팔십<sup>1269</sup> 여상<sup>1270</sup>이가 낚시질 게 왔다가,  
 기갈<sup>1271</sup>에 표자<sup>1272</sup> 끌러 그 물 조금 떠 마시고 달팔십<sup>1273</sup>을 더  
 사시고,  
 안기생<sup>1274</sup> 적송자<sup>1275</sup>가 우리 간을 나수<sup>1276</sup> 먹고 장생불사<sup>1277</sup>하  
 였단 말 못 들었소?  
 자래를 돌아다보며,  
 “쫓쫓쫓쫓. 예기, 이 미련한 자식같으니라고.  
 아, 콧구멍이 담뱃대 무초리<sup>1278</sup> 뽀으로<sup>1279</sup> 생겼으니, 네가 안 미련  
 헐 것이냐,  
 이 썰려<sup>1280</sup> 죽일 놈아.  
 이놈아. 세상에서 날보고 요런<sup>1281</sup> 이약을<sup>1282</sup> 허였으면,  
 내 간 말고라도 우리 사돈네 간이 일만팔천여 보<sup>1283</sup>나 계수나무에  
 걸렸거늘,  
 간을 팔난만큼<sup>1284</sup> 떼어다가 대왕 병도 즉차하고,<sup>1285</sup>  
 너도 충성이 나타나서 양주<sup>1286</sup> 화합이 좋을 것을.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sup>1287</sup>이 쓸 데가 없네.”

To return his favor, I cut a little piece off my liver and gave it to him.

He was thankful to me.

After he ate the little piece, he lived for 180,000 years.

Afterwards, I went to a river, took out my liver, and washed it in the river.

An ancient politician who lived a hard life for eighty years was fishing in the river.

Thirsty, he drank a little water from the river with a gourd dipper and lived another eighty years.

Didn't you hear that two legendary gods ate a hare's liver and became immortal?

Hare turns around and sees Terrapin.

"How pathetic and stupid you are!

Your nostril looks like the end of a tobacco pipe, so you cannot but be stupid.

You should be beaten to death.

You villain. You should have told me the truth.

In addition to my liver, about 18,000 livers of my relatives by marriage are hanging on cinnamon trees.

Just a little bit of a liver would cure your king immediately.

Your loyalty would stand out, and you will get along with the king.

How stupid you are, Terrapin!

It is of no use to regret the opportunity you missed."

### 34.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에 속아 토끼를 살려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리] 이렇게 토끼란 놈이 용왕한테 거짓말을 어떻게 잘 해냈던지,  
용왕이 딱 돌렸겠다.<sup>1288)</sup>

“여봐라, 까딱했으면 아까운 인물을 하나 여기서 없앨 뻔했구나.

여보, 퇴공.

잠시 내가 거증<sup>1289)</sup>한 것은 자네가 훈련대장을 해가지고 이 시석  
중<sup>1290)</sup>에 다닐지 못 다닐지 그 답력<sup>1291)</sup>을 보느라고 그런 것이니,  
거, 노여워 생각하지 말게.”

“무슨 그럴 리가 있사오리까?”

여봐라, 퇴공에게 해하는 자<sup>1292)</sup> 있으면 정배<sup>1293)</sup>를 보낼 테니 각별  
히 조심하고,

술상 들이도록 하여라.”

뜻밖에 토끼를 위하여 술상이 들어왔으니,

세상과 꼭 같이 차려왔던 것이었다.

자하주,<sup>1294)</sup> 천일주,<sup>1295)</sup> 기린포<sup>1296)</sup>로 안주 놓고,

앵무병,<sup>1297)</sup> 유리잔<sup>1298)</sup>에 천일주를 가득 부어,

용왕이 주인지도리<sup>1299)</sup>허느라고 한 잔 먹고,

아, 이 토끼란 놈,

이 잡것<sup>1300)</sup>이 권한다고 한 잔,

어쩐가 보느라고 한 잔,

맛나다고 한 잔,

겉김에<sup>1301)</sup> 주는 대로 훌쩍훌쩍<sup>1302)</sup>해 논 것이 한 오륙십 배<sup>1303)</sup>를  
했겠다.

아, 이 방정맞은 토끼란 놈이 겉김에 술을 주는 대로 훌쩍훌쩍 들이마  
셔 놓은 것이 술이 깜빡 취했겠다.

### 34.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Fooled by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Hare was so eloquent that the dragon king was taken in.

“Hey, we almost killed an innocent person here.

Hello, Mr. Hare.

I was testing you because I wanted to know whether you are brave enough as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to confront flying arrows and stones.

Don’t be angry with me.”

“How could I be angry with you?”

Hey, if anybody hurts Mr. Hare, he will be banished, so be careful.

Bring a wine table here.”

Unexpectedly, a wine table is brought to Hare.

The wine table is prepared as that of humans.

There are a wine of purple cloud, a thousand-day-old wine, and a giraffe meat.

The thousand-day-old wine is poured into a shell glass up to the brim.

The dragon king drinks a glass of wine as a host.

This hare is a bastard.

He drinks a glass of wine because it is offered.

He drinks another glass of wine because he wants to see what happens.

He drinks another glass of wine because it tastes good.

He was scared, so he drinks, as offered, 50 or 60 glasses of wine little by little.

This rash Hare was scared, so he drinks, as offered, little by little, and he suddenly gets drunk.

이놈이 취중에 용왕의 자<sup>1304</sup>)를 제 손수 지어가지고,  
 “여보소, 용검이! 내가 동의보감<sup>1305</sup>)을 다 봤으되  
 토끼 간 약 된단 말은 금시초문<sup>1306</sup>)이오.”  
 ‘아차차차, 춘치자명<sup>1307</sup>)이로고.’  
 “아, 내가 세상에서 듣자허니 수궁 풍류<sup>1308</sup>)가 종단 말을 들었소이다.  
 한번 들려주소.”  
 뜻밖에 수궁 풍류가 낭자<sup>1309</sup>)허는디,  
 [엇모레] 왕자 진<sup>1310</sup>)의 봉피리.<sup>1311</sup>  
 괘처사<sup>1312</sup>) 죽장구<sup>1313</sup>) ‘찌리정 쿵 쩡저꿍.’  
 성연자<sup>1314</sup>) 거문고 ‘설그렁 덩 둥덩둥.’  
 장자방<sup>1315</sup>)의 옥통소 ‘띠띠루 띠루 띠.’  
 혜강<sup>1316</sup>)의 해금<sup>1317</sup>)이며, 완적<sup>1318</sup>)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sup>1319</sup>  
 능파사,<sup>1320</sup> 보허사,<sup>1321</sup> 우의곡,<sup>1322</sup> 채련곡<sup>1323</sup>)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현 풍악<sup>1324</sup>)소리 수궁이 진동헌다.  
 토끼도 신명내어<sup>1325</sup>),

### 35. (토끼 방정) 토끼가 출랑거리며 춤을 추고 놀다가 간이 들었다고 의심받자, 급히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아니레] 앞발을 뵈 산 자<sup>1326</sup>) 본으로<sup>1327</sup>)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중중모레] “앞내 버들은 청포장<sup>1328</sup>) 두르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sup>1329</sup>)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춘흥<sup>1330</sup>)을 못 이기어



This fellow talks to the dragon king in an informal manner.  
 “Hello, Dragonie! I read a classic medical book.  
 This is the first time I hear a hare’s liver is a medicine.”  
 He murmurs, “I’ve asked for my own death.”  
 “I heard on the land that the music of the sea palace is great.  
 Let me enjoy some.”  
 Suddenly, music shakes the sea palace.  
**[Eotmori]** A phoenix-shaped pipe is played.  
 A bowl-shaped drum creates its own sound.  
 A six-stringed zither makes its unique sound.  
 A jade flute generates its peculiar sound.  
 They play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devine pond song and a legendary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Hare is exuberant.

**35. (Hare’s Flippancy) Hare dances frivolously. Others  
 think there must be a liver in his belly. He says  
 he wants to go back to the land immediately.**

**[Aniri]** Hare holds up his fore legs to form a Chinese character  
 ‘Shan(山)’ and enjoys himself.  
**[Jungjungmori]** “Green willows are along the front stream.  
 Green willows are along the back stream.  
 A branch is torn off.  
 Another hangs down.  
 I can’t resist this spring beauty.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거리고 노  
 닐 적에,  
 어머니는 동우<sup>1331</sup>)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sup>1332</sup>)를 지고,  
 노고지리<sup>1333</sup>)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치켜들고 출랑출랑<sup>1334</sup>) 노닌다.<sup>1335)</sup>  
**[아니리]** 이때 대장 범치<sup>1336</sup>)란 놈이 토끼 뒤를 줄줄 따라다니다 ‘출랑  
 출랑’ 소리를 듣고,  
 이놈 여들없이,<sup>1337)</sup> “옛다.<sup>1338)</sup> 토끼 뱃속에 간 들었다!”  
 토끼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어느 시러베아들놈이 내 뱃속에 간 들었다고 허느냐?  
 빈 속에 술잔이나 먹었더니  
 똥덩이가 떠다니느라고 출랑거리는디,  
 어느 놈이 간 들었다고 허느냐?”  
 이렇게 장담은 하였으나, 오래 지체했다가는 꼭 배를 때일 모양이라,  
 용왕을 속인 김에 세상을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허고  
 용왕께 여짜오되,  
 “대왕의 병세<sup>1339</sup>) 만만위중<sup>1340</sup>)하오니, 소신이 세상을 나가서 간을  
 빨리 가져오겠나이다.”  
 “글랑은 그리허오.  
 여봐라, 별주부야. 퇴공을 모시고 나가서 간을 주거든 속히 가져오도  
 록 하여라!  
 그리고 퇴공을 꼭 모시고 들어오도록 허여라.”  
 별주부가 옆에 있다 기가 막혀 왕에게 고허는디,

I dance, letting myself move by the wind and by the water waves.

My mother carries a water jar on her head.

My father carries an iron pot on his back.

A skylark sings a song.”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dances flippantly.

**[Aniri]** At that moment, a goby follows Hare and hears a sound from Hare.

He shouts, “Look! There is a liver in Hare’s belly!”

Shocked, Hare slumps down.

“Who dares say there is a liver in my belly?

My stomach was empty when I drank wine.

Some dung floats in my belly, making sounds.

Who is saying there is a liver in my belly?”

Hare spoke with assurance, but it looks like if he stays longer, his belly will be opened.

Hare thinks he should go back to the land quickly while the king is fooled.

He speaks to the king.

“Since Your Majesty is seriously ill, I will go out to the land and bring my liver here immediately.”

“Suit yourself.

Hey Terrapin, Help Mr. Hare go back to the land and bring his liver here immediately!

Be sure to come here with Mr. Hare.”

Terrapin, who was nearby all along, is stunned and speaks to the king.

### 36.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창조] 어명을 내려노니,  
[중중모리]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토끼란 놈 본시<sup>1341</sup>) 간사하와,<sup>1342</sup>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면, 초목금수<sup>1343</sup>)라도 비소<sup>1344</sup>)할 테요,  
맹획<sup>1345</sup>)을 칠종칠금<sup>1346</sup>)허던 제갈량<sup>1347</sup>)의 재주 아니어든,<sup>1348</sup>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의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sup>1349</sup>)을 멸하야<sup>1350</sup>) 주웁고,  
소신을 능지처참<sup>1351</sup>)허드래도 여한<sup>1352</sup>)이 없사오니,  
당장의 배를 따 보옵소서.”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놈아.  
왕명이 지중<sup>1353</sup>)커늘 내가 어이 기망허랴?<sup>1354</sup>  
옛 말을 못 들었느냐?  
하걸<sup>1355</sup>)이 학정<sup>1356</sup>)으로 용봉<sup>1357</sup>)을 살해코<sup>1358</sup>) 미구에<sup>1359</sup>) 망  
국<sup>1360</sup>)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 너그<sup>1361</sup>) 나라 사<sup>1362</sup>)가 되야,  
너의 용왕 백 년 살 테<sup>1363</sup>)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sup>1364</sup>)을 한 날 한 시에 모두 다 몰살<sup>1365</sup>)시키리라.

36. (Terrapin's Entreaty)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Song Model] The king gives the order.

[Jungjungmori] Terrapin speaks in tears.

Terrapin speaks in tears.

"A hare is originally a wicked animal.

If we don't take the liver out of Hare's belly now, grasses, trees, and animals will laugh at us.

I am not th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will I be able to get the hare once we set him free?

Cut his belly open now. It would be good if a liver is in it.

If there is no liver, you can kill all of my family and relatives.

I will not resent you even if you chop my body into pieces.

Please cut Hare's belly open immediately."

Hare is struck dumb.

"Hey you villain. You bad terrapin!

The king's order is to be respected. How can I deceive him?

Don't you know the old saying?

An atrocious king in ancient China killed his good official,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n it.

If there is no liver in it,

my poor soul will become an evil spirit of this country,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100 years,

and my evil spirit will massacre all the officials in the sea palace at one time.

아나 옛다,<sup>1366)</sup> 배 갈러라!

똥밖에는 든 것이 없다.

내 배를 갈라 네 보아라.”

[아니레] 어떻게 토끼란 놈이 말을 잘 해냈던지 용왕이 딱 둘러가지고,<sup>1367)</sup>

“여봐라, 또 잔말 말고

어서 퇴공을 모시고 나가 간을 주거든 속히 가지고 오너라.”

어명이 지엄하니,

별주부 하릴없이

수변<sup>1368)</sup> 가상<sup>1369)</sup>으로 나오다가 토끼를 물그러미 보더니,

“너 이놈, 왕명이라 다시 세상을 나가기는 나간다면,

네놈 기본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 썰러죽일<sup>1370)</sup> 놈아, 이놈아.”

아, 할 수 있는가?

자래 등 그 좁은 데가 엮여가지고<sup>1371)</sup> 세상을 다시 나오는데,

경치가 장히<sup>1372)</sup> 좋던가 보더라.

### 37. (토끼 생환) 토끼가 별주부 등에 업혀 세상으로 나온다.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sup>1373)</sup>를 지내어 백로주<sup>1374)</sup>를 어서 가자.

고국산천을 바라보니 청천외에<sup>1375)</sup>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하니

부지하처조상군고?<sup>1376)</sup>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Open my belly and look inside.”  
**[Aniri]** Hare is so eloquent that the dragon king is taken in completely.  
 “Hey, stop the noise.  
 Take Mr. Hare to the land and bring his liver here immediately.”  
 The king’s order is grim.  
 Terrapin has no choice.  
 While Terrapin sets out for the beach, he looks at Hare vacantly.  
 “You bastard. I am going back to the land because of the king’s order.  
 You must have qualms of conscience.  
 You are a bastard to be beaten to death.”  
 Terrapin can’t beat Hare.  
 Hare lies face down on Terrapin’s small back and returns to the land.  
 The scenery is spectacular.

### **37. (Hare Returns Alive) Hare comes back to the land on Terrapin’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My country is below the blue sky far from here.  
 The sun sets on the long sandy field, and a mountain with the autumn color is far from here.  
 It is not clear where tribute should be paid to the ancient queens.

한 곳을 다다르니 한 군자<sup>1377)</sup>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서  
 문왈,<sup>1378)</sup> “퇴공은 하이지차하오?”<sup>1379)</sup>  
 토끼가 듣고 대답을 허되,  
 “회족청산허니  
 관불과제관이요.  
 탁족무림허고  
 태불과봉황이라.  
 소무지식하여  
 유매평생이라.”<sup>1380)</sup>  
 한 곳을 당도허니,  
 뚝대 치는 저 사공은 월범려<sup>1381)</sup> 아닐런가?  
 함외장강공자류<sup>1382)</sup>는 등왕각<sup>1383)</sup>이 여기로구나.  
**[중중모리]** 백로주<sup>1384)</sup> 바빠 지내어 적벽강<sup>1385)</sup>을 당도허니,  
 소자침<sup>1386)</sup> 범중류<sup>1387)</sup>로다.  
 동산에 달 떠와  
 두우간<sup>1388)</sup> 배회허고,  
 백로황강<sup>1389)</sup>을 함께 가.  
 소지노화월일선<sup>1390)</sup> 추강<sup>1391)</sup> 어부가 빈 배.  
 기경선자<sup>1392)</sup> 간 연후에 공추월지단단.<sup>1393)</sup>  
 자래 등에다 저 반달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sup>1394)</sup>  
 원해근산<sup>1395)</sup> 좋을시고.  
 기수<sup>1396)</sup>로 돌아들 제,  
 어조하던<sup>1397)</sup> 강태공<sup>1398)</sup>은 위수<sup>1399)</sup>로 돌아들고,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place where a scholar stands.  
 He wears blue clothing and a black hat.  
 He asks, "Mr. Hare, what brought you here?"  
 Hare responds as follows.  
 "I came back to the green mountains.  
 I can't just pass by them because I have missed them so much.  
 They were not trodden upon by dirty feet.  
 It is so peaceful that even a phoenix will not just go by them.  
 I was not knowledgeable.  
 I almost became a wandering ghost."  
 They reach a place.  
 The boatman setting up a sail must be an ancient politician.  
 A river flows incessantly below a tower.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hurriedly pass by a sandy  
 island and get to Chibi River(赤壁江).  
 An ancient Chinese poet Su Dong Po(蘇東坡)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The moon moves between Big Bear and the Herdsman.  
 A white heron crosses a river.  
 With a smile, the heron points to a boat loaded with white reed  
 flowers and moonlight.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there is nothing but the full  
 moon in the sky.  
 Put that half moon on Terrapin's back.  
 Let's hurry to my hometown.  
 Let's enjoy watching the bright moon in mountains.  
 It is good that mountains are close and the sea is far.  
 Hare and Terrapin reach a river.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in a tributary of this river.

은린옥척<sup>1400</sup>)뿐이라.

벽해수변<sup>1401</sup>)을 당도하여,

깡짱 뛰어내리며 모르는 체로 가는구나.

### 38. (토끼 별주부 조롱)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를 욕하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시오, 퇴공!

간 좀 빨리 가져오시오.”

토끼란 놈이 올라가다 힐끗힐끗<sup>1402</sup>) 쳐다보며

욕을 한바탕 하고 가는데,

옛날 여주 사시던 염계달<sup>1403</sup>) 선생의 경드름제<sup>1404</sup>)로 내갈기고 가겠다.

[중모리] “네기를 붙고 발기를 헐 녀석.<sup>1405</sup>)

뺏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나?

미련허드라. 미련허드라. 너그<sup>1406</sup>) 용왕이 미련허드라.

너그 용왕 실겁기<sup>1407</sup>) 날갈고,<sup>1408</sup>) 내 미련키 너의 용왕 깔고보면 영락없이 죽을 걸.

내 밑궁기<sup>1409</sup>) 셋이 아니드라면, 내 목숨이 어찌 살어나리?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sup>1410</sup>)으로 나는 간다.”

### 39. (토끼 그물에 걸림) 그물에 걸려 죽게 된 토끼가 쉬파리들에게 쉬를 슬어달라고 부탁하자, 쉬파리가 사람의 내력을 이르며 사람의 손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별주부 기가막혀,

There are large shiny fishes.  
They arrive at a blue shore.  
Hare jumps dow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38. (Hare Mocks Terrapin.) After arriving in the land,  
Hare curses Terrapin and goes to mountains.**

[Aniri] Terrapin is speechless.  
“My goodness, Mr. Hare!  
Bring your liver right away.”  
On the way to mountains, Hare glances at Terrapin.  
He curses Terrapin.  
Hare’s curse was well imitated by a celebrated singer, Yeom Gyedal.  
[Jungmori] “You are a villain to be quartered.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my belly?  
How stupid!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stupid.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as as smart  
as I, and if I was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if I didn’t have three holes in  
my body?  
I am going back to the green mountain covered with white cloud.”

**39. (Hare Gets Caught in a Net.) Caught in a net, Hare  
asks flesh flies to lay eggs on him. The flesh flies  
talk about the background of human beings and  
say that Hare cannot defeat them.**

[Aniri] Terrapin is dumfounded.

“아이고, 퇴공! 간 좀 팔날<sup>1411</sup>만큼 때주고 가란 말이오!”  
 가던 토끼 돌아서더니,  
 “너 이놈, 별주부야.  
 너 허든 소행을 생각하면,  
 저기 내민 바위에다 네 복판<sup>1412</sup>을 내 발뒤꿈치로 작신<sup>1413</sup> 밟아서  
 바싹 부서지는 소리가 나게 죽일 일로되,  
 수로 만리를 왔다갔다 다니던 정으로 보아 살려주는 것인개,<sup>1414</sup>  
 다시는 그런 보초때기 없는<sup>1415</sup> 짓 하지 말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나라 들어가서 보니, 네 충성이 지극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약을 일러줄 테니,  
 꼭 나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너그 수궁 들어가본개<sup>1416</sup> 예쁜 암자래 많더구나.  
 그것을 하루 일천오백 마리씩 석달 열흘간만 달여 먹여봐라.  
 또 한 가지는 복쟁이<sup>1417</sup>란 놈 서너 마리쯤허고,  
 두꺼비 쓸개 구해 넣고,  
 빈대 오줌 서 말에다,  
 하루살이 월경<sup>1418</sup> 닳 되,  
 모기 눈썹 일곱 되를 딱 넣어가지고  
 폭신<sup>1419</sup> 달여서 먹여봐라.  
 좌우간 약사발 딱 때면서 죽든지 살든지 양단간에<sup>1420</sup> 끝장이 날 것  
 이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는 하릴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 살아났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귀를 털고 방정을 떨다가,  
 비둘기 잡으려고 쳐논 그물에 가 뒷발이 딱 걸렸겠다.

“Hello, Mr. Hare! Give me a little bit of your liver!”  
 Hare turns around.  
 “Terrapin! You rascal!  
 Thinking about your behavior,  
 I feel like to putting you on the protruding rock over there and  
 kicking in your chest with my heel.  
 You will be broken into pieces and die.  
 I am letting you live because you carried me on your back on  
 the long journey in the sea.  
 Don’t act stupid like that again.  
 I realized in your country your loyalty to the king is great.  
 Let me tell you about a medicine.  
 Do as I tell you to do without fail.  
 I noticed many beautiful female terrapins in the sea palace.  
 Your king should eat 1,500 female terrapins a day for 100 days.  
 In addition, get a few blowfish.  
 Prepare toads’ gall bladders,  
 three boxes of housebug’s pee,  
 five boxes of day flies’ menstrual blood,  
 seven boxes of mosquitos’ eye dregs.  
 Boil them hard and give them to your king.  
 The moment the medicine bowl leaves your king’s mouth, he  
 will be determined to live or die.  
 Go back to your country now.”  
 Terrapin cannot help going back to the sea palace.  
 Hare escaped death, so he jumps around joyfully.  
 He acts flippantly, scratching his ears.  
 His hind leg was caught in a net set up to catch a pigeon.

[창조]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내가 수궁에서 죽었드라면, 정조<sup>1421)</sup> 한식<sup>1422)</sup> 단오<sup>1423)</sup> 추석이나 받아먹을 텐디,

이제는 뉘놈의 뱃속에다 장사를 지낼거나?”

[아니레] 이리허고 있을 적에, 어디서 쉬파리떼<sup>1424)</sup>가 ‘뿡’하고 달려드니,  
“아이고, 쉬낭청<sup>1425)</sup>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오, 너 이놈. 그물에 걸려 꼭 죽게 되었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으니,

내 몸예다가 쉬<sup>1426)</sup>나 좀 슬어주시오.”<sup>1427)</sup>

“네가 살아날라고 허는 모양인디,

사람의 손을 당힐쏘냐?”

“사람의 손이 어떻단<sup>1428)</sup> 말씀이오?”

“사람의 손 내력<sup>1429)</sup>을 이를 테니 한번 들어봐라.”

[자진모레]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허는 것은 얹어노면<sup>1430)</sup> 하늘이요,<sup>1431)</sup>

뒤세노면<sup>1432)</sup> 땅인디,<sup>1433)</sup>

이리저리 금<sup>1434)</sup>이 있기는 일월<sup>1435)</sup>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잔가락<sup>1436)</sup>이 두 마디기는<sup>1437)</sup> 천지인<sup>1438)</sup> 삼재<sup>1439)</sup>요,

집가락<sup>1440)</sup>이 장가락<sup>1441)</sup>만 못허기는<sup>1442)</sup>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sup>1443)</sup>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sup>1444)</sup> 가락이 장가락만 못허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sup>1445)</sup>가 그 중에 짧기는 시월, 동지, 섣달인디,

자오묘유<sup>1446)</sup>가 여가<sup>1447)</sup>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sup>1448)</sup> 선천팔괘<sup>1449)</sup>가 여가 있고,

불도<sup>1450)</sup>로 두고 일러도 감중련,<sup>1451)</sup> 간상련,<sup>1452)</sup> 여가<sup>1453)</sup> 있고,

**[Song Model]** “My goodness. What should I go?”

If I died in the sea palace, a ritual will be performed for me  
every big holiday.

Whose belly will my body serve now?”

**[Aniri]** While Hare is caught in the net, a group of flesh flies  
come to him.

“Flesh flies! My cousins! Where have you been?”

“You punk. You are caught in the net. You are bound to die.”

“It’s up to me whether I live or die.

Please lay some eggs on my body.”

“It looks like you are struggling to survive.

But how can you defeat a human hand?”

“What is great about a human hand?”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hand.”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humans.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two knuckles in the thumb stand for heaven, earth, and  
humans.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육도기문<sup>1454</sup>) 대장경,<sup>1455</sup>)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니,<sup>1456</sup>)  
네 아무리 피를 낸들<sup>1457</sup>) 사람 손 하나 못 당허리라.  
두 말 말고 너 죽어라.”

#### 40. (초동목수 신세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풀 베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리]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으니,  
내 몸애다 쉬나 좀 슬어주시오.”  
“쉬 스는<sup>1458</sup>) 것은 일답지 않으니,  
글랑 그리 허시오.”  
쉬파리떼가 달라들어 토끼 몸뚱이에다 쉬를 빈 틈 없이 다뺏<sup>1459</sup>) 슬  
어놓고 훨훨 날아간 뒤,  
토끼란 놈은 쉬 한 짐 짊어지고 죽은 듯이 처져 있을 제,  
마침 저 아래에서 초동목수<sup>1460</sup>) 아이들이 지게 발대<sup>1461</sup>)를 짊어지고  
외나리<sup>1462</sup>)를 허면서 올라오는디,  
[중모리] “어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너 너화로구나.  
사람이 세상에 삼겨나서<sup>1463</sup>) 별로 후박<sup>1464</sup>)이 없건만은,  
우리네 팔자는 무슨너르<sup>1465</sup>) 팔자로서, 심심산곡<sup>1466</sup>)을 다니는가?  
여보아라, 동지<sup>1467</sup>)들아.  
너는 저 꼴을 베고,  
나는 이 꼴을 베어,  
부러진 잡목, 떨어진 낙엽을 긋고,  
베고, 엄똥그려<sup>1468</sup>)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40.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It's up to my ability whether I live or die.  
Please lay some eggs on my body."

"It's no sweat to lay eggs.

I will do it for you."

The flesh flies lay a lot of eggs on Hare's body, leaving no empty  
spot, and fly away.

With a lot of eggs on the back, Hare remains still as if he were  
dead.

Just in time,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come up to the  
mountain with an A-framed carrier on their backs, as they sing  
a folk song.

[Jungmo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When the universe and humans were created, there was not  
much inequality.

How come our fate is miserable to wander around in deep  
valleys?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at valley.

I will work in this valley.

Let's rake broken scrubs and fallen leaves.

Let's cut trees down and wrap them up.

위부모처자<sup>1469</sup>) 극진공대<sup>1470</sup>)를 하여 보세.

어이 가리너 너화 넘자.”

#### 41.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리] 이리 한참 올라가다가 그물에 걸린 토끼를 봤겠다.

“야들아.<sup>1471</sup> 토끼 걸렸다!

불 피워라.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뒷다리를 쑥 빼서 보니 쉬를 다뺏 실었지.

“아따. 이놈 걸린 지 오래 되었다.

쉬를 다뺏 실었다.”

“냄새를 맡아 보아라.”

이놈이 냄새를 맡되 머리쯤 맡았으면 잘 구워 먹고 갈 텐디,

하필이면 밑궁기다가<sup>1472</sup> 맡어논 것이,

피많은 토끼가 수궁에서 참았던 도토리 방귀를 시르르르 똥어노니,

구렁이 썩은 내<sup>1473</sup>)가 나졌다.

“아따, 걸린 지 오래 되었는가부다.”

“아, 그러면 내쫓버려라.”<sup>1474</sup>)

획 던져노니,

토끼란 놈 저쪽 건너편에 오뚝 서더니,

“야, 이 시레비아들놈들아.

내가 수궁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디,

네놈들 손에 죽을 성싶으냐?”<sup>1475</sup>)

아, 이놈이 또 한 목숨 살아났대서 한번 놀아보는디,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as best as we can.  
Where should we go?"

#### 41. (Hare Survives) Wit saves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While climbing the mountain, the boys see a hare caught  
in the net.

"Look! A hare is caught in the net!

Make fire. Let's roast the hare, eat it, and go up to the  
mountain."

One of them holds up the hare's hind leg and learns that it is  
covered with the eggs.

"Gee, it must have been caught a long time ago.

It is teeming with fly eggs."

Take a smell at it."

If this boy smelt the hare's head, they would eat it and climb  
the mountain.

However, he moves his nose to the hare's anus and smells it.  
The cunning hare slowly releases an acorn fart he held back  
since he was in the sea palace.

He smells like a rotten snake.

"My goodness. It must have been trapped for a long time."

"Then, throw it away."

They throw the hare away.

Hare stands up straight on a place away from the boys.

"Hey! You are all bastards.

I deceived even the dragon king and came back alive.

Do you think I will die in your hands?"

Escaping another danger, Hare acts flippantly.

[중중모리] “관대장자<sup>1476</sup>) 한고조<sup>1477</sup>) 국량<sup>1478</sup>) 많기가 날만허며,<sup>1479</sup>)  
 운주결승<sup>1480</sup>) 장자방<sup>1481</sup>)이 의사<sup>1482</sup>) 많기가 날만허며,  
 신출귀몰<sup>1483</sup>) 제갈량이 조화 많기가 날만허며,  
 무릉도원<sup>1484</sup>) 신선이라도 한가허기가 날만허며,  
 옛 들던 청산 두견,  
 자주 운다 각 새 소리.  
 타향 수궁을 갔던 벗님 고국산천이 반가워라.”  
 기산<sup>1485</sup>) 광야 너룬<sup>1486</sup>) 천지, 금잔디 좌르르르 깔린 디<sup>1487</sup>) 이리 뛰  
 고, 저리 뛰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 42.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독수리를 속이고 살아난다.

[아니리] 이리 한참 놀고 있을 적에,  
 어디서 독수리란 놈이 ‘웻’<sup>1488</sup>)하고 오더니,  
 토끼 대그뻥<sup>1489</sup>)을 후닥딱 채가지고 올라가니,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너 이놈. 내가 등 떠 다니다가 하도 시장해서 너를 잡아먹을라고 왔  
 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술라요?”<sup>1490</sup>)  
 “어두일미<sup>1491</sup>)라 허니,  
 맛 좋은 대구리<sup>1492</sup>)부터 씹어 먹을란다.”  
 [창조]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잖으나,<sup>1493</sup>)  
 나의 설음이나 들어보시오.”

[Jungjungmori] “I am more broad-minded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I have more ideas than an ancient military planner.

I can work out more miracles than an elusiv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Zhu Ge Kong Ming(諸葛孔明).

My life is more leisurely than that of gods in paradise.

Green mountains and the cry of a cuckoo sound familiar to me.

Birds are chirping.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and am glad to see my country again.”

Hare jumps around on a wide field covered with the golden grass.

“Hurray! Oh boy! Yippee! What a delight! Whoopee!”

**42.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d Escapes.) Hare is caught by an eagle, but deceives the eagle and escapes from him.**

[Aniri] Hare dances and sings joyously as said above.

An eagle comes fast from somewhere.

He swiftly grabs Hare’s head and flies up.

“General, where have you been?”

“You rat! I was hovering around. I was so hungry that I came down to eat you.”

“General, which part of my body do you want to eat first?”

“It is said a head is the most delicious part of a fish.

So I will bite your delicious head first.”

[Song Mode] “General, I don’t resent my death.

But listen to my sorrow.”

[아니레] “네 설음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놈이 청승<sup>1494</sup>)을 한번 떨어보는디,

[중모레]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냐? 아이고, 이를 어쩔거냐?

수궁천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내온 것을 무주공산<sup>1495</sup>)에 던져놓고,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썰소이까?”

[아니레]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이고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오.

제가 이번에 수궁을 갔다 왔지요.

수궁을 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죽치<sup>1496</sup>)란 것을 줍니다.”

“의사죽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상하게 생겼는디,

그놈을 탁 펴놓고 한 궁기<sup>1497</sup>)를 탁 치면서, ‘병아리새끼 나오니라’

하면,

병아리새끼가 하루 일천오백마리씩 꾸역꾸역 나오고요,

또 한 궁기를 탁 치면서 ‘돼지 창사<sup>1498</sup>) 나오니라’ 하면,

하루에 일천오백 근씩 꾸역꾸역 나오고요.

아, 이렇게 좋은 보물을 저 무주공산에 던져놓고 와서

임자 없이 죽게 되니,

그 아니 썰소이까?”<sup>1499</sup>)

“야, 이놈 토끼야. 너 그것 나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드리고말고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바위틈에다 두었지요.”

독수리란 놈이 토끼를 탁 채가지고 훅훅 날아

바위틈에다 딱 내려놓고,

[Aniri] “What is your sorrow?”

This villain pretends to be pitiful.

[Jungmori] “Alas.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A thing I managed to bring from the distant sea palace is kept  
in an empty mountain.

I will die before it goes to somebody.

I feel resentful!”

[Aniri] “You villain. What is that thing?”

“General, please listen to me.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In the sea palace, the dragon king gave me Wish-Granting Bag.”

“What is Wish-Granting Bag?”

“It looks weird.

Unfold it, hit one of the holes on it, and say, ‘Come out chicks.’

1,500 chicks come out continuously all day.

Hit another hole and say ‘Come out, pig’s intestines.’

1,500 kg of them will come out continuously all day.

I kept the marvelous treasure in an empty mountain.

I am dying before handing it over to its owner.

Isn’t this sad?”

“Hey hare. Will you give it to me?”

“General, if you spare my life, I will certainly give it to you.”

“Where is it?”

“It is between rocks over there.”

The eagle grabs Hare fast and flies up vigorously.

He puts Hare between the rocks.

“너 이놈, 토끼야. 나 시장해 죽겠다.

얼른 가서 의사쭈치 내오니라.”<sup>1500)</sup>

토끼란 놈이 또 꺾을 내보는데,

“장군님, 내가 저 안에 들어갈 때 내 뒷발목을 꼭 잡고

내가 달만허면,<sup>1501)</sup> ‘놔주시오. 놔 주시오.’

허면 조금씩 놔주시오.”

“오냐. 그리 해라.”

“장군님. 달만허요. 아, 장군님. 달만허요.”

‘조금, 조금’ 허더니 뒷발을 탁 차고 바위틈으로 쏙 들어가서,

느닷없이 시조 반 장<sup>1502)</sup>을 허던 것이었다.

[시조창] “세월이 여류하야<sup>1503)</sup> 돌아간 봄 다시 온다.”

[아니레] “네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해서 죽겠다는데,

내가 한가한치라고<sup>1504)</sup> 시조 반 장을 부르고 있냐?

너 이놈, 어서 가지고 안 나와?”

“너 이놈, 독술아.<sup>1505)</sup>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박<sup>1506)</sup>은 날아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너 다시는 안 나올래?”

“내가 노래에<sup>1507)</sup> 바깥 출입 할 수도 없고,

안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sup>1508)</sup>이나 혈란다.

이 시러베아들놈아! 이것이 바로 의사쭈치란 것이다.”



“Hare, you villain. I am very hungry.  
 Go and bring Wish-Granting Bag out immediately.”  
 Hare thinks up a good idea.  
 “General, hold my hind leg tight when I go inside.  
 If I almost reach the bag, I will say ‘Release me.’  
 Then, please release me little by little.”  
 “No problem.”  
 “General, I almost reached it.”  
 After saying ‘a little more, a little more.’ Hare kicks the eagle  
 with his hind leg and goes deep inside.  
 Out of the blue, he recites a poem.  
**[Poetic Mode]** “Time flies like an arrow, and spring returns.”  
**[Aniri]** “Hare, you scoundrel.  
 I am starving now.  
 How can you leisurely recite a poem?  
 Bring the bag out quickly, you bastard.”  
 “Eagle, you bastard!  
 If I kick you in the head, your head will fly away.  
 Get lost.”  
 “Don’t you come out?”  
 “I am old, so I can’t go out.  
 I will only take care of my grandchildren here and serve myself.  
 You bastard! This is Grant-Wishing Bag.”

43.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용왕은 병이 낫고, 토끼는  
산중에서 늙도록 살아간다.

[엇중모리] 독수리 그제야 틀린 줄을 알고<sup>1509)</sup> 훨훨 날아가고,  
별주부 정성으로 대왕 병도 직차<sup>1510)</sup>허고,  
토끼는 그 산중에 완연히<sup>1511)</sup> 늙더라.  
그 뒤야 뉘 알리오?  
더질더질. <sup>1512)</sup>

43.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dragon king gets cured. Hare grows old in mountain.

[Eotjungmori] The eagle finally realizes he was deceived and flies away.

With Terrapin's conscientious efforts, the king's illness is cured immediately.

Hare clearly grows old in the mountains.

Who knows what happens thereafter?

Let me finish.

- 1) 甲申年. 육십갑자(六十甲子) 중 스물한째인 갑신(甲申)이 되는 해.
- 2) 仲夏月. 여름이 한창인 때라는 뜻으로 음력 5월을 달리 이르는 말.
- 3)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4) 大宴. 큰 잔치.
- 5) 排設.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제구를 벌여 배열해 놓음.
- 6) 때.
- 7) 三海龍王. 동해, 남해, 서해 세 바다의 용왕.
- 8) 請하여. 초청하여.
- 9) 君臣賓客. 임금과 신하, 그리고 손님.
- 10) 數三日. 여러 삼일. 여러 날.
- 11) 過飲.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심.
- 12)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 13) 百藥. 온갖 약.
- 14) 榻床. 걸상이나 침대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15) 奇軀로되. 기이한 몸이지만.
- 16) 水晶宮. 가상의 궁전 이름.
- 17) 華陀.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 약제의 조제, 침술, 뜸질에 두루 통했으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을 쓰기도 했다고 함. 조조의 병을 치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오지 않자, 조조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음.
- 18) 扁鵲. 진월인(秦越人). 중국 전국 시대의 의학자. 명의로서 전설적 명성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라고 하는 의서가 많음.
- 19) 龍聲. 용의 울음소리.
- 20)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 21) 玄雲. 검은 구름.
- 22) 黑雲. 검은 구름.
- 23) 斜風細雨. 엇비슷하게 비껴 부는 바람과 가늘게 내리는 비.
- 24) 仙衣道士. 신선의 옷을 입은 도사.
- 25) 鶴氅衣. 옛날 옷옷의 한 가지로, 뒷술기가 터지고 소매가 넓으며, 가를 돌아가며 검은 형질을 넓게 대었음.
- 26) 늘어뜨려 입고.
- 27) 再拜而進曰. 두 번 절하고 나와 말하기를.
- 28)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물로,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여국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는 2,700리이며,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29) 白雲 瑤池宴. 흰 구름 속의 요지에서 열리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
- 30) 千年碧桃. 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 31) 寡弱風便에. 매우 약한 소문에.
- 32) 萬萬危重타기로. 매우 위태하고 심하다고 하기로.
- 33) 뵈고자 해서.
- 34) 왔습니다.
- 35) 脈. 손목이나 발목의 맥박.
- 36) 遑遑한.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지둥하는.
- 37) 特效藥. 특별히 효험이 있는 약.
- 38) 心小臟. 심장과 소장.
- 39) 火. 오행의 화를 가리킴.
- 40) 肝膽. 간과 쓸개.
- 41) 木. 오행의 목.
- 42) 肺大臟. 허파와 대장.
- 43) 金. 오행의 금.
- 44) 腎膀胱. 콩팥과 오줌보.
- 45) 水. 오행의 수.
- 46) 脾胃는. 지라와 위는.
- 47) 肝木. 오행의 목에 해당하는 간을 이르는 말.
- 48) 太過. 아주 지나치게 심하거나, 많거나, 큼.
- 49) 木克土. 음양오행설에서 목이 토를 이긴다는 말.
- 50) 傷하옴고. 다쳐 상처를 입고.
- 51) 膽經. 쓸개의 경락. ‘경락(經絡)’은 오장 육부의 병이 몸 거죽에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를 침이나 뜸,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면 관계된 장부의 병이 낫게 됨.
- 52) 甚하니. 보통의 정도보다 더하니.
- 53) 腎經. 생식기의 경락.
- 54) 肝膽經. 간과 쓸개의 경락.
- 55) 自盡. 저절로 없어짐.
- 56) 方書. 약방문을 적은 책. ‘약방문’은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 57) 脾乃一身之祖宗. 지라는 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
- 58) 膽은내일신지표본(膽乃一身之標本). 쓸개는 한 몸의 표본임.
- 59) 心靜則 萬病이 息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 60) 心動則 萬病이 生하옴고.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병이 생기고.
- 61) 心經. 심장의 경락.
- 62) 傷하오면. 다쳐 상처를 입으면.
- 63) 五勞七傷. 오로와 칠상. ‘오로’는 심(心)이 피로하면 혈(血)이 약해지고, 간이 피로하면 혈이 약해지고, 폐가 피로하면 기(氣)가 약해지고, 신(腎)이 피로하면 정력이 약해지고, 방광(오줌보)이 피로하면 먹는 것이 약해지는 것임. 허하고 약한 병이 스스로 오로를 낳고, 오로가 육극(六極)을 낳고, 육극이 칠상을 낳는데, 칠상의 1은 음한(陰寒), 2는 음위(陰痿), 3은 이급(裡急), 4는 정루(精漏), 5는 정소(精少), 6은 정청(精淸), 7은 소변

삭(小便數)을 말함.

- 64) 補中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한의학에서 원기를 도우며 외감(外感, 한의학에서 감기를 가리키는 말)을 푸는 데 쓰는 탕약.
- 65) 熟地黃. 한약재의 한 가지. 생지황을 술에 담갔다가 여러 번 찌는 것. 보혈(補血), 보음(補陰)에 효과가 많음.
- 66) 酒蒸. 술을 뿌려 찌м.
- 67) 다섯 돈. '돈'은 무게의 단위. 관(貫)의 1/1000로 약 3.75g.
- 68) 山查肉. 한약재로서, 씨를 빼낸 산사나무의 열매. 위장을 튼튼하게 하거나 소화제로 씀.
- 69) 天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 호라지쫄의 뿌리. 성질은 찬데, 진해제(鎮咳劑)·강장제(強壯劑) 등으로 쓰임.
- 70) 細辛. 한약재의 일종. 족두리풀이나 민족두리풀의 뿌리. 말려서 두통(頭痛), 발한(發汗), 거담(祛痰) 등의 약재로 씀.
- 71) 去土. 흙을 떨어냄.
- 72) 肉蓯蓉. 열당과(列當科)에 딸린 기생식물의 한 가지. 줄기는 살지고 기둥 모양이며, 앞은 비늘같이 나는데, 줄기와 함께 엽록이 없어 누런 갈색을 띰. 깊은 산속에 나는데, 폐병의 특효약이라고 함.
- 73) 澤瀉. 한약재의 일종으로, 택사의 덩이뿌리를 가리킴. 성질이 차며, 이수도(利水道), 임질(淋疾), 습진, 부종 따위의 약재로 씀.
- 74) 罌粟殼. 한약재의 한 가지로, 양귀비 열매의 껍질. 거담(祛痰), 진경약(鎮莖藥) 또는 설사, 이질 따위에 약재로 씀.
- 75) 甘草. 한약재의 일종으로 감초의 뿌리. 비위(脾胃)를 돕고,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임.
- 76) 돈의 1/10.
- 77)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78) 貼. 약봉지에 쓴 약의 멍치를 세는 말.
- 79) 小無動靜. 조금도 효과가 없음.
- 80) 加減白朮湯. 백출탕의 원방에서 다른 약재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여 지은 탕약. '백출'은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 81) 白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성질이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돕고, 소화불량, 구토, 설사, 습증 등에 씀.
- 82) 炒灸. 불에 볶음.
- 83) 砂仁. 한약재의 일종으로, 축사밀(縮砂密. 키가 1m 쯤 되는 생강과에 딸린 풀)의 씨.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제로 좋은 약재.
- 84) 白茯苓. 한약재의 한 가지로, 빗갈이 흰 복령. 땀이 알맞게 나도록 하고, 오줌을 순하게 하며, 담증(痰症), 부종(浮症), 습증(濕症), 설사 따위에 쓰는데, 보(補)하는 효험이 있음.
- 85) 麝香. 사향노루의 사향낭에서 얻어지는 향료. 여기서는 '산약(山藥)의 잘못인 듯. '산약'은 한약재의 하나로, 마의 뿌리. 강장제의 약재로서 유정, 몽설, 대하, 요통, 설사 따위에 씀.
- 86) 五味子.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미자나무의 열매. 폐를 돕는 효험이 있으므로 기침, 갈증에 쓰며, 땀과 설사를 그치게 하는 데에도 씀.

- 87) 懷香. 회향풀. 회향풀의 열매. 대회향과 소회향이 있는데, 다 같이 약으로 쓰고, 기름도 짤.
- 88) 當歸.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이며, 강장제, 진정제로도 쓰임. 특히 부인병에 좋음.
- 89) 川芎. 한약재의 한 가지로, 천궁이·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순혈·청혈제로 쓰임.
- 90) 羌活. 한약재의 한 가지로, 강활의 뿌리. '강활'은 미나리과에 딸린 두해, 세해살이풀. 깊은 산골짜기에 절로 나는데, 그 뿌리를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91) 木通.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임질과 부중에 쓰임. 다른 사람들은 '독활(獨活)'로 부름. '독활'은 한약재의 한 가지로, 땀두릅의 뿌리. 감기나 습증으로 팔다리의 근육이 쭈시고 아픈 데에 씀.
- 92) 돈의 1/10.
- 93) 小無動靜. 조금도 효과가 없음.
- 94)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 95) 百草藥. 온갖 약초로 만든 약.
- 96) 쓰려고 하다가는.
- 97)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98) 味甘. 단맛.
- 99) 大補元氣. 원기를 크게 복돋아 줌.
- 100) 止渴生津.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함.
- 101) 造營養胃. 영양을 조성하고 위를 건강하게 함.
- 102) 甘溫. 달고 따뜻함.
- 103) 健脾強胃. 지라를 건강하게 하며, 위를 강하게 함.
- 104) 除瀉除濕. 설사를 멎게 하고, 습기를 제거함.
- 105) 兼治膽脾. 쓸개와 지라의 병도 아울러 치료함.
- 106) 甘溫. 달고 따뜻함.
- 107) 灸則溫中. 볶으면 따뜻함이 알맞음.
- 108) 生則瀉火. 생것은 열기를 내보냄.
- 109) 鍼灸. 한의학에서 침질과 뜸질을 함께 이르는 말.
- 110) 天地之上經.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경락'이란 의미인 듯.
- 111) 甲日. 일진에 '갑'이 들어가는 날.
- 112) 甲戌時에. 육십갑자 중에서 갑술에 해당하는 시각에.
- 113) 膽經. 쓸개의 경락.
- 114) 流注.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針法)'을 가리킨 말. '자오유주침법'은 천간·지지·음

양·오행·장부·경락과 팔꿈치·무릎관절 이하의 오수혈(五輸穴)을 연합하여 조성된 일종의 날짜와 시간에 따라 침질을 하는 침법.

- 115) 乙日. 일진에 ‘을’이 들어간 날.
- 116) 酉時.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 117) 大腸經 商陽. 수양명대장경에 속하는 상양혈. ‘상양’은 둘째 손가락 노뼈 쪽 손톱 뒷면서리에서 일分寸(0.3cm 정도) 뒤에 있다.
- 118) 靈龜. ‘영구팔법(靈龜八法)’을 이름. 옛날에 쓰던 배혈 방법의 하나로서, 고대에 쓰던 팔괘·구궁도·기경팔맥의 이론에 따라 침을 놓을 때의 날짜와 시간을 천간과 지지의 숫자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를, 이미 붙여놓은 팔맥교회혈의 숫자에 대입하여 혈을 선택하는 배혈방법.
- 119) 一 申脉.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1은 신맥에 해당된다는 말. ‘신맥’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로서, 바깥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4촌 아래인 가는정강이뼈 머리의 아래 기슭 우묵한 곳이다.
- 120) 二 照海.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2는 조해에 해당된다는 말. ‘조해’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혈.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0.4치 아래인데, 안쪽 복사뼈의 아래 우묵한 곳이다.
- 121) 三 外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3은 외관에 해당된다는 말. ‘외관’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혈. 손등 쪽 손목 가로간 금의 중간에서 2치 위자뼈와 노뼈 사이에 있다.
- 122) 四 臨泣.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4이면 임읍에 해당된다는 말. ‘임읍’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혈. 임읍혈에는 머리 임읍혈과 발 임읍혈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리 임읍혈을 가리킴. 머리 임읍혈은 눈동자로부터 5分寸 위에 있으며, 다리 임읍혈은 발등에서 제4, 제5 발목뼈가 갈라진 사이이며, 소지신근건의 바깥쪽에 있다.
- 123) 六 公孫.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6이면 공손에 해당된다는 말. ‘공손’은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발 안쪽에서 제1 발목뼈바닥의 안쪽 전하방과 단모지굴근 사이에 있는 우묵한 곳이다.
- 124) 七 後谿.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7이면 후계에 해당된다는 말. ‘후계’는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혈. 새끼손가락뼈 쪽 제5 손목 손가락뼈마디의 뒤에 있는 금 끝에 있다.
- 125) 八 內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8이면 내관에 해당된다는 말. ‘내관’은 수厥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혈 이름. 손목의 손바닥쪽 가로 간 금의 가운데로부터 2치 올라가서 장장근건과 노뼈 쪽 수근굴근간 사이에 있다.
- 126) 九 列缺.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9이면 열결에 해당된다는 말. ‘열결’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혈 이름. 손목의 가로 간 금에서 1.5치 올라가 요골 정상돌기 위에 정맥이 있는 곳이다.
- 127) 三氣. 풍(風), 한(寒), 습(濕)의 세 가지 사기(邪氣)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28) 八脉. 기경팔맥(奇經八脉). ‘기경팔맥’은 십이경맥과 달리 다른 길로 자기 혼자 행하는 경맥. 여덟 갈래인데, 임맥, 독맥, 충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양유맥, 음유맥이다.
- 129) 左脈. 좌측의 맥. 좌기우혈(左氣右血)이라 하여 좌측의 기운을 돌려 주는 것을 이름.



- 130) 十二經. 십이경맥(十二經脈). 모든 경맥들 중 기본이 되는 12개의 경맥. 분포된 부위, 연계된 장부에 따라 음경, 양경, 수경, 족경으로 나눈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수소음신경(手少陰腎經)·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수궤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족궤음간경(足厥陰肝經)·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열두 가지임.
- 131) 承漿. 임맥의 혈. 정중선에서 아랫입술 아래 가장 깊숙한 곳이다.
- 132) 廉泉. 임맥의 혈. 혀뿌의 윗변연 중심부이며, 머리를 뒤로 낮추고 침을 놓는다.
- 133) 天突. 임맥의 혈. 앞 정중선상에서 흉골병의 경절흔으로부터 위로 5푼 되는 우묵한 곳이다.
- 134) 鳩尾. 임맥의 낙혈 이름. 검상돌기와 갈비활이 갈라진 사이를 연결한 중심에서 1치 아래에 있다.
- 135) 巨闕.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6촌 되는 곳이다.
- 136) 上脘. 임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5촌 되는 곳이다.
- 137) 中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4촌 되는 곳이다.
- 138) 下脘. 임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2촌 되는 곳이다.
- 139) 神厥. 임맥의 혈 이름. 배꼽 중앙이다.
- 140) 丹田. 임맥의 혈인 석문(石門). 앞 정중선 배꼽 아래 2촌 되는 곳), 음교(陰交.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촌 되는 곳), 기해(氣海.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5촌 되는 곳), 관원(關元. 앞 정중선 배꼽 아래 3 촌 되는 곳) 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관원혈을 이른다.
- 141) 崑崙.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 이름. 바깥 복숭아뼈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 높이에서 바깥 복숭아뼈의 뒷기슭과 뒤축뼈힘줄의 바깥기슭과의 중간 지점에 있다.
- 142) 足太陰脾經. 십이경맥의 하나. 엄지발가락의 안쪽 뒤모서리에 있는 은백혈에서 시작하여 발안쪽 기슭, 다리 안쪽면의 앞부분을 지나 배속에 들어가서 비(脾), 위(胃)와 연결되고 다시 나와 허뿔리에 가서 끝난다. 족태음비경과 은백혈은 위가 아프고, 체했을 때, 어린이 소화불량, 설사, 변비, 소대장염, 치질출혈, 월경과다 등의 치료에 시술한다.
- 143) 三陰交. 족태음비경의 혈 이름. 안쪽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세 치 올라가 굽은 정강이뼈의 안쪽 후면과 긴발가락굽 힘살 사이에 있다.
- 144) 陰陵泉.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이름. 굽은 정강이뼈 안쪽 뒤 아래 우묵한 곳이다.
- 145) 病勢. (더하고 덜한) 병의 형세.
- 146) 危重. (병세가) 위험할 만큼 매우 중함.
- 147) 驚動脈. 놀라 움직인 맥.
- 148) 脾胃脈. 지라와 위의 맥.
- 149) 腹中에서. 배속에서.
- 150) 腹中. 배속.
- 151) 火病. 울화병. 울울하고 답답하여 일어나는 심화로 말미암아 생긴 병.
- 152) 陰陽風病. 음양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정신작용·근육 신축·감각 등에 고장이 생긴 병.
- 153) 動하여. 발동하여.

- 154) 巽氣. 팔괘의 손에 속하는 기운.  
 155) 辛氣. 12지의 신에 속하는 기운.  
 156) 正陰. 가장 강한 음기.  
 157) 辰庚亥未는.  
 158) 正陽. 가장 강한 양기.  
 159) 陰萎火動. 음의 기운이 위축되어 화기가 일어남.  
 160) 黃疸. 주로 간장의 고장으로 생기는 증상으로서 쓸개즙의 색소가 혈액 속으로 이행하여 생기는 병.  
 161) 塵世山間.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산 속.  
 162) 差效. 차도. 병이 나아가는 일.  
 163) 同姓. 성씨가 같음.  
 164) 東方朔. 전한(前漢)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천(曼倩). 무제를 섬기어 금마문시중이 되었으며, 해학과 변설에 능하였음.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죽지 않고 장수하였으므로, 삼천 갑자 동방삭이라고 일컬음.  
 165) 누를 황(黃), 샘 천(泉), 돌아갈 귀(歸)하겠소. 황천으로 돌아감, 곧, 죽겠다는 말.  
 166)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인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약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167) 합니까?  
 168) 龍王은 辰이요, 용은 십이지(十二支)에서 진이요. 辰은 십이지의 하나로 용을 나타내기 때문임.  
 169) 토끼는 卯라. 토끼는 십이지의 묘임. 卯는 십이지의 하나로 토끼를 나타냄.  
 170) 卯乙巽은 陰木이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묘와 십간의 을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데, 팔괘의 손(巽)이 소음(少陰)이므로, 셋이 합하여 음의 목이 된다.  
 171) 辰辰戌은 陽土.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진과 십간의 술은 오행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팔괘의 간은 소양(少陽)이므로 셋이 합하여 양의 토가 된다는 말.  
 172) 王曰. 왕이 말하기를.  
 173) 然하다. 그렇다.  
 174) 雖然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175) 蒼茫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176) 塵世間의. 이 세상의.  
 177) 碧海. 푸른 바다.  
 178) 萬頃 밖에. 만 이랑이나 되게 넓은 푸른 바다 밖에.  
 179) 白雲이 九萬里요. ‘흰 구름이 구만리나 뻗어 있는 먼 곳이요’라는 의미로 쓰였음.  
 180) 驪山 松栢.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181) 鬱鬱蒼蒼. ‘울울창창’은 나무가 짙게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따라서 여기서는 ‘울울창창한 속에’로 해야 옳음.

- 182) 三千古墳. 삼천 개나 되는 수많은 옛 무덤. 황제도 다 죽어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뜻.
- 183) 짐승은.
- 184) 海外. 바다 밖. 곧, 육지.
- 185) 日月의. 해와 달의.
- 186) 無定處로. 정한 곳 없이. 정처 없이.
- 187) 是非 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 188) 聖德. 훌륭한 덕.
- 189) 成功之臣. 성공할 신하.
- 190)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 191) 그때에서야.
- 192) 謝禮. 감사의 예를 올림.
- 193) 水宮朝廷. 수궁의 조정.
- 194)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 195) 같다고 하면.
- 196)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 197) 宰相님네. 재상님들. ‘재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 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 198) 等物들이. 여러 사물들이.
- 199) 可觀. 구경거리가 될 만함. 볼 보기 좋음.
- 200)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 201) 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정삼품의 벼슬아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관.
- 202)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역사 자료를 기록하던 정7품 벼슬.
- 203)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 204) ‘박죽상어’인 듯. ‘박죽상어’는 중간 크기의 상어를 말함.
- 205) 大司成.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 206) 도루묵. 바닷물고기요, 몸길이 15~26cm에 입이 큼.
- 207) 蚌僉使. 종3품 무관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208) 해운공(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209) 물방개. 곤충의 일종으로 몸은 평평한 타원형이고, 길이 30~40mm이며, 몸빛은 흑갈 색에 녹색 광택이 남. 뒷다리는 길고 크며, 털이 많고, 물속을 헤엄쳐 다님.
- 210) 兵使. 병마절도사.
- 211) 海狗. 물개.
- 212) 曹部將. 부장 벼슬의 초기. ‘조기’의 ‘조’자를 성으로 하여 만든 말임. 부장은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벼슬.
- 213) 조기.

- 214) 비변랑(備邊郞). 낭청(郎廳)이라고도 하는, 나라 안팎의 군사기밀을 다루던 종6품 벼슬.
- 215) '달강어'의 방언. 몸이 가늘고 길며, 머리는 크고 검은데, 등은 고운 주홍빛을 띤 바닷물고기.
- 216) 성대. 몸길이 40cm 안팎으로 가늘고 길며, 주둥이가 뾰죽하고 몸빛이 붉은 바닷물고기.
- 217) 청가오리. '청분'이라고도 함. 가오리의 한 종류로, 꼬리에 가시가 있음.
- 218) 좌우(左右) 나졸(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 나졸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219) 禁軍. 조선시대 금군청이나 용호영(龍虎營)에 딸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말 탄 군사.
- 220) '송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송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221) 불명.
- 222) 누치.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잉어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20~30cm이나 큰 것은 50cm에 이룸.
- 223) 청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50cm 정도, 비늘은 등글고 크며, 등은 푸른빛이 나는 노랑빛이고, 배는 은백색임. 국거리 또는 얼간용(소금에 약간 절임)으로 많이 쓰이며, 살에는 가시가 많으나, 맛이 썩 좋음.
- 224) 令. 명령.
- 225) 入侍하여.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어.
- 226)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 227) 生鮮塵. 생선을 파는 가게.
- 228) 都物主.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밀친을 대어주고 장사를 시키는 우두머리.
- 229) 경들. '경'은 임금이 신하를 가리키는 데 쓰는 말.
- 230) 구할 것인가?
- 231) 面面相顧. 서로 얼굴만 쳐다봄.
- 232) 默默不答.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음.
- 233) 割股事君.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였다고 함.
- 234) 개자추(介子推). 춘추시대 진(晉)의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235) 광초망신(誑楚亡身) 기신(紀信)이는.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236) 人君. 임금.
- 237) 정언(正言) 벼슬을 하는 잉어. '정언'은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벼슬. 정원은 2명이고, 품계는 정6품이었음.

- 238) 丞相. 옛 중국의 벼슬 이름.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음.
- 239) 어떠합니까?
- 240) 智略. 슬기로운 계략. 슬기와 꾀.
- 241)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껍데기를 말함.
- 242) 대모(玳瑁)인고로. 대모이기 때문에.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말하는데, 공예품이나 장식품의 고급 재료로 쓰임.
- 243) 玳瑁粧刀. 대모로 손잡이와 칼집을 만든 장도. '장도'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주머니나 옷고름 따위에 차고 다니면서 주머니칼처럼 썼음.
- 244) 살쩍밀이. 망건을 쓸 때 살쩍을 망건 밑으로 밀어 넣는 데 쓰는 도구. '살쩍'은 귀 밑에 난 털.
- 245)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집안에서는 이것만 쓰기도 했음.
- 246) 탕건에 붙이는 장식물인 듯하나 불명.
- 247) 칠쌈지의 끈까지. '칠쌈지'는 담배를 넣어서 옷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쌈지의 하나. 장방형(長方形)의 형질으로 한 쪽에만 넣을 자리가 있는데,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음. 혹, 끈을 달아 묶기도 함.
- 248) 蚌僉使. 종3품 무관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249) 鐵甲. 쇠붙이를 겹에 붙여 만든 갑옷.
- 250) 防身制度는. 제 몸을 지키는 방법은.
- 251) 觀蚌鰓之勢하고 坐收漁人之公이라. 홀조(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어부가 둘 다 손쉽게 잡는다는 뜻으로, 둘이서 다투다가 마침내는 엉뚱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말함.
- 252) 鷸鳥. 도요새.
- 253) 속절없이. 단념할 수밖에 다른 도리 없이.
- 254) 민물에 사는 메기.
- 255) 長鬚口大.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256) 好風身. 풍채가 좋음.
- 257) 주둥이가.
- 258)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의 뜻.
- 259) 시장기를 면할 재료.
- 260)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261) 蓑笠. 도롱이나 샛갓.
- 262)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 263) 斜風細雨不須歸라. 비스듬히 부는 바람과 가는 비에도 (세월을 잊고) 돌아갈 줄을 모름. 당나라 시인 장지화(張志和)의 시 〈어부(漁夫)〉의 한 구절.
- 264) 입감. 미끼.
- 265) 꺾어서.
- 266) 食食. 먹을 것을 탐냄.

- 267) 삼켜.
- 268) '단불요대(斷不饒貸)'의 '인' 듯. '단불요대'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꼼짝없이'라는 뜻.
- 269) 腹疾. 배를 앓는 병.
- 270) 배아피하는 데. 배앓이를 하는 데에..
- 271) 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272) 臣.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일컫는 말.
- 273) 靑林碧溪. 푸른 숲 속 푸른 시내.
- 274)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275) 潛身하여. 몸을 잠그고.
- 276)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 277) 산중토(山中兔). 산 속의 토끼.
- 278)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 279) 顔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 280)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281) 계의 집게발을 가리킴.
- 282) 大王前에. 대왕 앞에.
- 283) 臣. 신하.
- 284) 公論. 일반의 공통된 의견.
- 285) 紛紛할 때. 뒤숭숭하고 수선스러울 때.
- 286)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 편에 나옴.
- 287) 隱目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 288)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 289) 虎胸背.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 조각.
- 290)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291) 鞠躬再拜. 몸을 굽혀 두 번 절함.
- 292) 上疏. 임금에게 올리는 글.
- 293)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294) 鼈主簿.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295) 水國鱗甲. 물속의 조개와 물고기들. '인갑'은 (동물의) 비늘과 껍데기로 조개와 물고기를 이르는 말.
- 296) 珍味. (음식의) 아주 좋은 맛.
- 297) 鼈主簿.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298) 小臣. 신하가 임금에 대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299) 江上에. 강물 위에.
- 300) 逢弊. 폐해를 당하는 일.
- 301) 海中之所生. 바다에서 태어남.

- 302) 畫像. 그림으로 그린 초상.
- 303) 그것일랑은.
- 304) 畫工. 화가.
- 305) 洞庭琉璃青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 색과 붉은 색이 나는 고운 벼루.
- 306)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 307)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벼루물을 담는 그릇.
- 308) 兩頭畫筆. 양 쪽에 화필이 달린 붓.
- 309) 덩석. 무엇을 넣음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310)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깔.
- 311) 天下名山. 온 세상의 이름난 산.
- 312) 경치 좋은 강산.
- 313)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314) 봉래산(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315) 방장산(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 316) 雲霧. 구름과 안개.
- 317) 냄새.
- 318) 芝草. 지치.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 319) 香草. 향기나는 풀.
- 320) 지저귀어 울 제.
- 321) 萬化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 322) 大寒.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소한의 다음이며, 양력 1월 21일 경으로 가장 추운 때임.
- 323) 嚴冬. 매우 추운 겨울.
- 324)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 추위.
- 325) 禦寒하던. 추위를 막던.
- 326) (입술이나 귀 따위를) 뻣뻣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히 내미는 모양.
- 327) 동글동글함.
- 328) 늘씬. 미끈하게 긴 모양.
- 329) 꼬리.
- 330)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331) 녹수(綠水)인데. 푸른 물인데.
- 332)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 333) 조금 휘어져 굽은.
- 334)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335) 楊柳樹. 버드나무.
- 336)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 337) 엉거주춤.
- 338) 畵中兎. 그림 속의 토끼.
- 339) 얼른.
- 340) 아미산월(峨眉山月)의 반륜토(半輪兎).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에 보이는 토끼. 아미산은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으로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이 구절은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인 ‘아미산월반륜추(峨眉山月半輪秋)’의 변형임.
- 341) 여기에서. 이보다.
- 342) ‘여기 있다’의 준말.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343) 곰곰. 여러 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 344) 목의 뒷부분.
- 345) 막창자. 맹장.
- 346) 水路 萬里. 만 리나 되는 멀고먼 물길.
- 347) 御酒 三盞. 임금님께서 주시는 술 석 잔.
- 348) 本宅. 본집. 자기 가족이 있는 집.
- 349) 大夫人. 남을 높이어 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 350) 青春寡守. 젊어서 된 과부.
- 351) 꼬리까지.
- 352) 썩거나 물러서 힘없이 처지고 떨어져.
- 353) 말이나 행동이 형편에 맞거나 조리에 맞지 않게. 여기서는 ‘아무 사정도 모르고’ 정도의 의미임.
- 354) 三代獨子. 3대에 걸쳐서 형제가 없는 외아들.
- 355) 長歎息.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함.
- 356)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 357) 烏鳶. 까마귀와 솔개.
- 358) 두드리며.
- 359) ‘후여’하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솔개를 소리를 질러 내쫓는 것을 말함.
- 360) 사람이.
- 361) 水宮 鱗甲. 물속의 (동물의) 비늘과 껍데기. 물속의 조개와 물고기를 이르는 말.
- 362)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기만 하면.
- 363) 十里沙場. 길이가 십 리나 되는 모래밭.
- 364) 속절없이. 단념할 수밖에 다른 도리 없이.
- 365) 危那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함.
- 366) 여기서는 나랏님, 곧 임금을 말함.
- 367) 患候. 어른의 병.
- 368) 가는데.
- 369) 逢弊. 폐해를 당하는 일.
- 370) 志氣. 의지와 기개.
- 371) 손바닥을 펴 내민 손.



- 372) 堂上의. 당상에 계시는. '당상'은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373) 鶴髮 母親. 머리가 학처럼 하얗게 늙으신 어머니.
- 374) 기체후(氣體侯). 웃어른께 문안을 드릴 때 쓰는 존대말로, '기력과 몸의 상태'라는 뜻.
- 375) 渭水波光. 위수의 물빛.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로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던 곳.
- 376) 兩主. '양주'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377) 萬里靑山. 만 리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청산, 곧 육지.
- 378) 朝夕恭待. 아침 저녁으로 늘 공손히 잘 받들어 모심.
- 379) 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륜의 하나.
- 380) 社稷.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 나라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381) 閨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382) 節行之事. 절개 있는 행동을 하는 일.
- 383) 彷彿. 아주 흡사함.
- 384) '풀이 길게 자란 밭'을 이르는 말인 듯.
- 385)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386) 누린내.
- 387) 恩惠히. 몹시 바쁘고 급하게.
- 388)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 389)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 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390)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391)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392) 자옥하게 깎.
- 393) 月峰으로.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394) '예장촌(豫章村)'의 잘못된 듯.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395)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396) 蘆花. 갈대꽃.
- 397)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398) 魚籠.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399) 보통은 '잘새'로 부른다. '잘새'는 잠을 자려고 하는 새. '자고새'로 볼 수도 있는데, '자고'는 꿩과에 딸린 작은 새로,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400) 동정여천파시추(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리다.
- 401) 金聲秋波. 가을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
- 402) 碧波. 푸른 물결.
- 403) 滄浪. 맑은 물결.
- 404)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걷거나 가는 모양.

- 405) 地廣. 땅 넓이.  
 406) 波光. 물 빛갈.  
 407) 天一色이라. 하늘과 같은 색깔이라.  
 408) 天外巫山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409) 海外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410)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이다.  
 411) 吳楚는 어이하어 東南으로 벌여 있고, 乾坤은 어이하어 日夜에 등실 떠서.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조동남탁(吳楚東南拓)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412)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413)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414)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틀 걸리는 거리임.  
 415) 武關囚의.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416) 楚懷王.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때임.  
 417) 冤魂.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418) 潛身하여. 몸을 물속에 잠그고.  
 419)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420)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421)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422)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423) 비로봉(毗盧峯).  
 424)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425) 층층층(層層層). 층층으로.  
 426)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427) 萬山. 수많은 산. 모든 산.  
 428) '울울(鬱鬱)을 표현한 말인 듯. '울울'은 나무가 뻥뻥이 우거진 모양.  
 429) 落花. 떨어진 꽃.  
 430)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431) 長松. 키가 큰 소나무.  
 432)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433) (가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한.  
 434) 뭉뚱한 다래나무.

- 435) 칠딩굴.  
 436) 으뜸딩굴.  
 437) 뱃나무.  
 438) 온갖.  
 439) 果木. 과일나무.  
 440) 굽이져.  
 441)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442)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443) 江上. 강물 위의.  
 444) 때로 다니는 고니.  
 445) 少昊天子 紀官하던. '소호천자가 벼슬의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이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호천자는 중국 전설 상의 임금으로, 소호 금천씨(金天氏),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이름을 붙였다고 함.  
 446)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447) 洋洋滄波點點動. 넓고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서 움직인다.  
 448) 사랑스럽다.  
 449) 烏鵲이. 까마귀와 까치.  
 450) 너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451) 징경이.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452) 새울음소리를 흉내낸 말.  
 453) 景概.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  
 454) 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455) 白沙地땅. 흰 모래사장.  
 456) 약간 휘우듬하게 구부러진.  
 457) 長松. 키가 큰 소나무.  
 458) 狂風. 사나운 바람.  
 459)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몸 전체를 율동적으로 멋있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460) 流水. 흐르는 물.  
 461) 물줄기 따위가 끊이지 않고 강하게 흐르는 소리.  
 462) 한 곳으로.  
 463) 합수(合水)져. 물이 합쳐져.  
 464)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구부저.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465) 거품이 일어.  
 466) 병풍석(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467) 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로.  
 468) 거품.  
 469) 술 식혀 등이 꺾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 470)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471)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472) 어느 곳으로.  
 473) 가자는 말인가?  
 474) 예로구나. 여기로구나.  
 475) 雲層境. 구름이 층층이 쌓인 높은 곳.  
 476) 날짐승. 새.  
 477) 上座 다툼.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  
 478) 舜 임금.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479) 南薰殿. 순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  
 480) 순임금이 탔다는 줄이 다섯인 비파.  
 481) 蕭蕭鬼聲. 쓸쓸한 귀신 소리.  
 482) 岐山.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가 도읍을 삼은 곳.  
 483) 文物이.  
 484) 鬱鬱하여. ‘울울’은 나무가 매우 배게 들어서 무성함. 여기서는 ‘매우 무성하여’라는 의미로 쓰였음.  
 485) 周 文武. 주나라 문왕과 무왕.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이며, 무왕은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주나라를 세웠음.  
 486) 萬古大聖.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대 성인.  
 487)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488) 길. 자기 키만큼의 길이.  
 489) 飢不啄粟.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음.  
 490) 瀛洲山. 신선이 산다는 중국의 삼신산의 하나.  
 491) 石上 梧桐. 바위 위에 난 오동나무.  
 492) 瀟湘烏竹. 중국 양자강의 지류인 소상강 가에서 자라는 검은 대. 소상반죽을 가리킨 듯. ‘소상반죽(瀟湘斑竹)’의 잘못.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  
 493) 대가리. ‘머리’의 비어.  
 494) 덩수룩한. (배게 난 수염이나 머리털이) 더부룩하게 어수선하게 덮여 있는.  
 495) 검은 창. 검은 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496) 根本. 자라는 환경과 경력.  
 497) 길기는. 긴 까닭은.  
 498) 越王 句踐.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월나라의 임금인 구천. 오나라의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을 했음. 그 후 명신 범려와 와신상담(臥薪嘗膽) 20년에 마침내 부차를 죽여 회계의 치욕을 씻고, 패자(霸者)가 되었음.  
 499) 검기는. 검은 것은.  
 500) 山陰. 중국의 지명.  
 501) 王羲之(307?—365?).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자는 일소(逸少). 그의 전야하고 힘차며 품위 있는 서풍은 일찍부터 안팎의 존경을 받았음.  
 502) 洗硯池. 벼루를 씻은 연못.

- 503) 생긴.
- 504)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505) 船遊. 배를 타고 놀.
- 506) 南飛. 남쪽으로 날아감.
- 507) 三國興亡. 위·오·촉 세 나라의 흥망.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지은 시 〈단가행(短歌行)〉의 “月明星稀 烏鵲南飛 遶樹三匝 無枝可依(달은 맑고 별은 희미한 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다)”를 두고 한 말임. 〈단가행〉은 패하여 도망칠 유비를 조롱하여 지은 것임.
- 508) 反哺恩.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길러준 은혜를 갚는 일.
- 509)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510) 心性.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 511) 不測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어서. 엉금하고 쾌씹하여.
- 512) 나무에.
- 513) 動搖할 제. 동요하게 할 때.
- 514) 守節寡婦.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절개를 지키는 여자.
- 515) 滿座中에. 좌석에 꽂 늘어앉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 516) 길짐승.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 517) 孔夫子. 공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
- 518)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춘추〉는 공자가 지은 노나라 역사서.
- 519) 絕筆. 붓을 놓고 글쓰기를 그만둠.
- 520)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다(획린獲麟)”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의 뜻으로 쓰임.
- 521) 三軍三營. ‘삼군’은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 522) 舉動時. 임금님이 나들이를 할 때에.
- 523) 天子 玉輦.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
- 524) 玉京仙官.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 525) 乘匹. 타고 다님.
- 526) 西伯. 주나라의 문왕.
- 527)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528)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님.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짐을 쳤더니,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 529) 滄海 博浪沙의 狙擊始皇. (장량(張良)이) 창해군을 만나 (사람을 얻어) 박랑사에서 진 시황을 습격함.
- 530) 다람쥐.
- 531)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 532) 원숭이.  
 533) 멧돼지.  
 534) 이리와 비슷한 산짐승.  
 535) 등등의 것들이.  
 536) 上座 다툼.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  
 537) 年年이. 해마다.  
 538) 會聚하고. 모여서.  
 539) 獐都監. '도감 벼슬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540) 나이를.  
 541) 센다고 하면.  
 542)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543) 同接.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관계.  
 544) 匡山. 이태백이 십 년 동안 글공부를 했다고 하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산.  
 545) 玉京. 도가에서 옥황상제가 있다는 신선 세계의 서울.  
 546) 上天. 하늘로 올라감.  
 547) 微物. 보잘 것 없는 물건.  
 548) 賤ヶ. 천하개.  
 549) 年甲. 나이가 같음.  
 550) 獐把摠. '파총 벼슬을 하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너구리를 의인화한 표현임.  
 551) 壽字. 나이를 나타내는 글자, 곧 나이를 이른 말.  
 552) 銅雀臺. 조조가 위나라 수도 업도에 세운 누대.  
 553) '옥룡각(玉龍閣)'의 잘못.  
 554) 二喬에. '이교'는 '이교녀(二喬女)'를 이름. 중국 삼국시대에 강동에 살던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데, 매우 예뻐다고 한다.  
 555) 曹子建. 이름은 식(植). 조조의 아들로써 글재주가 뛰어나, 조조가 <동작대부>를 짓게 했음.  
 556) 銅雀臺賦 韻하던. <동작대부>를 읊던. <동작대부>는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자건(曹子建)이 지은 시.  
 557)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558) 年甲. 동갑. 나이가 같음.  
 559) 漢 光武. 한나라 광무제. 후한을 세운 유수(劉秀).  
 560) 諫議大夫. 중국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아치.  
 561) 뜯구름.  
 562) 차일(遮日). 햇별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563) 동강(桐江)의 칠리탄(七里灘). 중국 절강성 동로현에 있는 여울. 한나라 때 엄광(嚴光)이 여기서 낚시질을 하였다고 함.  
 564) 嚴子陵. 이름은 광(光)이고, 자릉은 그의 자(字)임. 후한을 세운 유수와 어려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후에 유수가 광무제가 되어 간의대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숨어 살았음.

- 565) 始釣하던. 낚시질을 시작하던.
- 566) 멧돼지.
- 567) 거스러미 눈. '거스러미'는 나무의 결 같은 것이 얇게 터져서 일어난, 가시처럼 된 부분. '거스러미 눈'은 멧돼지의 눈썹이 가시처럼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컫는 말임.
- 568) 匈奴國. 흉노족이 세운 나라. '흉노'는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 569) 주린 忠節 十九年에 首髮이 盡白하여. 굶주리면서 충성스런 절개를 지킨 지 19년 만에 머리털이 모두 희어져.
- 570) 허위적허위적. (벗어나거나 헤어나려고)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571) 蘇中郎. 중랑장 벼슬의 소무(蘇武). '소무'는 한나라 때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충절을 지키다, 19년만에 백발노인이 되어 돌아왔음.
- 572) 여우.
- 573) 가운데가 동그스름하고 폭 꽤거나 들어가 있는.
- 574) 조개류로 담근 젓갈의 일종.
- 575) 액체가 자꾸만 조금씩 흐르거나 또는 쏟아졌다 그쳤다 하는 모양.
- 576) 末席. 좌석 차례에서 맨 끝자리.
- 577) 參預. 참여.
- 578) 식힐라고. 잡아먹을라고.
- 579) 죽이게. 잡아먹게.
- 580) (나아가지못하고) 제자리에서 조금 큰 동작으로 게으르게 행동하는 모양.
- 581) 不淨탄. 깨끗하지 못한 일로 해를 입은.
- 582) 어기적어기적. (몸집이 큰 사람이) 다리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느릿느릿 걷는 모양.
- 583) '배'를 낮추어 일컫는 말.
- 584) 바라보니.
- 585) 이 아이를. 이것을.
- 586) 짐승.
- 587) 위엄이 있고 강하며 딱딱하게.
- 588) 붉고.
- 589) 바둑점 박혀 있고. 바둑처럼 검은 점과 흰 점이 섞여 박혀 있고..
- 590) 얼룩덜룩.
- 591) 水路萬里. 만 리나 되는 먼 물길.
- 592) 좀 연하고도 곱게 붉고.
- 593) 얼룩덜룩하고.
- 594) 疊疊山中.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산 속.
- 595) 松林. 소나무 숲.
- 596) 골짜기로.
- 597) 罫頭(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툭 불거진 모양을 가리킴.

- 598) 얼룩덜룩.  
 599)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600)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601) 箭筒. 화살을 넣는 통.  
 602) '새 낮'인 듯. 날을 세운 낮.  
 603) 嚴冬雪寒.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  
 604) 白雪格으로. 흰 눈처럼.  
 605) 흠어뿌리고.  
 606) 뒤집혀 넘어지고.  
 607) '두루뭉술하고 얇은 것'을 이른 말.  
 608) 萬病通治. 모든 병을 다 낫게 함.  
 609) 한 가운데.  
 610) 부리.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  
 611)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612)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613)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614)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615) 四代孫. 4대 후손.  
 616) 애가.  
 617) 엮어져 있다가. 엮으려 있다가.  
 618) 宮簪. 장기에서 왕을 상징하는 楚와 漢이 새겨진 가장 큰 말.  
 619) 발이나 팔을 활짝 벌린 상태로 맥없이 뒤로 가볍게 자빠지거나 눕는 모양.  
 620) '두루뭉술하고 얇은 것'을 이른 말.  
 621) 흔히 앓는 자질구레한 병.  
 622) 命. 수명.  
 623) 화가 나니까.  
 624)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여.  
 625) 뜻에 맞지 않고 불만스러울 때 혼자 욕으로 하는 말.  
 626) 전라도 방언에서의 용법을 보면, '매우 놀라 기절할 정도로' 정도의 의미임.  
 627) 急煞. 갑자기 닥쳐오는 재액.  
 628)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629)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630) 공연히. 괜히.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이.  
 631) 자라탕.  
 632) 願이더니. 소원이었는데.  
 633) 珍味. 음식의 아주 좋은 맛. 또는 그런 맛이 나는 음식.  
 634) 불에 태워.  
 635)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636) 急煞. 갑자기 닥쳐오는 재액.
- 637)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 638) 불에 태워서.
- 639)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
- 640)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의 일부를 내밀었다가 갑자기 오그려 들여보내는 동작을 반복하기.
- 641) 來歷.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까닭.
- 642)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643) 보니까.
- 644) 동그랗게.
- 645) 나왔는데.
- 646) 길이의 단위로, 두 팔을 양옆으로 퍼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 647)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
- 648) 되움치기.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의 일부를 내밀었다가 갑자기 오그려 들여보내는 동작을 반복하기.
- 649)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 650) 間. 건축물에서 사방 일곱 자(약 210cm) 내지 아홉 자(약 270cm) 평방의 넓이를 이르는 단위.
- 651) 名醫더러. 명의에게. 이름난 의원에게.
- 652) 問醫한즉.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 653)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654) 정해져 있는 것.
- 655) 돼지나 곰의 쓸개를 셀 때 쓰는 수효.
- 656) 거기.
- 657) 匕首劍. 날카로운 단도.
- 658) 성기를 가리킴.
- 659) ‘틈’을 낫잡아 이르는 말.
- 660)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661) 뼈죽이.
- 662)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였던가.
- 663) 세차게 마구. 또는 무리하게 힘을 들여서.
- 664) 도망을 한.

- 665) 고개 이름인데, 불명.
- 666)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
- 667) 되니까.
- 668) 山中之靈物. 산 속의 신령스런 짐승.
- 669)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 670) 淨히. 깨끗이.
- 671) 山神祭.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
- 672) 溪邊楊柳. 시냇가의 버드나무.
- 673) 작고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 674) 塵土. 먼지와 흙.
- 675) 巖床. 상처럼 생긴 바위.
- 676) 祭板. 제물을 차려놓는 상.
- 677) 面紙. 제사 때 제사상 위에 까는 종이.
- 678)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679) 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680) 石下에. 돌 아래.
- 681) 拜禮. 절을 함.
- 682) 至誠. 지극한 정성.
- 683) 讀祝. 축문을 읽음.
- 684) 維歲次.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 685) 朔. 초하루. 축문에서 월건 다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임.
- 686) 한 달 중 처음 돌아오는 7일.
- 687) 敢昭告于. 감히 고하나이다.
- 688) 上天日月星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 689) 后土. 토지의 신.
- 690) 神靈님前. 신령님 앞에. 신령님께.
- 691) 至誠. 지극한 정성.
- 692)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 693) 仙醫道土. 신선 세계의 의사와 도사.
- 694) 問病. 앓는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함.
- 695) 정해졌사오니.
- 696) 重山. 깊은 산 속.
- 697) 許給. 요구하거나 베풀어 달라는 대로 허락하여 줌.
- 698) 常事.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기》에 나오는 말. 제문이나 축문의 끝에 상투어로 씀.
- 699) 尙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 드시기를 비는 말. 흠향하시옵소서.
- 700) 짐승.
- 701) 동글동글.

- 702) ‘꼬리’의 속된 말.  
 703) 뭉뚱. 끝이 짧고 무딘 모양.  
 704) 녹수(綠水)인데. 푸른 물인데.  
 705) 綠水青山. 푸른 물이 흐르는 푸른 산.  
 706) 조금 휘어져 굽은.  
 707) 楊柳. 버드나무.  
 708) 엉겨주춤.  
 709) 山中兔. 산 속의 토끼.  
 710) 月中兔. 달 속의 토끼.  
 711) 괴이(怪異)하게.  
 712) 반겨. 반가와하며.  
 713)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 임금 때 소부과 허유가 숨어 산 곳.  
 714) 潁水.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허유가 못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귀를 씻은 곳.  
 715)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고사(高士).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716) 許由. 중국 요임금 때의 은사(隱士).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은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717) 避世가자고. 세상을 피해 숨자고.  
 718) 首陽山. 중국의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산으로 백이 숙제가 굶어 죽은 곳.  
 719) 白夷 叔齊. 중국 은(殷)나라의 처사.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려고 하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효(孝)가 아니며,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렸다. 그러나 무왕이 은(殷)을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겨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아사했다.  
 720) 採薇하자고. 고사리를 캐자고.  
 721) 백화심처일승귀(百花深處一僧歸) 춘풍석교화림중(春風石橋花林中). 온갖 꽃이 피어 있는 곳에 한 중이 돌아온다. 꽃수풀 속 봄바람 부는 돌다리예.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에서 성진이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을 다녀오다가,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돌다리에서 여덟 선녀를 만나게 된 일을 가리킨 것임.  
 722) 性眞. <구운몽>의 남자 주인공의 천상계에서의 이름.  
 723) 和尚. 중을 높여 부르는 말.  
 724) 玩月長醉. 달을 즐기면서 늘 술에 취해 있음.  
 725)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이태백은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726) 桃花流水. 흐르는 물 위에 뜬 복숭아꽃.  
 727) 武陵.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園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흘러오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도화유수 무릉’이라는 표현이 가능함.

- 728) 舉酒屬客. 술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는 사람.
- 729) 青山夔洲白礫灘. 청산에 살면서 섬과 회고 푸른 여울을 두려워함.
- 730) 呂洞賓. 당나라 때 사람으로 호는 순양자(純陽子). 64세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강호를 떠돌았는데, 목숨을 연장하는 술법을 배워 여덟 명의 신선 중 하나로 일컬어짐.
- 731) 此山中 雲深한데 不知處 오신 손님.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의 시 〈尋隱者不遇(심은 자불우)〉에 나오는 '지재차산중(只在此山中) 운심부지처(雲甚不知處)(이 산 속에 있기는 하지만, 구름이 깊어서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의 변형임.
- 732) 萬無로구나. 결코 없구나.
- 733) 緣分.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734) 기우뚱거리고.
- 735) 부딘쳤겠다.
- 736) 初面에. 처음으로 대하는 처지에.
- 737) 이쪽과 저쪽의 양쪽. 여기서는 '당신과 나 모두'라는 뜻.
- 738) 한 모양이나 마찬가지로의 상태.
- 739)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 740) 거기서는. 당신은.
- 741)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742)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743) 理陰陽順四時. 음양을 맡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순조롭게 함.
- 744)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745) 月兔일러니. 달 속의 토끼이더니(토끼인테).
- 746) 搗藥酒. 약초를 넣어 빻은 술.
- 747) 大醉하여. 크게 취하여.
- 748)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 749) 謫下中山. (하늘에서) 산으로 귀양을 음.
- 750) 名色. 어떤 부류에 넣어 부르는 이름.
- 751) 含笑曰. 웃음을 머금고 말하기를.
- 752) 何相見之晚晚無故不測. 이렇게 늦게서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
- 753) 文字.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자로된 숙어나, 문장.
- 754) 短文. 글을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 755) 文章. 문장가. 글을 뛰어난게 잘 짓는 사람.
- 756) 문자통. '통'은 정통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문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 쓰임. 여기서는 '문자꾸러미' 정도의 의미.
- 757) 法眼弘眼. 눈은 도를 통해 무엇이나 널리 꿰뚫어 볼 수가 있음.
- 758) 紅顏白髮. 혈색이 좋은 얼굴에 흰 머리.
- 759) 利不可獨食. 이익을 혼자서 모두 차지해서는 안 됨.
- 760) 我歌査唱. 내가 할 말을 사돈이 한다는 말.
- 761) 堂狗三年. '당구삼년폐풍월(堂狗三年吠風月)(서당개 삼년이면 시를 읊는다.)'의 일부.

- 762) 牛耳讀經. 소 귀에 경 읽기. 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
- 763) 漸不可長. 일의 폐단이 점점 더 커지게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됨.
- 764) 魚東肉西. 제사상을 차릴 때 물고기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다 놓는 것을 이르는 말.
- 765) 左肺右醢. 고기를 말린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 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766) 焚香再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함.
- 767)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가보잡기에서 5, 6, 7을 합해서 여덟끗이 되는 숫수를 가리키는 말.
- 768)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가보잡기에서 1, 3, 5를 합해서 아홉끗이 되는 숫수를 가리키는 말.
- 769) 明其爲賊. 도적질한 것을 밝히는 일.
- 770) 全羅監營. 전라감사가 업무를 보는 곳.
- 771) 東西에도. 동쪽이나 서쪽 어느 쪽에도. 아무쪼록에도.
- 772)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 773)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774) 威名. 위엄을 떨치는 명성.
- 775) 語頭궁기. 말 첫머리를 여는 구멍.
- 776) 風神. 풍채. 드러나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 777) 無雙이지만. (짜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이지만.
- 778)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 779) 日暮黃昏. 날이 저무는 황혼.
- 780) 月出東嶺. 동쪽 산봉우리에 달이 뜬.
- 781) 靑林碧溪. 푸른 숲과 푸른 시내.
- 782)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783) 甘食. 달게 먹음. 맛있게 먹음.
- 784) 身如浮雲. 몸이 뜬구름과 같음.
- 785) 玩景. 경치를 즐김.
- 786)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 787) 五老峯.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다섯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유래하였다고 함.
- 788) 鎮國名山. 나라의 서울이나 성 뒤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여 있는 산.
- 789)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
- 790) 三山.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791) 泰山 嵩山 衡山 華山. 중국에서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산인 오악(五嶽)중의 넷을 가리킴. '오악'은 동악(東嶽) 태산(泰山, 산동성에 있음), 서악 화산(華山, 섬서성에 있음), 남악 형산(衡山, 호남성에 있음), 북악 향산(恆山, 산서성에 있음), 중악 숭산(嵩山, 직례성에 있음)을 이룸. 따라서 오악 중 향산이 빠졌음.
- 792)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 793) 九月山.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에 있는 산.
- 794) 삼각산(三角山). 북한산의 다른 이름. 서울 북부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 있음.
- 795) 계룡산(鷄籠山). 충청남도에 있는 산 이름.
- 796) 蛾眉山.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 797) 首陽山. 중국 산서성의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백이와 숙제가 여기서 굶어 죽었음.
- 798) 上上峰. 맨 꼭대기.
- 799) 緩緩히. 천천히.
- 800) 落照景. 해가 지는 광경.
- 801)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802) 日出景. 해 뜨는 경치.
- 803) 眼下. 눈 아래.
- 804) 森列하니. 뻣뻣히 늘어서니. 여기서는 ‘죽 늘어서 있는 것을 보니’ 정도의 의미.
- 805)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말로, 《맹자》에 나옴.
- 806) 공자를 높이 일컫는 말.
- 807)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 808) 여기에서. 이보다.
- 809)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810) 遊山. 산으로 놀러 다님.
- 811)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812)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813) 江山風景 興味間에. 강산 풍경의 흥미를 즐기는 중에.
- 814) 地上神仙. 지상에 사는 신선.
- 815) 風采. 빛나서 나타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 816) 壯히. 매우. 씩.
- 817) 兩眉間. 두 눈썹 사이.
- 818)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819) 初面에. 처음 얼굴을 대하는데.
- 820) 一介 寒庖.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 821)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석 달.
- 822)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 823) 嚴冬. 아주 추운 겨울.
- 824) 雪寒風. 눈 내리고 찬 바람 부는 추위.
- 825)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 826) 쌓이고.
- 827) 千峰에. 수많은 산봉우리에.
- 828) 鸚鵡鴛鴦. 앵무새와 원앙새.
- 829) 花草木實. 꽃, 풀, 나무열매.

- 830) 던진 듯이. 내던져진 듯이.
- 831)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832) 일월 고조 북해상 소중랑(日月苦楚北海上 蘇中郎). 흉노 땅의 북해(카스피해)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갇은 고생 끝에 19년만에 헤어 돌아옴. '중랑'은 소무가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 833) 三冬. 겨울 석 달.
- 834) 碧桃紅杏. 복숭아꽃과 붉은 살구꽃.
- 835) 春二月에. 봄 이월달에.
- 836) 口腹. 배속.
- 837) 深山窮谷. 깊은 산 속 깊은 골짜기.
- 838) 골짜기마다.
- 839) 올가미.
- 840) 엄착귀.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 841) 峰峰이. 산봉우리마다.
- 842) 매를 받쳐 들고 있는.
- 843) 鷹主. 매 주인. 혹 '웅사'라고도 함. '웅사'는 고려, 조선 시대에 매사냥을 위해 웅방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그곳에 소속된 매사냥꾼을 웅사라고 하였음.
- 844) 올가미.
- 845) 채이거드면. 채이면. 걸리면.
- 846) 結項致死. 목이 졸려 죽음.
- 847) 대랑대랑.
- 848)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물건이나 음식.
- 849) 青天에. 푸른 하늘에.
- 850) 대가리. '머리'의 속된 표현.
- 851) 웅크리고. 몸을 우그려 작게 하고.
- 852) 들어오는. 달려드는.
- 853) 독수리.
- 854) 기슭으로. 산기슭으로.
- 855) 불명. 혹 '음산(陰森)골'이라면, 나무가 우거져 어두침침한 골짜기.
- 856) 지쳐서 힘들게 뛰어가는 모양.
- 857) 짐승들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소리.
- 858) 매사냥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수왈치' 혹은 '수왈치'라고도 한다.
- 859) 海東靑. 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색깔이 푸른 매.
- 860) 그 해에 갓 새끼 매로, 길이 잘 든 매. 기슭의 것이 보라색임.
- 861) 불명. '빼짓은 가벼운 새의 깃털로 만들기 때문에, '두루미의 깃털'을 가리킬 수도 있음.

- 862) 빼짓. 빼짓. 닭이나 기러기 깃에다가 각을 붙인 것. '각'은 '시치미'라고도 하는데, 매가 날아가 버렸을 때 매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매의 꼬리에다 주인의 주소와 이름, 매의 이름을 적어 달아두는 꼬리표.
- 863) '공작우(孔雀羽)'인 듯. 공작의 깃털. 공작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매의 꼬리에 단다.
- 864) 불명.
- 865) '도래 장스치 바까치 떨쳐'여야 할 듯. '바까치'는 매의 발목을 맨 가죽끈. '도래'는 매의 발목을 묶은 바까치와 장스치를 연결하는 쇠고리. 회전이 자유스러워 줄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음. '장스치'는 도래에 매 연결된 가죽 줄.
- 866) 덩그렇게. 높이 솟아 당당하게.
- 867) 兩眉間. 두 눈썹 사이.
- 868) 머릿골이 있는 부분.
- 869) 거기.
- 870) 있나요?
- 871) 중턱.
- 872) 松下에. 소나무 밑에.
- 873) 포수(砲手).
- 874) 불을 차리는. 총을 쏘 준비를 하는.
- 875) 都砲手. 포수 중의 우두머리.
- 876)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풀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 877)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입는, 풀을 꼴은 적삼.
- 878) 불명. 혹 '상사(相思) 밤을'로 보아, '토끼를 생각하며 지새는 밤을'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함.
- 879) 倭物. 일본 물건.
- 880) 鳥銃. 구식 화승총의 옛 이름.
- 881) 덮사슬. 이중 탄환.
- 882) 고추같은.
- 883) 쟁그리고.
- 884) 내려지. 내려가지.
- 885)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와 목동.
- 886) 둘러메고.
- 887) '서로 부르며'의 뜻인 듯하나 분명치 않음.
- 888) 개를 부르는 말.
- 889) 후드득. 의성어.
- 890) 술청 앞에 서서 마시는 술.
- 891) 樵軍. 나무꾼.
- 892) 肝腸. 마음.
- 893) 白登七日困困 漢太祖 肝腸.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 당해 7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 태조의 마음. 기원 전 200년 흉노가 한나라에 침입해 왔는데, 이 때 한 고조 유방은 친히 30만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 나섰다가, 흉노의 모돈선우(冒頓單



- 于)의 40만의 군사에 의해 백등에서 포위당하였다. 7일이 지난 후에 진평(陳平)이 밀사를 보내어 모돈에게 뇌물을 주어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 894) 赤壁江上火陣中. 적벽강 불 속의. 조조가 적벽강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 의해 불로 공격을 당해 대패했음. '적벽강'은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으로,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895)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자(字).
- 896) 層巖絕壁. 바위가 층층이 쌓인 높은 절벽.
- 897) 石間. 돌 사이. 바위 사이.
- 898) 짧은.
- 899) 사타구니에.
- 900) 끼고.
- 901)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양.
- 902) 쿡구멍.
- 903) 쓴 냄새. 힘든 일을 표현하는 말.
- 904) 밑구멍.
- 905) 조총을 쏘니.
- 906) 八難.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칼·병란.
- 907) 朝生暮死.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는 죽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키는 말.
- 908)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909) '거짓말'의 낮춤말.
- 910) 내어 말을 하는가? '썩다'는 '말하다'의 비어.
- 911) 口辯. 말솜씨.
- 912) 속아가지고. 속아서.
- 913) 觀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수명·길흉·성질 등을 판단하는 일.
- 914) 別天地. 별세계. 속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할 만큼 좋은 분위기의 아주 별다른 세상.
- 915) 天壤之間에. 하늘과 땅 사이에.
- 916) 海乃最大. 바다가 제일 큼.
- 917) 萬物之中에. 세상의 온갖 사물 가운데.
- 918) 神爲最靈. 신이 가장 신령스러움.
- 919)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 920) 間. 집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 921) 주춧돌.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춧. 둥근 기둥 밑에 받침.
- 922) 朱欄畫閣. 단청 칠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누각.
- 923) 半空에. 반 공중에. 하늘 높이.
- 924)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925) 萬族. 온갖 족속.

- 926) 貴示하고, 귀하게 여기고.  
 927) 仰德. 덕을 우러러 봄.  
 928) 鸚鵡盃. 자개를 가지고 앵무새의 부리 모양으로 만든 술잔.  
 929)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맛 좋은 술.  
 930) 千賓玉盤. 천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옥쟁반.  
 931) 不老草.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약초.  
 932)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933) 醉興.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멋스러운 기분.  
 934) 滔滔할 적. 도도할 때. 벅차오르는 감흥을 막을 길 없을 때.  
 935) 美色. 아름다운 여자.  
 936) 妓樂. 기생과 풍류.  
 937) 風流. '멋'과 '맛'을 아는 일.  
 938) 大紅船. 빛깔 고운 큰 놀이배.  
 939) 自言居水勝居山.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함.  
 940) 瑤池.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는 연못.  
 941) 群山. 산의 무리.  
 942) 三千沙場. 길이가 삼천 리나 되는 긴 모래밭.  
 943) 弱手.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초(靑鳥,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944) 海內太平. 바다 속이 태평함.  
 945) 月清明. 달은 맑고 밝음.  
 946) 秋江上. 가을 강물 위.  
 947) 漁笛소리.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948)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949) 涇水. 중국 감숙성 화평현과 고원현의 두 곳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에서 위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국에서는 경수(涇水) · 위수(渭水) · 이수(伊水) · 낙수(洛水) · 한수(漢水) · 소수(灤水) · 상수(湘水) · 장수(章水) · 공수(貢水)를 구류(九流)라고 하고, 황하(黃河) · 양자강(楊子江) · 회수(淮水) · 제수(濟水)를 사독(四瀆)이라고 하고, 절강(浙江)과 양자강을 이강(二江)이라 하고, 동정(洞庭) · 청초(靑草) · 단양(丹陽) · 팽려(彭蠡) · 태호(太湖)를 오호(五湖)라고 한다.  
 950)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951) 洛水. 섬서성 정변현에서 비롯하여 위수와 합쳐져 황하로 들어가는 강.  
 952)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953) 漾水. 섬서성 반충산에서 비롯하여 흐르는 한수의 상류.  
 954) 蒲津. 산서성에서 비롯하여 황하로 흘러가는 포수(蒲水)에 있는 나무인 듯하다.  
 955) 彭蠡(彭蠡). 강서성에 있는 호수인 파양호의 옛 이름.  
 956) 瀟湘. 호남성 동경회의 남쪽 영릉 부근으로, 소수와 상수가 합치는 곳.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소상팔경(瀟湘八景)'으로 유명함.

- 957) 或去或來.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 왔다 갔다 함.
- 958) 赤壁江.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가 귀양가서, 음력 7월 16일 날 밤에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하는 강. 호북성 황강현에 있음.
- 959) 蘇子瞻. 송나라 대문호인 소동파(蘇東坡). ‘자침(子瞻)’은 그의 자(字).
- 960) 采石江.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이 술에 취해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강.
- 961) 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은 그의 자(字).
- 962) 여기.
- 963) 採藥하던. 약을 캐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던 일을 가리킴.
- 964) 秦始皇. 진나라 시황(BC 259-210). 중국 진나라의 초대 황제. 이름은 정(政), 장양왕(莊襄王)의 아들. 기원 전 246년 열세 살 때에 진나라의 왕이 되어 기원전 233-221년에 동방 여러 나라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스스로 시황제라고 칭했음.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폐하고, 군현제도를 실시했으며, 화폐·도량형·문자·물품의 규격 통일, 무기의 물수, 사상 통일을 위해 분서갱유(焚書坑儒).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묻어 죽임)를 하는 등 중앙 집권의 확립에 힘썼음.
- 965) 求仙하던. 신선 되기를 원하던.
- 966) 漢 武帝. ‘한 무제(159-87 B.C.)’는 전한(前漢)의 7대 왕으로,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사상의 통일을 꾀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음. 체제를 정비하고, 국토를 넓혀 대제국을 이루어놓기는 하였으나, 만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정복 전쟁의 결과 재정이 악화되고 사회불안이 더했음.
- 967) (보통에서) 벗어난. 뛰어난.
- 968) 風骨에. 풍채와 골격에.
- 969) 데리고.
- 970) 萬歲同樂. 만 년 동안이나 함께 즐김. 오래오래 함께 즐김.
- 971) 口辯. 말솜씨.
- 972) 속았겠다.
- 973) 양금양금.
- 974) 遠路水邊. 물가까지의 먼 길.
- 975) 왜 그러느냐.
- 976) 착실하거나 미답지 않은.
- 977) 碌碌한. 보잘 것 없는.
- 978) 古人. 옛 사람.
- 979) 兔死狐悲.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 980) 巖穴에. 바윗굴에.
- 981) 길들고. 여기서는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다’는 뜻.
- 982) 林泉. 숲 속에 있는 샘. 변하여 자연을 뜻하기도 함.
- 983) 風月. 청풍(淸風. 맑은 바람)과 명월. 곧, 자연의 아름다움.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
- 984) 同性 삼아 同氣相通. 여기서 ‘동성’은 ‘같은 부류’의 의미로 쓰임. ‘동기상통’은 같은 종류끼리 서로 통합.

- 985) 燕人. 연나라 사람. 전국시대 말 연나라 사람이었던 형가를 가리킴.
- 986) 荊軻. 중국 전국시대 자객.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 정(政)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진왕에게 죽음. 진왕 정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으로 고쳐 불렀음.
- 987) 易水寒風. 역수의 찬 바람. ‘역수’는 중국 하북성에 있는 강 이름. 형가가 진왕 정을 죽이려고 떠날 때, 태자 단과 친구들이 나와서 전송한 곳임.
- 988) 壯士一去. 장사가 한 떠남.
- 989) 거기. 여기서는 역수를 가리킴.
- 990) 千秋 怨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시지 않을 원한.
- 991) 楚 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992) 秦 武關. 진나라의 무관. 무관은 지명. 중국 협서성 상은현 동쪽에 있는데, 진나라의 남쪽 관문이었음.
- 993)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 994) 亂邦不居.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음.
- 995) 여우.
- 996) 不可近. 가까이 할 수 없음.
- 997) 제가. 자기가.
- 998) 지금.
- 999)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 않음.
- 1000)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 나라의 제후 앵(鶯)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되었는데, 이가 혜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를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 1001)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02) 渭水 漁父 姜太公.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가리킴.
- 1003) 文王.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이름은 창(昌). 강태공을 모사로 삼고 국정을 바로잡아 국력을 길러 천하의 반을 통일하였음.
- 1004) 入周. 주나라에 들어감. 강태공이 문왕을 따라 주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리킴.
- 1005) 한기도창(漢既渡倉) 축도난(蜀道難)의 황면장군(黃面將軍) 한신(韓信)이. ‘한기도창’은 ‘한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진창을 이미 건너’라는 뜻. 한신이 진나라와 싸울 때 수령이 많은 진창 지방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일을 말함. ‘축도난’은 ‘험한 축나라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후에는 ‘험한 길’을 뜻하게 되었다. ‘황면장군’은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을 가리키는데, 한신의 얼굴이 누렇다하여 붙인 이름.
- 1006) 蕭何. 한 고조 유방의 참모로, 한신을 천거하여 도원수로 삼게 했다.
- 1007)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1008) 大將壇. 장수가 지휘를 위해 위치하는 단.

- 1009) 따라잡시다.
- 1010) 갑시다.
- 1011)滔滔滔滔. 넘실넘실.
- 1012) 秋江. 가을 강.
- 1013)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곧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가로 읊음, 혹은 그 지은 시.
- 1014) 十里 長江 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긴 강.
- 1015) 거룻배인가.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1016) 五湖上 煙月 속에 范相公 놀던 배인가. 오호의 안개 자욱한 달밤에 범상공이 타고 놀던 배인가. '오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도 하고, 공호, 서호, 매량호, 금정호, 유희의 다섯 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범상공'은 오호에 배를 띄우고 여생을 한가하게 보냈던 범려(范蠡). '범려'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월나라의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재상이 되었으나, 후에 이를 버리고 미인 서시를 데리고 도 지방에 가서 부자가 되어 살았다고 함. 후에 그 재물마저 나누어주고 강호에서 노닐었다고 함.
- 1017) 桐江七里灘. 중국 절강성에 있는 여울인데, 엄자룡이 낚시하던 곳으로 유명함.
- 1018) 嚴子陵. 이름은 광(光). '자룡'은 그의 자(字). 한나라의 광무제와 글공부를 같이 했으나, 광무제가 즉위한 뒤로 이름을 감추고 숨어 살았다. 황제가 그를 찾아 간의대부라는 벼슬을 주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 1019) 洋洋滄波. 끝없이 넓은 푸른 물결.
- 1020) 놀면서 다니는데.
- 1021) 雙雙白鷗. 짝을 지어 노는 갈매기.
- 1022) 흘러가면서 떠 있네.
- 1023) 蕭蕭秋風送雁群. 쓸쓸한 가을 바람이 기러기떼를 날려보내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시 <추풍인(秋風引)>의 '何處秋風送雁群(어디서 오는 가을 바람이 쓸쓸한 기러기떼를 보내는가)'에서 따온 구절.
- 1024) 가느냐?
- 1025) 소상강(瀟湘江). '소상강'은 양자강의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026) 洞庭. 동정호.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중류에 있음.
- 1027) 거기.
- 1028) 한 마디 말을.
- 1029)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030) 鸚鵡前에. 앵무새에게.
- 1031) 잔소리.
- 1032) 하필이면 그날에.
- 1033) 風日. 날씨.
- 1034) 뒤둥그러져. 마구 뒤틀리고 우그러져서.
- 1035) 따뜻한.

- 1036) 웃어른의 밥상.
- 1037) '뒤적거리듯'보다 약한 말. 물건을 들추어가며 뒤집는 것처럼.
- 1038) 자꾸 뒤적거리는 모양.
- 1039) 龍大旗, '용대기'는 교룡기(蛟龍旗). '교룡기'는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큰 기로,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 형질이 달렸음.
- 1040) 잡아당기듯.
- 1041) '자세(藉勢)를 부리는'이라는 의미인 듯. '자세를 부린다'는 무엇을 등대고 세력을 부린다.
- 1042) 아니꼬와서.
- 1043) 발로 물을 구르는 모양.
- 1044) 담가보아.
- 1045) 목까지 물이 차면.
- 1046) 짐승.
- 1047) 片箭, 축이 날카롭고 짧은 화살.
- 1048) '입'의 비어.
- 1049) 엎어져서.
- 1050) 瀟湘八景.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곳에 있는 여덟 가지의 뛰어난 경치. 곧, 평사낙안(平沙落雁)·원포귀범(遠浦歸帆)·산시청람(山市晴嵐)·강천모설(江天暮雪)·동정추월(洞庭秋月)·소상야우(瀟湘夜雨)·연사만종(煙寺晚鐘)·어촌석조(漁村夕照).
- 1051) 대변 후에 닦는 종이.
- 1052) 훌렁훌렁해 버려라. 여럿이 다 또는 잇따라 속의 것이 시원스럽게 드나들도록 완전히 벗어지거나 뒤집히게 해 버려라.
- 1053) '입'의 비어.
- 1054) 瀟湘八景.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곳에 있는 여덟 가지의 뛰어난 경치. 곧, 평사낙안(平沙落雁)·원포귀범(遠浦歸帆)·산시청람(山市晴嵐)·강천모설(江天暮雪)·동정추월(洞庭秋月)·소상야우(瀟湘夜雨)·연사만종(煙寺晚鐘)·어촌석조(漁村夕照).
- 1055) 몸을 바닥에다 바짝 대고 냉큼 엎드리는 모양.
- 1056) 엎드려 가지고.
- 1057) 壯히. 매우. 씩.
- 1058)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1059) 물건이 공중이나 바다에 떠 있는 모양.
- 1060) 茫茫. 넓고 아득함.
- 1061) 滄海. 넓고 큰 바다.
- 1062)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 1063)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1064)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1065) 三江. 중국에 있는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
- 1066)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 1067)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1068)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069) 이것이지만.
- 1070) 曲終入不見. 노래가 끝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음.
- 1071) 數峯. 몇몇 산봉우리.
- 1072) 푸르러 있다.
- 1073)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 1074)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1075) 賈太傅는.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 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닛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1076)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중국 전국시대 굴원이 주위의 참소를 당하고 분함을 못 이겨 빠져 죽은 곳.
- 1077)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맥라수에 빠져 죽었다.
- 1078)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1079)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인사말로 쓰임.
- 1080) ‘하든가’의 강조하는 표현
- 1081)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장현의 서쪽의 황학산에 있는 누각.
- 1082) 日暮鄉關何處是?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는 崔灝의 遺蹟이라.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 준다’는 시구는 당나라 때 시인 최호가 남긴 자취로다. 최호가 쓴 〈황학루〉의 끝 구절. 최호는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 1083)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1084) 三山은 半落青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 1085) 놀던 데요.
- 1086) 尋陽江. 강서성 구장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1087)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1088) 一去後에. 한번 간 뒤에.

- 1089)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1090)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091) 그냥.
- 1092)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1093) 依舊히. 옛과 같이.
- 1094)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1095) 一世之雄. 한 시대의 영웅.
- 1096) 而今에 安在哉오? 지금에 어디에 있는가?
- 1097)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1098) 姑蘇城.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099)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100) 쇠로 된 북소리. 곧 종소리.
- 1101) 客船. 나그네가 탄 배.
- 1102)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103) 隔江. 강을 건너서.
- 1104) 商女들. 술 파는 여인들.
- 1105)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1106)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 1107)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1108)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약양현에 위치한 누대. 당나라 때에 세워졌으며, 아름다운 동정호의 조망으로 유명한 곳임.
- 1109) 湖上에. 호수 위에.
- 1110) 三百尺. 삼백 자. 약 90m.
- 1111) 扶桑. 해 뜨는 곳. 혹은 해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1112) 一輪紅. 해.
- 1113) 魚龍. 물고기와 용.
- 1114) 出沒. 나타났다가 사라짐.
- 1115) 金鷄소리. 평과에 딸린 화려한 새인 금계의 소리.
- 1116) 懸板.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
- 1117) 黃金大字. 황금색의 큰 글자.
- 1118) (큰 물체가)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모양.
- 1119) 새겼는데.
- 1120) 그것일랑은. 그것은.



- 1121) 흑시.
- 1122) 廳令.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
- 1123)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124) 넓은.
- 1125) 伏地하여. 땅에 엎드려.
- 1126) 現身.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 1127) 반겨하시어.
- 1128) 肉脫. 몸이 여위어 살이 빠짐.
- 1129) 겨우.
- 1130) 生擒. 산 채로 잡음. 사로잡음.
- 1131) 待令. 윗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
- 1132) 令. 명령.
- 1133) 左右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의 나졸. '나졸'은 조선조 때 포도청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 1134) 禁軍. 조선조 때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동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아 하던 말 탄 군사.
- 1135) '승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승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136) 巡令手.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1137) 내달려. 갑자기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
- 1138) 秦皇. 진시황.
- 1139) 삼국지를 토대로 해서 쓴 고소설 《산양대전》에서 마초(馬超)가 조조의 부하 장수 한효에게 포위당한 일을 가리킴. 마초는 관우의 도움으로 풀려났음. 마초는 서량태수(西涼太守) 마등(馬騰)의 아들로, 아버지 마등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자, 군사를 일으켜 장안성을 열흘 동안 포위했다가 함락시키는 등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음.
- 1140) 막 무리하게.
- 1141)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1142) 營門出師. 병영에서 군사를 내보냄.
- 1143) 三伏달임. 복날에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기로 국을 끓여 먹는 일.
- 1144)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 1145) 烏鷄湯. 검고 작은 닭인 오계를 푹 삶아 고은 탕.
- 1146) '오계탕 달여 먹고'는 '오계탕을 달여 먹듯이 달여 먹고'의 뜻.
- 1147) 개잡탕.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
- 1148) 만들어.
- 1149) 간단고 하면. 깔끔.
- 1150) 癰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뭉쳐 있는 증세, 또는 그 피. 흔히 무었에 부딪쳤을 때 생김.
- 1151) 內腫. 내장에 난 부스럼.
- 1152) 血痰. 피 섞인 거래.

- 1153)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1154) 돌아가자.  
 1155) 塗炭에. 진흙과 숯불에.  
 1156)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1157) 잡은 소의 네 다리.  
 1158) 회쳐 먹는 간.  
 1159)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것으로, 앞 모양의 많은 조각이 있음.  
 1160)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1161) 꾸며 만들고.  
 1162) 만들고.  
 1163) 先看目後看足이라.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1164) 腰短項長千里馬로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천리마로다.  
 1165) 연나라 소왕(昭王)이 궤외에게 어진 신하를 구하는 법을 묻자, 궤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느 왕이 신하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는 오백금을 주고 죽은 말 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연유를 묻자, 죽은 말의 뼈도 오백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얼마를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천리마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어진 신하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과연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임.  
 1166) 大王前에. 임금님 앞에.  
 1167)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1168) 朱杖대.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1169) 대답하는 말.  
 1170) 藍輿. 뚜껑이 없는, 의자 비슷한 작은 가마. 앞 뒤 각각 두 사람이 메게 되어 있음.  
 1171) 急煞. 갑자기 닥쳐오는 재액.  
 1172) 맞을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1173) 웅두리뻘. 짐승의 정강이에 튀어나온 뼈.  
 1174) 結縛. 몸이나 두 손을 동여 묶음.  
 1175) 동당이쳐. 무엇을 들어 힘차게 내던져.  
 1176) 江漢之將. 큰 강을 지키는 장수.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1177) 川澤之臣. 냇물과 연못에 사는 신하. 냇물과 연못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1178) 擁衛. 부축하여 호위함.  
 1179) 偶然得病하여. 우연히 병이 들어.  
 1180) 名醫에게. 이름난 의원에게.  
 1181)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1182) 갈라보시오.  
 1183) 배 가르는 일을 안 당하려고.  
 1184) 잔소리.

- 1185) 必有曲折. 반드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음.
- 1186) 잘못되느라고.
- 1187) 泰山이 崩頽하여. 태산이 무너져서. 태산이 무너지면 임금에게 재앙이 있다고 함.
- 1188) 五星. 풍수지리설에서 하늘의 형체를 이룬다는 다섯 별인 火星·金星·水星·木星·土星.
- 1189) '陰陰한데'의 잘못. 어두운데.
- 1190)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桀(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 1191)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 1192) '상 주 임금(商 紂 임금)의 잘못.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 1193)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 1194) 일곱 구멍.
- 1195)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 1196) 無故히. 까닭없이.
- 1197) 구멍.
- 1198) 토명(兔命). 토끼의 목숨.
- 1199) 震怒. (존엄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매우 성을 냄.
- 1200) 마땅하지 않은. 옳지 않은.
- 1201) 醫書. 의학 책.
- 1202) 脾受病則口不能食. 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 1203) 膽受病則舌不能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 1204) 腎受病則耳不能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 1205)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 1206) 肝인郎은. 간은 곧.
- 1207) 月輪精氣. 달의 정기.
- 1208) 생겼사옵더니. 생겼기 때문에.
- 1209) 들어나이다. 집어넣습니다.
- 1210) 病客. 아픈 사람.
- 1211) 언뜻하면. 무엇이 잠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 1212) 요구하여 귀찮도록 조르기 때문에.
- 1213) 침녕쿨로 꼬아 만든 노끈.
- 1214) 瀛州. 영주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1215) 石上. 바위 위.
- 1216) 上上가지. 맨 위의 가지.
- 1217) 맨 끄트머리에.
- 1218)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 1219) 玉溪邊에. 맑은 시냇가에.

- 1220) 濯足하러. 발을 씻으러.
- 1221) 玩景次. 구경하러.
- 1222) 一身之內臟. 한 몸 속의 내장.
- 1223) 任意로. 마음대로.
- 1224) 조금도 꺼리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다부지게.
- 1225) 知其一一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 1226)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 1227)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1228)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229)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1230) 길고.
- 1231) 몽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1232) 玉體. 사람의 몸을 높여 부르는 말.
- 1233) 털이 보드랍게 복실복실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1234)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1235) 어거지로 고집스럽게.
- 1236) 들이고. 들어 넣고.
- 1237) 任意로. 마음대로.
- 1238) 구멍.
- 1239) 줄을 지어 죽 벌여.
- 1240) 出入을 합니다. 내고 들이고 합니다.
- 1241) 밀구멍.
- 1242) 내기 때문에.
- 1243) 萬物始生. 만물이 처음 생김(생겼을 때에).
- 1244)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 1245) 南方二七火.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 1246)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 1247)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 1248)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

- 며, 중앙을 가리킨다.
- 1249) 天地陰陽. 온 세상의 음양.
- 1250) 五色光彩. 다섯 가지 색깔의 찬란한 빛.
- 1251) 和하여. 조화시켜.
- 1252) 내기 때문에.
- 1253)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나아 살아남.
- 1254) 名藥. 이름난 약.
- 1255) 病客. 병이 든 사람. 환자.
- 1256) 附庸. 독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
- 1257) 風情次. 풍정을 하려고. 정서와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를 구경하러.
- 1258) 거기에.
- 1259) 碧波水. 푸른 물결이 이는 물.
- 1260) 漢武帝. 중국 전한의 제7대 왕. 묘호는 세종(世宗).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흉노를 외몽골로 내쫓는 등 여러 지역을 정벌하였으며,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동서 교류를 왕성하게 하였다. 재위 기간은 기원 전 141-87년이다.
- 1261) 臣. 신하.
- 1262) 東方朔. 전한(前漢)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천(曼倩). 무제를 섬기어 금마문시중이 되었으며, 해학과 변설에 능하였음.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죽지 않고 장수하였으므로, 삼천 감자 동방삭이라고 일컬음.
- 1263) 遊山. 산으로 놀러다님.
- 1264) 크고 무거운 물건이 물에 떨어져 잠기는 소리.
- 1265) 팔의 난알.
- 1266) 三千甲子. 육십갑자의 삼천 배. 곧 18만 년을 이른다.
- 1267) 渭水邊. 위수의 강가.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268) 씻었더니.
- 1269) 窮八十. 어렵게 산 80년. 강태공은 80년을 어렵게 살다가 후에 80년을 출세하여 부귀하게 살았다고 함.
- 1270) 呂尚. 주나라의 정치가 강태공. 여는 그에게 봉해진 영지 이름이며, 상은 이름이다.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 1271) 飢渴. 목마름.
- 1272) 瓢子. 표주박.
- 1273) 達八十. 높이 되어 부귀를 누린 80년. 강태공은 80년을 어렵게 살다가 후에 80년을 출세하여 부귀하게 살았다고 함.
- 1274)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275)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1276) 조금 많이.
- 1277) 長生不死. 죽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삶.

- 1278) 물부리. 담뱃대의 입에 무는 부분.
- 1279) 모양으로.
- 1280) 때려.
- 1281) 이런.
- 1282) 이야기를.
- 1283) 돼지나 곰의 쓸개를 셀 때 쓰는 수효.
- 1284) 팔의 난알만큼. 팔알 만큼.
- 1285) 卽瘥. 병이 곧 나옴.
- 1286)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라는 의미.
- 1287) 晩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와하는 탄식.
- 1288) 속았것다.
- 1289) 舉證. 증거를 들어 사실을 증명함.
- 1290) 矢石中.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 1291) 膽力.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 1292) 害하는 者. 해치는 사람.
- 1293) 定配. 귀양 보낼 장소를 정하고 귀양을 보냄.
- 1294) 紫霞酒. 시선 세계에 떠도는 자줏빛 구름으로 담은 술.
- 1295)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좋은 술.
- 1296) 麒麟脯. 기린의 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을 하여 말린 고기.
- 1297) 鸚鵡瓶. 앵무조개의 껍데기를 가공하여 만든 술병.
- 1298) 琉璃盞. 유리로 만든 잔.
- 1299) 主人之道理. 주인으로서의 도리.
- 1300) 점잖지 못하고 잡스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1301) 겁이 나는 바람에.
- 1302) 적은 양의 액체 따위를 자꾸 들이마시는 모양.
- 1303) 五六十盞. 오륙십 잔.
- 1304) 字.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 본 이름 외에 부르기 위하여 짓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름.
- 1305)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 1306) 今時初聞. 지금 처음 들음.
- 1307) 春雉自鳴. 봄날 꿩이 제 울음 때문에 들켜 죽는다는 말.
- 1308) 風流.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 1309)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 1310) 王子 旽.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 1311) 鳳피리.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듯함.
- 1312)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곽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곽도원은 격구(擊甌)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313) '질장구'의 잘못. 당나라 대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듯함.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밥을 담는 큰甌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314) 성련자(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315) 張子房.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장량(張良).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음.
- 1316)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
- 1317) 奚琴. 깡깡이를 아악에서 이르는 이름.
- 1318)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 자(字)는 사중(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319) 擊鼗鼓 吹龍笛.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320)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321)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322)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323)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롱(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324)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1325) 흥겨운 신과 멋을 내어.
- 1326) 岵 山 字. '山'이라는 글자
- 1327) 모양으로. 모양처럼.
- 1328) 青布帳. 푸른 색의 포장. 버들가지가 우거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1329) 柳綠帳. '버들의 푸른 장막'이란 뜻으로, 여름이 되어 우거진 버드나무 숲을 가리킴.
- 1330) 春悲春興. 봄날에 느끼는 온갖 흥취.
- 1331) 동이.
- 1332) 노구술. 아무데나 옮겨서 걸고 쓸 수 있는 술.
- 1333) '노고지리'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노구술을 지리'라는 뜻을 담고 있음.
- 1334) 출랑출랑하면서.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면서.
- 1335) 놀며 다닌다.
- 1336) 망둥이.
- 1337) 행동이 멋있고 우직하게.
- 1338) 여기 있다.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1339) 病勢. (더하고 덜한) 병의 형세.  
 1340) 萬萬危重. 매우 위험할 만큼 중함.  
 1341) 本是. 본디. 본래.  
 1342) 奸邪하여.  
 1343) 草木禽獸. 풀이나 나무, 짐승들.  
 1344) 誹笑. 비웃음.  
 1345) 孟獲. ‘맹획’은 남만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1346)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1347) 諸葛亮(181-234).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정치가. 자는 공명(孔明),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나라와 연합하여 조조의 위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였으나,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1348) 아니거든. 아니라면.  
 1349) 九族. 고조, 증조,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및 형제, 사촌형제, 육촌형제, 팔촌형제를 아울러 일컫는 말.  
 1350) 滅하여. 사라지게 하여. 쳐부수어. 여기서는 ‘죽여’라는 뜻.  
 1351) 陵遲處斬. 죄인을 머리, 손, 발, 몸뚱이 따위로 토막을 내는 극형.  
 1352) 餘恨. 남는 한. 못다한 한.  
 1353) 至重. 매우 무거움.  
 1354) 欺罔하라. 속이리. 속이겠는가.  
 1355) 夏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 걸.  
 1356) 虐政. 포악한 정치.  
 1357) 龍逢. 걸 임금의 충신. 옳은 일을 간하다 죽임을 당함.  
 1358) 殺害하고. 죽이고.  
 1359) 未久에.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1360) 亡國. 나라가 망함.  
 1361) 너희.  
 1362) 사귀(鬼邪). 사악한 귀신.  
 1363) 사흘 살 것을.  
 1364)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1365) 沒死시키리다.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다.  
 1366) ‘여기 있다’의 준말.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1367) 돌려가지고. 속아가지고. 속아서.  
 1368) 水邊. 물가.  
 1369) 가.  
 1370) 때려죽일.  
 1371) 앞드려 가지고.  
 1372) 壯히. 매우. 씩.



- 1373) 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 1374)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375) 青天外에. 푸른 하늘 밖에. 푸른 하늘 멀리.
- 1376) 日落長沙秋色遠하니, 不知何處弔湘君고. 해는 긴 모래밭에 떨어지고 가을 산빛은 아득한데,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에 있는 구절.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1377) 君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 1378) 問曰. 물어 말하되.
- 1379) 何以至此하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 1380) '회족청산(回足靑山)하니, 관불과제관(觀不過諸觀)이요, 탁족무림(濯足無臨)하니 태불과봉황(始不過鳳凰)이라. 소무지식(素無知識)하여 유매평생(流魅平生)이라'의 잘못. 청산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라. 본디 아는 게 없어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갔다가)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뻔했다.
- 1381) 越范蠡. 월나라의 범려. '범려'는 중국 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쳐 멸망시켰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 1382) 檻外長江空自流.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藤王閣)〉의 마지막 구절. 난간 밖의 강물만이 부질없이 흐른다.
- 1383) 藤王閣. 중국 강서성 남창현에 있는 누대로, 당 고조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도독(洪州都督)으로 있을 때 세웠는데, 그가 등왕에 봉해졌으므로 등왕각이라고 부른다.
- 1384)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385)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386) 蘇子瞻.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부〉를 썼음.
- 1387) '범주유(泛舟遊)'의 잘못. 배를 띄우고 놀다.
- 1388) 斗牛間.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
- 1389) 白鷺橫江. 백로가 강을 가로질러 감.
- 1390)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 1391) 秋江. 가을 강.
- 1392)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이태백은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393) 空秋月之團圓. 빈 하늘엔 가을달만 둥글다.
- 1394)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 1395)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이 가까움.
- 1396) 沂水. 중국에 있는 강 이름. 산동성에서 발원하여 사수(泗水)로 들어감.
- 1397) 漁釣하던. 낚시질하던.
- 1398) 渭水 漁父 姜太公.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가리킴. 강태공은 속칭이며, 성은 강이고, 이름은 상(尙)임. 중국 주나라의 재상으

- 로 무(武)왕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움.
- 1399)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400) 銀鱗玉尺. 비늘이 은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 1401)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 1402) 가볍게 자꾸 흘겨보는 모양.
- 1403) 廉季達. 충주 출신의 명창. 현종의 총애를 받아 동지(同知) 벼슬을 제수받았다. 권삼득의 창법을 많이 모방하였다고 한다. <장끼타령>과 <홍보가>를 잘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여주 사시던’은 잘못이다.
- 1404) 경기도 민요의 가락.
- 1405) ‘발기다’(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헤쳐 발리다)에서 나온 욕으로, ‘젓어죽일 녀석’이라는 뜻.
- 1406) 너희.
- 1407) 슬기롭기.
- 1408) 나와 같고.
- 1409) 밀구멍.
- 1410) 白雲靑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411) 팔의 난알.
- 1412) 동물이나 곤충의 가슴 부분.
- 1413) 지긋이 힘을 주어 누르는 모양.
- 1414) 것이니까.
- 1415) 보추때기 없는. ‘보추(때기)’는 진취성이나, 활발하며 시원한 성질. 여기서는 ‘버릇이나 싸수가 없는’의 의미로 쓰였음.
- 1416) 들어가보니.
- 1417) 북.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 1418) 月經. 여성의 생리혈.
- 1419) 폭. 충분히.
- 1420) 兩端間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두 가지 중 좌우간에.
- 1421) 正朝. 설날 아침.
- 1422) 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놓고 큰 은덕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고, 묘지에 손질을 하는 날임.
- 1423)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424) 쉬파리의 때. ‘쉬파리’는 파리의 일종.
- 1425)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라는 뜻으로,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 1426) 파리의 알.
- 1427) 슬어주시오. ‘슬다’는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낳기다.
- 1428) 어떠하다는.
- 1429)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 1430) 얹어놓으면.

- 1431) 하늘이요.  
 1432) 뒤집어놓으면.  
 1433) 땅인데.  
 1434) (줄을) 굿거나 접거나 한 자리.  
 1435) 日月. 해와 달.  
 1436) '여기서는 '작은 손가락'이라는 의미.  
 1437) 두 마디이기는. 두 마디인 것은.  
 1438) 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  
 1439) 三才. '삼재'는 음양설에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컫는 말.  
 1440) 집게손가락.  
 1441) 가운데손가락.  
 1442) 못하는 것은. 여기서는 짧은 것을 가리킴.  
 1443) 길기는. 긴 것은.  
 1444) 無名指. 약손가락.  
 1445) 小指. 새끼손가락.  
 1446)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1447) 여기에.  
 1448)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1449) 先天八卦. '선천팔괘'는 주나라 문왕이 만든 후천팔괘와 함께 주역의 근본이 되는, 복희씨가 만든 팔괘.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1450) 佛道. 불교의 진리.  
 1451)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1452)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1453) 여기에.  
 1454)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1455)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1456) 一掌中이니. 손바닥 하나 속에 있으니.  
 1457) '넌들'로 해야 의미가 통함.  
 1458)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낳기는.  
 1459) 분량이 다소 넘치게 많은 모양.  
 1460)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들과 목동.  
 1461) 발채. 지게에 얹어서 짐을 싣는 물건. 싸리나무나 대오리로 몽글 넓적하게 엮어 만드는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1462) '메나리'의 잘못. '메나리'는 경상도 민요의 선율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메나리

조로 된 민요를 뜻함.

- 1463) 생겨나서.
- 1464) 厚薄. 후함과 박함.
- 1465) 무슨 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466) 深深山谷. 깊고깊은 산골짜기.
- 1467) 同志.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친구.
- 1468) 몽똥그려. 되는 대로 몽치어 써서.
- 1469) 위부모보처자(爲父母保妻子). 부모를 위하고, 아내와 자식을 지킴.
- 1470) 極盡恭待. 그 이상 더할 수 없이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471) 애들아.
- 1472) 밀구멍에다가. 항문에다가.
- 1473) 냄새.
- 1474) 내버려라.
- 1475) 죽을 것 같으나?
- 1476)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짐작은 사람.
- 1477)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 1478) 局量. 도량이나 궁리.
- 1479) 나만하며. 나 정도 되며.
- 1480) 運籌決勝.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쟁가지로 주역의 괘를 뽑아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함.
- 1481) 張子房.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모사. 이름은 량(良). 자방은 그의 자(字).
- 1482) 意思. 생각.
- 1483) 神出鬼沒.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쉽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의 비유.
- 1484) 武陵桃園.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흩날리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다.
- 1485) 岐山曠野. 기산의 넓은 들.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古公亶父)가 기산에 터를 잡고 어진 정사를 펴자, 문왕 때에 이르러 봉황이 나와 울었다고 함.
- 1486) 넓은.
- 1487) 데. 곳.
- 1488) 작은 날벌레나 돌팔매 따위가 빠르게 날아가는 소리.
- 1489) '머리'의 비어.
- 1490) 잠수실까요? 잠수시렵니까?
- 1491) 魚頭一味. 물고기는 머리가 아주 맛이 좋음.
- 1492) 대가리. 머리.
- 1493) 쉽지 않으나.
- 1494) 가슴이 애타는 듯하고 구슬픈 태도나 행동.
- 1495)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 1496) 意思주머니. 생각주머니.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듯함.
- 1497) 구멍.
- 1498) 돼지의 창자.
- 1499) 서럽습니까?
- 1500) 내오너라.
- 1501) 닿을 만하면. 닿을 듯하면.
- 1502) 한 장의 절반. 곧, 한 구.
- 1503) 如流하여. 흐르는 물같이 빨라서.
- 1504) 한가한 체하느라고.
- 1505) 독수리야.
- 1506) 해골바가지. 머리를 낮추어 부르는 말.
- 1507) 老來에. 늙어서.
- 1508) 自奉. 자기 몸을 스스로 봉양함.
- 1509) 일이 잘못된 줄을 알고. 일이 안 될 줄을 알고.
- 1510) 卽瘥. 병이 곧 나음.
- 1511) 宛然히.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 1512) 판소리의 맨 끝에 오는 말로, 북소리의 의성어인 듯.